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제임스 길**

# 서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라크라센타, 캘리포니아(미국) 근처인 이튼 지역 산불(Eaton Fire)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심지어 16 명이나 사망하고 소방관 6 명이 다쳤으며 5,718 건물들이 불에 타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2015년 1월 16일). 저는 지난 주 수요일 아침에야 이튼 지역에서 산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한 후 대피 경고(warning)가 저희 지역에도 발행되어서 나쁜 산불 연기로 인해 아내랑 장모님과 처남과 강아지와 함께 대피했습니다. 아내랑 장모님과 처남과 강아지는 제 처제 집으로 갔고, 저는 교회로 가서 목양실에서 한 3일 정도 지냈습니다. 그 때 저는 이튼 산불뿐만 아니라 가장 규모가 큰 팰리세이즈 산불(Palisades Fire) 등을 인터넷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전주 수요일 예배 때(1월 1일) 남녀 혼성 찬양팀원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한 신년 예배(1월 5일) 때 저와 승리 찬양팀원들이 올려드린 “부흥”(“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란 복음성가 가사 중 이 두 마디가 생각났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마도 그 이유는 그 당시 “악마의 바람”이라고 불려지는 샌타애나(Santa Ana)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었는지 저희 집 앞 길에는 전기줄까지 2개나 끊어져서 길가에 놓여 있었을 정도였고 산불은 진압률이 0%이었고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저는 교회 목양실에서 1월 9일 목요일 아침에 마가복음 4장 35-41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큰 산불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마가복음 4:37,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좀 더 묵상할 때 약 22년 전엔가 한국 안산 수양관에서 교회 목회자 갱신 협의회(교갱협) 수련회 때 고 옥한흠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배로 표현하시면서 지금 이 배(교회)가 침몰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 그 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기준을 낮추면 한국 교회는 배가 침몰하듯이 망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번 산불을 사진과 동영상 찍고 여기저기 인터넷과 카카오톡으로 사람들하고 나누다가 갑자기 지난 주 수요일 예배 때(<https://youtu.be/8jC7qEvXVcw?si=hwLdzcNiJD90KnVp>)와 주일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 복음성가 “부흥”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 이 큰 재난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부터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revival)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기원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확신(conviction)은 성령님이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revival)은 회개(repentance)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저 같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참고: 요엘 2:13)[Repentance (회개), Reconciliation (화목), Restoration (회복), Reformation (개혁), Revival (부흥). 회개가 없는 화목과 회복과 개혁과 부흥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그날(1월 9일, 목요일)에 카카오톡으로 교회 식구들에게도 나눴었는데 어느 한 성도님이 개인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이러한 글을 보내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불렀던 ‘부흥’ 목사님께서 승리방에 올리신 것과 글을 보며 제게도 마음에 넣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네요. 지금 화재를 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할 말이 되기도 하겠으나 주의 말씀에 기인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오직 주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성결하신 성령의 예리한 지각으로 친히 교훈하심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새해벽두의 대화재는 그야말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성령의 불! 이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우상들을 (외면과 내면 모두) 태우시는 긍휼의 선물이라고 감히 고백하며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몰매 맞을 이야기 맞종? 😊). 세상에선 산타애나 바람을 일명 ‘악마의 바람’ 이라고 지칭하며 바람의 향방을 알 수 없어 진압이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정말 말씀대로 성령은 바람과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기에[(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결코 붙잡지도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역사이며 그 누구도 결단코 막을 길 없는 성령의 바람! 이 맞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부디 이 고통중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젠가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얻는대로 우리의 우상들을 친히 태우시는 (역설적 사랑으로서의) 성령의 불을 도리어 감사함으로 수용하게 하셨던 기이한 성령의 능력을 벅찬 기쁨으로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산증인들로 세움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범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전 의도와 설계대로 이미 완성되었기에 순간 놀랐지만 순간 두려웠지만 순간 슬펐지만...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기적의 평안에 온전히 압도당하는 황홀한 흔적들이 우리 삶에 점점 많아지고 점점 짙어지기를... 온 맘 다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글에 “아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약 6일이 지난 어제(1월 15일) 온라인 수요일 예배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다같이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셔서 저는 집 안방 침대에 걸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며칠 전에 차 안에서 유튜브로 들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한국 나라보다 나라의 시민들이 얼마나 가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따라 인터넷 사역으로 여러 사람들을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kdicaprio74>) 비밀 댓글이나 카카오톡(ID: jamesthemonk)으로 대화를 하고 또한 거의 매년 선교지에 갔다가 한국에 들어서 한 2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부부 관계 문제와 자녀 문제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오고 있는 7 커플들 중에 이미 3 커플이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생각난 것이 바로 “부흥”이란 복음 성가 가사 중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책 원고를 이렇게 오늘 목요일(1월 16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후 작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저 저의 바램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 주시사 주님 중심된 가정(The Lord-centered family)으로 견고히 세워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제임스 김 나눔

(2025년 1월 16일, 사랑하는 친구 고 김익순 형제의 58세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 목차

서론	4
<b>제 1 부: 회개(Repentance)</b>	11
회개	12
회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	13
가정에 재앙,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5
가정생활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16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희생해도) 된다고 배웠던 교회 전통 때문에 ...	16
속히 간통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17
“당신이 그 사람이라”	18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21
우리 가정의 불행을 접해서라도 ...	21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정과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 적용할 때 ...	22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가정 파괴자나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23
부부 관계 ...	23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24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외도)에 대하여	29
“아내의 자격”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	32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가다가 U-Turn 한 경험을 통해 ...	34
"아버지"란 존재	35
내가 크게 잘못된 것	37
용서	39
배우자 용서하기 (1)	42
배우자 용서하기 (2)	43

배우자 용서하기 (3)	44
배우자 용서하기 (4)	45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연결고리?	50
어머니의 딸 “애착”, 딸의 어머니를 향한 “애증”	52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54
죄를 짓는 것은 기회입니다.	59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63

## **제 2 부: 화목(Reconciliation)** 77

가정의 화평의 참 중요합니다.	78
화목한 가정	79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	86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	86
가정이란 ...	87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89
그 형제와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	90
부부 싸움에 관하여	91
부부 갈등에 관하여	94
가난할지라도 집안이 화목한 것이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95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6
부부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100
‘감정적 친밀함’(Emotional Intimacy)	101
감정 속임수? (Emotional Cheating?)	103
아내와 가정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	105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투는 때에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106
진심을 나누는 가족 식사	109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	110
죽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111

## **제 3 부: 회복(Restoration)** 112

회복이란 ...	113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113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114
회복(Restoration)을 위해서는 ...	118
주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119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119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	120
가정에 대한 교훈 (1)	122
가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	123
가정의 위기	124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	126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126
가정에서 받는 사랑과 상처	126
가정의 위기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127
위기를 통해서라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128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	129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131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회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들은 후 ...	136
고통스러운 감정들 (Painful Emotions)	138
이기적인 마음	145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147
부부 관계의 고비 극복하기 원리/방법(?)	152
각인된 사랑 스타일 [Imprinted Love Style (ILS)]	154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 (The Avoider Love Style)	157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 (The Pleaser Love Style)	161
깨진 부부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168
상담을 통한 교훈	169
“[김진세 박사의 K 상담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	
이혼해야 할까요? 부부행세만 하고 살까요?”	171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	178
사랑하는 첫째 딸 주영(Charis)이를 추모하면서	179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81

옳고 그름의 문제(right and wrong issue)가 아니라 구하는 문제(saving issue)입니다!	182
저희 부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관하여 ...	185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해야(바로잡아야) 합니다!	188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189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세요!’	190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	194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194

## **제 4 부: 개혁(Reformation)** 195

주님 중심된 가정은 ...	196
주님 중심된 가정	197
변화 받는 가정	206
경건한 가정	210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213
돌아갈 때 돌이키십시오!	214
가정에 대한 교훈 (2)	219
가정 사역,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20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221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간교한 사탄	225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236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부부 관계에 적용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242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249
가정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253
우리도 옳을 본받아 가정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254
가정 세우기	255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	256
제 가정의 사명 선언문	256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257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261
강인한 사랑 (Tough Love)	266
주님 중심된 부부	267
주님이 세우시고 있는 우리 부부 관계	269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	271
부부 관계 신뢰 쌓기	280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281
성장하는 부부 관계?	286
신혼 부부의 교회 선택?	290
“거룩한 용기”	291
'징검다리'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292
저는 수 없이 아내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293
아내와 보조를 맞춰 천천히 ...	294
부부 관계의 공간	296
공간(space) 필수?	297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298
현숙한 여인	306
Happy birthday Jane!	330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	331
부모의 의무	333
자녀들에 관한 짧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336
예수님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338
나의 사랑하는 딸 예은(Karis)이의 “헨리 나우웬의 ‘Beloved’(사랑의 존재)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며”라는 글을 읽은 후	341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346
‘보내는 부모가 되세요’ (Become a Sending Parent)	354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성 관계 및 결혼에 관하여 ...	356
자녀의 결혼에 대한 나의 관점	359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	361
나의 믿음의 어머니	364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의 대대 후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길 위해선 ...	365
<b>제 5 부: 부흥(Revival)</b>	366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367
말씀의 부흥 (Revival of the Word)	369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374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 ...	379
참된 부흥?	380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마음	380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381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든 식구	384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385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387
편애하는 부모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392
자녀들이 점점 번영하기 위해선 ...	408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소서.’	410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417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	423
2023 년 나의 가정을 뒤돌아볼 때 ...	447
<b>결론</b>	449

**제 1 부:**  
**회개 (Repentance)**

# 회개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며,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 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딤후 3:5).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한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거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서 아무 회개거리도 찾아낼 수 없을지 살펴보라.”

[토마스 왓슨(Thomas Watson)의 “회개”]

## 회개가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이사야 22 장 12-13 절)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repent)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께 “회복”(restoration)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은 회개의 눈물인데 우리는 회복을 간구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회복이 없는데 지금 우리는 회개의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회복의 필요성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를 인식하며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담대하게 죄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 등에 대하여는 매우 민감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현대인의 성경) “통곡하고 슬퍼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삼베 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사 22:12). 한 마디로 요약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때 그 순간이 그립습니다. 1987년 5월 어느 날 저녁, 대학부 수련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6 장 1-15 절 말씀을 들었을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흘렸던 회개의 눈물이 그립습니다. 그 때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흘리게 하셨던 그 회개의 눈물을 다시금 흘리게

해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개의 눈물이 없는 감사의 눈물이나 기쁨의 눈물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가정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흘림이 없이 가정 사역과 목회를 겨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죄에 대한 회개를 뒷전에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제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22 장 13 절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따라”고 명하셨는데(12 절)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였습니다(13 절). 아니, 어떻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자세가 아닌가요? (고전 15:32)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나요? (눅 17:27)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때에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사 22:2, 현대인의 성경)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의 교회가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마 4:17) 지금 교회는 회개하기를 힘쓰기 보다 예배와 행사 등 여러 면에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현대인의 성경) “이 죄는 그들이 죽을 때까지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사 22:14).

지금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흥청망청 떠들어대며 즐거워할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가정의 죄와 우리 교회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경영하시는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11 절). 또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는 자세로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13 절). 지금은 우리가 웃을 때가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다시 흘리고 싶은,

제임스 김 나눔

(2017년 7월 26일, 나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죄와 성기는 교회의 죄를 회개하길 기원하면서)

# 가정에 재앙,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전 9:11 하반절, 개역한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로서 그저 우연이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Good luck”이란 말, 즉 “행운을 빕니다”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지금 “시기”가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심지어 나라에도 충분히 갑자기 재앙이 밀어닥칠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전도서 9:12 하반절, 현대인의 성경). 마치 도미노(domino)처럼 한 손가락으로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건들면 연달아 뒤에 있는 모든 도미노들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지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보기엔 우리에게 임한 재앙이 연달아 일어나 큰 충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참 많지만 분명히 주권자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사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워(재건해)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하지 않은 재앙적인 일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세우시는(마 16:18) “기회”입니다(전 9:11, 개역개정).

[\[https://youtu.be/UmGSbxcbGiY?si=qYQjZk7lub6x11bi\]](https://youtu.be/UmGSbxcbGiY?si=qYQjZk7lub6x11bi)

# 가정생활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엘가나라는 남자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는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아 보이는데 두 아내 중 자식이 없는 한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고기를 브닌나와 그녀의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준 것을 보면 가정생활을 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삼상 1:2-5, 현대인의 성경). 가정생활은 잘못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요?

##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희생해도) 된다고 배웠던 교회 전통 때문에 ...

누구든지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렸다고만 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위선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섬기기만 하면 가정은 돌보지 않아도(희생해도) 된다고 배웠던 교회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한 것은 아닌가요? (참고: 마 15:5-7, 현대인의 성경)

## 속히 간통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다윗왕은 유부녀 밧세바가 자기 아기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전쟁터에서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싸우고 있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자기에게로 오게해서 그로 하여금 집에 가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던 그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날 밤을 궁전 경비병들과 함께 궁전 문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아는 “우리 군대가 지금 전쟁 중이며 여호와와 궤도 그들과 함께 있고 나의 지휘관인 요압 장군과 그 부하들이 빈 들에서 진을 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아내와 같이 잘 수 있겠습니까?”라고 다윗왕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아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윗 왕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왕은 우리아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먹고 마시며 그를 취하게 한 후 그를 그의 집으로 가게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그 날 밤도 우리아는 집에 가지 않고 궁전 정문의 경비실에서 경비병들과 함께 잤습니다(삼하 11:5-13, 현대인의 성경). 충성된 군인 우리아는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은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왕권을 남용하여 자기 이웃의 아내인 밧세바와 그리도 속히 간통의 죄를 범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처럼 간통의 죄를 범하고 있을까요? 속히 간통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기원합니다.

#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 (사무엘하 12 장 7 절)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종종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서야 늦게나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 등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늦게나마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제가 주제 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와 이런 저런 대화를 한 후 나중에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 대화 내용이 제 자신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저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한 것을 깨닫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노회 모임을 마치고 저녁 식사 때 몇몇 목사님들과 대화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마치 목사님들이 새로운 노회를 가입할 때 이명서를 띠어 오는 것처럼 교회를 옮겨서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에게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적어도 허락을 받고 와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확신있게(?) 나눴습니다. 그런 후 제 자신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한 적이 딱 한 번 밖에 없었는데 그 한번 한 것을 가지고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했을 때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하고 그분들이 들릴 정도로 한 것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말 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제대로 자아성찰해보지도 않고 말을 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수 없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수 없이 말한 내용 중에 아주 조금이나마 늦게 깨닫게 될 때 저는 제 자신을 좀 더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조심이 말을 하자고 스스로 제 자신에게 말해 보지만 또 동일한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 장 7 절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충성된 군인인 우리아의 처인 밋세바와 동침하고(11:4)그 간음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듯 밋세바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5 절)그 죄를 덮고자 그 잉태한 원인을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에게 돌리고자 간교한 계책을 세웁니다(박윤선). 그 간교한 계책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왕궁으로 불러들여 그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쉬게 하도 음식까지 달려 보냅니다(8 절). 그러나 충성된 군인 우리아는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 주의 신복들로 더불어 잡니다(9 절).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간교한 계책을 세웁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한 후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다(13 절). 왜 다윗이 이렇게 두 번이나 우리아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내려가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밋세바가 잉태된 아기가 다윗과 더불어 동참하여 생긴 아기가 아니라 부부인 우리아와 밋세바가 동참하여 생긴 아기인 줄로 생각하게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 때야 뭐 DNA 시험도 없었으니 그 아기가 다윗이 아기인지 우리아의 아기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아는 또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누웠습니다(13 절). 그래서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에서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14-25 절). 그리곤 요압이 보낸 사람을 통하여 전쟁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그 사람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고 요압에게 말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25 절). 어떻게 충성된 자기 군인을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죽여 놓고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죽여 놓고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기에(27 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한 성에 있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죄를 면책하셨습니다(12:1-4). 그 때 다윗은 크게 노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고 말하였습니다(5 절). 죄를 덮고 덮으려고 했어서 자기 양심마저 덮어버려서 그랬던 것인지 다윗은 자기가 그 마땅히 죽을 자인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면책하였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7 절). 이 얼마나 충격적인 면책입니까? 다윗 자신은 분명히 자기 자신은 그 마땅히 죽을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텐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면책하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가 우리가 행한 일들이 죄라는 것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실 때 우리의 양심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나는 그 죽어야 할 사람이 분명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입니까? 자기 죄도 모르고, 자기 주제도 모르는 사람의 분노 가운데 나온 발언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5월 되면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언젠가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정 설교를 했을 때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 아마 그 때 제가 전파한 말씀의 초점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종 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 이 말씀을 아무개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터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처럼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죄를 면책하는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성령의 감인 말씀인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야 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그 칼날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꽂혀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 자신을 영적인 거울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비춰보지 않았던 결과입니다. 자아 성찰과 자아 반성을 게을리할 때 어느 순간에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므로 “내

죄로소이다'라고 고백하기보다 '저 사람의 죄입니다'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 죄를 범한 자인데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범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 얼마나 교만한 죄입니까? 이렇게 범죄하여 범한 죄를 덮고자 할 때에는 웬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조차 내 마음에 덮어버리므로 말미암아 교만함 가운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면책의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범한 죄를 덮고자 하면 양심도 덮어지고, 은혜도 덮어지고, 귀도 덮어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될 텐데 ...

성령의 감을 의지하면서,

제임스 김 나눔

(들춰내시는 죄를 정직하게 자백하며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이복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옥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삼하 13:20, 22, 현대인의 성경). 그로부터 2년 후에(23 절, 현대인의 성경)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옥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 와중에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했습니다(21 절).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아들 암논을 사랑으로 징계는커녕 책망을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던 자기의 딸 다말을 찾아가 위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의 일을 하느라 무지 바빠서 가정 사역을 할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 우리는 가정의 불행을 접해서라도 ...

우리는 가정의 불행을 접해서라도 우리의 교만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 나라에 들어가야 합니다(참고: 마 18:7-9,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낮추는 “이런 어린 아이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예수님의) 아버지를 항상 뵈고 있”기 때문입니다(참고: 10 절, 현대인의 성경).

#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정과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 적용할 때 ...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일)는 불순종했었던 요나 선지자를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케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두번째로 임했을 때 그로 하여금 순종케 하시사 그가 전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외침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되 짐승까지도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여 결국 니느웨 왕부터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게 하시사 진심으로 회개케 하신 것입니다(욘 3 장). 저는 이 말씀을 제 가정과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에 적용할 때 한 가정의 가장이요 주님의 교회인 승리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저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일)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령의 검이요(엡 6:17) 방망이와 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렘 23:29)을 계속해서 듣고(받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제 양심에 찢린바가 되고(참고: 삼상 24:5; 삼하 24:10; 사도행전 2:37), 제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고 냉랭한 마음이 녹아내리므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저와 우리(가정 및 교회)의 죄를 뉘우치고 모든 죄를 계속해서 버리길 기원합니다.

# 진정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가정 파괴자나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면서 미친 듯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가두어 버렸던 사울이(행 5:42, 현대인의 성경),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사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고 사명을 받은 후부터는(9:3-7) 집집마다 다니면서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증거하면서(20:20-2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우리는 가정 파괴자나 교회 파괴자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입술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빌 1:27)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 부부 관계 ...

부부 관계 ... 지극히 작은 일로도 부부가 크게 싸울 수도 ... 그 결과 서로의 관계가 충분히 멀어질 수도 ... 멀어지되 몸은 함께 살지만 마음은 이미 걸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멀어져 있을 수도 ... 그러므로 부부는 잘 싸우는 법을 배워야 ... 지극히 작은 촛불이 산불이 되지 않도록 해야 ... 특히 제 3자인 자녀나 부모로 인하여 다투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 다툼 후가 중요 ... 화해 사역을 실패를 통해서도 계속 배워야 ... 화를 가라앉히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 기도할 때 배우자를 향하던 손가락이 나 자신에게 ...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한 후 배우자에게 가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 우리 남편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생각함.

#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이번에 “2024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진 만남들 중 부부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주님 안에서 만남들을 통해 생각하게 된 점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로나마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시도합니다:

1. 부부 관계 안에는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보다(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부부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싸우고 다룰 것인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a. 저희 부부는 신혼 여행에 가서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 6 개월 동안 중매로 소개받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는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약 20 여년 동안 수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부 갈등이나 다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숨기고자 노력하였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부부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어 부부 갈등을 피하거나 숨기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부부 싸움을 잘 싸울 것인지를 배우는데 헌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저에게 자신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눈 지체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부 갈등을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눈 지체들은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었기에 매우 간절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desperate) 지체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은 더 이상 부부가 다투지 않을 정도로 냉전 상태에 있어 보였습니다. 이정도의 부부 갈등은 어떻게 부부가 잘 싸워야 할지 애쓰고 노력해야 할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부 갈등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겸손히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배우자보다)을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부 갈등과 다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 a. 저희 부부의 경우 약 22년 전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첫째 아들 딜런으로 인해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부부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아내를 좀 더 깊게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제 아내는 딜런이 자기처럼 양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고 저는 딜런이 양보하면서 살기를 원해서(저는 부모님에게 그리 배웠기에) 저희가 크게 싸웠었는데 그 때 저는 제 아내가 딸로서 부모님에게 ‘양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딜런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대부분이 부부 갈등과 다툼을 통해 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부 관계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퇴사가 부부 갈등을 극대화하며 부부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원치 않는 남편의 퇴사가 당사자에게도 큰 힘듦과 마음의 무거움 등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을텐데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부부 관계의 갈등과 더불어 부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b.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툼 때에 과거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미해결된 문제들과 상처들이 다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위험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재정적인 압박과 문제가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 관계가 별 문제없이 오히려 좋아보였을 정도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퇴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부부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때 사탄의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범죄할 위험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부의 위기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개혁 혼인”(Reformed Marriage)이란 책에서 저자 더글러스 윌슨(Douglas Wilson)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부부 상담하면서 항상 그의 전제(presupposition)는 ‘남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책임은 남편인 제 자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보기엔 아내가 잘못할 때도 충분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 아내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엡 5:29).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수많은 때에 아내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부부 관계에 범한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어’에서 만난 지체들 중 아마도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한 형제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뿐만 아니라 제 성격상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리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 마음에 그 형제와 그 형제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 마음이 그 형제의 가정을 생각할 때 매우 desperate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부부 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 전혀 몰랐다가 그 형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부인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그 부부의 딸을 일대일로 만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혼자 저를 만나는 게 편치 않아서 엄마라 같이 나왔기에) 그 부인 자매의 말을 마음의 귀로 경청했을 때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마음이 desperate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말하여 그 형제의 집을 밤 10시 40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자매 앞에서 그 남편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생각할 때 그저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5. 부부의 갈등이 극심화 되어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에 부부는 제 3 자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제가 오래 전에 읽은 결혼에 관한 책들에 근거하여 결혼 예비 상담(pre-marital counseling) 원고를 작성했었을 때 부부 갈등의 해결 방법들 중 마지막 방법이 제 3 자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제 3 자란 주로 전문적으로 부부 상담을 하는 부부 전문 상담가를 말합니다.
- b.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제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지체 중 한 명은 아마 부부 전문 상담가도 부부가 만났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부부가 desperate 했으면 부부 전문 상담가까지 만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저같이 전문가도 아닌 목사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갈급해서 그 부부를 만나려고 노력했지만 피치못할 그 부부 사정으로 결국 만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나마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6.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부부요 극심한 암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러한 극심한 부부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 a.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부부의 큰 위기들 가운데 제일 큰 위기는 결혼 초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 말했다는 것은 매우 후회스럽지만 그 때에 저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을 정도로 아내에게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정도로 분노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는 그 때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때에는 지금처럼 정도로 저는 아내와 어떻게 대화(소통)를 해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입을 열어 아내에게 그대로 말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제 아내와의 부부 관계에서 저의 매우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격을 많이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만큼(부부 관계만큼)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어리석음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좋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부 관계를 맺어가고 있던 가운데 결혼 10 주년 때 읽은 책 한

권이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 부부 관계에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저자: 에머슨 에거리치)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결혼 10 주년이 된 어느 하루,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그 책의 12 장(chapters: 6 장은 남편은 읽는 것이고 나머지 6 장은 아내가 읽는 것임) 각 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내에게 묻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때 그 시간이 적어도 저에게는 남편으로서 큰 도움과 유익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부부 생활 27 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일은 저희 부부의 첫째 아기인 주영이의 죽음입니다. 그때만큼 저는 시편 63 편 3 절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경험한 주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때만큼 저희 부부의 위기가 없었지만 첫째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므로 부부 관계의 성장의 큰 디딤돌(steping stone)이 되었습니다.

- b. 저는 지금 부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생각할 때 오직 주님만이 그 부부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은 우리 같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로 다시 살리신(거듭, 중생)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려모로 죽은 것 같은 부부 관계조차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부 위기 가운데 있는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므로 인해 부부 관계에도 큰 변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외도)에 대하여

저는 오늘 새벽에 어느 자매와의 대화 및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후 다시 한번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고민하면서 글을 써 내려가고자 합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해서요.

먼저 저는 "외도"하면 여러 사람들 중에 특히 두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두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남자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데도 다른 젊은 여자들을 강간해서 감옥에 가 있고, 다른 남자는 자기 아내가 외도한다고 생각해서(?) 그녀랑 함께 친하게(?) 지내던 남자를 총으로 쏘서 죽였기에 지금 20년째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이 두 남자들이 생각난 이유는 그들의 아내들과 제가 좀 가까운 인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그 두 여자들은 자신들의 남편하고 이혼해서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외에 제가 생각나는 사람 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여자로서 자녀가 4명인데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까지 생각했다가 결국 이혼을 못하고(?)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자는 제가 여태까지 접한 여러 외도한 남편을 둔 여자들 가운데 제일 본(example)이 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리 생각을 하나면 그 여자의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 그녀는 남편이 요구한 이혼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그녀의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와 남편의 외도 시작부터 함께 기도하고 대화를 했었기에 그녀처럼 하나님께서 그녀의 남편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사 가정을 회복시킨 경우는 처음 보았기에 참 놀라울 뿐입니다. 이러한 가정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외도"에 대한 제 개인 생각을 나눕니다:

1.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옥의 계명인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창 37:5; 신 22:13; 마 24:10; 요일 2:9). 사탄은 배우자를 향한 커지는 미움 속에서 우리 부부 관계의 균열의 틈을 노려(참고: 느 4:3, 히브리어로 "틈"; 6:1) 우리로 하여금 다른 여자/남자를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으로(요일 2:16)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외도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2. 외도하는 미련한 남편은 자기 아내만 사랑하지 않습니다(잠 5:15, 현대인의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도를 하는 것입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그가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며 그녀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다면(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결코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안지 않으며 자식을 낳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16, 20 절, 현대인의 성경).
3. 외도하는 미련한 남편은 욕심으로 인해 자기 아내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시 않을 뿐만 아니라(19 절)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자기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의 귀는 그녀에게 대해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아무리 많은 여자를 보고 들어도 만족함을 모릅니다(전 1:8). 그래서 사탄은 그를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으로 꺾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벧후 2:18). 죄를 짓게 하되 사탄은 그로 하여금 다른 여인을 탐내게 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족한 줄을 모릅니다(사 56:11). 그러므로 탐욕은 그로 하여금 그의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고(잠 5:19) 오히려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듭니다(출 29:17).
4. 외도하는 미련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용서하기를 마음으로 거부합니다(참고: 골 3:13).
5. 부부가 서로의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서로의 몸을 거절하므로 정상적인 성 생활을 하지 않을 때 남편은 다른 여자를, 아내는 다른 남자를 가까이할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 이성에게 끌리는 성적 유혹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사탄이 시험하므로 결국 간음하며 외도하게 됩니다(고전 7:1-5, 현대인의 성경)
6. 부부 카운슬러 M. 게리 뉴먼은 200 명의 남자들 (바람을 피는 사람과 안 피는 사람)을 대상으로 왜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지에 대해 조사 연구 분석을 하였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고 합니다(인터넷): 48%의 남성들은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감정적/정신적인 사랑을 상대방(아내/애인)으로 부터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남자들이 바람을 피는 가장 큰 이유가 아내들로부터 육체적인 친근감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약 8%의 남자들만 “그렇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신체적/육체적 친근감보다, 그들의 아내로부터 “자기야, 고마워”, “자기야, 사랑해” 라는 감정적/정신적 친밀감을 원한다고 합니다. 단,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여자와는 다르게, 남자들은 이런 속에 있는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77%의 남자들은 주위에 바람을 핀 친구나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40%의 남자들은 바람피는 대상을 직장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같은 직장서 만난 여자와 바람을 피게 되는데 그 이유는, 직장내 동료 여인들 또는 후배 여인들로부터의 칭찬과 존경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즉, 남자들은 그들을 인정해 주는 여인한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7.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최악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징계란 “존영 상실”(잠 5:9), “시간 상실”(9 절), “재물 상실”(10 절), “건강 상실”(11 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 절)입니다.
  
8. 이러한 불륜의 관계를 맺지 않기 위해선, 우리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을 가까이하지 말고 멀리해야 합니다(잠 5:8). 특히 우리 부부 관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그 다른 이성을 말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출 20:17). 우리 안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지 않고(잠 5:19) 분수에 넘치게 다른 이성을 쳐다보고(전 1:8) 생각하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골 3:13).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용서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 배우자를 향한 불만을 쌓이고 쌓이면 서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 부부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될 것이고 그러다 결국 우리는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갖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우리는 부부 문제와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 나아가려는 힘든 노력보다 문제와 갈등이 곪도록 그냥 넘어가든지 내버려 두는 편안한 길을 선택하면 아니됩니다.

## “아내의 자격”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

요즘 제가 보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제목이 "아내의 자격"인데 저는 자꾸만 이 제목을 "아내의 자격"으로 읽혀지네요 ㅎㅎ 이 드라마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기 보다 제 개인적으로 왜 남편인 저는 아내의 사랑의 '자격'(?)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제 신학교 동문 목사님들 카톡 방(18명)에 제 아내를 가리켜 "자격수"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제 아내의 "자격"은 정확도가 제가 보기엔 매우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몇 년 전엔가 아내에게 제 설교에 대해서 평가(?)을 물어보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아내의 답변은 제 주일 설교를 수요기도회 때 설교하고, 수요기도회 설교를 주일에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하. 저는 그 말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엔 아내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렸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 제가 수요기도회 때마다 잠언 책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보기엔 그 설교를 주일 예배 때 하는데 더 좋겠다는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주일 설교를 수요기도회 때 하면 좋겠다는 아내의 말도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아내의 말대로 수요기도회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헌신된 분들이기에 그 분들에게 주일 설교가 그분들이 소화하기가 좋다고 저 또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반대로 하고 있었던 거지요. 주일 설교를 좀 대중적으로 쉽게(?) 설교를 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도회 때는 헌신된 분들의 수준에 맞게 설교해야 한다는 식의 아내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때 아내의 답변을 듣고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엔 아내의 "자격" 정확도가 남편인 제가 생각해도 좀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랍니다. ㅎㅎ (그 후로는 제 아내에게 내 설교 오늘 어떠했는지 물어보지 않은 것으로 기억함. ㅎㅎ 아마 그 이유는 또 아내의 정확한 진단이 두렵기 보다(?) 제가 알면서 못 고쳐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기보다 피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음.)

**둘째 이유는, 정확도가 높은 아내의 "자격"은 제 양심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이 찢림은 그 당시는 쉽지만 저에게 유익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초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 아내가 저를 알아가면서 제 신앙생활의 바리새인과 같은 면을 "저격"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격"을 받는 그 순간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인하고 싶고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자아 성찰하면서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면을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실된 신앙인과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그 당시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의 "저격"을 통해 들춰진 제 외식을 생각하는 계기는 되었지만 심각하게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이유는,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내의 정확도가 높은 사랑의 "저격"을 통해 저를 빛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너무나 흠이 많고 부족하고 깎여야 할 모소리가 많은 저에게 사랑하는 아내를 짝지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아내의 "저격"을 통해 저를 깎으시고 빛으시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큰 은혜와 역사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아내의 자격"이란 드라마를 보면서 자꾸만 드라마 제목이 "아내의 저격"으로 읽혀지는가 봅니다. 하하



#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가다가 U-Turn 한 경험을 통해 ...

나는 이 경험을 통해 교훈을 받았다. 그 교훈이란 (1)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목적지로부터 반대방향)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또는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2)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3) 주님께서 내 배우자나 다른 이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것, (4)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되었을 때 U-turn(회개)하는 것, (5) 그러나 나에게 회개할 능력이 없다는 것, (6) 주님만이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신다는 것, (7)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 이러한 교훈을 부부 관계에도 적용케 하셨다. 예를 들어,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 내가 잘못하는 것인데 나는 내 아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더 나아가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 그럼에도 나는 내가 문제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내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는데 나는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나의 잘못을 하나님과 그리도 내 아내에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가 더욱더 주님 중심된 부부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 “아버지”란 존재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오는 주일(6 월 16 일)은 여기 미국에서는 “Father's Day”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오후에 저는 아내와 딜런과 아마 그와 결혼할 제시카와 저희 집 막둥이 예은이하고 저녁 식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요일에 두 형제, 자매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 및 커피 시간을 같이 가졌었는데 우리 셋이서 각자 아버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신(인도하신) 만남이었고 또한 약 37 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각자의 아버지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진솔하게 나눈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뒤돌아보면서 오늘 만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적어도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아버지의 역할이 자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의 아빠로서 어떻게 그들 각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이렇게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만남을 통해 다시금 생각하며 주시는 교훈이나 메시지가 무엇인지 배우는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2. 제가 인터넷 사역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작은 깨달음들 중 하나가 있는데 그 깨달음이란 딸들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크고 깊은 상처를 입게되었다면 그 상처를 가지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자매도 아버지에게 어떠한 상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처음으로 저와 다른 형제에게 자기가 결혼을 안한 이유는 "예방" 차원에서 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녀는 작년에 만났을 때 저에게만 자기 아버지에게 정이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자기 아버지로 인해 자기와 형제들과 특히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하면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입은 상처를 가지고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자기처럼 그렇게 될까 바 예방 차원에서 결혼을 한했다고 말하더군요. ㅠ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녀에게 '너는 네 아버지를 용서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답변은 자기는 아버지를 용서해서 지금 반찬도 만들어 드리고 등등 섬기고 있지만 마음에는 쓰라림(bitterness)/원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90 살이 넘으신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것은 큰 은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녀의 말은 '가족이기에'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녀와 그 형제에게 '나도 내 아버님에게 쓰라림이 있었지만 아버님을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버님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4. 그런데 그 말들을 듣고 있었던 다른 형제는 자신이 아버지를 용서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못했을 수도?). 오히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그의 어머니도 그의 아버지와 떨어져 계신다고 함). 그러면서 그 형제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진솔하게 나눈 말들을 이렇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 a. 나는 혹시 세 자녀들에게 바리새인처럼 엄격한(?) 종교 생활을 가르치면서 나 자신의 의(self-righteousness)를 보여줬고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나는 혹시 그들에게 율법적인 종교 생활을 가르친 것은 아닌가?
  - b. 나는 네 자녀들을 분노케 한 적이 있었을텐데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는가?
  - c. 아무리 자녀의 나이가 50 살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사랑한답시고 이래라저래라 하면서 자녀가 입는 옷까지도 뭐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므로 세 자녀들을 더욱더 신뢰해야겠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5. "아버지"란 존재를 이렇게 다시금 짧게나마 다시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세 자녀들에게 어떠한 아버지일까?'라고 자문합니다. 그저 저의 간절한 바람(기원)은 제가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에 더욱더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린, 예리 그리고 예은이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통로/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흠이 많고 죄가 많은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역사(일)하시사 성령님께서 저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제가 죽은 후에 달린, 예리 그리고 예은이가 저를 추모할 때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나고 또한 '아빠는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셨어'라는 마음이 들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내가 크게 잘못된 것

2024년 7월 21일, 주일 아침.

오늘도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는 제목 아래 6 번째 설교를 해야 한다["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골 3:19)]. 그런데 내 양심에 가책을 느낀다. 그 이유는 지난 주 월요일 사랑하는 사촌 여동생인 수정이의 장례 예배를 드리러 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딸 예리하고 나는 대화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나는 그 때 예리에게 '혹시 너는 이 아빠에게 쓰라림(bitterness)이나 원망(resentment)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 질문을 계획하고 예리에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이미 사랑하는 아들 딜런은 나와 내 아내에게 "I don't have bitterness toward you guys"(나는 아빠와 엄마에게 쓰라림이 없어요)라고 말해줬고(아빠와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데 딜런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딸 예은이도 "Mother's day"(어머니 날) 때 아내랑 같이 식사하면서 내가 예은이에게 '혹시 너는 이 아빠에게 bitterness 나 resentment 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녀는 특히 생각나는 것이 없었는지 없는 것처럼(?) 말을 했기에 이젠 예리한테만 그 질문을 물어보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리는 과거에 아마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에게도 bitterness 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줬다. 나는 예리에게 감사했다. 그래서 나는 예리에게 '미안하다'고 사과(apology)했다. 그런데 내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은 그녀가 우리(부모)에게 bitterness 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왜 bitterness 가 있었는지 설명해줬기 때문이다. 그녀의 말로는 엄마와 아빠가 다툰 후에 각자가 따로 자기에게 상대방에 대해서 말한 것이 싫었다는 것이다. ^^ 나는 그녀의 이 말을 듣고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심각하게 들었다. 왜 내가 과거에 아내랑 다툰 후에 나중에 예리에게 따로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는지 ... 참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참 미련하게 부부 다툼에 내 자녀를 개입시켰다. 이것에 내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내가 그리도 오랫동안 믿고 강조한 것은 부부 관계에 제 3자인 자녀들이나 양가 부모님들이나 in-laws 들을 개입시키면 안된다고 말해놓고서 실제로 나는 부부 다툼 후에 우리 부부 관계에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개입시킨 것이다. ^^^ 나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월요일 자동차 안에서 예리가 솔직하게 왜 자기가

과거에 나와 내 아내에게 bitterness 가 있었는지를 얘기해줬기에 인식하게 되었다. ㅠㅠ 이 정도로 내가 미련한지... 참 답답한 심정이다. 그래서 나는 예리의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는 좀 충격을 받았지만 감사하게도 예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내가 조금이나마 내 큰 잘못을 인식하게 되어서 예리하게 다시 한번 사과(apology)를 했다. 그랬더니 예리는 과거에 자기가 그랬던 것인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자기 친구들과 대화를 해보니 그들의 부모님의 부부 관계의 갈등과 다툼 등을 많이 들었는지 아니면 예리가 철이 들어서 그런지 (둘 다다인듯) 예리는 이젠 아빠와 엄마에게 bitterness 가 없다고 말해주었다. 이것이 자녀를 통해 내가 아빠로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감사.

# 용서

“The cost of forgiveness is great, but the harvest of forgiveness is a beautiful thing …”(용서의 값은 크지만 용서의 수확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용서가 잘 안됩니다. 내게 잘못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그/녀가 용서가 안됩니다.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하며 나는 너무 화가 나고 심지어 나는 그/녀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참습니다. 성경에 ‘사랑은 오래참고’(고전 13:4)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또 그/녀는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녀는 나에게 용서 구할 필요성도 못느끼는가 봅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기가 나에게 잘못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런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용서하기를 거부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합니다. 아니 부부는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두 사람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각각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도 다르고 등등 해서 충동과 갈등으로 인하여 충분히 서로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범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무수한 잘못과 죄를 범한 후에도 우리는 서로 용서를 잘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만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만큼 우리는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만큼 우리는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bitterness)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잘하는 것을 보게하기 보다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잘못들을 보면 볼 수록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는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을 그녀를 대하므로 그녀가 잘못했을 때마다 (마음으로라도) 판단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정죄까지 하는 남편은 결국 자가 아내 앞에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은 말하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서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성도 못느낍니다. 그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자기 아내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판단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를 남편에게 받는 그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결코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녀는 그에게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 등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들은 서로에게 폭파할 것이고 그들의 부부 관계는 깨질 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5).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을 했을 때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해’(I am sorry)라는 말만 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I am wrong)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되 구체적인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이기적이라 내 잘못 보다 내 배우자의 잘못이 더 크고 더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내 배우자를 용서하는 것보다 내 배우자가 내게 용서하는 것을 더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나 자신의 최악된 이기적인 본능과 싸워 이겨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이렇게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큰 값을 치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 8:34). 그러나 이렇게 큰 값을 치루면서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수확은 아름답습니다. 내 배우자가 큰 값을 치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를 용서하심과 같이”해야

합니다(엡 4:32). 나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알고 믿는 나는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또한 그/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눅 11:4).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이 사랑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4년 7월 29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 배우자 용서하기 (1)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 장 32 절)

“용서가 잘 안됩니다. 내게 잘못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심지어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참습니다. 성경이 “사랑은 오래참는다”(고전 13:4)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참고 또 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나에게 용서 구할 필요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가 나에게 잘못하여 내 마음을 아프게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싫고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합니다. 아니, 부부는 서로에게 무수히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다르고, 자라난 배경도 다르고, 각자의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돌과 갈등으로 서로에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두 죄인이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죄를 범할 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그렇게 무수한 잘못과 죄를 범한 후에도 서로를 잘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우리는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고 죄를 지은 만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또,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bitterness)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배우자 용서하기 (2)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6 장 14-15 절)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에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하고 서로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러한 잘못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게 되고 심지어 서로를 비판하며 정죄까지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며 정죄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서로에게 들이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쓰라림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므로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마다 판단하고(마음으로라도) 비판하며 심지어 정죄까지 하면서 “당신은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가 옳다는 것은 인정받고자 합니다. 그 결과 그는 교만하여 자기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하나님께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상처와 쓰라림 속에서 자기 배우자의 잘못과 죄를 보면서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며 심지어 (마음으로라도) 정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판단과 지적과 비판과 정죄를 배우자에게서 받는 상대 배우자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살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상처와 쓰라림 등이 계속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서로를 향해 폭발할 것이고 그들의 부부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배우자 용서하기 (3)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 장 34 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 장 4 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 6:15). 부부는 서로에게 잘못했을 때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잘못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하다(I am sorry)’라는 말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어(I am wrong)’라고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되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못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옛 사람의 본능은 이기적이라 내 잘못보다 상대의 잘못이 더 크고 많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은 상대방을 용서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용서하기를 더 바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나 자신의 죄악된 이기적인 본능과 싸워 이겨서 내 배우자를 용서해야 하니 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값을 치뤄야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또한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막 8:34). 그러나 이렇게 큰 값을 치루어 내 배우자를 용서할 때 그 용서의 수확은 아름답습니다. 내 배우자가 큰 값을 치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나는 상대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나)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합니다(엡 4:32).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수히 죄를 범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고, 지금도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용서하실 것을 믿으며 내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내 배우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눅 11:4).

## 배우자 용서하기 (4)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누가복음 7장 47절, 현대인의 성경)

전에 저는 가끔 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제일 큰 위로자(encourager)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나에게 제일 큰 낙심케 하는 자(discourager)도 된다.’ 제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한 이유는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Jane,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당신의 말이 내 마음에 비수처럼 찔러서 내 마음이 너무나 아파.’ 그랬더니 그 때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나에게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말에 감사하다 고 말할 수 있지. 진짜 내가 자기가 한 말에 상처 입은 것을 몰랐다 말인가? 그럼 앞으로도 내 마음이 아프면 솔직하게 아프다고 아내에게 말해줘야겠다.’ 그 때 그 대화 이후 저희 부부에게는 계속해서 부부 갈등이 있었지만 그 전하고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나마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아야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는지 더 잘 생각(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금이나마 전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된 점들을 터놓고 조심히 그리고 진솔하게 대화하는 습관을 조금이나마 가지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는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기에 위로 받기를 원하며 또한 치유(힐링?)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많은 때에 우리는 그러한 본능조차도 무시된 것처럼 아무 위로와 치유가 없이 우리 배우자에게 받은 상처를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상처가 한 두개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새로운 상처로 인하여 그 쌓인 상처들을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게 되기까지 합니다. 결국에는 폭탄처럼 터져서 부부 관계에 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마치 지뢰밭에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제거하듯히 우리 부부 사이에 깊이 숨겨져 있는 폭탄들을 발견하여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배우자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폭탄 제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하되 우리는 폭탄제거기를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폭탄제거기란 바로 “용서하기”입니다. 우리 마음 밭에 있는 폭탄들을 제거하기 위해선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우리 배우자가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용서 구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배우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먼저 용서할 수 있을까요?

### **첫째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자 자기 집으로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자기 마음 속으로 한 말입니다(36절). 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37-39절).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죄인”인 여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눈물로 자기의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자기 발을 닦고 또한 자기 발에 입맞추는 것을 놔두시고 심지어 향유를 자기 발에 부는 것을 그리 하도록 가만계셨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관점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자기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선지자이시라면(신 18:18) 자기를 만지는 그 여자가 누구며 죄인인 줄을 알고 계셨을 텐데 어떻게 그 죄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만지도록 그냥두실까 그 바리새인은 아마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은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죄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을 의인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여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마음 속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그 죄인 여자를 부정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그 죄인된 여인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도 막지 않으시고 그녀가 자기 발에 행하고 있었던 일도 허락하고 계셨으니 그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두 남녀가 결혼에서 함께 살다보면 서로에게 놀랄만한 일들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결혼 전 연애했 때에는 몰랐던 점들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난 후 그러한 점들이 들춰지고 두 눈으로 우리가 목격할 때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애했 때에는 몰랐던 점들인데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 점들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니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몰랐던 점들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놀라고 충격받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알게 된 점들로 인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실망하며 또한 그 점들을 문제 삼아 부부 관계에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점들을 문제 삼지 않고 우리가 서로 참고 인내하며 많은 때에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잘 보이는 그 문제점들로 인하여 우리 부부는 서로 부딪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 부부는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고 다투는 때 우리는 화가 난 상태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항부로 말하므로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말한 자신은 모를 수 있겠지만). 물론 서로에게 상처를 받는 것은 꼭 상대방이 한 말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부는 충분히 비언어적인 행동으로도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므로 말미암아 각자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하여 서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뼈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서로를 비판합니다(마 7:1).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라도 서로 업신여깁니다(롬 14:3). 또한 우리는 서로 헐뜯기까지 합니다(약 4:11). 심지어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기까지도 합니다(눅 6:37). 이젠 더 이상 우리는 서로의 약한 점을 용납하지 않고 서로의 말까지도 비판합니다(롬 14:1). 그리할 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됩니다(약 4:11). 이 지경까지 오면 우리는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범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녀 앞에서 그/녀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기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많음과 죄의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많음과 크기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깨달아 알면 알아갈 수록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살펴 볼 시간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는 우리 배우자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42절을 보십시오: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36절)인 “시몬”(40절)이라는 사람에게 한 말씀으로써 “빛 주는 사람”이 “빛진 자” 두 사람(한 사람은 500 데나리온 또 다른 사람은 50 데나리온)이 “값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을 때 예수님의 질문은 둘 중에 “누가 그(빛 주는 사람)를 더 사랑하겠느냐”였습니다(41-42절). 그 때 시몬의 대답은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였습니다(43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죄인”으로(39절) 취급한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왜 예수님께서 탕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47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에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현대인의 성경). 예수님께서 시몬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시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47-48절).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에게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은 이유는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47절).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알면서도 하나님과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되 우리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우리 배우자에게는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용서 구하기를 머뭇거리다가 결국에는 기회를 놓쳐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를 옳게 보이려고(눅 10:29)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배우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합리화(justify) 시키려고 해서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지 못하고 우리 배우자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더 많이 보고 있기에 우리는 우리 배우자에게 용서 구하기를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배우자에게 범한 죄를 진정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배우자에게 다가가 겸손히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에게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만일 우리 배우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마음으로 용서할 것입니다. 그 뿐 아니라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우리를 마음으로 용납하여 전보다 우리를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과 배우자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범한 죄를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 범한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복하며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도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 아내에게도 진정으로 자기가 회개하였음을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도 자기 남편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는 사랑하는 그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셨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로 자기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특히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많은 큰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크다는 사실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랑으로 자신의 남편을 용서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 같은 큰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내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용기를 내어 용서하고 아내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죄 많음과 죄의 크기를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많고 큰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넘치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배우자를 용서하기를 먼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배우자 사랑하기, 용서하기,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기에 헌신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14년 10월 25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연결고리?

1.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 중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알아도 충분히 잘 모르고 있기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3.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우리 배우자와의 갈등을 통하여 고통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특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pleaser) 남편이나 아내일 경우 부부 갈등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남편이나 그 아내의 배우자가 회피하는 사람일 경우(avoider) 과도하게 독립적인 사람인지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기적으로 별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이 입으로 내뿜은 직설적인 말로 인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는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조금이나마) 인식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좀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 자기 배우자에게 지나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자기 배우자를 매우 기쁘게하려고 하다보니(그래야 자기가 기쁘니까?) 자기 마음의 왕좌 또는 왕이 앉는 의자에 자기 배우자가 앉아 있을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왕좌에 자신에게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어머니 and/or 아버지가 앉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젠 그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로 대신(replace)한 것입니다.

6. 이것이 제가 보기엔 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나면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왕좌에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인 어머니 and/or 아버지 혹은 배우자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7. 그 정도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충분히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마음은 부모님을 우상 숭배하다가 배우자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대신(replace)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충분히 자녀를 우상화하여 지나치게/과도하게 사랑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8.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정의 큰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 자아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우/지나치게 사랑하는 식구를 우상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버리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으로 하여금 앉으시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9. 그리한 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겸손히 양보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부부 관계도 주관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10. 그리할 때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 부부(사람을 기쁘게 하는 남편/아내와 회피하는 아내/남편)를 어떻게 놀랍게 일(역사)하셔서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보완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조금씩 조금씩 세움을 받게 됩니다.

# 어머니의 딸 “애착”, 딸의 어머니를 향한 “애증”

어머니의 딸 "애착"(attachment)은 그 딸로 하여금 어머니를 "애증"(love and hate)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엔세다나, 멕시코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왕복 시간이 아마 14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은 피곤했지만 주님이 단잠을 주셔서 오늘 아침 일찍 눈이 떠져서 교회 목양실에 일찍 왔습니다. 오늘 주일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치고 이렇게 좀 여유있게 이번에 주신 만남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정에 대해서 주시는 교훈들만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1.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만남을 통해 가정의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으면 한 여자가 자기의 머리를 다 밀어버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큰 고통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 것 같습니다.
2.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눈물이 나려고 할 정도로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딸의 입장에서 어머니를 당연히 사랑하겠지요. 그런데 왜 딸의 마음에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오도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딸과 어머니의 관계를 "애증"(love and hatred)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인가 보죠?
3. 왜 어머니는 딸을 그리도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딸로 하여금 어머니를 증오케 할 정도로 딸의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눈물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머니는 자신의 "애착"(attachment)[(정의: "몹시 사랑하거나 끌리어서 떨어지지 아니함. 또는 그런 마음"(네이버 사전))]으로 인해 자신의 딸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애착"이라면 그 어머니의 애착은 딸로 하여금 어머니를 "애증"(사랑하며 증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만일 어머니가 매우 사랑한다고 말하는 딸, 그 딸 없이는 못 살겠다고 말하는 딸, 자신의 생명과 딸의 생명이 한 줄로 묶여져 있을 정도로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여 떠나보내지 않는다면 그 딸은 평생 어머니로 인해(심지어 어머니가 죽은 후에도) 여러모로(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등등) 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5. 그런데 이러한 병든 어머니와 딸 관계는 그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딸이 결혼해서 딸을 낳으면 그 어머니와 딸 관계도 병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딸이 엄마가 돼서 자기 딸에게는 자신의 어머니처럼 애착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녀가 원치 않게 자신의 딸이 느낄 정도로 어머니의 애착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이러한 가정의 어머니와 딸 관계에서 겪는 극심한 고통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번 엔세나다 멕시코 청소년 연합 집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지금 제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라는 귀한 교훈입니다. 만일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면 더 이상 원치 않는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딸에게 주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딸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더 이상 자신의 어머니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 20:20-21, 현대인의 성경).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리 부탁을 드렸을까요? 물론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리 부탁한 것이지만(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기의 두 아들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뺀) 화를 내는 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6-27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성감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28 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이 성감을 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0 장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적어서 여기 저기 나눴습니다. 그런 후 저는 묵상한 말씀들 중에 위에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위에 묵상 글의 제목대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제일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제 어머님의 사랑을 크고 깊게 많이 그리고 넓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십이 넘으신 후로는 제 어머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머리가 커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저를 낳으셨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자라날 때 자주 아프곤 해서 어머님께서 저를 등에 업고 버스를 두 번인가 갈아타시고 멀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등등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년 5월에 어머니 주일(Mother's Sunday)(여기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새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양드리면 좀 마음이 뭉클하곤 합니다. 1절과 2절 가사만 나눕니다: (1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부르십니다. (2절)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어머니의 집에 찾아 보았을 때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필사하시다가 식탁에 고개를 숙이시고 잠드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앰블런스에 실려 가셔서 응급실에 누워계셨을 때 저항 단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하고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이 외에 수없이 많은 추억들이 제 마음에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제가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들을 제 마음의 병에 고요 있습니다[참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 56:8)]. 동시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제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제 어머니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울게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로 밖에 안되겠지요. 나머지 99%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울게 만든 것은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추측 중 하나는 제가 사춘기 때 어머니의 과잉 사랑에서 뛰쳐나오자 말과 행동으로 제 어머니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여 어머니 혼자 제가 못 보는 데서 많이 그리고 크게 우셨을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어머니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자꾸만 저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잔소리하시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어머니의 과잉 사랑, 과잉 보호에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다는 것이 그만 어머니에게 직설적으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그 싫은 소리들을 들으셨던 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를 낳으실 때부터 매우 고생하셨고 또한 저를 한국에서 어릴 때 양육하시면서 하도 여기 저기 아파서 자식 셋 중에 저에게만 계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영어 알파벳도 몰라서 그 다음 날인가 초등학교에 가서 단어 20개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영영 울면서 다 외우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머니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담이 되었을 정도로 저는 어머니의 과잉 사랑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결정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쓰시고 걱정하시는 등 그러시는 것을 매우 원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40대 초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한의사이신지 교회 장로님에게 온 몸에 침을 맞으셨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평생 혈압 약을 드시는 어머니를 생각할 때 저는 어머니가 저보다 자신의 건강을 신경쓰시길 원했습니다(물론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저와 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진솔하게 나누는 이유는 비록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어머니의 크고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은 자식에게 득(benefit)이 되기보다 해(harm)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식에게 해가 되는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쓴 후 좀 심각한 제 마음의 생각들을 글로나마 적어 내려가면서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저의 짧은 말씀 묵상 글의 제목 그대로 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가 매우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자식도 큰 문제이겠지만 제 생각엔 그러한 자식보다 그 자식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2.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녀가 볼 때에도 ‘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할 정도라면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가정에서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자녀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면 충분히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가 진정 주님을 믿고계신지 모르겠다’하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특히 그러한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여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내 자녀가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제일 높은 위치(지위)에 있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 자녀를 머리가 되게 하여주시고 결코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참고: 신 28:13,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한다면 제 생각엔 그녀의 자녀는 결코 어머니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는 자기 자신이 어머니를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어’라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충분히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는 자녀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묶여있어서 조절(manipulation)당할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해서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을 못하는 어머니는 ‘너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하고 말하면서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과잉 사랑의 기대나 욕심은 자녀의 영혼과 정신과 감정을 죽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이러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들을 엿볼 때에 저는 그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와 독에 물든 관계(toxic relationship)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들은 매우 위험한 독의 물들어 가고 있을 위험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세상적인 사랑으로 인해 독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그녀 나름대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슬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6. 이러한 독에 물든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해독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독제는 우선 세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좀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생명 걸고 자신을 위한답시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사랑’이란 자동차의 엔진이 너무 크고 세니까 오직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사랑의 경주를 지나치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최선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해도 어머니들 중에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 망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독에 물들다가 자포자기하며 죽고 싶을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독기를 품고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숨막혀 하는 자녀를 보면서도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우선은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거리를 뒤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이 아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들은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식에게 올인(all-in)하는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서 홀로서기하면서 자식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녀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는 어머니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참고: 롬 14:23).

8.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어머니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9.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헌신하여 노력하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힘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할 나이의 자녀에게 부모를 떠나 독립하도록 지혜롭게 도와줍니다.
10.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므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자녀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 어머니는 그러한 어머니입니다.



## 죄를 짓는 것은 기회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

(시편 32 편 6 절 상반절)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호세아 2 장 14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개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Therefore I am now going to allure her; I will lead her into the desert and speak tenderly to her).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위기는 자기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거친 들, 즉 광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그들에게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기회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과연 죄를 짓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기회일까요? 좋은 기회라면 무슨 기회인가요? 바로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시 32:6).

오늘 본문 시편 32 편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쓴 시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충성된 군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한 후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묵상할 때 특히 6 절에서 “주를 만날 기회”란 말씀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죄를 짓는 것은 기회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태껏 이런 생각을 해 본적이 없었던 지라 좀 난감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는 것이 기회란 말인가?’라는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시편 32 편 6 절 말씀 중심으로 시편 32 편 전체를 묵상해 나아갔을 때에 진정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죄를 짓는 것은 “나를 누르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2 편 4 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범한 죄를 토설치 아니했을 때에 주님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놀림을 당한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는가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무겁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 마음의 무거움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도 마음에 무거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에 무거움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범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길 것입니다(5 절). 더 나아가서, 우리는 동일한 죄나 혹은 비슷한 죄를 또 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누르시사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시는 것은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손이 주야로 우리를 누르시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둘째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2 편 6 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찌라”. 다윗은 범죄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마음에 무거움 속에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타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2 편 7 절을 보십시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에우시리이다”. 다윗은 자신이 범한 죄의 결과(consequence)로 인하여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 유다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자기의 은신처가 되시는 주님,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주님,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되 그의 대적인 압살롬의 손에서만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범한 죄 가운데서도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누르시사 마음을 무겁게 하시어 죄를 자복하고 회개 기도케 하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넷째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2 편 8 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한 후 자기를 주목하시며 훈계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께서 범죄한 죄인을 주목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왜 주님을 우리를 주목하여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일까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성령님)이 죄를 짓는 우리 안에 (또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여 훈계하셨던 것처럼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 주목하여 훈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죄를 짓고 나서라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죄를 짓는 것은 인자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편 32 편 10 절을 보십시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다윗은 주님의 인자하심(unfailing love)을 경험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다윗, 비록 그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여 주님께 죄를 범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죄를 지은 다윗은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의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 할찌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찌어다”(11 절). 왜 다윗은 그리 외쳤습니까?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자기를 누르시고,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환난에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자기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며, 그리고 자기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은 후 동일한 주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나눔

(2012년 6월 21일, 목요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

## [잠언 14 장 10-35 절 말씀 묵상]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우십니까?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우시면 왜 고통스러우신 것인지요? 만일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우시면 왜 즐거우신 것인지요?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을 나누면 배로 늘어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가 삶 속에 겪는 슬픔이나 기쁨을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잘 나누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좀 하는지 모를지라도 웬지 우리 각자의 슬픔을 잘 나누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나눠도 상대방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슬픔뿐만 아니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기쁨은 어느 누구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 몸이 내 아내나 내 남편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된 교회의 지체들도 우리 각자 마음의 슬픔이나 기쁨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2 장 15 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생각할 때 히브리서 4 장 15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 같이 시련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처럼 우리 교회 지체들이 서로를 체휼하길(sympathize) 원하시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0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고통, 마음의 즐거움”이란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고통”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는지 한 8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로, 우리의 집이 무너질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1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 여기서 “집”이라는 한 주석에 의하면 가족 식구들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소유(물)를 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Walvoord). 만일 그 해석이 맞다면, 이 11 절 상반절 말씀은 악한 자의 집, 곧 그의 가족 식구들이나 소유(물)는 다 망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이 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참고: 시 73).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의 집은 일시적으로 흥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멸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악한 자의 죄악 때문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인들)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의 집도 회개치 아니한 죄악들이 있으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우리 집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집은 그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34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죄는 백성을 욱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욱되게 하다’는 말은 “부족, 혹은 곤고”를 가리킵니다. 즉, 백성이 죄가 많으면 그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물론 이 말은 한 나라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생활이 곤고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원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죄가 많으면 생활이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당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고통은 바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5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욱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말씀도 한 나라의 욱을 끼치는 신하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가정에 적용해 볼 때 한 가정에 죄가 많으면 생활만 곤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빼돌려 나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하므로 부모님께 욱을 끼치고 가정을 부끄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이 죄를 많이 범하므로 자녀들에게도 욱을 끼치고 가정에 큰 수치를 안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안을 가리켜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이 많은 죄로 인하여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와 우리 집안의 죄를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 집안의 죄를 용서하시사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돌이켜 우리 마음에 기쁨(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보기엔 바른 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닌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2 절을 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 16 장 25 절에도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말하였는데 웬지 이 말씀을 솔로몬 왕에게 비취볼 때 그가 보기에 바르게 행한 길은 그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여(왕상 11:1) 그녀들과 연애한 것이라(2 절)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 서로 통하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2 절)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 연애하였습니다(2 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1 장 4 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에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좇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좇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좇음이라”. 결국 그렇게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도 나이 늙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찍이 두 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좇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9-10 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10 절). 그는 결국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믿어서 선택한 길이 사망의 길인 것을 늦게나마 깨닫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잠언 15 장 25 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여호와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므로 죄를 범하였던 교만한 솔로몬에게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이스라엘 나라를 두 개로 찢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두개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 장 24-26 절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우리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우리 집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분쟁이 있으면 온 가족 식구들은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다고 하는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여 선택한 길이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2 절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과연 우리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길인지 아닌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봐야합니다. 점검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고통을 돌이켜 마음에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 **셋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3 절을 보십시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이 순전하지 못하고 길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 곧, 육체의 기쁨이 있는 뒤에는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자기가 보기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는 것이 바르게 보여서 그녀들을 옆에 두었다가 결국 나중에 늙어서는 그녀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두었을 때 그가 얼마나 웃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그녀들로 인하여 솔로몬 왕이 얼마나 근심하고 슬퍼했을까 생각할 때 이 세상의 육체의 즐거움 뒤에는 분명히 슬픔이 뒤따른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오늘 본문 13 절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 등을 추구했었지만 결국 이 세상이 저에게 준 것은 슬픔과 눈물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 두 명이 총에 맞아 숨져서 장례를 치루면서 이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슬픔과 눈물이다 라는 사실을 좀 더 뼈저리게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6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성경은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방자하게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자 방탕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노하기도 속히하여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행한다고 오늘 본문 17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는 오늘 본문 29 절 하반절을 보면 마음이 조급하여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음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습니다(18 절상). 이러한 어리석은 자는 비록 겉으로 웃고 즐거워하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마음에 근심과 슬픔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5 장 13 절을 보십시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마음의 즐거움 보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3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에 슬픔이 있는 웃는 얼굴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겉으로 항상 웃는 사람들을 볼 때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항상 웃고 있는 얼굴 뒤에는 근심의 빛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웃고 있는 얼굴이 빛나지 않는 지체들을 볼 때 마음에 슬픔이나 근심을 포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의 얼굴은 빛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한다면 그 뒤에는 결국 슬픔과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 넷째로, 우리의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4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 여기서 ‘마음이 패려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원래의 악습으로) 되돌아가다, 타락하다’(backslider in heart)(Walvoord)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하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성장이 멈춘 것 같고 오히려 퇴보해 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싸인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에 종종 나타나는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면서 거짓을 좇고 실제로 우리가 또한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되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6:18).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 속으로 남을 해할 계교를 꾸미게 됩니다(박윤선). 그리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14:22).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악을 도모하고 악한 계교를 꾸미고 있다면 우리의 패려한 마음에는 기쁨이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오히려 패려한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대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14 절상).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후 그것을 회개치는 않고 얼마 동안 덮어 놓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소리치며 그 사람을 잡는 날이 온다(약 5:4; 창 4:10). 다시 말하면, 범죄자는 자기가 친히 솔선해서 자기 죄를 잡아내어 그것을 회개하므로 해결해야 된다. 그가 그리하지 않고 넘겨 버리면 그 죄가 그를 따라잡아 그에게 보복을 하고야 만다”(박윤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따라잡아 우리에게 보복을 하고야 만다는 말이 한쪽으로는 동의하면서 또 다른 한쪽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회개치 않은 죄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속이고 속임을 당했던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 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창 47:9). 이 야곱의 고백을 생각할 때 저는 창세기 37 장 34-35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수역소의 피가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을 때 야곱은 그 모든 자녀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하고 요셉을 위하여 울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패려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할 때 그러한 우리의 거짓 행동에는 분명히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란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고통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고통과 슬픔에 잠기지 않기 위해선 우리 마음이 패려해 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가 타락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돌이키시사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 **다섯째로, 우리가 온갖 말을 믿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5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경험, 지식 부족 등으로) 순진해 빠진,” “(모자랄 정도로) 순진한”(naïve) 또는 “남을 잘 믿는, 잘 속아 넘어가는”(gullible)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Walvoord).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 장 8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는 남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이들의 온갖 말을 믿습니다(14:15). 그 한 예가 바로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7 장 7 절부터 나오는 말로 호리는 간교한 계집에게 빠진 (5 절) 한 지혜 없는 어리석은 소년입니다(7 절). 그 소년은 그 간교한 계집의 떠드는 소리와(11 절)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의 호리는 말의 꾀임(21 절)에 넘어가 그녀를 따르되 마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이,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이 하였습니다(22 절).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그는 상하여 앞드러짐과 심지어 사망하기까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6-27 절). 우리가 너무 순진해 빠져서 남의 말을 잘 믿고 잘 속아 넘어간다면 우리는 마음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남의 말을 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마음이 고통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여섯째로,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0 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편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편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있습니다(약 2:1; 참고: 요 7:24). 그래서 교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2 절)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말하면서(3 절)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2 절)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3 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요(4 절) 우리는 가난한 자를 팔시하는 것입니다(6 절).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9 절).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1 절 상반절을 보면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이웃”이란 특히 20 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the poor) 또는 21 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빈곤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사회로부터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20 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21 절).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학대를 당하기도 합니다(31 절). 그러다 보니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하는 현상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30 절 하반절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에서 가난하고 빈곤한 자들은 부자들을 시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며 업신여기며 학대하는 사회에서는 평화가 있기보다 고통과 슬픔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그리할지라도 교회란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구별(차별)하여 편애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도 차별과 편애가 있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형제들은 미움을 받으므로 마음에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편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 **일곱째로, 우리가 말만하고 행함이 없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3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여기서 “입술의 말”이란 실행 없이 말만 하는 것(욘 11:2; 사 36:5)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렇게 입술로 말만하도 행동이 없는 자는 궁핍을 이룰 뿐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4:23). 과연 말만하고 실행이 없는 사람은 어떠한 궁핍을 이룹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두 가지로 말하였습니다(박윤선):

#### **(1) 그는 육신 생활에 궁핍해집니다.**

그 이유는 그는 말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으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으른 자는 수고롭게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창 3:19)을 어기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벌로 궁핍해집니다.

**(2) 말만하고 실행이 없는 게으른 자는 영적 생활에도 궁핍해집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말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 생활이 풍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를 육신 생활이나 영적 생활에 풍부함을 추구하기보다 자꾸만 궁핍함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술로 말만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말만할 때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만큼 우리 연약한 인간은 말하기는 속히 하는데 행동이 느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4 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미련하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미련한 자는 마음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만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을 하고 실행으로 즉시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째로, 우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32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 환난에 앞드러져도 …”.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악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앞드러진다’는 말은 몰리워 간다(driven away)는 뜻으로, 강제로 끌리움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은 환난으로 몰리워 간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악인을 심판하시되 환난으로 그를 삼키게 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범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해도 기도응답이 없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마음에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사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낱알이 아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언제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지 한 7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로, 우리의 장막이 흥할 때에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1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가정은 생활의 곤욕을 당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1 절상).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고 오늘 본문 11 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정직한 자, 곧 진실하게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믿어 그분의 의를 받은 자(박윤선)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그는 장막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가 다 집을 팔고 장막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지혜자 솔로몬왕은 “악한 자의 집은...”이라고 말한 후 정직한 자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막”이라고 말한 이유는 정직한 자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것을 생각하며 살지 않고 오히려 위에 것을 생각하며 하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의 장막은 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참고: 히 11).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천국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소망을 두고 내세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흥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과 교회를 번영케 하실 것이며 또한 안정케 하실 것입니다(Walvoord). 한 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직하여 나라를 공의로 잘 다스릴 때 그 나라는 “의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34 절). 그리할 때 그 의의 나라에는 백성이 많아질 것이요(28 절상)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높여주신다(“영화롭게하고”)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번영과 안정이 있는 나라나 교회나 집에 거하는 정직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하루 하루 살아갈 것입니다.

### **둘째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4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14 절상)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을 믿고 거짓을 추구하며 거짓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을 뱉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일 것입니다. 속이되 만일 우리 마음이 패려하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악한 계교를 꾀합니다. 우리는 마음 속으로 남을 해할 계교를 꾸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을 도모하게 됩니다(22 절상). 이렇게 패려한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한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면(14 절), 즉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아 영혼이 만족하여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3 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명철한 자”처럼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 나아갈 때(박윤선)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되 진실한 성도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함으로(25 절상)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5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란 참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박윤선). 그리고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18 절하).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기 자신의 행동을 삼가하여 어리석은 자처럼 순진하여 무조건 남의 말을 믿고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남의 말을 바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의 뜻만을 찾아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잠언 14 장 8 절을 보면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걷기를 원하는 길을 걷지만(8 절상)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갈 길을 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고전 7:17).

오늘 본문 잠언 14 장 35 절 상반절을 보면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슬기롭게(지혜롭게) 행할 때에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행하는 게 주님 보시기에 슬기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우리 또한 마음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6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기에 스스로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범하면서 방자하게 살아갑니다(16 절상).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악을 떠나 살아가므로 그의 삶에는 안전감이 있습니다(26 절상).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7 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된다(27 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갈 때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32 절). 즉, 우리는 죽음에도 피난처를 얻을 수 있다(32 절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들로서 악을 떠나 살면서 어떠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26 절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9 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악인과 불의자들이 선인과 의인 앞에 엎드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자를 이긴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웬지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면 악인과 불의자가 선인과 의인을 이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보다 더 힘이 좋아서 선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악인들이 선인들을 죽이는 일까지도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인과 의인이 악인과 불의한 자를 이긴다는 진리를 믿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선인들이 악인들을 이긴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굴복한 일(창 42:6)이나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이 모세 앞에 굴복한 일(출 8:28, 9:27, 12:31-33),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던 악인들이 도리어 사자 굴에 던짐이 된 것(단 7:27), 그리고 에스더

서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교수대에서 하만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에 7:9-10)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박윤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 12 장 21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악에게 지면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간다면 우리 마음에는 승리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2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많은 준비를 가지고 중단됨 없이 힘써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사랑)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입니다.

### **여섯째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1 절을 보십시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어기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길 때 우리 마음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하면 할 수록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가 414 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란 노래 1 절 가사를 보십시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오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1 절 하반절을 보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주님을 존경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31 절하). 그 말은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도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아니라 행동으로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겨 사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늘본문 29 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크게 명철함입니다. 우리가 크게 명철할 때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노하기를 더디 할 것입니다(29 절상). 또한 우리는 마음이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겸손히 우리 이웃을 사랑하되 특히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관계에서 마음에 화평을 누릴 것입니다(30 절상).

## 마지막 일곱째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할 때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 우리가 잠언을 묵상하면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몇 번이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말들의 요점은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3 절 상반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만하고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 사람은 궁핍을 이루는 반면에(23 절하)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은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한 3 가지로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 (1)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 장 4 절을 보십시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고 말씀은 부지런한 자는 부지런히 일을 하되 특히 추수 때인 여름에 자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여 수확을 거둔다는 말입니다(5 절).

### (2) 부지런한 사람은 먹을 것이 많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 장 11 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부지런히 일을 하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이익은 먹을 것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 (3) 부지런한 사람은 다른 이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2 장 24 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부지런한 자는 다른 이를 다스리게 되기에 그것 또한 부지려함의 이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익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부지런하여 열심히 수고하면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 찬송가 330 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라는 노래를 찬송하곤 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그 “회개의 사죄”의 노래를 하나님께 부르다 보면 참으로 이 세상에는 고통이 많고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할 때도 참 많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들이 많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비춰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보기엔 바른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걸을 때와 이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할 때, 말만하고 행함이 없을 때 그리고 회개해야하는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30 장을 부르면서 저는 제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 놓고 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서 그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슬프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실망한 이 몸 힘을 주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길 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가정을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 고통을 변하여 마음에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2년 3월 7일)

**제 2 부:**  
**화목 (Reconciliation)**

# 가정의 화평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화평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부부 관계에서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그 갈등 속에서도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평화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부부 관계를 해치는  
모든 제 3 자 관계를 막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제 3 자가 사랑하는 자녀이든 부모님이든 간에  
부부 관계의 화목을 깨트리는 위험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 오는 행복보다 스트레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제거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 화목한 가정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언 17 장 1 절)

여러분, 직장인들의 인생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리미엄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인)가 직장인 23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88.7%가 ‘인생의 최종목표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직장인 10 명 중 9 명은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며 그 1 위는 화목한 가정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최종목표 1 위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27.4%, ‘창업’ 16.0%이었으며 이외에도 ‘세계일주’ 9.0%, ‘내 집 마련’ 8.5%, ‘이직’ 4.2%, ‘종교귀의’ 0.9%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복수응답)으로는 ‘열심히 일을 한다’가 60.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어 ‘돈을 많이 모은다’ 45.8%, ‘인맥을 늘리기 위한 활동을 한다’ 34.4%, ‘매일 열심히 공부한다’ 31.1%, ‘재테크를 한다’ 26.4% 순이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최종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72.2%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를 들었다고 합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8.5%,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7.1%,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6.6%,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 2.4%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17 장 1 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난하게 살아도 가정이 화목한 것이 풍부하면서 가족 식구끼리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가족식구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것을 가족들이 서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레 7:16; 19:6; 삼상 9:24). 그런데 제사(예배)를 드리고 즐겁게 먹어야 할 그 자리에서까지 서로 다투는 가족은 불만이 심각한 가정입니다(박윤선). 상상이 되십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십일조와 감사헌금 등을 드린 후 남은 돈 때문에 가족 식구들끼리 서로 다투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화목함은 풍부함과 궁핍함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생각은 다툼의 원인이 꼭 풍부해서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할 수 있는지를 한 4 가지로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허물을 거둬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7 장 9 절을 보십시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제가 지난 주에 제 개인 페이스북(Facebook)에다 이러한 토론 주제를 올려놓았습니다: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의 기도 제목을 나누기가 두려운(힘든) 것입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마음의 기도의 제목은 신뢰가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합니다. 잘못하면 큰 상처를 받거든요. 온전히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영성이 있는 사람들과 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분 말처럼 기도제목을 내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거둬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마음의 기도 제목을 거둬 말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거둬 말하게 되면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 장 28 절 말씀처럼 “패러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여 다투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관계를 보면 왜 서로 다투니까? 거짓말장이인 사단이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단은 우리 부부 관계를 이간합니까? 바로 거짓말로 이간하되 특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의 허물을 더욱더 잘 보게 하고 그 허물을 자꾸만 우리의 입술로 서로에게 말하게 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하게 하므로 부부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또한 다투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13 장 5 절을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데(keeps no record of wrongs) 사단은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을 우리 생각에 기록해 놓게 만들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서로에게 말하게 만들되 거둬 말하게 만들므로 서로의 인간관계 속에서 다툼과 불화의 결과를 가지고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솔로몬 왕이 잠언 18 장 8 절에서 한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목상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 장 1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5 절).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시편 32 편 1 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무엇입니까? 잠언 10 장 12 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일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되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또한 덮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엡 4:3).

**둘째로,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충고를 받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서로의 충고를 겸허히 들어야 합니다.**

잠언 17 장 10 절을 보십시오: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서로의 허물을 계속해서 들춰내므로 감정이 상하여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자녀들이 서로 다투도록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싸우고 다투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우리는 그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이 미련하여 책망을 해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로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자녀들 중에 충고를 듣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자녀가 있다면 그 얼마나 지혜로운 자녀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녀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지만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의 엉덩이나 종아리를 매 백대로 때린다면 우리 자녀들의 엉덩이나 종아리에 얼마나 큰 자국들이 박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거만하여(잠 9:7) 자기의 잘못에서 뉘우치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에게 충고 한 마디 한다면 외적으로는 몸에 남는 자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녀의 마음에는 우리 부모의 충고가 깊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성경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 예는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인 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책망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사무엘하 12 장 1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즉각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같은 경우는 닭이 울고(눅 22:60)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는 주님의 말씀 곧 “오늘 날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61-62 절). 닭이 울고 주님이 쳐다보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였다니 이 얼마나 총명한 자입니까? 이렇게 총명한 자들은 매 백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과 그의 말씀 충고(책망) 한 마디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또한 회개합니다. 이러한 총명이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총명한 자, 즉 깨달은 자는 한 마디의 충고에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옳은 길을 걸어갑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적어 놓은 책인 논어에 보면 “문일지심”이란 사자성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사자성어의 뜻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는 뜻으로 보통 영재나 천재들처럼 하나만 알려줘도 열가지의 깨우치는 사람들에게 쓰는 말입니다(인터넷). 한 마디 충고를 해도 잘 깨닫고 그 충고를 마음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고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많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옳은 길)을 걸어갈 때 어찌 우리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화목한 가정은 악으로 선을 갚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선으로 선을 갚아야 합니다.**

잠언 17 장 13 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가정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므로 그 가정에는 재앙을 만납니다. 그 성경적인 예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악으로 선을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그와 그의 나라에 충성하고 있었던 밋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이므로 그는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밋세바를 간음한 것처럼 다말을 강간하였고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가족적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압살롬은 나중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가족적 재앙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의를 행한 결과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가족적 재앙을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깨짐과 다침과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현대 가정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우리 가정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기에 지금 많은 가정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가정,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가정,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거만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결국 우리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베드로전서 3 장 9 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때 우리의 입술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힐 때 성경은 복을 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mp3로 성경을 듣다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씀이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잠시나마 묵상할 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도 동일하게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롬 12:21). 우리는 악을 행하기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선을 행하나 상대방이 악으로 갚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외롭지만(시 35:12)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살후 3:13).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가정에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시 34:14).

**넷째로, 화목한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선 다투기 시작하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

잠언 17장 14절을 보십시오: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툼 때에 주로 무슨 일로 다텍니까? 큰 일 때문에 다텍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일로 다텍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본 사자성어 한 3가지를 나눕니다(인터넷): (1) 百年偕老(백년해로): 부부가 되어 서로 사이좋고 화목하게 함께 늙다, (2) 偕老同穴(해로동혈): 부부가 화목하여, 살아서는 같이 늙고 죽어서는 같은 무덤에 묻힘. 부부사이의 화목함, (3) 蝸角之爭(와각지쟁): 달팽이의 뿔 위에서 하는 싸움. 매우 사소한 일로 다툼. 작은 나라끼리 싸움. 이 와각지쟁이라는 사자성어의 배경 이야기는 이렇다고 합니다: “위나라 혜왕(재위 기원전 369~기원전 319)이 제나라 위왕(재위 기원전 356~기원전 320)과 사이좋게 지내자고 굳게 약속을 했는데, 그 뒤 위왕이 약속을 어겨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했다. 혜왕의 신하 공손연이 이 말을 듣고 당연히 군대를 파견해서 쳐야 한다 하고, 계자는 군대를 보내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했다. 혜왕은 머뭇거렸다. 이를 본 대진인이 혜왕에게 “달팽이 왼쪽 뿔에는 촉나라가, 오른쪽 뿔에는 만나라가 있습니다. 언젠가 이 두 나라가 땅을 뺏으려고 싸웠습니다. 죽은 사람이 여러 만 명이었고, 도망치는 적군을 쫓아 보름 만에 되돌아왔습니다”라고 하니, 혜왕이 “뭘야, 항부로 씨불이(지껍지기)냐”고 하자, 대진인이 말을 이었다. “예, 그 ‘항부로 씨불이’의 알맹이를 보여 드리지요. 끝없는 우주 안의 나라들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 작은 나라 중에 위나라가 있고, 위나라 안에 서울이 있고, 그 서울 안에 임금님이 계십니다. 임금님과 달팽이 뿔 위의 나라와 얼마나 다를까요”(인터넷). 결국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이 매우 사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잠언 17장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독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혹시 라스베가스 근처에 있는 후버 댐 가 보셨습니까? 만일 가 보셨다면 그 후버 댐에 아주 조금씩 물이 새기 시작하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후버 댐 위에서 구경하시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 있어서 물이 아주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후버 댐 위에 서서 계속해서 구경을 할 수 있겠는지요? 비록 물이 조금씩 흘러나올 정도의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아마 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면 관광객들로 하여금 피신하라고 하고 야에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사자성어 “水滴穿石(수적천석)”가 적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뜻은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에 구멍을 뚫는다”(인터넷). 비록 큰 댐에 지극히 작은 구멍이라 할지라도 그냥 방관해 놓으면 그 댐이 무너지므로 큰 피해를 도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왕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잠 17:14). 그런데 주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싸울 때에 시비를 그쳐야 하는데 왜 우리는 시비를 그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작은 일로 시작한 싸움이 점점 확대되어 더 큰 싸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야고보서 4 장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싸우는 정욕”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싸우는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정욕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잠언 17 장 19 절 말씀처럼 “다툼을 좋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loves sin)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9 절). 결국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원인은 우리 가운데 있는 싸우는 정욕 때문이요 그 정욕에는 우리 각자가 “욕심”을 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약 4:2). 예를 들어 부부가 싸울 때 보면 서로가 배우자에게 원하는 욕심이 있는 그 원하는 욕심이 만족되지 못할 때,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싸움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 원하는 것(욕심)을 우리가 내려 놓을 때 우리는 싸움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내려놓기가 얼마나 힘들습니까?

여러분, 몽골 선교사인 이용규 목사님이 쓴 “내려놓음”이란 책을 알고 계시죠? 그 후에 쓴 책 제목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합니다. 명문대 하버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잘 나갈 수 있는데도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 주님을 섬기는데 그가 “내려놓음”이란 책에서 강조한 것은 그러한 학벌이나 세속적인 영광을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 장 20 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는 것.’ 이것을 내려 놓음의 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면서 그 책 안에 내용 중 이러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 울고 있는 아이다. 이 아이는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 속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 우리는 우리 속에 어린아이가 있는지 모른 채 그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간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만 안정을 얻고 심을 누릴 수 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든다. 우리가 없는 것에 집착하는 한, 우리가 받은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추구하는 만큼 우리가 세상에 붙들리게 된다. 그만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모습에서 향유 욕함을 본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놀라움 가운데로

물아가며 내 마음을 깊숙이 찢렸다. ‘그런데 옥합이 예수의 발 앞에까지는 드러졌지만,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채로 남이 있으려 하는구나.’ 그 말씀에서 깨어지지 않은 내 자아를 보게 되었다. 예수의 발 앞까지는 갔지만 정작 깨어져야 할 때 깨어지지 않으려는 나의 자존심을 본 것이다.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에서 깊은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나는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했다. ‘하나님, 제 안에서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부분들을 봅니다. 저의 옥합을 깨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발 앞에 드러졌어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향기를 발할 수 없다. 옥합이 깨어져 안에 있는 향유가 다 흘러나올 때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인터넷).

우리나라 옛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간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 말고 부엌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남편이 이유를 물으니 밥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남편은 오늘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더니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며 이것은 자기의 잘못이라 위로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그치기는커녕 감격하여 더 눈물을 쏟았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정을 들은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다고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 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 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 자기 잘못이라고 며느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고 또 자기가 잘못을 뒤집어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화목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운데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동거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일치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가족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 서로 이해, 용서, 위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가정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인터넷).

#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

예수님께서서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막 9:50).

우리가 서로 화목하기 위해선 ... 있어야 합니다:

1. 자기 희생 (막 9:50)
  - a. 마치 소금이 녹아야 하듯이
  
2. 자기 부인 (8:34)
  - a.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3. 겸손 (9:34-37)
  - a. 교만한 사람은 서로 화목할 수가 없음
  
4. 섬김 (9:41)
  - a.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웃을 섬기되 작은 일에 충성

##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부부(또는 가정)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관계가 심각한 부부(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 가정이란 ...

가정이란 ...

부부가 서로에게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주장만 피기보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불만을 불평하기보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곳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곳이지  
각자가 이기적으로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곳이지  
더 깊은 상처는 내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곳이지  
그 잘못을 기억하고 거듭 말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를 용서하는 곳이지  
서로를 미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재정적으로 돕는 곳이지  
돈 가지고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곳이지

자녀를 짐으로 여겨 서로에게 떠 맡기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곳이지

과격할 말로 서로의 마음에 비수를 꽂듯이 상처를 입히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참고 또 참는 곳이지

분노를 분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겸손히 섬기는 곳이지

서로 앞에서 교만하고 거만하며 자만하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한 마음을 품고 함께 한 길을 걷는 것이지

두 마음을 품고 따로 각자의 길을 걷는 곳이 아닙니다.

부부가 ...

#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만족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로 여기기 보다 서로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곳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남편 또한 아내에게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만일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욕구 불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가 가정을 광야로 삼고 부부생활을 한다면 서로의 원함을 요구하기 보다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고자 노력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므로 그의 말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 남편은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부는 각자의 필요를 서로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므로 만족함과 자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각각 따로 자기만의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각각 자기 부모님을 잘 떠나야 합니다(창 2:24). 잘 떠나되 부부 관계에 해가 될 정도인 부모님과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줄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끊을 필요까지 있습니다.

# 그 형제와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

만일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을 하고 난 후에

그 형제와 화해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참고: 마 5:23-2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예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의 수많은 예배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에 이제 싫증이 났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누가 너희에게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하였느냐?’

‘너희는 내 성전 바닥만 밟을 뿐이다’

‘너희는 무가치한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말아라’

‘너희가 들는 예배도 나는 싫어졌다’

‘너희가 주일이나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볼 수 없구나’

‘너희가 드리는 내가 싫어하는 예배는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되어 내가 감당하기에도 지쳤기 때문이다’

(참고: 사 1:11-14, 현대인의 성경).

# 부부 싸움에 관하여

저와 제 아내는 약 20년 동안 참 많이 싸웠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부부 싸움에 관하여 조금이나마 배운 점들을 생각해봅니다:

1. 사소한 일가지고 싸웠습니다. 별거 아닌데 싸우다보니 그것이 습관화되었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그러한 부부 싸움이 하나씩 하나씩 각자 마음에 쌓이다보니 부부가 서로를 향하여 비뚤어진 생각과 관점을 갖게된 것 같습니다. 즉, 우리 부부는 서로에 대하여 건강하지 못한 선입관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각자 마음에 쌓은 것 같습니다.
3. 그러다보니 우리는 싸울 때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저러는 거야'라는 식으로 마음 속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을 내 관점으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4. 그러다보니 우리 부부는 서로를 이해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더욱더 서로를 오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5. 그러한 오해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각자 마음 속에 쌓이다보니 마치 기차가 기찻길을 이탈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도 함께 걸어가야 할 길에서 이탈하여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 같습니다.
6. 그러다보니 우리 부부 관계는 점점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서로를 향한 관심조차도 점점 없어지고 우리는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되어간 것 같습니다.
7. 그러다보니 우리는 부부 갈등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부부 다툼이나 싸움이 점점 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크고 깊은 상처들을 남기게 된 것 같습니다.

8. 특히 우리 부부는 부부 싸움을 했을 때 결코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과 행동들을 하므로 넘지 말아야 선들도 넘었던 것 같습니다.
9. 특히 우리 부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었을 때 그 마음에 상처는 얼마나 우리 부부 관계에 치명적이었는지를 그 순간에는 너무나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서야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멀리 떠난 바닷가에서 항해하는 배처럼 우리 부부는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살고 있었어도 우리 각자의 마음은 이미 서로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10. 이렇게 부부가 육체적으로 가까이 있으면서 마음적으로 멀어져 있는 것보다 육체적으로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1. 그러나 상처를 크고 깊게 받은 마음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상대방을 결코 진심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또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말과 행동은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12. 부부가 용서하기를 거부하고 용서를 구할 필요성조차도 절실히 못 느끼게 되면 부부 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1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넘치는 은혜는 주권속에서 짝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14. 결코 서로를 용서할 수 없어 보일 정도로 절망적이게 보이는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주셨습니다.
15. 그것은 마치 수술대에 누워있는 병든 환자를 의사 선생님이 칼로 썰야할 부분을 썰고 잘라야 할 부분을 자르는 것처럼 주님께서서는 우리 부부의 각자의 마음에 암덩어리처럼 우리 부부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요소들을 조금씩 어쩔 때는 많이 제거해주셨습니다.
16. 그런데 주로 수술을 할 때에는 전신 마취를 한 후 수술을 하므로 환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데 어떤 수술은 너무나 시급한 응급 상황이면 마취도 못하고 수술을 하므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처럼 너무나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부부 관계는 극심한 고통이 수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고통은 주님 보시기에 필수적이기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수술의 고통인 것 같습니다.

17. 부부 관계의 회복에는 필수적인 고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이 크면 클수록 우리 부부 각자의 마음은 더 크게 깨지고 더 확실하게 부서져서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18.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우리 부부로 하여금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19. 그 기적을 경험한 우리 부부는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참으로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은 고통 속에서 깊게 경험케하셨습니다
20. 그러므로 부부 싸움은 우리 각자가 철저히 깨지고 부서져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를 밝히 깨닫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기회요, 주님께 우리 부부 관계를 다 맡기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값진 기회라 생각합니다.

# 부부 갈등에 관하여

A. 부부 갈등을 통해 배워가는 것 중 하나는 어떻게 서로의 다른 점 하나 하나를 보완(complementary)해서 윈-윈(win-win)하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B. 부부 갈등의 유익한 점은 ...

1. 서로의 다른 점을 들춰내 줍니다.
2. 서로의 단점들을 잘 보게 됩니다.
3. 서로의 죄성을 들춰내 줍니다.
4. 서로의 자라난 배경까지 알아 갈 수가 있습니다.
5.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7. 서로에게 무슨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C. 부부 갈등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선 ...

1.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 서로의 단점들을 보는 가운데서 서로의 장점을 의지적으로 더 열심히 보고 감사하며 칭찬하는 가운데 서로의 단점들을 서로 보완하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3. 서로의 죄성을 보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부부가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4. 서로의 자라난 배경을 알아가면서 서로의 부모님에 대해서 알아가므로 부부가 양가 부모님의 사돈 관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5. 서로의 습관이나 성격이나 가치관 등을 알아갈 때에 서로가 고치려고 하든지 비난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근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여 믿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6. 서로에게 원하는 것을 내려놓으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므로 서로의 필요성을 채워주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7.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님의 열매인 절제를 사모하면서 무슨 말과 행동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슨 말과 행동은 서로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부지런히 그리고 겸손히 배워가면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 가난할지라도 집안이 화목한 것이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집안이 화목한 것이 부유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참고: 잠언 17:1, 현대인의 성경). 집안에 마음이 비뚤어진 한 사람이 함부로 혀를 놀리게 되면 그 집안은 언제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참고: 20 절, 현대인의 성경). 다툼은 사소한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미리 시비를 그쳐야 합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하는 자이므로(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집안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창세기 13 장 8 절, 현대인의 성경)

한 2 주전 화요일 온라인 가족 기도 모임 때 에베소서 5 장 31-33 절과 제가 쓴 2 개의 글 중심으로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란 제목 아래 7 가지 생각을 나눴었습니다: (1)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2)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3)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성숙과 지도력이 참 중요합니다, (4)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아내를 우선으로 사랑합니다, (5)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하게 급니다, (6)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7)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이 7 가지 생각 중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하게 급니다”라는 5 번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에베소서 5 장 31 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5 번째 생각을 나눴을 때 고부갈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에서 남편이 에베소서 5 장 31 절 말씀대로 “부모를 떠나”지 못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만일 남편이 부모(특히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면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서 고부갈등은 끊임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남편은 자기 어머니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떠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 사이에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아내와 자기 어머니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자기 아내를 보호하지 못하기에 그 아내를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입고 아픔 속에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부모님을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에 자신의 어머님조차도 제 3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나 형제들이나 친척들 등도 다 제 3 자로 여기고 그들로하여금 자신의 부부 관계에 침투하여 부부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차단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 장 8 절을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아브람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아브람은 자신과 롯과의 관계에서 존재하고 있는 갈등을 전제로 2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2 가지란 “우리는 한 친척이다”라는 말과 “서로 다투지 말자”[(개역개정)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입니다. 저는 이 2 가지 말씀이 우리의 친척들과 관계뿐만 아니라 식구 관계, 특히 부부 관계에도 다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생각할 때 부부 갈등이 있는 경우 남편이 아내에게 ‘우리는 한 몸이다’(엡 5:31, 현대인의 성경), ‘서로 다투지 말자’(창 13:8,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의 갈등을 주님 안에서 해소하고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마 5:9). 오늘 본문 창세기 13 장 8 절에 나오는 아브람은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롯에게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말한 것입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제가 첫번째로 던지게 된 질문은 왜 아브람과 롯, 그리고 아브람의 목자와 롯의 목자끼리 서로 다투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할 때 첫째로 저는 아브람과 롯이 직접 서로 다투다기보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다툼의 원인은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에는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그 땅”이란 어느 곳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땅”은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1 절, 현대인의 성경) “거기서 그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벧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전에”란 창세기 12 장 5-8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5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서(6 절) 아브람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7 절) “그 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벧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벧엘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께 경배”했던 곳입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첫째로 흥미로운 점은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4 절, 현대인의 성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5 절) 벧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있다가(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 다음 점점 가나안 남쪽 지방으로 옮겨갔다가(9 절, 현대인의 성경)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 이집트까지 내려가서 살다가(10 절, 현대인의 성경) 아름다운 자기 아내 사래와 이집트 왕 바로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집트 나라 밖으로 나가게 되어(11-20 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에는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갔다가(13:1, 현대인의 성경) 다시금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인 벧엘과 아이 사이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3 절). 둘째로 생각하게 된 점은 아브람은 그 벧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있으면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는데(3 절, 현대인의 성경; 참고: 12:8)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여 결국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6-7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도 부부가 다툴 수 있고, 식구끼리뿐만 아니라 친척끼리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투되 아브람과 롯처럼 풍부한 물질로 인해 식구나 친척 등 끼리도 다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 장 1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어도 화목 하는 것이 집 안에 먹을 것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현대인의 성경). 물질이 좀 부족하여도 식구끼리 화목한 것이 집 안에 물질이 풍부해서 다투는 것보다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 안에 물질이 많은 게 아니라 집 안이 화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식구 중에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킵니다(28:25).

저는 창세기 13 장 8-10 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게 된 원인인 그들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벨엘과 아이 사이의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2, 6-7 절)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들의 가축이 이렇게 많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가축이 많았던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가축이 많아진 것인지 등등 이런 저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 장을 읽어보니 5 절 현대인의 성경에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보고 원래부터 아브람은 “모든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든 재산”(12:5, 현대인의 성경)이 그 때부터 “너무” 많았을까(13:6, 현대인의 성경)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창세기 12 장 10 절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래와 그의 조카 롯이 머물렀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어올 때 아브람은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남가주, California 는 물가가 너무 올랐고 아파트 렌트비도 그렇고 여러모로 재정적으로 살기가 힘들기에 듣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Texas 나 다른 주로 이미 이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주에서 여기 Los Angeles 로 이사를 오고 싶어도 여기서 사는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물가가 비싸고 해도 부촌이 Beverly Hills 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많기에 타주로 이사 갈 생각도 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을 때 그의 “모든 재산”(5 절, 현대인의 성경)이 충분했다면 그는 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에 가서 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제 생각이 맞는다면 또 다른 질문은 ‘그러면 아브람은 어떻게 자신의 “모든 재산”이 “너무 많아”(13:6, 현대인의 성경)졌을까?’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신 대로 아브람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12:2, 3,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언약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브람을 축복하셨다면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게 하시므로 아브람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시사(10 절, 현대인의 성경)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브람의 아내 사래 덕분에 이집트 왕 바로로 하여금 아브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 종들과 낙타를 주게 하셨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브람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다운 아내 사래 때문에 자기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축임을 당할까봐서 사래에게 “당신은 그들에게 내 누이라고 말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12-13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아내 때문에 축임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 아브람을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축복하시되 바로 왕을 통해 그에게 많은 가축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16 절). 어느 정도로 많았을까 생각할 때 창세기 13 장 2 절 현대인의 성경은 “그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출애굽기 12 장 36 절과 38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은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 그 밖에도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왔고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나왔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시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인 양과 소와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람이나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복하시사 수많은 가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드는 질문은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떻게 가축이 많아졌을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3 장 5 절에서 성경은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6 절에 와서는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롯은 그리 가축이 너무 많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엔 아브람이 하나님께 받은 물질의 축복을 그의 조카인 롯에게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축복하셔서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기에(2 절, 현대인의 성경) 아브람은 그 풍부한 가축과 은금 중에서 어느 정도를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주었기에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풍부한 소유로 말미암아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 즉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아브람은 롯에게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창 13:8,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아브람과 조카 롯은 서로 다투지 않아 보이지만 그들의 목자들은 아브람과 롯의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뽀얗고 아이 사이의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여 서로 다투고 있었을 때 아브람은 롯에게 그 목자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8 절)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투는 자들도 아니요 또한 서로 다투게 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요 화평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사이에는 서로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툼이 많은 것일까요? 소유가 풍부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뭔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서로 다투는 원인이 되게 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물질의 축복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게 하길 기원하고 있는,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7월 23일,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약 4:1-2, 현대인의 성경)]

## 부부 관계를 지켜내야 합니다!

자녀로 인해 부부가 충분히 다룰 수 있듯이 (양가) 부모님으로 인해서도 부부가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툼 속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부부 관계를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감정적 친밀함’ (Emotional Intimacy)

결혼생활에서 감정적 친밀함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Ways You Can Rebuild Emotional Intimacy In Your Marriage)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결혼 (부부) 생활에 있어서 '감정적으로 친밀함(Emotional Intimacy)'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가 감정적으로 친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요성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부가 감정적으로 친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 계기는 제 주위에 가까운 자매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힘들어 하고 심지어 이혼까지 한 자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밑에 글 내용만[결혼 생활에서 감정적 친밀도를 재건하는 10 가 방법 중에 3 가지인 (1) "몸을 사용하여 의사 소통하기," (2) 공감을 표현하세요, (3) 취약성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서 부부 관계에 반영하고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1.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감정적 친밀함'(Emotional intimacy)보다 '믿음 친밀함'(Faith intimacy)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Fact"(사실)인 진리(the truth)의 말씀(the Word)을 아내랑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받은 말씀을 아내랑 나누곤 합니다. 그리고 그 때 그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이뤄나아가고 계신지를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될 때 저는 그것을 제 아내하고 나눕니다. 특히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 세 자녀들 각자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될 때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아내하고 나누곤 합니다. 그러면 아내도 주님께서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므로 저희 부부는 함께 공감하고 함께 인정하며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2. 저는 제 아내와 '마음 친밀함'(Heart intimacy)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저는 제 마음 문을 열고 아내랑 제 마음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눕니다. 저는 제 취약점들도 아내와 솔직하게 나누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제 마음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아내하고 종종 나누고 있습니다. 자녀에 관한 제 마음을 나눌 때 아내도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한 사랑과 한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밤에도 저는 아내하고 제 마음 문을 열고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자녀에 대하여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마음을 아내랑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나눔이 저희 부부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세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더욱더 이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3. 저는 제 아내와 '성적 친밀함'(Sexual intimacy)을 추구하면서[몸을 사용해서 아내와 의사소통하기(?)] 동시에 '감정적 친밀함'(Emotional intimacy)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의 차이(difference) 때문입니다. 남자는 아내와 성적 친밀함을 추구하고 싶은데 여자는 남편과 감정적 친밀함을 추구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가 남편과 성적 친밀함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남자가 아내와 감정적 친밀함을 전혀 추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비록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남자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마음 문을 열고 자신의 감정을 나누고 싶어서 나눌 때가 있습니다(비록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을지라도요). 그 때 아내가 남편의 느낌을 공감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그에게 말한다면 남편의 마음도 충분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어쩌면 여자는 그 외로움을 남편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요). 저의 경우, 근래에 제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의 부인과 그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까지 나오려고 하는 것을 저는 아내에게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때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은 아내가 전화기로 직장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ㅎㅎ 아마 아내도 저에게 자신이 느끼는 것을 나눴을 때 제가 아내의 느낌을 느끼지 못해서 아내도 저에게 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이해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감정적 친밀함을 잘 추구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믿음의 친밀함과 마음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부족하나마 감정적 친밀함을 추구하고 있기에 감정적으로 부부가 서로 연결(connect)이 안되어서 부부 관계가 힘든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이것은 저의 생각임). 그러나 저는 점점 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감정적 연결 및 친밀함을 추구하는데 더 열심히 배워야 함은 좀 느끼고 있습니다.

# 감정 속임수? (Emotion cheating?)

주로 제가 알고 있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불륜 관계'나 '외도'라고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들은 단어가 바로 'emotional cheating'입니다. 한국어로는 '감정 속임수'라고 번역을 하네요. 저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이지만 몇 년 전에 어느 자매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기 남편하고 'emotional connection'(감정 연결?)이 안돼서 이혼했다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감정'(emotion)이 이 정도로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emotional connection'이나 'emotional cheating'이란 단어를 들 다다 각각 다른 자매에게 들었는데 부인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형제들에게는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남자지만 여자 입장에서 '감정 연결'이란 말과 '감정 속임수'에 대해 좀 몇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자매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 부인 자매들 입장에서는 감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 형제들은 부인 자매들만큼 감정이 중요하지 않기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인 자매들은 남편 형제들에게서 '감정 만족'(emotional satisfaction)을 얻기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2. 그 결과 부인 자매들은 남편 형제들에게 '감정 불만족'(emotional dissatisfaction)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감정 불만족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그 결과 부인 자매들은 참다 참다 못하여 어느 시점에서 어느 한 계기를 통해 감정 불만족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인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남편 형제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연결이 끊긴 상태(emotional disconnection)에서 무감각하고 무관심할 정도의 부부 생활을 할 확률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4. 바로 그런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사탄이 그 틈을 노려 비집고 들어와서 극적인 유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극적인 유혹은 남편 형제들이나 부인 자매들에게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에게 감정으로 매력을 느껴 이끌려서 감정 만족을 누리게 되므로 결국에 가서는 감정 속임수(emotional cheating)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예를 들어, 남편에게 감정 불만족이 많이 쌓인 한 부인 자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자매는 남편 형제와의 갈등이 끊임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사탄은 감정의 불만족이 쌓인 부인 자매와 갈등과 다툼 속에서 지친 남편 형제에게(왜 자신의 부인이 감정의 불만족이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함)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하여 부인 자매에게 얻지 못한 위로 등을 얻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남편 형제는 자기 부인에게 얻지 못한 위로 등을 그 여자에게 얻고자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부인 자매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감정적으로 자기를 속이고 있다[감정 속임수(emotional cheating)]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감정 외도(emotional affair)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그 결과 부인 자매는 자신의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계속해서 의심하며 불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녀는 남편에게서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그 결과 부인 자매는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8.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을까요?
9. 먼저 남편 형제(부인 자매도 마찬가지임)는 감정(Feeling)보다 사실(Fact)인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특히 부부 관계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이든 부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즉, 부부 관계의 위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11. 그러한 가운데서 특히 우리 남편 형제들은 아내의 감정을 존중하고 민감하여 아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감정 연결(emotional connection) 및 감정 만족(emotional satisfaction)]. 물론 쉽지 않지요.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하겠지요.

12. 그래서 우리 남편 형제들은 감정의 단계(emotional level)에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끼면서 최종적으로 아내와 사실 단계(fact level)까지 upgrade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의 목표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느끼려고 노력하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정(Feeling)이 우선이 아니라 사실(Fact)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내를 이끌어주고 지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그래서 부부가 사실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그 진리의 테두리에서 감정이 풍부해서 함께 느끼므로 주님 안에서의 부부 관계가 견고하고 풍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 제 생각엔 사실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감정이나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난 감정은 부부 관계에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칠 위험이 많습니다. 부부 관계의 금을 가게 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15.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건강한 감정으로 승화시켜서 부부가 서로 말씀 연결(The Word-connection)이 되면서 건강한 감정도 연결(Healthy emotion connection)이 되어 믿음 안에서 감정의 만족도로 계속해서 높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아내와 가정 화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것, 중요합니다. 가정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룰 때에 자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까요?

어제 목요일, 사랑하는 아내와 막내 딸과 저녁 식사를 하는데 예은이가 문신(tattoo) 사건(?)으로 저에게 섭섭했는지 하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했습니다. 옆에서 듣던 아내가 저의 대변인(spokesperson)이 되어서 저를 방어(defend)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식당이 문닫을 때가 다 되어가서 제가 집에 가서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해서 집에 와서도 예은이는 계속 하고 싶은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옆에 있던 아내가 저를 방어해주기보다 자기도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좀 쏟아냈습니다. ㅎㅎ 그래서 저는 의자에 앉아서 두 손을 모으고(마치 기도하듯이 ㅎㅎ)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딸 예은이의 말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쌍 코피 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ㅎㅎ. 어제 그 대화 내용들을 중심으로 생각나는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1. 예은이는 아빠인 저에 대한 기준(standard)이 높았는데 아무래도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이에게 '고맙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은이에게 '나는 너의 아빠로서 부족하니까 그저 이 아빠의 바램은 내 안에 있는 작은 그리스도를 보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은이는 이 아빠를 매우(?) 대단하게(highly)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아마 저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신 사건으로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아빠를 생각하는 예은이의 기준은 계속해서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하.
2. 예은이의 말에 제가 답변을 솔직하게 했는데(신앙적으로) 옆에서 듣던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예은이 앞에서 저에게 했습니다. 신앙적인 대화도 중요하지만 아내는 제가 아빠로서 딸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자신과 저와의 관계에서 좀 섭섭함(?)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다 듣던 예은이가 울면서 우리 부부에게 이런 저런 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엄마와 아빠가 다투든지 싸울 때 그 자리를 피하던(avoid) 예은이가 아마 처음으로 그 상황을 접하게 되었기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빠 편을 들 수도 없고 엄마 편도 들 수도 없고 중립을 지키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은에게 "I am sorry"(미안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딸에게

미안해서요. 그리고 저는 예은이에게 휴지를 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눈가에 흘린 눈물을 그녀들이 보지 않았을 때 제 손으로 닦았습니다.

3. 예은이는 엄마가 아빠에게 원망(blame)하는 것처럼 들렸나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내는 저에게 불만족이 있는 것을 좀 쏟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은 제가 남편으로 잘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예은이에게 '나는 남편으로서 엄마에게와 아빠로서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부족하여 잘 못한 것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할 자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정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예은이게 저와 제 아내에게 '왜 엄마, 아빠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깎아 내리는냐?'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예은이는 저희 부부를 사랑으로 책망(?)한 것입니다. 그 책망(?)을 들을 때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은이에게 '엄마와 아빠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상황이 예은이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또 울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어제 긴 대화를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도 잘 몰라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데로 3 가지로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한 것은 어제 밤 대화가 저는 귀하고 유익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아빠로서 예은이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말을 저와 아내에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 방에 가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일기를 쓰면서 잘 소화시키도록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집 식구를 위해 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은이에게도 지혜를 주시는 것을 엿보고 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예은이에게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딜런, 예리, 예은이의 마음과 삶 속에 일하시는 모습을 엿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세 자녀들 중에 예은이가 저의 영성(spirituality)을 제일 닳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딜런, 예리, 예은이의 사역 편지가 간증이나 선교 편지를 읽고 한국어로 번역해서 온 가족 친척 식구들에게 나눴는데 그 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각자 자녀들의 마음과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엿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은이가 저와 식성만 비슷한 것이 아니라 영성도 비슷함을 많이 엿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솔직하게 예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부부 관계는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내가 저와의 26년 부부 생활에서 아마도 제일 많이 말한 것 중에 하나가 "different"(다르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만큼 아내와 저는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제 아내가 예은이 앞에서 저에게 한 말 중에 하나는 제가 마음의 벽(wall)이 너무나 높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마도 아내의 입장에서 저를 너무나(?) 사랑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데 제 마음의 벽이 너무 강하고 높아서 힘들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면서 부부 관계를 우선시하여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실, 어제 예은이가 저희 방에서 나간 후 아내와 저는 10 월에 여행 갈 준비를 즐겁게(?) 했답니다. ㅎㅎ 물론 예은이는 모르죠. 저희 부부만의 관계에서 이런 저런 것들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습니다. 어제 예은이가 제가 아빠로서 자녀들의 독립(**independent**)을 너무(?) 강조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세 자녀들이 많이 독립은 했지만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emotional connection**(감정 연결)이 잘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녀들의 독립을 중요시하고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빠인 저와의 관계에서 충분히 감정적인 연결이 잘 안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어제 예은이가 솔직하게 말해주므로 그 때서야 조금 깨닫게 되었고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진심을 나누는 가족 식사

오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아침에는 아내와 저와 단 둘이서만 식사를 했고, 오후에는 아내가 직장에서 일을 한 후 곧장 아내가 선택한 식당으로 식구들이 모여 함께 풍성한 식사를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특히 아내가 딜런과 제시카에게 프로포즈에 관한 것 등 이런 저런 대화를 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는데 보기 좋았습니다. 딜런도 엄마랑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니 보기 좋았습니다. 제시카는 역시 씩씩하게 좋아하는 보쌈을 얼마나 잘 먹던지 ... ㅎㅎ 막둥이 예은이도 하루 종일 라면 하나 먹고 있었다 본데 자기가 좋아하는 양념 계장을 열심히(?) 먹는 모습을 보니 그 모습도 감사했습니다. 식사 후에 아내가 후식으로 차 한잔 등 하고 싶어서 우리 가족이 주로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거기서 저는 계획에는 없었지만 그저 마음 문을 열고 제 진심을 좀 나눴습니다. 그 진심이란 ....

1. 이 아빠는 연애도 해보지 못하고 짝사랑만 하다가 엄마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너무나 여자에게 대해서 몰라서 엄마에게 잘 못한 점들이 많다.
2. 또한 이 아빠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고 나서 그리도 아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딜런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아빠가 되었다.
3. 그래서 이 아빠가 너희 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잘 못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아빠가 미안하다.
4. 아빠랑 엄마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준 것이나 못해준 것이나 그러한 행동을 초점을 맞추기보다 너희 세 자녀들에 대해 대화를 할 때에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각 자녀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대화한다.
5. 엄마랑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엄마랑 아빠는 너무나 불완전한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제일 사랑하시사 친히 양육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 진심을 나눴는데 그 과정에는 제가 세 자녀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 엄격한(strict) 아빠가 아니었는지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ㅎㅎ 그리고 제가 그들 세 명을 한꺼번에

몽둥이로 맬매(징계)를 한 적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딜런과 예은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두 자녀들이 제가 분노 가운데 자기들을 징계하지 않고 사랑으로 징계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분노해서 징계했을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양육하면서 잘못된 것이 많다고 생각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아이들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참고: 마 8:24, 현대인의 성경) 저는 임마누엘 하나님(1:23)을 믿는 믿음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새 찬송가 413 장 “내 평생에 가는 길” 1 절과 후렴)라고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참고: 살후 1:7; 히 4:11, 공동번역).

# 죽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장례식 때 유가족끼리 화목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의 장례식 때 자녀들끼리 다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 표현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하면서 어떤 분은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자기랑 관계가 안 좋았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후에 떠나셨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점은 그 분의 장례식 때 그 분의 형제 중 한 분이

조문객의 화원을 장례식장에서 치우라고 했던 것입니다.

떠나신 당사자 분은 다 화해했는데 그 분의 형제 중 한 분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잘 죽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모든 조문객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래서 마음의 기억에 남는 장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성경 로마서 12 장 18 절 말씀대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제 3 부:**  
**회복(Reconciliation)**

## 회복이란 ...

회복이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겔 39:25, 27, 28).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또한 다시 세워주시사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기원합니다

(참고: 암 9:11, 14, 현대인의 성경).

#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 [시편 60 편 말씀 묵상]

“회복”하면 생각나는 기억은 한 1-2 년전 교회 집사님과 함께 한 부부 가정에 찾아간 일이 생각납니다. 그 때 그 가정 부인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었는데 기도 후 그 자매가 어떻게 목사님들은 다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지 의아해한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부부를 방문한 후 교회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았을 때 “왜 나는 그 부부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죄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2 년전 송구영신예배 때 5 R’s의 말씀을 선포한 기억이 납니다: Repentance (회개) → Reconciliation (화목) → Restoration (회복) → Reformation (개혁) → Revival (부흥).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위해선 먼저 회개하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 편 1 절 하반절을 보면 다윗은 “...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now restore us!)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 아래 다윗은 왜 회복의 기도를 드렸고, 또한 회복의 기도를 어떻게 드렸으며 마지막으로 회복의 기도를 드린 후 그의 자세는 어떠하였는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왜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로 전쟁에서 일시 패배를 당하였기 때문입니다(시 60:1-3)(박윤선). 시편 기자 다윗은 일시적인 전쟁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흠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1 절),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2 절),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마시우셨나이다”(3 절). 여기 3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키는 비유입니다(박윤선). 즉, 다윗은

에돔의 침략으로 인하여 일시 패배를 겪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진노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3 절).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1 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2 절)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으므로 당연히 틈이 생긴 것입니다. 다윗은 그 틈을 기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도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쓰러지고 자빠지고 인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이 신앙이 견고히 서있는 것 같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사업이나 우리의 교회가 견고하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십니다(2 절). 그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정 및 사업 또한 섬기는 교회의 기초를 흔드시면 어떻게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삶에 틈이 많이 보이므로 흔들리고 요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케 할만한 죄가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참된 회복은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둘째로, 어떻게 다윗은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까?**

다윗은 두가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 **(1)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 편 5 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사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실 줄 다윗은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복음서가 “비전”이 생각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다”.

### **(2)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 편 4 절을 보십시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셀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a banner)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를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기”는 바로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승리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군대가 강하고 군인 숫자가 많고 무기가 강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므로 오늘 본문 8 절 나오는 “모압”과 “에돔”과 “불레셋”과 싸워 다윗은 승리할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뛰놀리라”라고 오늘 본문 6 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기뻐하였던 다윗, 어떻게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6 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다윗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찬송가 400 장 4 절과 후렴 가사입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4 절)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후렴).

### 마지막 셋째로, 회복의 기도를 드린 후 다윗의 자세는 어떠하였습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0 편 12 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1)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60 편 9 절을 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여기서 “견고한 성”은 에돔의 수도 “페트라”(Petra)를 앞에 두고서 난공의 성임을 말합니다(박윤선). 반석과 같이 견고한 에돔의 성 ...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성을 무너트리고 자기와 이스라엘 군사들을 그 성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었던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시편 60 편 10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면서 과거의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 가운데 다윗과 그의 군대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패배당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에는 꼭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함께 전쟁에 나아가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소용이 없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3)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의 구원은 헛됨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60 편 11 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앙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아가 죄악과 세상과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에돔과의 전쟁에서 일시적으로 패배를 경험한 다윗은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회복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용감히 행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제임스 목사 나눔

(2007년 6월 7일, 회복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 회복(Restoration)을 위해서는 ...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Restoration)을 위해서는 ...

## (1) 받아야 합니다 (Receive).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교훈(말씀)을 받아야 합니다(욘 22:22). 그리고 그 교훈/말씀을 우리 마음에 뒤야 합니다.

## (2) 돌아가야 합니다 (Return).

누구에게 돌아가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23 절).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합니다.

## (3) 버려야 합니다 (Remove).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불의를 멀리 버려야 합니다 (23 절). 진정으로 의로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한다면 모든 불의는 멀리 버려야 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게 돌아가되 모든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다시 흥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3 절).

Restore, Receive, Return, Remove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07년 5월 12일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 주님께서는 회복의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실행하실 것입니다  
(참고: 겔 37:14, 현대인의 성경).

##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 우리는 입술로는 "회복"을 외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마음과 행동으로는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대하 36:16) 지금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있든지, 또는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을 더럽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부지런히 보내사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종을 비웃고 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12-16 절).

##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 ...

1.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2.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철저히 부서트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들쳐 내시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깊고 넓게 많이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 우리 가정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0.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사 온 가정 식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가정에 대한 교훈 (1)

어제까지 인터넷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정에 대해 듣고 생각된 점들이나 느낀 점들을 이 시간에 다시금 되새겨 보면서 혹시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습니다:

1. 가정을 생각할 때 눈물이 있습니다.
2. 부부 사랑은 위기 가운데 더욱더 빛을 발합니다.
3.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부부로 하여금 우는 자와 함께 울게하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경배케 합니다.
4. 그리스도의 사랑은 넉넉히 질병을 이기게 합니다.
5. 한없는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강합니다.
6.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남편 형제와 부인 자매는 참 아름답습니다.
7.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는 신랑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하늘 나라에서의 어린 양의 결혼을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로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김준학 목사님과 심수은 사모님을 생각하면서)

# 가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

어제의 만남을 오늘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면서 글을 적어 내려갈 때 몇 가지 생각되는 점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가정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기에(personal) 깊은 상처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기로 부부를 변화시키시고,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자녀를 변화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6.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문제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시 34:8).
7.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됴을" 아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시 46:10).

# 가정의 위기

여기는 화요일 오후 7시 13분입니다. 8시에 가족 기도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한 후 이렇게 짬을 내서 지난 주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두 부부(남편 한 사람을 만난 것과 그 다음 날에 다른 남편과 그의 아내를 만나서 한 참 대화를 나눴음)와의 마음 문을 열고 나누게 된 대화 내용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로나마 간략하게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이나마 유익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각 가정(그 두 가정)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부는 위기가 있었지만 끊이지 않는 어려움이 이번에도 있었고, 다른 남편은 지금 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기는 기회이다'하고 믿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위기를 겪고 있을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머리로 생각할 때에는 그 위기를 견디는 것과 감당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생각되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의 여러 종류의 위기들 중에 제가 제일 염려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는 위기는 부부의 위기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여러가지 이유로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서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을 정도까지 되면 참으로 심각한 위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부부가 서로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과 감정 등은 이미 서로에게서 떠나있다면 그러한 무관심과 정이 없는 부부 관계는 참으로 큰 위기가 생각합니다.
4. 또 다른 가정의 위기는 시어머니로 인한 위기입니다. 제가 부부의 위기 다음으로 신경쓰게 되는 가정의 위기는 남편의 어머니/아내의 시어머니로 인해 오는 가정의 큰 어려움입니다. 그 큰 어려움 속에서 제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며느리(자매)라기보다 아들(그 자매의 남편)입니다. 왜 저는 그 남편이 그의 아내보다 더 염려가 되냐 면 제대로 믿음 안에서 생각을 하는 남편이라면 자기 어머니로 인해 자기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아내가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는 자기 어머니와 관계를 끊고 싶을 정도라도 끊을 수 없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자기와 한 몸인 사랑하는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너무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5. 특히 그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 시어머니로 인해 아내의 부모님인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깊이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그 아내의 깊은 상처와 눈물을 보는 남편의 마음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깊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겨우(?) 힘들게 결혼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어머니로 인해 그 부부가 너무나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저는 시어머니로 인한 가정의 큰 어려움도 심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6. 감사한 것은 그 부부는 서로에게 매우 예민한 대화를 직접 할 수가 없었을 때(남편이 저에게 자기가 직접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두 부부가 진심으로 마음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저는 원래 상담을 하게 될 때 저의 역할은 그 부부가 저를 통해 서로 대화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7. 만일 부인 자매의 입장에서 자기의 시어머니는 '환자' 수준이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를 며느리로서 사랑하고 공경하며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자매(아내)의 말뿐만 아니라 심지어 남편(형제)도 아내의 말을 동의할 정도로 그 시어머니는 정상적인 사람(?)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저는 그 부부에게 뭐라고 권면해야 했을까요? 제가 그 부부의 말을 들었을 때 그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시어머니라고 생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온전하지 못한 한국 교회 권사님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내면을 가꾸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외면을 중요시하는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그 부부는 자기들의 어머니/시어머니를 그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음) 어떻게 그러한 시어머니를 며느리가 사랑해야 하며 그러한 어머니를 어떻게 남편(그녀의 아들)이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힘든 숙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 그래서 저는 그 남편 형제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어떻게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의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지를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부인 자매)에게는 그녀가 비록 시어머니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후세대(앞으로 태어날 그 부부의 자녀와 손주들)를 생각할 때 그 남편의 말대로 "가정 환경"이 매우 중요하니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환영을 만들기 위해선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세워줘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가정의 고통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온 가족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

## 가정에서 받는 사랑과 상처

가정에서는 사랑도 받지만 상처도 받습니다.  
다만 우리는 점진적으로 상처보다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받아  
더 많고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받은 상처들을 치유 받아야 합니다.

# 가정의 위기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어제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한 지체와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주신 깨달음이 있어 조금 전에서야 다시 생각하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 지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적용하여 가정의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더 깊게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하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좀 이렇게 사랑해 주시면 안되나요?'라는 기도를 충분히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의 생각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좀 수월하게(또는 더 힘들지 않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약 22년 전에 첫째 아기가 병들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었을 때 저의 간절한 기대와 기도는 주님께서 제 아기를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사 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와 기대대로 되지 않고 점점 더 아기는 죽음의 문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좀 아기를 살려주시므로 저희 부부에게 사랑을 나타내주시면 안되나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결국 아기는 제 품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아기를 화장하고 뺨가루가 든 작은 박스를 들고 아내랑 함께 배 타고 나가서 물에 뿌리고 돌아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로 하여금 굉장하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케 하셨습니다(시 63:3).

제가 1987년 5월에 저희 교회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6:1-15) 경험한 주님의 구원의 사랑 다음으로 그 사랑을 크고 깊게 많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엡 3:18-19). 그러므로 저는 주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제 원대로 저를 사랑마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데로 저를 사랑해주세요'(참고: 마 26:39). 제가 이 기도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 원대로 주님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것보다 저를 제일 사랑하시고(요 3:16; 롬 8:32) 제일 잘 아시며(시 139 편) 저에게 항상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데로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 위기를 통해서라도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위기가 ...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authentic Christians),

우리 가정이 진짜 크리스천 가정으로(authentic Christian family),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 중심된 교회(the authentic Lord-centered church)

... 로 세움을 받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

몇 주 전에 한인타운 식당에서 어느 형제를 만나 식사하면서 진솔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자리를 옮겨서 한인 커피숍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때 저는 그 형제의 말을 듣다가 다음엔 그 형제의 부인(wife)이랑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제가 그리 말한 이유는 혹시나 그 형제의 wife가 그녀의 부모님에게 과거에 입은 상처가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 오후에 그 형제와 그의 부인(wife)과 함께 만나서 진솔하게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저는 제 아내와 함께 어제 만남을 통해 나눴던 대화 내용을 좀 대화하면서 저희 부부와 사랑하는 아들 딸런 부부에 대해서도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모든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시금 생각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글을 적어 내려가보려고 합니다:

1. 우리가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 중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동시에 안 좋은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2.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고 알아도 충분히 잘 모르고 있기에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부모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3. 그러다가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우리 배우자와의 갈등을 통하여 고통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특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pleaser) 남편이나 아내일 경우 부부 갈등을 통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통해 자기가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을 인식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남편이나 그 아내의 배우자가 회피하는 사람일 경우(avoider) 과도하게 독립적인 사람인지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기적으로 별 깊은 생각이나 고민이 없이 입으로 내뱉은 직설적인 말로 인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는 깊이 고민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 (조금이나마) 인식하며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5. 그런데 좀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남편이나 아내는 자신이 인식하고 인정하는 자기 부모님에게 받은 안 좋은 영향으로 인해 자기 배우자에게 지나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자기 배우자를 매우 기쁘게하려고 하다보니(그래야 자기가 기쁘니까?) 자기 마음의 왕좌 또는 왕이 앉는 의자에 자기 배우자가 앉아 있을 위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마음의 왕좌에 자신에게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친 어머니 그리고/또는 아버지가 앉아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이젠 그 자리에 자신의 배우자로 대신(replace)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보기엔 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냐면 그 이유는 그 마음의 왕좌에는 왕 중의 왕이신 주님이 앉아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아니라 사람인 어머니 그리고/또는 아버지 혹은 배우자가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6. 그 정도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는 충분히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상숭배적인 마음은 부모님을 우상 숭배하다가 배우자를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충분히 자녀를 우상화하여 지나치게/과도하게 사랑할 위험이 참 많습니다.
7. 그러다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정의 큰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어 자아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가 매우/지나치게 사랑하는 식구를 우상화한 죄를 깨닫고 회개하므로 우리 마음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버리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주님으로 하여금 앉으시게 우리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됩니다.
8. 그리한 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겸손히 양보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부부 관계도 주관하시도록 믿음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9. 그리할 때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너무나도 다른 우리 부부(사람을 기쁘게 하는 남편/아내와 회피하는 아내/남편)를 어떻게 놀랍게 일(역사)하셔서 서로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보완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0.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님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조금씩 조금씩 세움을 받게 됩니다.

#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 두 형제의 아버지는 세베대였고 그들의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그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에게 “저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마 20:20-21, 현대인의 성경). 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그리 부탁을 드렸을까요? 물론 그녀는 자기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에 그리 부탁한 것이지만(2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의 궁극적인 의도는 자기의 두 아들이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길 원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녀의 말을 듣고(그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을 뺀) 화를 내는 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26-27 절,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28 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녀의 두 아들이 섬김을 받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마태복음 20 장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적어서 여기 저기 나눴습니다. 그런 후 저는 묵상한 말씀들 중에 위에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위에 묵상 글의 제목대로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다음에 제일 큰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저도 제 어머님의 사랑을 크고 깊게 많이 그리고 넓게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팔십이 넘으신 후로는 제 어머님께서서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머리가 커서 산파의 도움을 받아 집에서 저를 낳으셨을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자라날 때 자주 아프곤 해서 어머님께서 저를 등에

앞고 버스를 두 번인가 갈아타시고 멀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 등등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년 5월에 어머니 주일(Mother's Sunday)(여기 미국은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이 따로 있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새 찬송가 579 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찬양드리면 좀 마음이 몽클하곤 합니다. 1절과 2절 가사만 나눕니다: (1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부르십니다. (2절) 아침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외워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가 어머니의 집에 찾아 보았을 때 식탁에 앉아서 성경책을 필사하시다가 식탁에 고개를 숙이시고 잠드신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머니가 앰블런스에 실려 가셔서 응급실에 누워계셨을 때 저랑 단 둘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인 이사야 41 장 10 절 말씀을 좀 외워주시길 부탁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하고 말씀하신 모습입니다. 이 외에 수 없이 많은 추억들이 제 마음에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나눈다면 제가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곤 하셨던 모습입니다. 그 어머니의 눈물들을 제 마음의 병에 고요 있습니다[참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시 56:8)]. 동시에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제가 제 어머니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제 어머니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어머니를 울게 만든 것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로 밖에 안되겠지요. 나머지 99%는 제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여 울게 만든 것은 저는 지금도 모르고 있고 그저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 추측 중 하나는 제가 사춘기 때 어머니의 과잉 사랑에서 뛰쳐나오고자 말과 행동으로 제 어머니의 마음을 참 많이 아프게 하여 어머니 혼자 제가 못 보는 데서 많이 그리고 크게 우셨을 것입니다. 그 때 저는 어머니가 제가 볼 때 너무 지나치게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워했었습니다. 자꾸만 저를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잔소리하시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어머니의 과잉 사랑, 과잉 보호에서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다는 것이 그만 어머니에게 직설적으로 싫은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 저의 그 싫은 소리들을 들으셨던 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저를 낳으실 때부터 매우 고생하셨고 또한 저를 한국에서 어릴 때 양육하시면서 하도 여기 저기 아파서 자식 셋 중에 저에게만 계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민을 와서도 영어 알파벳도 몰라서 그 다음 날인가 초등학교에 가서 단어 20 개를 외워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영영 울면서 다 외우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계시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저는 어머니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담이 되었을 정도로 저는 어머니의 과잉 사랑으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제가 결정해서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쓰시고 걱정하시는 등 그러시는 것을 매우 원치 않았습디다. 그 이유는 저는

어머님의 건강이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민(초등)학교 때 어머님이 40 대 초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한의사이신지 교회 장로님에게 온 몸에 침을 맞으셨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평생 혈압 약을 드시는 어머님을 생각할 때 저는 어머님이 저보다 자신의 건강을 신경쓰시길 원했습니다(물론 지금도요).

제가 이렇게 저와 제 어머님과 관계를 진솔하게 나누는 이유는 비록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가까운 인간의 사랑이 어머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그 어머님의 크고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한 어머님의 사랑은 자식에게 득(benefit)이 되기보다 해(harm)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식에게 해가 되는 어머님의 사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란 제목 아래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쓴 후 좀 심각한 제 마음의 생각들을 글로나마 적어 내려가면서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먼저 저의 짧은 말씀 묵상 글의 제목 그대로 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가 매우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자식도 큰 문제이겠지만 제 생각엔 그러한 자식보다 그 자식의 예수님을 닮지 못한 세상적인 어머니가 더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2.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자녀가 볼 때에도 ‘내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는 직분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을 진정 믿고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라면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 앞에서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날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자녀로 인해 근심, 걱정, 염려를 한다면 충분히 그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가 진정 주님을 믿고계신지 모르겠다’하고 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 특히 그러한 어머니가 자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여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내 자녀가 크게 되고 으뜸이 되길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올라가서 제일 높은 위치(지위)에 있기를 그리도 간절히 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마치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제 자녀를 머리가 되게 하여주시고 결코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참고: 신 28:13, 현대인의 성경)하고 간구한다면 제 생각엔 그녀의 자녀는 결코 어머니의 욕심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는 자기 자신이 어머님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며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어머니를 만족시킬 수 없어'하는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충분히 시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찮게 생각하는 자녀는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머니에게 묶여있어서 조절(manipulation)당할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어머님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만족을 못하는 어머니는 '너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어'하고 말하면서 그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의 사닥다리를 더 높이 올라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과잉 사랑의 기대나 욕심은 자녀의 영혼과 정신과 감정을 죽일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 이러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녀들을 엿볼 때에 저는 그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와 독에 물든 관계(toxic relationship)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그녀의 자녀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자녀들은 매우 위험한 독의 물들어 가고 있을 위험이 많습니다. 그 자녀들은 그들의 어머니의 세상적인 사랑으로 인해 독에 물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의 어머니는 그녀 나름대로 최고로 사랑하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자녀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슬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6. 이러한 독에 물든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 해독제가 있을까요? 있다면 그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독제는 우선 세상적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들은 자기 자녀를 좀 더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생명 걸고 자신을 위한답시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식 사랑'이란 자동차의 엔진이 너무 크고 세니까 오직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사랑의 경주를 지나치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보니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자식을 최선을 다해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해도 어머니들 중에는 스스로 멈출 수 있는 기능이 망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한 어머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좀 더 사랑하도록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가 독에 물들다가 자포자기하며 죽고 싶을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독기를 품고 어머니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7. 숨막혀 하는 자녀를 보면서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들은 우선은 육체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거리를 뒤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리해야 합니다. 비록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이 아플지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도 어머니들은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특히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자식에게 올인(all-in)하는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서

흘로서기하면서 자식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자녀를 생각할 때 불안해하는 어머니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입니다(참고: 롬 14:23).

8. 자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자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어머니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오직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자녀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지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머니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9.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데 헌신하여 노력하는 어머니들은 자기의 힘을 빼고 성령님의 힘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을 내려서 자기 할 일을 알아서 할 나이의 자녀에게 부모를 떠나 독립하도록 지혜롭게 도와줍니다.
10.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어머니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견고히 서 있기에 믿음으로 자녀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므로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자녀에게 간증을 합니다. 제 어머니님은 그러한 어머니님이십니다.

#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 ... 회복할 수 있을까요?”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들은 후 ...

지난 주에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지체들의 카톡 방에 어느 자매가 이 유튜브 주소를 올렸는데 오늘 주일 오후 조금 전에서야 끝까지 들었습니다. "오은영의 화해"라는 책을 쓴 저자 오은영씨(정신학과 교수)의 말을 꼭 다 들으면서 제가 자세히 듣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듣는 중에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1. 먼저 우리가 어릴 때 자라나면서 제일 가까운 부모님에게 입은 상처는 충분히 현재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모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 좋은 영향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무의식 중에서도 충분히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이렇게 전문가들의 책이나 세미나 등을 들으면서 배워서 실천에 옮기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실천에 옮김에 있어서 부모님(아버님 그리고/혹은 어머님)이 우리가 어릴 때 입힌 상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과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지혜롭게 우리의 상처를 말할 때에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바라는 것과 기대한 대로 부모님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용기를 내서 부모님과 주님 안에서 화해하고자 우리가 그분들에게 입은 어릴 때 상처를 마음 속에서 끄집어 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 분들이 우리의 상처를 알아주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엔 그것을 기대하기보다 우리 안에 부모님에게 입은 상처를 끄집어 내서 직시하고(confrontation) 용기를(courage) 내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다는 것 자체로만도 상처 치유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3.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반응에 근거해서 부모님을 용서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라

나를 구원해주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부모님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치유의 매우 중요하고 큰 단계라 생각합니다.

4. 또한 이 모든 과정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부모님과의 건강한 경계선(healthy boundary)을 점진적으로라도 뚜렷하게 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강한 경계선에는 부모님과의 감정적 경계선도 포함됩니다. 만일 내가 부모님께 상처입은 것을 말씀드리므로 그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반응하면 등등 이러한 질문들을 수 없이 던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부모님의 얼굴을 보고 등등 ...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아직도 부모님과 건강한 경계선을 그지 못했기 때문일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드릴 말씀을 드릴 때에 너무나 지나치게 그분들의 반응에 민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과의 감정적 거리가 정신적 거리나 지리적 거리나 등등 적합한 또는 적당한 경계선을 그어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이 상처 입는 자녀들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모님에게 쇠사슬처럼 매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하지 않은 정신적 감정적 쇠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5.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youtu.be/S6Th8t\\_ENTA](https://youtu.be/S6Th8t_ENTA)



# 고통스러운 감정들 (Painful Feelings)

요즘 제가 밤에 잠자기 전에 “How We Love: Discover Your Love Style, Enhance your Marriage”(저자: Milan & Kay Yerkovich)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 제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당신의 사랑 스타일을 발견하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세요.’ 제가 이 책을 선물을 받은 후부터 틈틈이 밤마다 잠자기 전에 읽고 있는데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고 또한 제 자신에게 반영해 보게 만드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paragraph)을 나누고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Throughout this book we will see why the ability to appropriately express a full spectrum of emotions is so important. The fact is that, when Susie marries, she will have a huge advantage over those people who didn’t learn to feel and deal when they were growing up. Susie will know how to manage rather than avoid painful emotions. Children raised in homes like Susie’s learn through their experiences to have good listening skills and to draw out the opinions and feelings of others. As adults, they are open, vulnerable, and comfortable with disclosure. They have interpersonal skills and are able to negotiate mutually satisfying solutions to problems” (이 책 전반에 걸쳐 우리는 왜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한지 알아볼 것입니다. 사실, 수지가 결혼하면, 그녀는 자라면서 느끼고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보다 엄청난 이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수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지와 같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 좋은 경청 능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감정을 이끌어내는 법을 배웁니다. 어른이 된 그들은 개방적이고 취약하며 공개에 편안합니다. 그들은 대인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단락을 읽으면서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자아 반영하고 싶어서 제 전화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제 자신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이렇게 오늘 새벽에 교회 목양실 책상에 앉아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저 주시는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내려 갑니다:

1. 저는 어릴 때 자라나면서 저의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기보다 억누르면서(suppress)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한국에서 살면서 무슨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었을까 뒤돌아보면 크게 3 가지 감정이 생각납니다: 하나는, 부모님이 크게 다투셨을 때(그

때 제 나이가 아마 국민학교 4 학년인 것 같은데 저는 지금도 그 때 아버님과 어머님이 크게 싸우셨던 한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남) 제가 느낀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국민학교 때 저보다 키와 덩치가 큰 학생(저는 그가 “왕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음)이 저를 때리고 괴롭혔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제 아버님이 다른 어른 남자에게 먹살을 잡히시면서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셨던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임. 그 때 그 때 제가 느낀 이 3 가지 감정들을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한 마디로 그 감정들은 고통스러운 감정들(painful feelings)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물론 지금은 그러한 감정들이 저에겐 없지만서두요).

2. 그러다가 제 나이 12 살 때 부모님을 따라 형제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영어 알파벳조차도 모르는 제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사춘기 때 와서 미국 문화에 적응을 못해서 괴로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미국에 와서 다시 국민(초등)학교 6 학년에 들어갔는데(이미 한국에선 6 학년을 졸업을 했지만) 미국 선생님이 영어를 잘하는 한국 학생을 저에게 소개시켜 주셔서 그 학생이 통역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함) 그 다음 날에 영어 단어 20 개를 외워서 시험을 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날 밤 저는 집에 와서(제 기억으로는 제 넷째 삼촌이 혼자 사시는 아파트에 저희 가정이 잠시 얹어 살았었음) 울면서 그 20 개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제 어머님도 그 때 제가 울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심). 그래서 그 다음 날 학교에 가서 저도 시험을 보려고 했는데 그 미국 선생님이 저에게 ‘너는 어제 왔으니까 시험을 안 봐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기억이 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그 때 영영 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말한다면 한 마디로 ‘충격 받은 감정’(shocked emotions)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렇게 미국 생활을 시작한 저는 고등학교 2-3 학년 (여기 미국에선 11-12 학년) 때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면서 파티에 가서 춤추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호기심 속에서 마약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주일에는 꼬박꼬박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감정은 ‘죄책감’(guilty feeling)이었습니다. 한국 장로교(합동측)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국민학교 때 한국 상현교회에서 몇몇 성도님들에게 ‘작은 목사님’이라는 말을 듣고 자라났던 저가 미국에 와서 소이 말하는 나쁜 짓을 하면서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왔으니 당연히 제 양심은 저를 괴롭혔지요. 그런데 심하게 들던 죄책감도 지나고 나니까 점점 희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두 명이 총에 맞아 죽어서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 때 저는 마음이 괴로워서 울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작은 철학자’가 되어서 두 가지 질문을

수없이 제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1)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2)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 때 제가 접한 책들은 바로 철학자 김형석이란 분과 김동길 교수님의 책들이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혼동된 감정’(confused emotion)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그러한 가운데 제가 가정에서 제 아버님을 보면서도 그리고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원했지만 그것이 전혀 만족되지 못하였으므로 저에게는 아버님을 향한 쓰라림(bitterness)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상한 감정’(damaged emotion)이었습니다. 데이빗 A. 씨맨즈(David A. Seamands)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은 그의 책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상처 입은 감정”이란 “가장 공통된 감정 중의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씨맨즈의 말 대로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하고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말한대로 “완전주의자 콤플렉스(perfectionist complex)”를 가지고 있어서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지나친 예민감(super sensitivity)”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저는 씨맨즈가 말한대로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상처 입은 감정’(wounded emotions)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부모님이 서로 다투셨을 때 제 어머니가 제 아버님에게 과거의 일들을 자꾸만 꼬집어 내셔서 말하시는 것을 매우 싫어했었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아버님을 향하여 분노와 미움을 느꼈습니다(anger and feelings of hate).
5.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목사가 되겠다고 전공을 “심리학”으로 바꾼 후 제가 겪었던 감정들을 잘 묘사해주는 3 개의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1) Rejection (거절), (2) Repression (억누름), (3) Suppression (억제). 여기서 “Repression”(억누름)과 “Suppression”(억제)의 주요 차이점은 “Repression”은 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과정으로 간주되는 반면 “Suppression”은 의식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The main difference between repression and suppression is that repression is generally considered to be an unconscious process, while suppression is a conscious process” (인터넷)]. 저는 대학교 때 두 명의 여자(주님 안에서 자매)를 짝 사랑하다가 ‘거절’(rejection)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여자(자매)를 약 1 년 동안 혼자서 짝사랑하다고 혼자 끝냈습니다. ㅎㅎ 그 말은 다른 두 여자들에 게처럼 저는 이성감정이 든다고 고백조차 못하고 그냥 혼자서 그 여자를 이성감정으로 좋아하다가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혼자서 끝냈습니다. ㅎㅎ 그 때 제 감정은 ‘억제’(suppression)이었습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제 감정을 억제하였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 감정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반응하게 된 것처럼 제 감정들을 저도 모르게 억누르면서(repression) 대학생살을 했었습니다. 특히 저는 대학교 1-2 학년 동안 매우 외롭게 지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제 모습은 캠퍼스 중가운데에 공원이 있었는데 그 공원에 한 큰 나무 밑에 벤치(bench)에 홀로 앉아 종종 복음서가 “누군가 널 위하여”를 부르면서 많이 울었었습니다. 저는 그 때 사람이 너무 그리웠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들은 ‘외로운 감정’(lonely feeling)과 ‘슬픈 감정’(sad feeling)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학교 3 학년 때부터 기독교 동아리에서 임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리웠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서 기뻐지만 제가 그들에게 상처를 입힌 것 같아서 기숙사(학교 안에 있는 아파트)에 와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죄책감’(guilty feeling)이었습니다.

6.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공부가 저에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한인 클럽에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지만 하는 수 없이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못해 회장이니까 본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새벽기도회도 참여했었습니다. 그 때 저의 감정은 ‘죄책감’이었습니다.
7.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첫째 아기 “주영”(뜻: 주님의 영광)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아기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결국 55 일만에 제 품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1 년이 넘도록 죄책감에 심하게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 죄 때문에 주영이가 죽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8. 저는 이러한 감정들을 가지고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년 4 월이면 저희 부부가 결혼한지 28 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결혼 생활을 뒤돌아보면 결혼해서 약 20 년 동안은 서로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실제로 자기 입으로 여러 번 말했듯이 ‘We are very (so) different’, 즉 우리는 너무나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 않은 부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다 다르지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저희 부부는 서로의 다른 점들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부 갈등이 있었고 또한 서로의 다른 점들을 가진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부 갈등이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9. 여기서 제가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How We Love: Discover Your Love Style, Enhance your Marriage”(‘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당신의 사랑 스타일을 발견하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향상시키세요.’)란 책에서 저자가 말했듯이 저는(제 아내도 제가 보기엔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함) 제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저는 자라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억제하고 억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 방법이 저에게 제일 익숙했었습니다.

10. 특히 저는 아내를 향한 제 분노를 억눌러서 억제하였었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아내에게 참고 있었지 화를 내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었는데(물론 너무나 화가 나서 분노를 표출한 적들도 여러 번 있었지요)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은 속으로 화를 내고 있어요’하고 말했기에 저는 저에게 “내면의 분노”(inner anger)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하지요). 그리고 제가 또 아내에게 배운 것은 제 자신이 “passive-aggressive”(수동적 공격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가 싸운 후에도 뒤 끝[정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다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감정”(네이버 사전)]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부 갈등 문제를 대부분 회피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너무나 난감해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의 감정들을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살아왔었기에 그 감정들을 부부 생활에서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계속해서 해오던 대로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부부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저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관리하는 법을 제대로 그리고 올바르게 배워본 적이 없었기에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저는 제 아내가 부부 싸움을 할 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고 나서 뒤 끝이 없는 게 희한해 보였습니다. 하하[제가 남편으로 보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감정들’(painful feelings)이 있지만 언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비록 그녀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도 나누면(제가 나누기 보다 아내가 나누는 것이 더 적합하지요) 좀 더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살기 전까지의 자라면서 느낀 그 감정들로 인해 저희 부부의 갈등들에 대해 좀 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서두요]. 그렇지만 저는 그 때 제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었던 거지요(wounded emotions).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아내에게 ‘당신이 나에게 한 말로 인해 내 마음이 칼로 찢린 것 같았다’고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ㅎㅎ 그 말을 들은 제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십니까? ‘Thank you for telling me’ (나에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ㅎㅎㅎ 그 때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속에서 이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1) ‘어떻게 저렇게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답변할 수 있 있지?’ (그 말은 저는 아내가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알았음), (2) ‘내가 왜 여태까지 (아내의 말로) 내 마음에 상처 입었을 때 오늘처럼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지?’하고 매우(?) 후회하였었습니다. ㅎㅎㅎ

11. 글이 많이 길어져서 저의 개인적인 고통스러운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나누고 그러면 주님께서 저의 이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끄집어 내셔서 위로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셨는지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희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성장케 하셨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12. 먼저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인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물론 지금도 주님은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변화시켜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Transformation). 주님께서 제가 마음 속 깊이 꼭꼭 억눌러서 놓았던 저의 고통스러운 감정들(painful feelings)을 조금씩 조금씩 고집어 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 상처 입은 감정(wounded emotions)을 사랑하는 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제 아내로 하여금 저의 상처 입은 감정을 말할 때 그녀로 하여금 제 말을 경청케 하셨고 또한 아내로 하여금 제 감정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역사(일)이 저로 하여금 조금씩 조금씩 제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제 아내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3.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변화의 역사(일)은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더욱더 믿고 의지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저의 제일 고통스러운 감정들 중에 하나인 '죄책감'(guilt feeling)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내의 분노와 말로 인해 (쉽게?) 상처 입던 제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점진적으로 강하고 견고하며 담대케 하셨습니다(참고: 벰전 5:10). 더 나아가서,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게 하시사 저로 하여금 제 아내의 분노와 말보다 그녀의 마음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잘 엿보게 하시사 그녀를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제 아내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점진적으로 더욱더 잘 엿보게 하시사 아내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저희 부부의 갈등들을 통해서 각자의 마음을 빛으시사 넓혀 주시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포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원치 않게) 서로에게 입힌 상처들조차도 주님의 마음으로 점진적으로 품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깨달음은 부부 갈등을 통해 서로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알게 하셨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우리 각자 자라난 배경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만들었습니다.

14. 예를 들어, 저희 부부가 약 23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을 때 하루는 저와 아내가 교회 유치원에 다니는 사랑하는 아들 달린 때문에(덕분에?) 다툼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툼 이유는 저는 달린이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길 원했고, 제 아내는 달린이 양보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저는 자라나면서 제 부모님에게 양보하는 것을 보고 배웠기에 제 아들도 양보하는 사람이 되길 원했던 것이고, 제 아내는 딸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녀의 부모님에게 양보해서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기에 사랑하는 딜런만큼은 자기처럼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이 부분에서 저는 제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늦게나마 조금 알게 되었음). 결국 그 때 저희 부부의 갈등은 저희 부부로 하여금 서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고 이해하는 계기 또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5.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장시간 동안 쓰면서 틈틈이 제 전화기를 보았는데 제 조카 예진이(제 형의 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오늘 새벽 5 시쯤에 **ultramarathon 100 miles (163 km)**을 시작한 동영상을 올린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예진과 예진의 친구 및 아내의 마라톤 친구 두 명과 함께 집에서 멀리 운전하고 가서 약 2년 만에 두 번째 **ultramarathon 100 miles** 을 뛰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아내가 매우 좋아하는 마라톤을 전적으로 지지(**support**)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저는 제 아내가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나 스트레스나 아내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마라톤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 28년 결혼 생활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랑하는 제 아내를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계속해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 중심된 부부(**the Lord-centered couple**)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 이기적인 마음

**“Our fundamental problem is not ignorance of what is right. Our problem is selfishness of heart that causes us to care more about what we want than about what is right” (우리의 근본적 문제는 무엇이 옳은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은 무엇이 옳은가를 주의하기보다 무엇을 우리가 원하는가를 주의하게 만듭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이 최악 된 세상에서 한 죄인 남자가 한 죄인 여자와 결혼할 진데 어떻게 그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가 범하는 죄들의 쓴 뿌리는 바로 교만입니다. 즉, 그 두 교만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예수님의 두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랑은 죄인 된 인간의 사랑으로서 그 사랑의 쓴 뿌리는 바로 이기심(selfishness)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도 아직 이 최악 된 인간의 사랑의 쓴 뿌리인 이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롬 5:5) 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고후 5:17)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만(눅 10:27) 우리의 옛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육의 일들을 도모하므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 이기적인 마음은 무엇이 옳은가를 주의하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의하게 만듦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웃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표면적으로 제일 잘 들어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살게 하시는 목적은 두 다른 남녀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두 남녀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갈 5:22).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를 점진적으로 성화시키사 그들로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더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서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보다 내가 원하는대로 그리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우리의 옛 사람의 이기적인 본능을 점진적으로 내어 버리게 하시고 계십니다. 내어 버리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부부 관계에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표면적으로 들춰내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상대방 배우자가 원하는 것보다 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 두 이기적인 나라들인 남편의 나라와 아내의 나라가 서로 충돌하므로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의 쓴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토기장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 된 쓴 열매들을 통하셔서도 진흙과 같은 우리 부부들을 빚으시사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케 하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부부들로 하여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계십니다(롬 5:20). 하나님께서는 두 이기적인 죄인들을 짝지어 주시사 성화시켜주시되 우리의 갈등과 상처와 아픔 등도 사용하셔서 우리 부부들로 하여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 부부들에게 가르쳐 주시사 우리들로하여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목적은 바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눅 10:27). 우리는 이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이 계명을 순종하므로 주님 중심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길 기원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또 버리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를 사랑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4년 7월 29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이번에 “2024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진 만남들 중 부부 관계의 위기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의 주님 안에서 만남들을 통해 생각하게 된 점들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로나마 생각들을 정리하고자 시도합니다:

1. 부부 관계 안에는 갈등과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보다(그러므로 우리 부부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기보다) 어떻게 부부 갈등과 다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잘 싸우고 다룰 것인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 a. 저희 부부는 신혼 여행에 가서 처음으로 싸웠습니다. 그 전까지는 약 6 개월 동안 종매로 소개받아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는 한 번도 갈등이나 다툼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약 20 여년 동안 수없이 갈등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들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부 갈등이나 다툼을 보이고 싶지 않아 숨기고자 노력하였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목사님을 통해 부부 갈등의 긍정적인 면을 알게 되어 부부 갈등을 피하거나 숨기려고 애쓰기보다 어떻게 하면 부부 싸움을 잘 싸울 것인지를 배우는데 헌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저에게 자신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눈 지체들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의 부부 갈등을 인정하였고 더 나아가서 저에게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나눈 지체들은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었기에 매우 간절히 도움이 필요로 하는(desperate) 지체들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부 관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체들은 더 이상 부부가 다투지 않을 정도로 냉전 상태에 있어 보였습니다. 이정도의 부부 갈등은 어떻게 부부가 잘 싸워야 할지 애쓰고 노력해야 할 단계를 넘어서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부부 갈등이 심해져서 이 지경까지 왔는지 겸손히 그리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배우자보다)을 뒤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부부 갈등과 다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 a. 저희 부부의 경우 약 22년 전 한국에서 살고 있었을 때 사랑하는 첫째 아들 딜런으로 인해 대판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부부 싸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아내를 좀 더 깊게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즉, 제 아내는 딜런이 자기처럼 양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았고 저는 딜런이 양보하면서 살기를 원해서(저는 부모님에게 그리 배웠기에) 저희가 크게 싸웠었는데 그 때 저는 제 아내가 딸로서 부모님에게 ‘양보’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딜런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부부 관계의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지체들 대부분이 부부 갈등과 다툼을 통해 왜 자신들이 싸우고 있는지 그 원인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배우자가 자기가 보기에 잘못하고 있는 것이나 자기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그만큼 자신이 상대방 배우자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상대방 배우자의 잘못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부 관계는 그 위기를 하나님이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퇴사가 부부 갈등을 극대화하며 부부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a.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원치 않는 남편의 퇴사가 당사자에게도 큰 힘듦과 마음의 무거움 등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을텐데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어려움과 문제로 부부 관계의 갈등과 더불어 부부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b.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부부가 다툼 때에 과거에 부부 관계에 있어서 미해결된 문제들과 상처들이 다 밖으로 표현되고 표출될 위험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재정적인 압박과 문제가 그 정도로 심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부 관계가 별 문제없이 오히려 좋아보였을 정도였다 할지라도 남편의 퇴사로 인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부부 관계가 극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때 사탄의 많은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할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범죄할 위험이 참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는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을 정도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남편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부의 위기를 책임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제가 오래 전에 읽었던 “개혁 혼인”(Reformed Marriage)이란 책에서 저자 더글러스 윌슨(Douglas Wilson)은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부부 상담하면서 항상 그의 전제(presupposition)는 ‘남편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 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의 책임은 남편인 제 자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보기엔 아내가 잘못할 때도 충분히 많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제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제 아내를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엡 5:29). 그러므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수많은 때에 아내를 원망하고 하나님과 아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부부 관계에 범한 모든 죄를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저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 b.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에서 만난 지체들 중 아마도 제 평생에 처음으로 한 형제에게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져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가정에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고도 스스로 제 자신에게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없을뿐만 아니라 제 성격상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 형제에게 그리 말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 마음에 그 형제와 그 형제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제 마음이 그 형제의 가정을 생각할 때 매우 갈급한(desperate)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부부 관계가 그 정도로 심각한 줄 전혀 몰랐다가 그 형제를 통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의 부인을 세 번이나 만나면서(마지막 세 번째 만남은 그 부부의 딸을 일대일로 만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혼자 저를 만나는 게 편치 않아서 엄마라 같이 나왔기에) 그 부인 자매의 말을 마음의 귀로 경청했을 때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제 마음이 desperate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말하여 그 형제의 집을 밤 10시 40분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 자매 앞에서 그 남편 형제에게 그렇게 말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글을 써 내려가면서 그 형제와 그 자매를 생각할 때 그저 저는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5. 부부의 갈등이 극심화 되어 부부의 위기가 왔을 때에 부부는 제 3 자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a. 제가 오래 전에 읽은 결혼에 관한 책들에 근거하여 결혼 예비 상담(pre-marital counseling) 원고를 작성했었을 때 부부 갈등의 해결 방법들 중 마지막 방법이 제 3 자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여기서 제 3 자란 주로 전문적으로 부부 상담을 하는 부부 전문 상담가를 말합니다.
- b. 그런데 이번에 ‘인터넷 사역 한국어로’에서 제 카카오톡으로 연락 온 지체 중 한 명은 아마 부부 전문 상담가도 부부가 만났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부부가 desperate 했으면 부부 전문 상담가까지 만났는데도 별 효과가 없어서 저같이 전문가도 아닌 목사에게 용기를 내서 연락을 했을까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갈급해서 그 부부를 만나려고 노력해지만 피치못할 그 부부 사정으로 결국 만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부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로나마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6.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부부요 극심한 암흑과 같은 어두움 가운데 있어 보이는 부부라 할지라도 그러한 극심한 부부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사랑을 충분히 베풀어주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 a.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희 부부의 큰 위기들 가운데 제일 큰 위기는 결혼 초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제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리 말했다는 것은 매우 후회스럽지만 그 때에 저는 아내하고 이혼하고 싶었을 정도로 아내에게 매우 분노했었습니다. 왜 제가 그 정도로 분노했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저는 그 때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때에는 지금처럼 정도로 저는 아내와 어떻게 대화(소통)를 해야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저는 극단적인 생각을 입을 열어 아내에게 그대로 말하는 정도 밖에 안되는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저는 제 아내와의 부부 관계에서 저의 매우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격을 많이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만큼(부부 관계만큼) 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름과 어리석음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좋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부 관계를 맺어가고 있던 가운데 결혼 10 주년 때 읽은 책 한

권이 어느 면으로 보면 저희 부부 관계에 전환점(turning point)이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저자: 에머슨 에거리치)입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결혼 10 주년이 된 어느 하루,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그 책의 12 장(chapters: 6 장은 남편은 읽는 것이고 나머지 6 장은 아내가 읽는 것임) 각 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는 질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아내에게 묻고 서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때 그 시간이 적어도 저에게는 남편으로서 큰 도움과 유익한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부부 생활 27 년 동안 평생 잊지 못할 일은 저희 부부의 첫째 아기인 주영이의 죽음입니다. 그때만큼 저는 시편 63 편 3 절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경험한 주님의 놀랍고 굉장한 구원의 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 때만큼 저희 부부의 위기가 없었지만 첫째 아기의 죽음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므로 부부 관계의 성장의 큰 디딤돌(stepping stone)이 되었습니다.

- b. 저는 지금 부부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생각할 때 오직 주님만이 그 부부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주시는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주님은 우리 같이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로 다시 살리신(거듭, 중생)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려모로 죽은 것 같은 부부 관계조차도 우리 부활의 주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부 위기 가운데 있는 주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먼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주시므로 인해 부부 관계에도 큰 변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부부 관계의 고비 극복하기 원리/방법(?)

달리기를 대화를 아내가 하기를 좋아하기에 듣다가 제가 아내에게 제 달리기를 통해 배운 점을 나눴습니다. 그 배운 점이란 저는 그저 동네 한 바퀴를 머리 속으로 숫자를 세 가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뛰는데(한 3 miles, 2600 보) (아내는 자기는 도저히 저처럼 머리로 숫자를 세면서 못 뛰겠다고 함 ㅎㅎ 이렇게 부부가 달리는 스타일도 매우 다름 ㅎㅎ) 집에서 나가서 한바퀴를 돌 때에 언덕 길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뛰고 왔는데 그 언덕길 끝까지 뛰는데 한 300 보가 됩니다. 한 150 보는 괜찮은데 한 150 부터 300 보 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면서 그 "고비"만 넘기면 동네 한바퀴 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에게 부부 관계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결혼해도 그러한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를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하면 된다고요. 물론 저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말할 때에는 신혼 부부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혼해서 한 3년까지 몇 번이고 이혼하고 싶은 "고비"가 있겠지만 그 고비를 주님께 매달리면서 간구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잘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하면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혼 부부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같이 황혼이혼 등 있는 사회에서 부부 관계에서의 고비는 신혼 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비를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내며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를 저는 달리기를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내에게 나눴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부 관계의 고비 극복하기' 원리/방법(?) 한 3 가지만 즉석으로(? 하하) 나눕니다:

(1) 주님께서 주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는 기초/근본으로 돌아가기.

저희 부부의 경우 이 확신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결혼생활을 뒤돌아보면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 중 하나는 바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저와 아내를 주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지는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2) 주님께서 주님의 가정을 세우신다는 약속을 붙잡기.

저는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을 가정에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선 우리 부부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부부와 가정을 세울 수 없는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부부의 고비를 통해서 좀 철저히 깨달고 우리 자아가 무너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에서야 무릎 꿇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그 부르짖을 때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을 붙잡고, '주님, 저는 저희 부부 관계를 세울 수 없고 가정을 세울 수 없지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세요'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3) 주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잘못이든 부족함이든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바 부드러운 마음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존경하기를 재헌신하기.

이 세번째 원리/방법(?)은 두 번째 원리/방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각인된 사랑 스타일

## [Imprinted Love Style (ILS)]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선물 받은 책들 중에 부부 관계의 사랑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저녁에도 잠들기 전까지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저자가 말하고 있는 "love style"(사랑 스타일)과 "imprinted deficit"[각인된 결손(여기서 "결손"이란 "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네이버 사전)]란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일 새벽에 이렇게 교회 목양실에 와서야 간략하게 컵라면과 밥과 김치랑 먹은 후 그 두 마디 말을 연합해서 "각인된 사랑 스타일"(Imprinted Love Style)이란 제목 아래 글을 써 내려가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저나 제 아내가 우리는 부부로서 서로의 사랑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나 제 아내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각자 부모님에게 (우리도 모르게?) 보고 배운 사랑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 예를 들어, 저는 자라나면서 제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 스타일이 각각 다릅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제가 어릴 때 어머니는 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희생적인 사랑이었고(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된 사실임), 제가 사춘기 때 느낀 어머니의 사랑은 과잉 사랑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를 향한 제 아버님의 사랑은 말씀도 없고 표현도 별로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3. 이렇게 저는 부모님의 각각 다른 사랑의 스타일을 보고 자라나면서 제 기억에 각인된 부모님의 사랑의 결손(어느 부분이 없거나 잘못되어서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그 결손 중에 제 기억에 제일 크게 각인된 있는 것은 부모님이 서로 다투셨을 때(제 부모님의 부부 갈등) 제 어머니는 자꾸만 과거에 제 아버님으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불만을 불평하셨습니다. 저는 자라나면서 제 어머니가 제 아버님에게 반복적으로 불평하시는 소리를 들은 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정도로 저는 그 불평의 소리를 듣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 때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왜 제 어머니가 제 아버님에게 그리도 수 없이 불평의 소리를 내셨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제가 생각하게 된 것은 제 어머니는 그녀의 남편과의 부부

관계에서 미해결된 문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는 부부 갈등이 있었을 때마다 그 과거의 얘기들을 계속 그녀의 기억에서 끄집어 내서 그녀의 남편에게 쏟아 부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H. Norman Wright 목사님의 책들을 읽다가 '과거로부터 자유하는데 헌신하라'는 말에 도전을 받아서 제 마음에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나는 사랑하는 내 아내와 함께 살면서 그 날 그 날 부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내 아내의 마음에 미해결된 문제가 없어서 내 아내로 하여금 부부 갈등이 있을 때 불평의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를 만나 결혼했을 때 어떻게해서든 제 아내로 하여금 제 어머니처럼 결손된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만족 속에서 불평하지 않도록 힘써야겠다고 마음먹고 그리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로하여금 저와의 부부 관계의 삶 속에서 과거로부터 자유하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4. 그런데 저희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신혼 여행에 가서 크게 싸웠습니다. 싸웠다고보다 제가 잘못해서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혼났지요 ㅎㅎ.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아내는 신혼 여행에 왔으면 자동차도 빌렸으니(rented) 여기 저기 다니고 싶어했는데 저는 그냥 호텔에 있고 싶어서 호텔 로비에 있는 비디오 가게 가서 영화 한편 비디오를 빌려다가 호텔 방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ㅎㅎ 그러나 아내가 열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하.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쏟아 부는 불평의 소리를 듣기 싫어서 호텔 방 베란다로 그냥 나가서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ㅎㅎ. 그랬더니 아내가 거기까지 따라와서 분노 속에서 불평의 소리를 저에게 쏟아붓길래 제가 들고 있는 책으로 제 얼굴을 가리므로 아내의 얼굴을 보지 않고 아내도 저를 못 보게 했답니다. ㅎㅎ 이것이 저희 부부의 제일 첫번째 '각인된 결손'(Imprinted deficit)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약 28년이 지났는데도 제 기억력에 뚜렷하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ㅎㅎ 그 정도로 저의 사랑 스타일은 제 아내의 사랑 스타일과 매우 달랐습니다(very different). 다시 말하면, 제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사랑의 방법과 제가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방법이 매우 차이가 컸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저희 부부의 사랑의 스타일 또는 사랑의 방법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 부부 각자가 남자와 여자로서도 매우 다르고 또한 자라난 배경도 매우 다를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들도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5. 제가 볼 때(제 아내는 어떻게 보는지 저랑 다를 수 있겠지만요) 저와 제 아내는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의 차이(differences) 외에도 "제임스"와 "제인"이란 개개인의 차이와 더불어 우리 각자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은 각인된 부모님의 사랑 스타일의 결손의 차이가 무시 못할 정도로 우리 부부 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로 제가 잊을 수 없는 추억은 저희 가정이 잠시 한국에 가서 살고 있었을 때 하루는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저와 제 아내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때 왜 갈등이 있었는가 하면, 저는 제 아들이 유치원에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양보하길 원했고, 제 아내는 그녀의 아들이 양보하기 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아이들에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내와 갈등이 있는 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저는 부부 갈등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이 전에 저는 부부 갈등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라디오 방송을 통해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지 강의를 들었었음). 그 유익이란 부부 갈등을 통해 저는 저와 제 아내가 자라난 배경 속에서 부모님에게 받은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저는 자라나면서 제 아버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것을 영향을 받았다면, 제 아내는 말쑥해서 부모님에게 양보하면서 살았기에(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기에) 사랑하는 아들도 자기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면서 사는 것을 원치않았던 것입니다.

6. 이렇게 저희 부부는 부부 갈등을 통해 서로의 다른 점들을 깨달아 가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각인된 결손도 깨달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사랑 스타일도 매우 달라서 부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ㅎㅎㅎㅎ. 그 정도로 제가 볼 때 저희 부부는 각자 각인된 사랑 스타일이나 각인된 결손으로 인한 우리 각자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완강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그리고 나서야 주님께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서로의 각인된 사랑 스타일이나 각인된 결손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고, 서로 사랑케 만드셨습니다. 그제서야 저희 부부는 우리 부부 둘만의 공통된 사랑 스타일을 찾게(발견하게) 되었고, 만들어 가게 되었으며, 또한 그 공통된 사랑 스타일을 존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그 공통된 사랑 스타일이 저희 부부 각자에게 100% 마음에 드는 사랑 스타일이 아니지만 저희 부부는 수많은 갈등을 통해 서로의 각인된 사랑 스타일을 알아가면서 각자의 사랑 스타일을 어느 정도 존중하면서 우리 부부만의 사랑 스타일을 만들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저희 부부 각자의 마음에 그 공통된 사랑 스타일을 계속해서 각인시켜주시고 계십니다.

#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 (The Avoider Love Style)

요즘 제가 선물을 받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HOW WE LOVE”(저자: Milan & Kay Yerkovich)입니다. 이 책의 요점은 “Discover Your Love Style, Enhance Your Marriage”(당신의 사랑 스타일을 발견하고, 당신의 결혼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하세요)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제 5 장 “The Avoider Love Style”(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이란 제목 아래 저자가 쓴 글을 읽으면서 마음 속으로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이다’(This is about me)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1. 저는 회피하는 사람입니다(I am an avoider). 저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주고받는 상처를 매우 싫어하기에 웬만하면 다 회피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부 갈등 문제를 대부분 회피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감정들을 억제하고 억누르면서 부부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제 아내를 통해서야 제가 속으로 분노(inner anger)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부부 다툼 후 속으로 분노하면서 참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기에 제 분노를 어떻게해서든 아내에게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처음 아내를 통해 제가 “passive-aggressive”(수동적-공격적)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 한 마디로, 저는 간접적으로 아내를 공격하는 스타일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제가 직접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저는 confrontational (대결적) 스타일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부 갈등이 일어나면 입을 다물고 속으로 화를 내면서 간접적으로 아내를 공격하지 대놓고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 화난 감정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는 바로 잠언 27 장 5 절 말씀입니다: “맞대 놓고 책망하는 것이 숨은 사람보다 낫다”(Better is open rebuke than hidden love).
2. 이러한 저에게 “HOW WE LOVE”라는 책의 “The Avoider Love Style”(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이란 제목 아래 저자가 쓴 글은 저로 하여금 이렇게 다시금 그 책을 되돌아보면서 제

자신에게 반영해보고 솔직하게 글을 쓰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hyper-independent”(매우/과도하게 독립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회피자는 제 자신 스스로 일들을 해결하고 결정도 혼자도 내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는 상황을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고, 누구와 상의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자녀들도 독립적인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매우” 또는 ‘너무나’ 독립적이어서 어쩌면 제 아내의 입장에서선 자신이 고립되었다(isolated)는 생각 속에서 외로움(loneliness)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ouses of avoiders say they sometimes feel like they’re purposefully being ignored”(회피하는 사람들의 배우자들은 때때로 자신이 의도적으로 무시당하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3.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Vulnerability, emotions, neediness, honest reflection that bring self-awareness”(취약성, 감정, 궁핍함, 자기 인식을 가져다주는 솔직한 성찰)를 회피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제 자신을 성찰하면서 제 자신의 취약점도 이웃에게 나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가부터인가 제 아내는 제가 제 취약점을 다 진솔하게 나누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이 아직까지 제 마음 속으로 제 아내의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제 자신이 제 취약점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자신의 취약점을 회피한다고 쓴 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금 좀 더 정직하게 성찰해 볼 때에 저는 제 자신의 진정한 취약점은 아무에게도 나누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로 아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4.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어쩌면 어릴 때 자라나면서 아버님에게 제한된 육체적 사랑(limited physical affection)을 받았고 또한 부모님과 제 감정적 연결(emotional connection)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제 “emotional life is underdeveloped”(제 감정생활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제 감정을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제 필요를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restricting my feelings and limiting my need for others). 그래서 제 삶에 대한 저의 답은 “self-sufficiency”(자급자족)인 것 같습니다.
5.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화가 나든지 하면 스스로 제 자신을 격리시킵니다(isolate). 그리고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오면서 느끼지 않는 기술을 터득했기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기 위해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합니다(Since I have mastered the art of not feeling, it usually takes a great deal of stress before I experience much discomfort). 그리고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들은(avoiders) 운동이나 일이나 스포츠 등으로 비관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웠기에 사랑하는 아내가 화가 났을 때, 저는 아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An avoider like me have learned to comfort myself in nonrelational ways, through exercise, work, sports so when my wife is emotional upset, I may expect my wife to take care of the problem on her own because this is what I do).

6.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은 과도하게 독립적(hyper-independent)이래서 다른 사람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A hyper-independent person like me wants to be in charge in order to keep others at a safe distance and to maintain control over my emotion).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은 둘째 치고 심지어 제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 아내하고도 ‘건강한 경계선’(healthy boundary)를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리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경계선’은 제가 원하는 ‘안전한 거리’(a safe distance)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저의 미숙한 감정(my underdeveloped emotions)이 더 이상 상처를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저 같은 사람이 취약해지도록 밀어붙여지면, 저는 좌절감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심지어 제 아내까지도?) 밀어내게 될 수 있습니다(If pushed to be vulnerable, I am likely to respond with frustration and effectively push others away).
7. 이렇게 저는 “HOW WE LOVE”라는 책의 “The Avoider Love Style”(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이란 제목 아래 저자가 쓴 글을 다시 읽으면서 제 자신을 성찰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8. 저는 제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을 아내에게 좀 직설적으로 진솔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내의 말에 기분이 상하면 주로 아무 말을 안하고 비언어적인 행동으로 ‘나 지금 기분이 안좋아’라고 표출하곤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인식하여 줄여 나아가면서 그 때 그 때 진솔하게 제 생각이나 감정을 제 아내에게 지혜롭게 잘 나누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9. 저는 제 아내와 마주하는 것(confronting her)을 잘 못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제가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아무리 내 의견을 말해보았자 내 아내는 이해하려고 내 말을 듣기보다 자기의 강한 생각을 주장할 것이기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제 자녀가 있는 앞에서 제 아내와 의견 충돌이 있으면 거의

회피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자녀 앞에서 부부가 싸우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마 제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가 다투면 아빠는 항상 회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가 제 생각을 바꿔서 더 이상 아내와의 문제를 회피하기보다 좀 아내를 마주해서 잘 대화하는 모습을 저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저는 필요합니다.

10.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독립심이 강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매우/과도하게 독립한(hyper-independent)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 아내가 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보면 제가 좀 더 독립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대화하고 결정하고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 (The Pleaser Love Style)

저는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하고 제가 쓴 “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The Avoider Love Style)이란 글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아내도 제가 “hyper-independent”(매우/과도하게 독립적)이라는 것과 제가 너무나 경계선을 분명하게 긋는다는 제 말의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아내에게 ‘내가 왜 이러는지 내 자신도 모르겠다’는 제 심정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저를 포용해주면서 “It’s okay. God knows”(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저는 아내의 그 한 마디에 마음에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제가 “HOW WE LOVE”(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란 책을 읽으면서 5장에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The Avoider Love Style”(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에 대한 글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 다시금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고 성찰하면서 글을 적으므로 제 자신에 대해 좀 더 알아가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만드신 전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저를 제일 잘 알고 계신다는 사랑하는 아내의 말에 저는 위로와 더불어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어제 아내하고 대화 중에 제가 읽고 있는 “HOW WE LOVE”란 책의 제 5 장은 “The Avoider Love Style”(회피하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이고 그 장이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쓴 후 그녀하고 대화를 했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 다음 장인 제 6 장은 “The Pleaser Love Style”(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녀의 답변은 ‘That’s me’(그게 바로 나입니다)였습니다. 하하. 안 그래도 저는 그 6 장을 읽으면서 제 아내가 생각났었는데 아내가 그리 말하니까 저는 그 장을 다시 읽으면서 남편인 저의 입장에서 제 아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아내를 좀 더 알아가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의 입장에서 아내를 사랑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쓰길 원하기 때문입니다(이 글도 사랑하는 아내가 읽고 함께 대화하길 기대합니다)(실제로 제가 어제 이 글을 쓰는 것을 다 끝내지 못했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사랑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감사한 것은 약 28년 결혼 생활에 제가 아내에 대해서 몰랐던 것들을 아내가 저에게 진솔하게 나눔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1. 어떤 아이들은 자라나면서 많은 불안(a lot of anxiety)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과보호적인 부모(overprotective parents)가 자녀에 대해 너무나 걱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화가

많거나 심하게 비판적인 부모도 - 종종 자신도 모르게 - 자녀에게 이런 각인을 심어주는데, 그러면 자녀는 비판이나 분노를 피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란 그 자녀는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써 부모나 가족의 긴장을 줄이고 승인(approval)이나 인정(recognition)을 얻으려고 ‘좋은 소년’이나 ‘좋은 소녀’의 역할을 맡는다는 것입니다(“A youngster adopts the role of the good boy or good girl in an attempt to gain approval or recognition and to reduce tension in the parent or the family by pleasing rather than causing problems”). 저는 이 부분의 글을 읽으면서 어쩌면 제 아내는 과보호적인 어머니가 너무나 걱정을 하셔서 자라나면서 많은 불안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제 아내의 말로는 그녀는 어머니에게 칭찬을 받기보다 비판적인 말들을 들으면서 자라났다고 합니다. 제 생각엔 그 이유는 장모님은 제 아내를 너무나/지나치게 사랑하셔서 아내에게 걸었던 기대가 크셔서 그리 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제 아내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승인이나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승인이나 인정을 받으려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순종하는 딸’의 역할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감당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제 아내는 많은 긴장을 흡수하고 그녀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부모님의 감정을 알고 책임을 져야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관계적 스타일을 주도하는 불안을 숙고하거나 처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These children absorb a lot of tension and try to find relief for their own anxiety by making others happy. Being aware of and responsible for the feelings of others, the pleaser has no opportunity to contemplate or process the anxiety driving his or her own relational style”).

2. ‘성인 관계에서 돕는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근본적인 동기는 사람들을 가까이, 만족스럽고 만족스럽게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불안을 줄이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면 그들도 행복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가 나면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도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리를 두거나, 분리되거나, 화가 나면 그 결과 관계에서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불안을 유발하고 기쁘게 하려는 사람을 갭을 메우려는 노력으로 추구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수년간 만성적인 걱정과 과도한 베품을 한 후에 종종 원망이 생깁니다’(“In adult relationships, the underlying motivation for being in the helping role and focusing on the needs of others is to reduce one’s own anxiety by keeping people close, content, and satisfied. When those around pleasers are happy, they are happy too. If others are upset, pleasers are distressed as well. When others distance themselves, detach, or are angry, the result is space in the relationship. This space causes agitation and drives the pleaser into pursuit mode in an effort to close the gap. ... After pleasers spend a number of years of chronic worry and over giving, resentment often emerges”).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저와 제 아내의 관계를 제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제가 행복하면 그녀도 행복하기에 그녀는 저를 기쁘게 하고자 저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므로 저와의 만족스러운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아내가 볼 때 “hyper-independent”(매우/과도하게 독립적)인 제가 아내가 저랑 함께 하고 싶은 것을 제가 고집스럽게 거부하고 있으므로 우리 둘 사이에 공간(space)이 그녀로 하여금 충분히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건강하지 않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모는 과잉 사랑하는 자녀를 놓아주고(letting a child to go) 통제권을 포기하는 데(relinquishing control)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부모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제권이 필요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러한 역동성은 자녀에게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가르치는 것보다는 부모가 주도권을 잡아서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는 시도에 더 가깝습니다’(“Fearful parents need control in order to minimize risk. In many respects, this dynamic becomes more about the parents’ attempts to reduce their own anxiety by being in charge, rather than about their teaching the child to conquer his or her fears”).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모는 자녀가 다치는 것을 원치 않기에 그러한 자신의 불안을 줄이려고 자녀를 통제(control)하되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조종(manipulate)까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자녀를 자기 곁에 두든지 자기와 가까이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를 돕는데 과도하게 헌신합니다. 그 부모는 자녀가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대로 다 줘서 자녀에게 해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You can’t do it by yourself; you need my help”(혼자서는 알 수 없어. 너는 내 도움이 필요해). 이렇게 자녀를 믿음으로 놓아주지 못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여 실패를 경험하는 것도 용납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자녀 또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상호의존적(codependent)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상호의존적인 관계는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겪고 있는 관계입니다.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음, 미성숙, 무책임, 성취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계의 역동성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한쪽 또는 양쪽 당사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삶의 다른 영역을 소홀히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그들의 극단적인 헌신은 우정, 교육 또는 직업 기회 또는 일상적인 책임과 같은 다른 중요한 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호 의존적이라고 느끼거나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의존하는 사람은 평등하고 양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종 다른 사람이 번성하도록 격려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희생이나 공핍에 의존하게 됩니다. ... 이것은 개인이나 부부의 성장을 방해하고 독립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위한 공간을 거의 남겨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인터넷)].

4. 부모가 만들어 놓은 ‘안전한 동지’를 떠나지 못하는 자녀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자신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라도 속박되어 있어서 건강하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로 인해 충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모는 그들의 자녀에게 끼치는 안 좋은 (나쁜)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순간순간 마다 자녀를 걱정하고,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서든 해소하려고 자녀에게 잔소리하면서 이것저것을 다 참견하는 등 자녀를 숨막히게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모는 여러모로 자녀를 장애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자녀는 정신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자녀는 어떻게 해서든 발버둥쳐서 부모님의 보금자리를 육체적으로 떠난다 할지라도(주로 대학교 갈 때 멀리 대학교를 가면서 기숙사로 이주하는 것)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부모에게서 받은 많은 나쁜 영향에 이미 길들여져(conditioning)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부모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부모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신적 연결은 건강하지 못하기에 그 자녀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고민과 혼란과 괴로움을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감정적으로도 자녀와 부모가 병든 연결 고리로 매여 있다면 그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하지만 미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애증). 이러한 매우 심각하고 병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평생 자녀로 하여금 정신적 자유나 감정적 자유 등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 받은 안 좋은(나쁜) 영향의 그늘에 속박이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위험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5. 이렇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부모에게 여러모로 속박되어 있는 자녀가 장성하여 결혼을 하게 되면 그녀의 남편이 혼자 또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할 때 그녀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부의 경우 저는 매우/과도하게 독립적(hyper-independent)이기에 제 아내는 제가 그녀와도 분명한 경계선을 긋고 저 혼자 있는 것을 편안해하면 그녀는 충분히 불안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피하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고립되면 실제로 길을 잃고 불안해합니다’(“While the avoider may prefer to be alone, pleasers actually feel lost and anxious when they’re isolated”). 물론 지금 제 아내는 많이 좋아져서 결혼 초 때처럼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아직도 제 아내는 저처럼 홀로서기를 하지 못하기에 어쩌면 제가 자꾸만 혼자 있고 싶어할 때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저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쩌면 제 아내는 저랑 이것저것을 더욱더 함께 하고 싶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녀는 자신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 ‘결정을 내리려면 일정 수준의 자립심과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할 때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워집니다’(“Making decisions requires a level of self-reliance and self-confidence. Decision making becomes difficult when we are overly concerned about rejection or making others mad”). 이 문구가 저로 하여금 잠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매우(?) 힘들어 합니다. 지금은 결혼 초보다는 매우 좋아졌지만 아직도 제가 볼 때 그녀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좀 힘들어 합니다. 그만큼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거부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그녀는 다른 사람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지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지 자기도 행복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제 아내는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저를 기쁘게해서 제가 행복하므로 자기도 행복하려고 한다면 자랑 함께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결정을 자랑 함께 내리고자 대화할 때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하. 웃은 일을 아니지만 좀 웃음이 나오는 이유는 안 그래도 어제 저희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아내가 속해 있는 한인 달리기(마라톤) 그룹에서 12월 중순에 연말 모임이 있는데 아내는 제가 거기에 자기랑 함께 가길 원해서 저에게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문자로 물어본 후에도 만일 제가 “yes”해서 거기에 가게 되면 제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등등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ㅎㅎ 만일 제가(회피하는 사람인데 ㅎㅎ) 거기 가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아내 외에는) 불편해 하면 아내는 저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에 아내의 입장에서 충분히 걱정하고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어제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연말 모임 초청장을 보낸 후 ‘가질 말까???’라고 글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ㅎㅎ 결론적으로 어제 식사하면서 아내가 달리기 친구에게 그 연말 모임에서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본 후(제가 알기를 위해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자고 합의를 보았합니다. ㅎㅎ
7.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보통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통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분리되면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의 불안은 심화됩니다’(“Fearful pleasers usually control in passive ways with one purpose in mind: to keep others close to them. When people around them detach emotionally or physically, the pleasers' apprehensions intensify”). 저는 이 문구를 생각할 때 제 아내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으로서(a pleaser) 남편인 저를 가까이 두길 원하는데 저는 회피하는 사람인지라(an avoider) 과도하게 독립적이어서(hyper-independent) 아내와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저 혼자 편안하게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는 다르답니다. ㅎㅎ.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저희 부부가 다르다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좀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되어서 어제 아내에게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내 생각엔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짝지어 주셔서 부부가 되게 하신 이유는 나 같은 회피하는 사람이 매우/과도하게 독립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신을 믿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당신을 전적으로 지원하게 하시사 당신이 이렇게 나 없이 마음껏 달리기도 하고 남자들하고도 암벽등반도 할 수 있게 되므로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점점 더 제가 없이도 혼자서 이것저것을 잘합니다. 그 정도로 제 아내는 이젠 더 이상 제가 자신하고 떨어져 있어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회피하는 저와 기쁘게 하려는 아내를 부부로 만들어 주신 섭리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하.

8.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시도에서 일정이 너무 빡빡해지고 관리하기 어려워지면서 시간 관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As a result, time management can be a problem as their schedule becomes overcrowded and unmanageable in their attempts to make everyone happy”). 제가 이 문구를 읽으면서 제 아내가 생각난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제 아내는 저희 집 모든 식구를 만족시키려는 시도에 시간 관리를 힘들어 하곤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전에 저희 식구가 무엇인가를 다 같이 하려고 대화를 했었을 때 그녀는 남편인 저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만족시키고 싶어하였기에 시간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내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스트레스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내는 무엇인가를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했고 지금도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 그만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다 기쁘게 하려고 하다보니 생각이 저절로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생각들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속전속결을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피하는 저는 과도하게 독립적이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만족케 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는 스타일이기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아내의 입장에서 저를 바라볼 때 시간 관리를 그렇게 쉽게 잘 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동시에 자기는 왜 남편처럼 못하는가 자책하면서 시간 지키는 것을 중요시하는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자책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부 차이 가운데서 엿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젠가부터 제 아내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저와 의논해서 저의 의견을 듣고 나름대로 결정하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덜 받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서로의 장점으로 보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점점 더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됩니다.
9.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주는(베푸는) 것은 좋아하지만 받는 것은 잘 못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거나 느끼는지 물어보면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종종 모릅니다’ (“Pleasers are good givers, but lousy receivers. When asked what they want or feel, pleasers often don’t know”). 저

같은 회피하는 사람은 받는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제 아내와 같은 사람은 주는 것은 잘하지만 받는 것은 잘 못합니다. 심지어 제 아내는 제가 무엇인가를 줘도 항상 다 받지 않습니다. ≡ 제 생각엔 사랑은 주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히 받는 것도 사랑인데 제 아내는 상대방을 나름대로 많이 고려/배려해서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선물 등을 주는 것을 좋아하지(기뻐하지) 저 같은 남편이 나름대로 사랑하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줘도 제 마음을 잘 받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아내는 저의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제 아내는 받는 데 서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좀 아이로니 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제 아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남편인 저를 많이 배려한다고 생각하면서 남편이 주고 싶은 선물 등을 받는데 서툰으로 결국 저의 마음을 잘 배려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

10.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두려운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어, 보호의 필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습니다’ (“Pleasers tend to be hyperalert about possible fearful responses from others, so they may overemphasize the need for protection”). 당연히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보호해야 하는데 회피하고 과도하게 독립적인 저는 제 아내의 입장에서 그녀를 잘 보호하지 못하는 스타일입니다. 특히 저는 제 아내가 여러모로 독립적인 사람이고 홀로서기를 잘 하는 여자가 되길 원하기에 제 아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게 지지하는데 저의 사랑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의 입장에서 저의 반응에 대해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아내가 원하고 필요한 보호를 제가 해주지 못할 때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저는 “hyper-independent”하고(과도하게 독립적이고) 제 아내는 저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hyperalert”(과도하게 민감)하는 것이요. ≡≡ 이렇게도 참 많이 다른 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부부가 되게 하셔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식하게 하시는 가운데서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보완케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실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걸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하하!

## 깨진 부부 관계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이미 깨진 부부 관계의 신뢰,  
신뢰 회복의 열쇠는 부부 각자 자신에게 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불안함과 두려움과 상처 등,  
부부 관계의 신뢰가 회복이 조금 있을 듯하다가도  
다시금... ㅠ  
서로를 바라보기 보다  
오직 주님 만을 바라보아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견고함을 도모해야.  
그러한 가운데서 배우자를 바라보아야.  
주님 안에서는 깨진 부부 관계의 신뢰 회복이 가능함.

# 상담을 통한 교훈

상담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혹시나 유익할까 하여 몇 가지 나눕니다:

1. 부부 관계의 지속되는 갈등은 그만큼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서로를 잘 모르기에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언행을 판단(속단?)하게 되고, 선입관을 가지게 되면서, 참고 참다가 결국에는 불만족이 표출되므로 감정(분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남편과 아내는 갈등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합니다.

2.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견고하게 세우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은 부부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의문을 들게 만들다가, 의심케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신뢰를 깨트리려 서로 불신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도구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지금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원인은 상대방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믿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생각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안: '나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당신을 신뢰하기로 헌신했어. (심지어 나중에 당신이 나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3. 표면적으로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그 증상의 내면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내 배우자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내 배우자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 것일까? 혹시 그 이유/원인인 그/녀의 마음에 과거에 신뢰하던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임(배반?)을 당하여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제안: 배우자의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 주님의 치유의 도구로 쓰임을 받길 기도해야 합니다.

4.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부부 대화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남녀가 너무나 다르고, 남녀의 대화 방식도 다른데(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말을 듣는 방식도 너무나 다른데) 서로를 향하여 신뢰가 없다면(상대방이 거짓을 자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진실된 부부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제안: 사랑의 마음의 귀로 배우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마음속 이야기를 꼬집어 내야 합니다.

5. 부부가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진실된 대화가 결핍한 가운데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없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께 하듯 존경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익한 부부 갈등은 지속될 것이며 오히려 더욱더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안: 배우자를 바라보기 전에 나 자신이 주님을 먼저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존경이 무조건적으로 배우자에게 향할 수 있도록 마음의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김진세 박사의 K 상담실]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  
이혼해야 할까요? 부부행세만 하고 살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1633005&code=940100&nv=st&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61633005&code=940100&nv=st&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2_thumb&C)



제목이 좀 충격적(?)이래서 무슨 기사 내용인가 좀 읽어보면서 "김진세 박사"라는 사람과 "김은주"라는 사람의 상담 내용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내용(배울 점들)이 여러 점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한점, 한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 제가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김은주)

이 기사에 나오는 "김은주"씨, "온갖 힘든 상황도 혼자 힘으로 다 이겨낸 사람인데"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한 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너짐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지를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는 웬만하면 잘 깨지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지만 우리가 주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부분은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제일 취약점이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이 기사에 나오는 김은주씨처럼 남편(배우자)이든 자녀를 통해 우리는 충분히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2) "가장 신뢰를 줘야 할 남편이 그랬다니 배신감이 들었겠습니다"(김박사)

부부 관계에서 신뢰가 깨질 때 드는 배신감, 또한 아버지/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짐으로 드는 배신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깨짐에는 거짓(말)과 속임수 등이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를 속이는 것일까요?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3) "내가 못났다보다 .. 지금은 그냥 제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김은주)

제가 한국어가 짧고 등등해서 제대로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도를 한다면 김은주 씨의 "내가 못났다보다"라는 말 속에서 저는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자아학대"였습니다. 잘못은 남편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숨기고, 김은주 씨하고 결혼을 해서 부인이 배신감을 들었는데 ... 그러면서 "내가 못났다보다"라는 생각을 상담을 받으면서 말한 것을 생각할 때 가정의 큰 어려움과 위기 때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었을 때 1년이 넘도록 제 자신을 매우 학대했습니다. 그 자아학대란 제 죄로 인해서 제 자녀가 죽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으로 제 자신을 학대했었던 것입니다.

(4) "결혼할 상대라면 당연히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만 하고요."(김박사)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지체에게 결혼하기 전에 당신의 성적으로 범한 죄를 미래 배우자에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 권면한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백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보이는 결혼할 미래 배우자에게는 숨기고 결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결혼전에 성관계를 맺고, 임신하고, 아기를 지우고

등등 ... 이런 일들이 문란한 이 세상에서 죄를 죄로 여기는 능력이 상실되었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할 상대라면 당연히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고 결혼하는 경우... 그래서 김은주 씨처럼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배우자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 "당사자에게는 감옥 같은 곳이었나봐요. 그래서 가족들과 떨어지고 심은데, 유일한 방법이 결혼이었을 거예요"(김은주)

여기 미국에선 자녀들 중 일부러 대학교를 멀리 떠나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이유 중 하나는 도피입니다. 즉, 부모님과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도피하고자 대학교를 일부러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삽니다. 등등.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그 원인은 부모님과 관계에 문제/상처 등등이 많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혼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 김은주 씨가 자기 남편을 볼 때에 자기 남편이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주종관계", "상호의존적 관계" ... 부인이 볼 때에 자기 남편이 그런 관계를 어머니하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확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이상적"인 관계처럼 보일지라도 속사정을 알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등 문제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 중 제가 매우 심각하게 여기는 것을 이 기사에 나오는 김은주 씨는 "감옥 같은 곳이었나봐요"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그 자녀들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감옥에 가두는 죄를 범할까봐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자아성찰/반영하면서 부단히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나 제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 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님 안에서 먼저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이점을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자식을 심리적/정신적으로 본이 아니게 감옥에 가두어 심리적/정신적 쇠사슬에 매이게 하는 이 일이 부모님이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우리 부모들이 죽어서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로 인해 심리적/정신적으로 '감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 붙잡는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입니다(요 8:32). 지금 너무나 많은 지체들이 여러모로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매우 자유스럽게 보이지만 심리적/정신적으로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심리적/정신적도 그런데 만일 영적으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면.. ㅠㅈ]

이 기사에 김은주 씨는 자기 남편만 도피성 결혼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도 "저 역시 가족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많았어요. 집을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둘렀다는 걸 부정하지 않겠어요"라고 말한 점입니다. "두 사람(남편과 아내) 모두 가족을 떠나고 싶었고, 그 때는 서로 사랑한다고 믿었고요"라는 말... 귀한 고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중요하구요.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 전에 왜 내가 지금 이 상대방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자신의 마음에 동기 등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김은주씨처럼 내가 이 형제/자매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내 가족에 대한 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좀 집을 떠나고 싶어서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라면 위험합니다. 지금 현재는 집을 떠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려서 ... 그리고 이 형제/자매하고 둘 이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등등 생각이 많이 들겠지만 그러한 이유로도 결혼을 한다면(서두룬다면) 김은주 씨처럼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어려움이 내 배우자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자녀로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으로 인해 내 배우자나 자녀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들로 인해 극심한 자책감/죄책감/괴로움 등으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도피성이 아닙니다. "결혼의 목적이 결혼 자체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불행해지기 쉬워요. 물론 사람마다 결혼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부가적인 목적의 가치가 과장되면 안 됩니다. 지긋지긋한 현실을 탈출하기 위해 결혼했다면, 처음에는 목적을 이루었으니 만족스럽겠죠.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대가가 따르게 마련이죠. 흔히 생기는 남편 또는 시댁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 같은 것 말이에요." (김박사)

(6) "개인적으로 요즘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김박사)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부 관계(부자 관계도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관계도 ..), "그래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관계가" 행복의 중요한 조건이라 저 또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 문장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지속할 수"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사람 안에 있다고 믿고, 나 중심적인 능력으로 부부 관계 등을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관계는 언젠가는 깨질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저는 제 아내하고의 관계부터 해서 제 3 자녀들 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시여기는 것은 주님과 저하고의 관계, 주님과 제 아내하고의 관계, 주님과 각각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여기고 노력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하는 식구와의 친밀한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선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때만이 온전히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집이란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도 (수평적인)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선 먼저 (수직적인) 주님과 친밀한 교제(사귄)가 없이는 온전한 교제가

불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가족이란 공동체 안에서 집안의 가장인 저같은 남편/아빠가 주님과과의 친밀한 교제를 게을리하게 되면 그 결과(consequences)는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교제뿐만 아니라 제 세 자녀들과의 관계/교제 및 교회 식구들 등등 모든 인간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듯이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저 자신을 사랑하여 주님이 저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고 계시듯이 저 또한 자신을 그리 대하므로(사랑하므로) 제 아내와 자녀들 등을 사랑하고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고 실천에 옮기려고 부족하나마 애쓰고 있습니다.

(7) "섹스란 단순한 본능의 산물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인 목적도 있지만, 감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거든요." (김박사)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섹스의 이 두 가지 목적 중 저는 우선순위를 "아이를 낳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 생각하는 근거는 말라기 2 장 15 절입니다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1322162543>).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섹스란 "친밀감을 유지하는 중요한 소통의 수단"이란 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혼의 목적 중 하나가 '성적 부도덕 행위의 회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고전 7:2-3)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1322161982>). 부부관계에 있어서 섹스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섹스리스부부"(1년에 10회 미만, 한달에 1회 미만 잠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 신호라 생각합니다. 부부가 섹스를 즐겨야 하며, 서로에게 성적 만족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부부는 서로 섹스를 즐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섹스에 대한 대화도 즐겨야 하며 더 나아가서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자녀들에게도 섹스에 대한 대화를 부모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 "그럼, 이혼하라는 말씀인가요?"(김은주) "선택은 은주씨의 몫이에요"(김 박사)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 전공을 한 이유는 앞으로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을 카운슬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적인 카운슬링(biblical counseling)을 공부하면서 제가 대학교 때 공부한 심리학이 얼마나 인본주의적인 것인지, 사람 중심된 카운슬링인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성경적인 카운슬링을 공부하면서 성경적인 카운슬링에 관심을 가지고 신학교의 과목 외에 따로 책들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있는 중에 이 (8)번의 글을 연관해서 생각나는 점은 상담을 요청한 사람[성도님이든, 아는 지체이든 client(?)]이 상담자에게(이 경우 "김 박사") "이혼하라는 말씀인가요?"라고 저렇게 물어볼 때에 "예, 이혼하세요"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좀

달리 말한다면, 김 박사의 말처럼 "선택은 은주씨의 몫이에요"하고 답해야 한다고 저 또한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짧게 언급하는 이유는 주로 부부 관계가 힘들어서 여러분에게도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때 여러분은 그 상대방 지체를 사랑하기에 그 지체의 감정 등에 개입에 대서 함께 그 지체의 배우자를 함께 불평하던지 등등 하는 것, 과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실까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지체가 여러분에게 '나 그이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혼할까 말까?' 등등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그래, 나 같으면 이혼해' ... 등등 ... 상대방이 선택할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제가 장녀지만, 그냥 어쩌다보니 먼저 태어난 것일 뿐이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나요? 그래야 착한 딸인가요?"(김은주)

"장녀"로서 김은주 씨는 "양보하고 책임지고 희생해야 하나요?" 라고 "김 박사"에게 말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내가 장녀로서 "양보하고 책임지고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양보"라는 단어... 휴... 전에도 나왔지만 한국에서 살았을 때 아내랑 큰 갈등을 통해서 아내를 더 알게 된 점은 아내는 자기가 양보하면 살았던 것처럼 자기 장남 아들이 그렇게 양보하며 (희생하며) 살기를 원치 않은 어미의 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조할 수 없는 거지요. 신앙의 성숙에서 양보하며 예수님처럼 희생의 기쁨을 맛보야겠지요. 소이 말하는 "착한 남자"를 싫어한다고들 그러는데 아마 "착한 딸"로 산다는 것, 부부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에도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은주씨의 결정 이해합니다. 문제는 그런 결혼의 불행한 결과도 오롯이 은주씨가 짊어져야 한다는 데 있죠."(김 박사)

왜 김은주 씨가 그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의 말을 듣고 "김 박사"는 "이해"는 한다고 말은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결혼의 불행한 결과도" 김은주 씨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통해 생각난 것은 결혼의 선택 외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수많은 선택들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선택들의 "결과"(consequences)를 늦게나마라도 깨닫고 "아직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opportunity)를 포착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회개(repentance)가운데 회복(restoration)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것은 물론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늦게 말고 미리 알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만한 지혜를 가지고 결혼하는 젊은 남녀가 몇명이나 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결혼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믿음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은 지혜롭게 잘 선택하겠지요. 그런 지혜의 선택을 제 자녀들이 하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는 제 자녀들에게 미래의 배우자에 대한 진실한 사람, 성품의 초점을 맞춰야 함을 여러 번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등등, 그런 배우자를 만날까봐 전 영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한 가까운 사랑하는 지체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엿보았기에 저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 자녀들하고 가끔 나눴습니다.

(11) "가장 오랜 시간을 나눈 부모·형제가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은주)

그런데 실제로는 "화목한 가족"이 우리 주위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가족처럼 충분히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가족끼리 화목하지 않은 집들이 적지 않"은게 아니라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족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의견 충돌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과 눈물 등... 두 죄인이 모여 한 부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두, 네 배로 서로에게도 죄를 짓겠습니까? 하하.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죄 사함/용서를 믿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을 허물고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기에 그 모든 죄악들이 가족에서 들춰짐에 있어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자신과의 싸움을 부지런히 하는 가운데서 화목한 가족을 세우는데 헌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오랜 시간을 나눈 부모·형제가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피하고 싶고, 멀리하고 싶을 정도로 불편한 관계라면 .. 글썄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화목한 가정으로서 예수님의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하는 증인 공동체인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며 돌이켜야겠지요..

(12)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족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어야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아는 것이 많을수록 행복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니 정말 가족의 행복을 원한다면,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의 행복은 어쩌다 얻게 되는 선물이 아니랍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노력해야죠" (김박사)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습니다. "가족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은 변함이 없"지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가정.... "서로에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더 많이 이해"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어떻게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죽을 때까지 제

아내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한 제 자녀들을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알아감에 있어서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함에 있어서 저는 3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저의 개인적인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해서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는 것임]. 그 3 가지 원리란 (a) 정직 (honesty or integrity), (b) 투명성 (transparency), (c) 상처받기 쉬움 (vulnerability). 그래서 저는 이 원리대로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제 마음의 이야기들을 정직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나누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의 마음의 나눔은 부부 대화뿐만 아니라 저는 세 자녀하고의 대화 속에서도 이 세가지 원리에 따라 실천에 옮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합니다. 서로를 주님 안에서 알아가므로 서로를 이해하며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되 소망을 가지고 이해하며 용납하며 인내하며 등등 사랑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습니다.

##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

주님께서

우리 자녀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를 가정의 견고한 울타리로 세워주시길 간구합니다.

# 사랑하는 첫째 딸 주영(Charis)이를 추모하면서

오늘 4월 27일(2023년)은 주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주영(Charis - 헬라어로 '은혜')이가 제 품안에서 잠든(죽은)지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1998년 3월 30일에 주영이에게 쓴 마음의 편지를 나눕니다:

##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영(Charis)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주영이를 볼 때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매일 주영이를 보러 오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훈련시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단다. 주영이가 좀 나아지면 감사와 더불어 기쁘고 좀 나빠지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신실하신 주님이 아니라 무언가 보이는 증거를 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단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인가 생각해 볼 때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단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영이를 대할 것을 다짐하였단다.

언젠가 주영이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입을 열어 주영이를 불러 볼 때에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영이에게"란 말을 하고는 할 말을 잊었단다. 주영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주영이를 대하기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주영이의 3주란 짧은 삶이 이 아버지의 30년 삶과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가 하는 생각에 이 아버지는 말을 잊지 못했단다. 몽글한 이 아버지의 마음, 곱게 누워있는 주영이의 자는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이 아버지는 마음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단다. 아직도 사랑하는 주영이의 우는소리조차 듣지 못해 본 이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주영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케 되어 건강한 몸으로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껏 아픔을 울음으로 표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단다.

사랑하는 주영아, 이 아버지는 우리 주영이가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하단다.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힘들지만 눈을 떠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자

힘을 쓰는 주영이의 모습을 볼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어쩔 때에는 우리 주영이가 눈을 뜨고 아버지의 얼굴을 똑바로 직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아버지 또한 우리 주영이의 눈을 보면서 주영이의 마음을 읽어보고자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 주영이의 입에 낀 호수들로 말미암아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고 있는 우리 주영이는 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해 볼 때가 있단다. 우리 주영이 하루속히 건강하여 마음껏 소리 내고 싶지? 많이 아플 텐데 입을 열어 응아응아 울고 싶지? 언젠가는 우리 주영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마음껏 울은 후 고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볼 때가 있을 날이 오리라 이 아버지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 때가 올 때까지 우리 주영이 Be Strong 해야 한다. 엄마와 아빠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Strong 하면서 그 날이 오기를 주님 안에서 인내하며 기다리마.

주님 안에서,

주영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1998년 3월 30일)



#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즉, 각 가정마다 고민과 고충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겠지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눕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2.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믿습니다(롬 12:2).
3. 우리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8:28)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되 이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임을 명심합니다(시 63:3).
4.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므로(경험하므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명령(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합니다(신 11:1-7).
5.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 생활을 함께 지향합니다(고전 10:13).

# 옳고 그름의 문제(right and wrong issue)가 아니라 구하는 문제(saving issue)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랑 대화를 했는데 그녀는 저에게 ‘It is not right and wrong issue but saving issue’(‘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문제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녀가 저에게 그리 말을 했냐면 지금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이나 큰 어려움 또는 위기를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저에게 한 말을 주제로 삼고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좀 적어내려 가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1. 지금 제 아내나 제가 알게 된 각자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은 큰 어려움 또는 위기를 접했는데 그 큰 어려움 또는 위기는 소위 말하는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2. 비록 이 시대가 아무리 이혼이 흔하다 할지라도 그 이혼의 과정을 겪고 있는 각 가정 식구들 개개인은 매우 큰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 등등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제 생각엔 이혼을 당하는 사람도 물론 매우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겠지만 어쩌면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더 힘들고 더 마음이 괴롭고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3. 제가 오늘 아내랑 대화를 하다가 그리 생각이 든 이유는 지금 제 아내가 사랑하는 그녀의 친구는 암투병을 5년 동안 한 후에 남편에게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했는데(자녀들은 부모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함) 아마 그 남편은 왜 자기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등 거의 모르고 있나 봅니다. 제가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부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아내를 통해서 전해 들으면서 이혼을 당하는 그녀의 남편보다 오히려 이혼을 하자고 말하는 그녀가 더 괴롭고 더 고통스러우며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예를 들어, 이혼을 당하는 남편의 입장에서는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그가 만일 ‘내가 내 아내에게 이혼당할만한 큰 잘못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녀가 나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는 마음이 매우 혼란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남편을 바라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했을 때에는 그녀 나름대로 오랫동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참고 또 참고 살다가 도저히 안되겠다고 생각되어(인간의 한계를 느끼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는데 그는 그의 아내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영문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만큼 자기가 그녀에게 잘못해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겠지요) 그녀의 심정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녀는 절망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녀는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기로 더 확고히 결심하고 진행하겠지요.

5. 한 가지 제가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가정 문제(family issue)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가정(family)이란 조직(organization)의 시스템(system)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가족 시스템(family system)이 균형(balance)을 잃으면 언젠가는 큰 어려움이나 위기가 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아내가 저에게 오늘 말한 그녀의 친구의 가정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너무 균형이 많이 잃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잃은 가족 시스템의 균형은 제가 볼 때에 그녀가 그녀의 남편과 약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그러다가 자녀들도 태어난 후로도) 점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족 시스템의 균형을 잃었다는 의미는 제가 볼 때 그녀의 가정은 그녀가 이것저것 필요로 하는 남편(her needy husband)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성을 채우는 데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과 그녀의 도움에 익숙해진 남편과 자녀들로 인해 그들의 가족 시스템의 균형이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는 남편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의 아내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제 생각을 말했습니다.
6.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부부의 위기는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을 엿보게 됩니다. 제 아내의 친구의 경우를 보면 물론 그 친구의 입장에서선 최선(?)을 다하여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녀의 남편의 필요성을 만족시켜주고자 헌신하고 노력했겠지만(또한 그녀의 자녀들의 필요성도)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자신이 암투병을 약 5년 동안 하면서도 그녀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그녀의 필요성을 만족시킬만한 위로나 도움 등등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외로웠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그녀의 남편과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은 어쩌면 그녀가 그들을 그렇게 길들여 놓은 면도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려고 많이 노력했겠지만 그녀의 남편(이나 자녀들)은 그녀의 필요성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될 정도로 균형 잃고 지나치게 남편과 자녀들을 돕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일 그녀가 그녀의 남편(이나 자녀들)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필요성을 채우는데 지혜롭게 천천히 훈련을 시켰다면 어떠했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즉, 가족 시스템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되 남편도 아내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균형 있는 가족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만 남편의 필요성을 알아서 채워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필요성을 알아서 채워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의 필요성을 채워줄 수 없을 때에는 오직 주님만이 각자의 필요성을 완전하게 아시고 온전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부부는 주님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물론 가정 문제를 한 두가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내를 통해 그녀의 친구의 말을 전해들으면서(그녀의 친구가 제 아내에게 한 말들을 제 아내는 그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듣고 생각해서 저에게 말한 것일 것이기에) 그저 이 대화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하며 글로나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부부가 위기가 왔을 때에는 누가 옳고 누가 틀렸다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부부가 그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그 원인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며 저의 경우는 아내랑도 대화하는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저나 제 아내나 각자 받은 교훈을 가지고 앞으로도 부부 위기를 접하는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을 조금이나마 돕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뜻이 계시면 그 부부들을 구(출)하시는데(save) 저나 제 아내나 부족하나마 그리고 조금이나마 쓰임 받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 저희 부부와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 관하여 ...

밑에 사진은 사랑하는 딸 예리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린 사진을 제가 이렇게 퍼 왔습니다. ㅎㅎ 이 사진은 저희 부부와 두 딸인 예리와 예은이와 함께 피스모 바닷가(Pismo beach)로 여행을 갔다고 예은이는 저희 부부 앞에서 걷고, 예리는 저희 부부 뒤에 걷고 있었을 때 예리가 저희 부부가 손잡고 걷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ㅎㅎ 저는 이 사진과 더불어 요즘 제 아내와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봄밤"(One Spring Night) 중심으로 몇 가지 저의 개인 생각을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1. 먼저 저는 예리가 찍은 밑에 사진을 이렇게 다시 보면서 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들의 눈에 저희 부부의 뒷모습이 보기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 부부는 저희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 저희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엄마와 자녀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부 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저희 부부의 사랑 관계를 보고 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자녀들이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최악 된 옛 본능으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매우 치명적이고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요즘 저희 부부가 잠자기 전에 보고 있는 한국 드라마 "봄밤"을 보면 여자 주인공인 "이정인"의 부모(특히 그녀의 아버지)가 정인의 결혼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하면서 거의 강압적으로 자녀의 결혼에 개입합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엿보면서 옆에 앉아서 함께 그 드라마를 보는 아내에게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을 2 가지로 말했습니다: (1) '주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결혼한 우리 부부나 사랑하는 아들인 딜런 부부를 볼 때 역시 주님께서 결혼시키실 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 (2) '앞으로 결혼해야 할 사랑하는 두 딸들인 예리와 예은이도 우리 부부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서 자녀들의 결혼에 우리가 부모로서 너무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자.'

3. “봄밤”이란 드라마를 보면 제가 볼 때 여자 주인공인 이정인의 아버지가 그의 첫째 딸 “이서인”의 결혼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그 아버지는 그의 맏딸인 서인이를 직업이 좋은 치과 의사랑 결혼을 시켰지만 그 남편은 서인이를 습관적으로 폭행합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의 남편과 이혼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이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이런 저런 말로 그녀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 문화와 정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직업이 좋고 가정 배경이 좋은(여기서 ‘좋은’이란 말은 부모가 보기에 “좋은”으로서 제가 볼 때에는 세상적이지요 세속적이라 생각함) 배우자에게만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배경이나 직업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선택한 배우자감의 사랑됨이나 성품을 먼저 보아야 한다고 저희 부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저희 부부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자녀에게 신뢰를 주고 있기에 우리 자녀가 선택한 미래 배우자감도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저희 부부가 우리 자녀의 아빠와 엄마로서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자녀가 선택한 미래 배우자감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에게 결코 그 자녀가 선택한 미래 배우자감을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충분히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저희 부부는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자녀들에게 신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건강한 경계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그들과의 관계에는 적당한 거리와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그들의 부모로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부모는 자녀로 인해 힘들어할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로 인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5. 저희 부부는 서로에게 경계선을 그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부부 관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부는 각자가 건강관리를 위해 좋아하는 운동들을 함께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는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될 수 있는대로 이래라저래라 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자신이지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부부는 각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할 때 서로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고 각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대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서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지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자녀들에 관하여서 의견차이로 인해 다투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면서 보완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우리의 뜻대로 말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게 하고 계십니다.





##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해야(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침에 마태복음 17 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런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썼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재림)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주님의 종은 모든 것을 바로잡습니다. 그러나 바로잡히기를 거부하는 완강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들은 그 주님의 종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의 종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참고: 마태복음 17:11-13,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제 자신에게 반영해 보았을 때 ‘나는 주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함에 있어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해야(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은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사 기름 부어 주님의 종(목사)로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회복하시고자(바로잡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로 드는 생각대로 글을 적어가면서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1. 제일 먼저 주님께서 저를 먼저 회복하시길(바로 잡으시길)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회복하심(바로잡으심)에 있어서 제일 급선무는 회개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repentance)가 없는 회복(restoration)(바로잡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개야 할 것 중에 시급한 것은 저의 완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와 저의 위선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함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새 찬송가 190 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 절과 후렴).

2.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회복하시길(바로 잡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저의 가정이라 믿습니다. 가정의 가장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회복되어(바로잡혀) 변화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엡 5:29; 6:4).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되 올바른 길을 입술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마 21:32, 현대인의 성경) 저의 올바른 삶으로도[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므로(빌 1:27)] 본을 보여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저의 모든 가정 식구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막 8:35, 현대인의 성경).
3. 이러한 제 자신과 제 가정의 회복(바로잡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것(바로잡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엡 1:22; 5:23; 골 1:18)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마 16:18) 저와 제 가정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각자 섬기는 교회의 회복(바로잡힘)을 위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회개의 역사(일)를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께서 방망이와 불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의 완강한 마음을 부서트려주시고 녹여주실 뿐만 아니라(렘 23:29)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엡 6:17) 우리 양심(마음)을 찌르시사(삼상 24:5; 삼하 24:10) 우리 죄를 들춰내주시고(엡 5:11) 또한 우리 죄를 고백케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요일 1:9).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세상을 본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게하여 주시사(롬 12:2, 현대인의 성경)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마 5:13-16).

#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실된 자들로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회복을 받습니다  
(시 119:158-159, 현대인의 성경).

##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주세요!'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상 때문에 나를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이다”]. (에스겔 14 장 5 절)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는데 다른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 따뜻하게 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는 내 남편보다 그 남자가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집에서 내 남편과 함께 있는 것보다 집 밖에서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이미 제 마음은 제 남편보다 그 남자에게 더 많이 가 있습니다.

불륜의 죄를 범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아내만 사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잠 5:15, 현대인의 성경).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불륜의 죄를 범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또한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녀의 품을 항상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고 있다면(19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결코 다른 여인에게 정을 주고 남의 아내 가슴을 안지 않을 것입니다(16, 20 절, 현대인의 성경). 불륜의 죄를 범하는 또 다른 원인은 바로 탐욕입니다(전 7:7). 우리 안에 탐욕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만족하게 여기지 못합니다(잠 5:19). 또한 우리는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우리 아내 외에 분수에 넘치게 다른 여자를 쳐다보고(전 1:8) 그녀를 자꾸만 생각하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집안에서는 우리 아내와 동침하지만 집밖에서는 다른 여자와 동침까지 합니다(참고: 벴후 2:18).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은(사 56:11)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내를 만족하게 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잠 5:19) 우리 이웃의 아내를 탐내게 만듦으로(출 29:17) 불륜의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 불륜의 죄를 범할 때 우리 아내의 마음은 어떨까요?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녀의 입장에서 믿던 남편이 자기 외에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외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14 장 5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사 선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들에 마음에 들이고(3 절)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보시고(출 20:3) 그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배신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겔 14:5). 특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있었습니다(사 29:1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인 이방인과 고아를 압제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며 다른 신들을 섬기며(렘 7:6),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9 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10 절)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6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기에 안전하다고 말한 후(4 절, 현대인의 성경) 성전 밖에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가증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가증한 일들 중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모든 종교 예식을 행했으면서 성전 밖에 나아가서는

바알에게 분향하며 우상을 숭배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었습니다(겔 14: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랑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엡 5:32). 지금 신부된 교회는 신랑되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고(마 22:37) 오히려 재물을 우상화하여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마 6:24).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딤후 6:10) 돈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데(마 6:24, 현대인의 성경) 지금 교회는 마음으로는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충성을 다하면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부된 교회가 돈을 사랑하고 우상화하여 돈에게 충성할 때 교회 신랑되신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배신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외도하는 신부된 교회를 보실 때 신랑되신 주님의 마음은 충분히 배신감이 드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새 찬송가 290 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저는 주님의 이 참 사랑을 구약 성경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부인인 음란한 여자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하셨습니다(호 1:2).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 21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기름부음 받은 대제사장은 반드시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께서서는 기름부음 받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처녀가 아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을 했으면서도 계속해서 창녀짓을 했습니다(2:5, 현대인의 성경). 심지어 그녀는 음란한 자식을 임신했었을 때에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쫓아가겠다고면서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너는 다시 가서 간음한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3:1, 현대인의 성경). 호세아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불평, 원망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은 약 170 그램과 보리 18 말을 주고 아내를 사서 그녀에게 '당신은 당분간 혼자 조용히 지내도록 하시오. 이제는 다른 남자를 쫓아다니거나 창녀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겠소'라고 말했습니다(2-3,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신부된 교회를 향한 신랑되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진정한 호세아(이름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가 되시는 신랑되신 예수님(이름 뜻: 하나님은 구원이시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빌 2:6-8,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음란한 여자 고멜과 같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늘 배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사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시사(recapture) 배반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이키시고 계십니다. 신랑되신 주님은 신부된 교회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사 더이상 우리 마음에 돈을 우상화하면서 돈을 쫓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외도나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큰 배반감을 느끼게 합니다. 특히 우리가 그렇게도 믿고 신뢰했던 아내가 자기의 마음에 다른 남자를 들어서 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충분히 배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우리를 배반한 배우자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배우자를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녀의 마음을 다시 붙잡으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갈라서지(이혼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도하는 여자처럼 우상을 마음에 들어서 섬기므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중 하나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돈을 우상화하여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주님을, 주중에는 세상에 나가서 돈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요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되신 예수님은 음탕한 고멜처럼 계속해서 돈을 쫓는 우리 신부된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떠나고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신부된 교회는 신랑되신 예수님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세요”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시사 모든 우상과 가증한 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시고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주님의 신부를 준비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더럽고 추한 이상화된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화시켜 주시사 조금이나마 주님을 사랑하게 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8월 31일,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도 여전히 부르시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따르길 기원하면서)

##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하는 소리와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입니다(참고: 렘 33:10).

##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전과 같게 하시되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료하여 고치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를 이전처럼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와 반역 행위를 용서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의 원천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좋은 일과  
베푸신 풍성한 축복과 번영에 대하여 온 세계가 듣고 두려워하며 떨 것입니다.  
그 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하고 노래하는 소리가 다시 들릴 것입니다  
(렘 33:6-11, 현대인의 성경).

## **제 4 부:** **개혁(Reformation)**

## 주님 중심된 가정은 ...

주님 중심된 가정은 ...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사랑을 맺으므로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합니다.

이러한 주님 중심된 가정은  
가정 천국화를 이뤄갑니다.

## 주님 중심된 가정 (The Lord-centered Family)

[마태복음 22 장 34-40 절]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 가지”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여러분과 나눕니다(인터넷).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10 가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용서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구상에서 용서받을 곳이 없습니다. (2)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해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짐승들과 살 수밖에 없습니다. (3) 대화의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동무를 찾지 못하면 전화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4)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혼자만의 공간(수납장, 옷장, 공부방, 화장실)이 많을수록 인품이 유순해집니다. (5) 안식이 있어야 합니다. 피곤에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환경이 가정에 없으면 밖으로 나갑니다. (6) 인정

해주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바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7) 유머가 있어야 합니다. 유머는 가족 간의 정감을 넘치게 하는 윤희유 역할을 합니다. (8)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연장자가 아니라 언행에 모범을 보이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9)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해 주는 양면성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10)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이면 가정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어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 10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입에서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다고들 말함. 즉, 우리는 각 가정마다 고민과 고통과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지금 없다면 앞으로 있겠지요. 가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1) 가정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기에(personal) 깊은 상처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기로 부부를 변화시키시고,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자녀를 변화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6)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사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문제들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시 34:8). (7)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아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시 46:10). 또 한 가지 우리 가정 문제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눕니다: (1)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임을 믿어야 합니다(롬 12:2). (2) 우리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위기조차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고(8:28)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되 이 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임을 믿어야 합니다(시 63:3). (3)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므로(경험하므로)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명령(말씀)에 순종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신 11:1-7). (4) 우리 가정이 말씀과 기도로 영적 전쟁에 임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믿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전투적인 신앙생활을 함께 지향해야 합니다(고전 10:13).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태까지 묵상한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말씀 묵상들 중에 몇 가지만 나눈다면 (1) 성경 잠언 17 장 1 절 말씀 중심으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묵상했었고, (2) 사도행전 10 장 2 절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가정”에 대해서도 묵상했었고, (3) 열왕기하 18 장 3, 7 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가정”에 대해서 묵상했었고, (4) 역대상 14 장 10 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 묵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22 장 34-40 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된 가정”이란 제목 아래 과연 주님 중심된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지 한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지혜롭게 순종하여 우리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Paul Tripp 목사님이 쓴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지는 가정”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삶의 방식에는 오직 두 가지 방식만 있다는 확신이 점점 더 든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이다.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방식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 때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삶에 더 익숙하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역동성이 자녀 양육과 결혼 생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점검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Tripp). 여러분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인정하며 우리 각자의 삶에 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각 가정들을 생각할 때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러지 않고 우리가 정반대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주님 중심된 가정이 아니라 나-중심된 가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Tripp 목사님은 “성공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올바르게,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자녀 양육의 목표는 ‘한때 완전히 우리에게 의존했던 자녀들을 독립적이고 성숙한 성인이 되도록 키우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독교 공동체에 바르게 연결되고, 그들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딜런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딜런에게 ‘오늘 아침 너와 일대일로 대화를 해보니 이제 너가 다 커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스스로 결정하고 여자 친구를 이끌고(lead) 가야 할 길을 가라’고 권면했었습니다. 또한 Tripp 목사님은 자녀 양육 문제에 있어서 다른 3 가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상황은 없습니다(엡 1:22). (2)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약속하신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롬 8:28). 따라서 성장해가고 있는 자녀의 모든 욕구와 생각 그리고 행동을 우리가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3) 자녀 양육의 목표는, 자녀에게 우리의 형상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향과 관점 또는 습관을 자녀안에 복제하려 하거나 그들 안에서 우리 형상을 찾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들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3가지 진리를 생각할 때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적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말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 중심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남편/아버지들은 컨트롤과 통제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가정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아직도 우리 자신이 그 컨트롤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아내와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사역에는 많은 충돌과 갈등과 다툼과 상처와 아픔 및 고통 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나 자녀 양육 및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을 접하게 될 때 그 때서야 우리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길 간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셔야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 역대하 17 장 5 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The Lord established the kingdom under his control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할 때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 누가복음 1 장 33 절 말씀을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his kingdom will never end)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가정에게 적용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므로 우리의 가정이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33 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주께서 다스리시네”(The Lord Reigns in My Life)라는 노래 가사 1 절과 후렴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다 주님이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우리는 통제권을 다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제가 2021년 1월 25일에 “사랑의 열매를 맺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이런 글을 써서 나눴었습니다: “사랑의 씨앗을 심어 사랑의 뿌리가 보이지 않는 땅 밑에 깊이 넓게 많이 자라나므로 사랑의 싹이 조금씩 땅 위로 보이면서 사랑의 나무가 견고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치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 가정에 사랑의 씨앗을 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랑의 씨앗이 땅 밑에 심겨져 사랑의 뿌리가 깊이 넓게 많이 자라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가 귀중한 추수를 바라고 인내심을 가지고 가을비와 봄비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식구들을 이러한 농부의 인내심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듯이 우리도 사랑의 씨앗을 심고 또한 농부가 열매 맺기를 인내심으로 기다리듯이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되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점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된 식구에게 분노해서는 아니됩니다. 우리는 분노를 참고 참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11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 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특히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내심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지 디모데전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his unlimited patience)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체 오래 참으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한 인내로 참고 또 참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이 참아주시심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식구들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 중심된 우리 가정이 화목한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져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주님 중심된 가정은 예수님의 권위적인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권위적인 말씀은 바로 성경 마태복음 22장 37, 3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중 계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모든 식구가 복종하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길 원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주셨습니다(마 22:37, 39).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중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롬 5:5)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갈 5:22).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빌 1:27; 2:2) 함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화 되어가므로 천국의 기쁨(요 15:11; 요일 1:4)과 사랑(시 33:5)과 평화(롬 15:13)가 충만할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관점으로 재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15-17 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는 다 지나가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마 22:39) 이 계명을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 관점으로 말한다면 요한일서 2 장 3-11 절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2 장 3-11 절의 말씀을 요약한다면 한 마디로 형제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으며(엡 2:2; 5:6) 도리어 지옥의 계명인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창 37:5; 신 22:13; 마 24:10; 요일 2:9). 또한 거짓의 영과 더불어 사탄은 미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서(신 21:17; 삼하 13:15; 잠 10:12) 어두움의 일을 하게 만들므로(사 29:15; 겔 8:12; 엡 5:11) 가정의 쓴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롬 7:5).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도리어 집 밖에서 맴돌게 만들든지 더 나아가서 집에서 멀리 멀리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배우자를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향한 커지는 미움 속에서 그 부부 관계의 균열의 틈을 노려(참고: 느 4:3, 히브리어로 "틈"; 6:1) 사탄은 다른 여자/남자를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으로(요일 2:16) 그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외도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사탄(마귀)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다가오는 저 세상인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여 형제, 자매를 미워하게 만들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함께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사탄의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답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나라의 삶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째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종말론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사 지금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고 계시고(갈 5:22)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순종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랑해야 합니다(16 절). 즉,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돼야 하며(18 절) 성령님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해야 합니다(25 절). 그리할 때 우리 마음이 천국화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화 되며, 우리 교회가 천국화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 **마지막 셋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2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이사야 41 장 10 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 장 20 절 하반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요 13:1)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심을 믿습니다(마 28:20). (2)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해오고 있는 한국에 이종미 자매가 다섯 번째 심장 수술과 수술 후 회복의 소식을 들으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카카오톡 방의 지체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눴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성도님은 ‘만일 이종미 자매가 수술 과정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서 회복이 빨리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을 했다면 만일 그 자매가 수술 과정에서 죽었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 “예”라고 확신 있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 첫째 아기 주영이가 죽었을 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란 아내와 함께 배 타고 가서 아기의 뺨가루를

물에 뿌리고 다시금 육지로 돌아올 때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운데서 제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임을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아기가 죽었는데 아빠인 제가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된 가정에 대해 3 가지 중 2 가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1) 주님 중심된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2)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3) 오늘 마지막 셋째로, 주님 중심된 가정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서나 자녀와의 관계에서 등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2 가지로 설명합니다:

- (1)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에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식구들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저와 제 아내가 약 26 년 전에 만나 약 25 년 전에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만남과 결혼은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고백입니다. 제가 그리 확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제가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부부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만나서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는 세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자녀들을 우리 부모보다 제일 사랑하시고 계시사 각각 자녀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엿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 자녀들을 컨트롤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믿음으로 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컨트롤해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2)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한다’는 의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권위적인 이중 계명의 말씀에 복종케 하시사 가정 천국을 이뤄나가는 것을 의식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과 경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우리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우리 식구를 우리 자신 같이 사랑하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천국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 천국화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천국화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이든 온 가족이 다 성령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여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세우시는 사역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동참하되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 중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 중심된 삶을 산다는 것이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일 4:8, 16)의 주권적인 지배와 컨트롤(control)과 다스림을 받으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14:6)의 권위(authority)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에 순종하므로(마 22:37, 39), 성령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컨트롤(control)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며,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 아래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복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하심을 의식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 중심된 가정은 가정 천국화를 이뤄갑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의 가정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 중심된 가정을 세우는 주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6월 5일, 성부 하나님께서 컨트롤(control)하시는 가정, 성자 예수님의 권위(authority)에 복종하는 가정, 성령 하나님의 임재(presence)를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기원하면서]

## 변화 받는 가정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그의 책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에서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윌라드). 저와 여러분은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육신의 가정 식구들이던 영의 가정 식구들이 우리 승리장로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개인 신앙생활 및 가정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외면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내면의 변화는 등한히 하고 외면의 변화에

너무 신경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표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다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 보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상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며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썩 잘하는 것 같고, 성경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에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성품의 변화도 없고 행함의 변화도 잘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광야로 삼고 하나님의 도움심을 구하면서 가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하게 된 계기는 존 비비어의 “광야에서의 승리”(Growing Strong in Dry Times)란 책을 읽으면서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제 자신이 교회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도 광야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입니다:

(1)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 삼아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 가정 식구들의 모든 죄가 들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부부 관계에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가정만큼 우리 부부의 모든 죄가 들춰지기 좋은 장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들춰질 때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당연히 있습니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을 광야로 삼는 부부는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를 볼 수 있기에 부부 관계에서 들춰지는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그 은혜를 알아가는 부부는 가정에서 서로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들춰질 때 서로의 추한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직시하며 인정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참으로 나의 나 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갈 수밖에 없기에 더욱더 광야와 같은 가정에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러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만큼 우리 부부의 모든 죄가 들춰지기 좋은 장소는 없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보다 서로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란 부부가 서로가 원하는 것을 서로 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만족해 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원함이 상대방에게 만족하게 되지 못할 때 우리 부부는 서로 불평, 원망하며 싸우고 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 년가 지내오면서 이렇게 원하는 것들이 만족되지 못하다고 생각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이러한 광야의 현상들이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봅니다. 특히 우리 부부 관계에서 더욱더 잘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장소로 여기기 보다 서로의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곳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며 남편 또한 아내에게 계속 요구하는 곳이 만일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욕구 불만 가운데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부부가 가정을 광야로 삼고 부부생활을 한다면 서로의 원함을 요구하기 보다 서로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데 헌신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내의 필요들을 채워주고자 노력한다면 그 아내는 남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더욱더 알아가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므로 그의 말을 청종하며 순종할 때 남편은 그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부부는 각자의 필요를 서로를 통하여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므로 만족함과 자족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을 광야로 삼아야 합니다. 가정만큼 우리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는 좋은 장소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변화 받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 모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길 기원하면서 변화 받는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지 로마서 12 장 2 절 말씀 중심으로 한 가지로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 장 39 절에서 이 세대(세상)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 장 4 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서 2 장 2 절과 갈라디아서 5 장 16 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엡 2:2) 또는 “육체의 욕심”(갈 5:16)을 좇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전에 좇았던 이 세상 풍속 또는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 장 19-21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비슷한 목록이 로마서 1 장 29-31 절에도 나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 가기보다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대로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옛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우리는 범죄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 편 11 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두워진 우리의 미련한 마음대로 (1:21), 또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1:24) 이 죄악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 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 장 2 절말씀의 관점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 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할 때 둘째로, 우리는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 장 22 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 장 26 절에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길 기원합니다(온전한 마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사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대(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므로 우리 가정도 주님께 변화를 받는 가정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부터 해서 가족과 교회 식구들과 그들의 가정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3년 5월 21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세움을 받고 있음을  
엿보면서)

## 경건한 가정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현대인의 성경)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0 장 2 절)

행복한 가정의 열 가지 비결을 소개합니다(H. L. 멘켄 박사): (1) 결혼 생활의 목표를 설정하라.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는 결혼을 한 후에라도 어떤 가정이 되고 싶은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목표가 없으면 갈 곳이 없습니다. (2)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 눈은 감으라. 결혼 후에는 가족의 허물을 못 본척해야 합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너도 바로 비판을 받는다”(마 7“1). (3) 남과 비교를 당하면 비참해지고 비밀은 비극을 낳는다.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과 비교합니다.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못하면 처참해집니다. 비밀은 반드시 담을 쌓습니다. (4) 화를 품은

채 잠들지 말라. “해가 지기 전에 노를 풀라”는 바울의 말씀과 동일한 뜻입니다. (5) 마주 보지 말고 함께 같은 방향을 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서 행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쪽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끌려가는 쪽은 한이 멎습니다. (6) 돈을 사용하는 데 하나가 되라. 잔돈을 제외하고 합의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7) 입술의 30 초가 가슴의 30 년이 된다. 좋지 않은 말은 큰 상처를 줍니다. 말은 반드시 좋은 말이어야 합니다. (8) 침실의 기쁨을 유지하라. “별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창 2:25). 에덴동산의 첫 번째 부부의 모습입니다. (9) 서로 격려하고 신바람나게 하라. 이것이 사랑의 묘약입니다. 격려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별로 없습니다. (10)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으라. 인생을 아는 사람의 충고입니다. 이 비밀을 이해하고 잘 지켜 가면 지상에는 완전한 행복은 없지만 거의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습니다”(인터넷).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 열 가지 방법들 중 한 세 가지가 특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그것은 결혼에 있어서 목표를 정해야 하는 것과 하루를 기도로 열고 닫는 것 그리고 “입술의 30 초가 가슴의 30 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 장 2 절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우리 가정이 먼저 “경건한 가정”이 되어 하기에 어떻게 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지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통하여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교훈을 받아 우리 가정에 적용하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가정이고 이웃이 보기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첫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 장 2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 집안에 가장인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 교훈은 다름 아닌 우리 가정의 남편이자 아버지인 우리 남자 형제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 장 13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그리고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것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자들입니다(롬 12:9).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만든바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엡 2:10).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입니다(10 절).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갈 6:9). 그 이유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9 절).

경건한 가정은 그리스도 중심된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악을 미워하는 가정이고 선을 사랑하며 선을 행하는 가정입니다. 우리는 선을 힘써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 **둘째로, 경건한 가정은 많이 구제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 장 2 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옆으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참된 경건의 양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된 경건은 동전 앞면과 뒷면처럼 하나님을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동전의 앞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동전의 뒷면은 이웃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 장 27 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되 참된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바로 고넬료가 참된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웃 사람들을 많이 구제한 사실이 소문이 나서 “유대 온 족속”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행 10:22).

우리도 구제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며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며 구제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경건입니다.

### **마지막 셋째로, 경건한 가정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 장 2 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 따라 항상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관습은 하루에 두 번(오전 9 시, 오후 3 시) 혹은 세 번(오전 9 시, 정오 12 시, 오후 3 시)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넬료는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된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4 절을 보십시오: “... 천사가 가로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기서 우리는 기도 생활과 구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와 구제의 연결은 기도가 선행을 바탕으로 할 때 바른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므로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수반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인 5 월을 맞이하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경건한 가정인 고벨료에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고벨료 가정과 같은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가정 그리고 기도하는 가정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사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서 예수님의 향기를 이 세상에 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경건한가정을 꿈꾸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 년 5 월 6 일, 하나님의 가정인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이 다윗과 그의 군대가 침공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를 치고자 다윗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올라 갔을 때 “네가 절대로 이리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장님이나 절뚝발이라도 너를 막아낼 수 있다!”하고 큰소리쳤습니다(삼하 5:6,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다윗과 그의 군대는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여 시온 요새를 점령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탄과 그의 군대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침공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자만심을 매우 경계하고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며(벧전 5:8)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엡 6:17)을 날카롭게 하여 마귀와 그의 간계를 능히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1 절; 약 4:7).

## 돌아갈 때 돌이키십시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 26 장 3, 13 절)

집을 나간 자식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그 자녀를 위하여 매일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돌아오기만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그 좋은 성경적인 예가 바로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11-32 절). 그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자기 분깃으로 받은 자기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을 때(12-13 절)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20 절). 그러다가 그 아버지는 자기의 둘째

아들이 궁핍함 가운데서(13-17 절)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20 절). 그리고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그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함께 먹고 즐기자고 말했습니다(22-23 절). 그 이유는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고(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았기 때문입니다(24 절). 저는 여태껏 이 탕자의 비유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입장에서 돌아와야 할 아들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 장 3, 13 절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아들은 맏아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게 된 이유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자기 집과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갔지만 맏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기보다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눅 15:28-30). 특히 둘째 아들은 ‘나 행한 것 죄(sin)밖에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자세와 은혜의식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간 반면에(18-21 절) 맏아들은 ‘나 행한 것 의(righteousness) 밖에 없습니다’라는 “자기-의”(self-righteousness)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세와 공로의식으로 아버지께로부터 멀리 떠나있었기에(29 절) 진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어야 할 자는 맏아들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 장 3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2 절)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여호와와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3 절).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목적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 하던 뜻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3 절).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 하시던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기보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렘 7:2; 26:2). 어디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악한 길”에서입니다(2 절). 여기서 저는 “그 악한 길”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 볼 때 그 악한 길이란 적어도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악한 길이란

우리의 우상숭배와 우리의 이중적인 삶입니다. 먼저 우리의 우상 숭배를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한 3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과 여자/남자와 명예입니다.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있습니다(눅 16:14). 또한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이성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성을 사랑하되 심지어 배우자가 있는 우리는 다른 이성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보다 우리의 명예를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겔 20:39; 34:16; 36:21-23; 43:7-8) 우리의 이름을 더 아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악한 길인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기고 있습니다(마 6:24; 눅 16:13).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재물을 미워해야 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합니다’(사 29:13; 마 15:8; 막 7:6),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돈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딤후 6:10). 또한 우리는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입술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라고 찬양하지만(새 찬송가 94,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 절) 마음으로는 예수 그 이름보다 우리 이름을 더 아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떠나 음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시 73:27; 잠 5:20; 7:8). 이렇게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나아가서는 하나님 보다 우상들을 더 사랑하여 사모하는 가운데 그 우상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입니다(렘 26:1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를 개혁하라(reform)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3 절).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7 장 3 절에서도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즉 개혁하라(reform)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 장 13 절에서 또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행위를 개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무엇입니까? 개혁이란 상황(always) “회개”(repentance)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회개가 없는 개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악한 우상 숭배의 길과 이중적인 행위를 개혁하기 위해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상숭배의 죄와 이중적인 삶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와 이중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참된 회개가 우리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회복”(restoration)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참된 “화목”(reconciliation)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와 회복과 화목이 있을 때 진정한 “개혁”(reformation)이 있을 것이며 참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revival)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6 장 3 절과 13 절을 묵상하면서 요나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요나 3 장 10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 “사십 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말씀을 듣고(4 절)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굶은 배 옷을 입었습니다(5 절). 니느웨 왕도 그리 행하면서 조서를 내려 모든 니느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했습니다(8 절). 니느웨 왕이 그리 행한 이유는 하나님이 흑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몰라서였습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디로,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선언하신 재앙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10 절). 그러나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매우 싫어하고 성냈습니다(4:1).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라고까지 기도를 했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했습니다(5 절). 즉,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두고 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머리로는 알고 있듯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2 절)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시사 니느웨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인데(3:10)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니느웨 성읍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 장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처럼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할 정도로 성낸 것입니다(욘 4:3-4). 이방인 앗수르 나라의 수도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 반면에 하나님의 종 유대인 요나 선지자는 이미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었는데(1:2-3) 또 다시 불순종하여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요나와 같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의 맏아들과 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의 뜻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를 개혁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모든 재앙을 이미 십자가에 못박히신 독생자 예수님에게 다 쏟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1 절)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곤한 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2 절)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3 절)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 받는 데서  
(4 절)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후렴]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새 찬송가 525 장, “돌아와 돌아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맘으로 주 앞에 옵니다”(새 찬송가 280 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1 절),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8년 8월 15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재앙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 가정에 대한 교훈 (2)

1. 가정은 영적 전쟁터이다.
2.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다.
3. 부부 관계의 불화를 보면 사탄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지극히 작은 문제도 충분히 극대화하여 부부의 위기로 몰아갈 수 있다.
4. 부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부부의 다른 점들을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보완(complement)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서로 비교(compare)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잉꼬부부(?)랑 비교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 및 불평하게 만든다.
5. 사탄은 부부로 하여금 서로의 단점을 극대화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소화시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6. 남편의 의무 중 하나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양가 부모님의 우상과 불신과 비성경적이지요 세속적인 것 등 들로부터 자신의 식구를 지켜야 한다.

7. 아내의 의무 중 하나는 자신의 남편을 자신의 부모님 앞에서 지혜롭게 세워주되 그녀는 자신의 부모님(특히 어머니)에게 조종(manipulation)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8. 부모의 큰 의무는 결혼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이다. 여러모로(특히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그 자녀와 건강하지 못한 줄로 연결돼 있는 부모는 자녀의 부부 관계를 위해서 그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라도 끊어야 한다.
9. 여러모로 병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과 정신과 감정 등을 원치 않게 병들게하여 그 자녀의 부부 관계에 큰 병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손주에게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10. 우리는 사탄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 사역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신실하게 감당하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과 싸우고 또 싸우는 전투적인 가정 생활을 해야 한다.

(2022 년 인터넷 사역 한국으로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이미 만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 가정 사역,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이라는 천국의 계명을 주셨지만,

사탄은 서로 미워하라는 지옥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온 식구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수 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역대상 14 장 10 절)

우리는 “가정”하면 행복한 가정을 꿈 꾸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므로 복종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며 순종하며,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행복한 가정,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진정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가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므로 불순종하며,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거역하고 있으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이자 아버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죄 사함의 복을 누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가정은 영적 전쟁에서 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들을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역대상 14 장 8-17 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이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므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 **첫째로,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대적들을 “대항”해야 합니다.**

역대상 14 장 8 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은 다윗을 쫓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8 절)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9 절).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들을 대항하러 나아갔습니다(8 절).

우리도 사단과 그의 종들을 대항하러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주시는 축복의 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공격에 방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공격해 올 때 대항해야 합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 가정 식구들을 공격하여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편들로 하여금 아내를 미워하게 만들고,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을 무시하게 만들며,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만들고 또한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우리 크리스천 가정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계속 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 방비하고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실천하여 영적 면역성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 둘째로,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하나님께 여주어야 합니다.

역대상 14 장 10 절 상반절과 14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이니 침범할 때마다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손에 넘기실지를 하나님께 여쭙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는데(10:14) 다윗은 사울과 달리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는 모습이 ….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묻는 다윗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10 절),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수풀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14-15 절). 이 두 응답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전쟁의 전략입니다. 첫번째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올라가라”(10 절)고만 말씀하셨는데 두번째 전쟁 때에는 첫번째 전쟁 때처럼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그들을 기습하라는 것이었습니다(14 절). 흥미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두 전쟁을 치를 때마다 각각 다른 전략을 주셨다는 사실이… 특히 두번째 전쟁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15 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의 걸음 걷는 소리인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15 절). 곧, 블레셋과의 전쟁의 다윗의 전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계시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브라심(11 절)에 버린 그들의 우상들을 다 불에 사른바 된 것입니다(12 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으로서 거짓된 신인 블레셋의 신과 싸워 승리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단과 영적 전쟁함에 있어서 우리는 큰 위기 때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의 확신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 셋째로,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역대상 14 장 11 절과 16 절을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다 하므로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 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는 우리들을 데리고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고(11 절) 또한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쳤습니다(16 절).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물을 흠음 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흠으셨”고(11 절) 또한 “하나님이 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셨습니다(15 절). 치시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치셨습니다(16 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대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 전쟁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승리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대항해 주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실 때 우리 가정의 모든 우상들과 죄악들을 없애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전쟁을 위하여 부지런히 방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승리!

전투하는 가정으로 준비되어 가는 우리 가정들이 되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 년 5 월 12 일, 승리 교회, 승리 가정!)

##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간교한 사탄

### [사무엘하 13 장 1-3 절]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전투의 전략”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와가 아담의 영적 권위를 필요로 할 때 둘 사이를 갈라놓으므로 그 가정을 공격했다. 하와는 남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오히려 남편을 죄로 이끌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결혼을 하면 사탄은 그 가정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다. 만일 배우자 중 어느 한 명이 또는 두 사람 모두 결혼하기에는 미성숙한 자들이라면 사탄은 얼마든지 공격의 틈을 찾아낼 것이다. 또 결혼한 부부가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부모를 떠나지 못했다면, 그래서 부모들이 끼어들 틈을 주었다면 사탄이 그 결혼을 공격하기란 너무나 쉽다”(위어스비).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참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창세기에 인류의 최초의 부부를 사탄이 공격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창 3 장). 부인인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영적 권위를 필요로 할 때

사탄이 그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 그래서 하와는 남편 아담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행동(선악과를 따 먹음)했고 그리고 남편을 죄로 이끌었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 아담도 사탄의 공격을 받아 영적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유혹에 빠진 부인 하와의 이끌림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처럼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자기 부모로 하여금 부부 관계에 끼어들 틈을 주므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특히 남편이 자기 어머니로 하여금 자기의 결혼 생활에 끼어들 틈을 주므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 관계의 불화를 보면 사탄은 남편과 아내의 갈등을 지극히 작은 문제도 충분히 극대화하여 부부의 위기로 몰아갑니다. 부부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부부의 다른 점들을 남편과 아내로 하여금 보완(complement)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서로 비교(compare)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잉꼬부부(?)랑 비교하게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 및 불평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부부로 하여금 서로의 단점을 극대화하여 서로의 장점을 극소화 시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주셨습니다(마 22:37, 39).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롬 5:5)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갈 5:22).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빌 1:27; 2:2) 함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화 되어가므로 천국의 기쁨(요 15:11; 요일 1:4)과 사랑(시 33:5)과 평화(롬 15:13)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으며(엡 2:2; 5:6) 도리어 지옥의 계명인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창 37:5; 신 22:13; 마 24:10; 요일 2:9). 또한 거짓의 영과 더불어 사탄은 미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서(신 21:17; 삼하 13:15; 잠 10:12) 어두움의 일을 하게 만들므로(사 29:15; 겔 8:12; 엡 5:11) 가정의 쓴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롬 7:5).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도리어 집 밖에서 맴돌게 만들든지 더 나아가서 집에서 멀리 멀리 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배우자를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향한 커지는 미움 속에서 그 부부 관계의 균열의 틈을 노려(참고: 느 4:3, 히브리어로 "틈"; 6:1) 사탄은 다른 여자/남자를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으로(요일 2:16) 그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외도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 장 1-3 절을 보면 간교한 사탄의 공격을 받은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중심으로 사무엘하 13 장과 14 장 말씀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우리 각 가정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교훈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게 적용할 때 지금 얼마나 간교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인식(aware)하며 인정(acknowledge)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How?) 이 영적 싸움(spiritual battle)을 잘 싸워서 승리하는 가정(victorious family)으로 더욱더 세움을 받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간교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13 장 1-3 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제가 2018년 9월 마지막 주일 영어 예배 때 예배에 참석한 고등학생부터 청년들까지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때 저는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1) "Trust"(신뢰), (2) "Communication"(대화), (3) "Supportive"(지지하는 것), (4) "Sacrifice"(희생), (5) "Respect"(존중), (6) "Loyalty"(충성).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알게 하셔서 대화를 해 보면 그 관계에서 신뢰(trust)가 그리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가 깨져서 서로를 향하여 의문하고 의심하며 심지어 불신하기까지 하는 경우를 봅니다. 또한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나 대화(communication)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남자나 여자나 서로의 대화법을 잘 모르고 자기 대화법으로만 상대방 이성에게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봅니다. 이 외에도 이성관계나 부부관계에서 남녀가 서로 지지하는 것(supportive)이나 희생하는 것(sacrifice)이나 서로 존중(respect)하는 것이나 그 관계에 충성(loyalty)하는 것이나 신실하는 것(faithful) 등 다 중요하지만 문제는 간교한 사탄이 공격하여 이 모든 것을 비틀어 놓는다(twist)는 것입니다. 비틀어 놓되 사탄은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남녀의 감정도 공격하여 비틀어 놓아서 서로에게 불성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초까지 제가 알고 있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관계를 '불륜 관계'나 '외도'라고만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처음으로 들은 단어가 바로 “emotional cheating”(감정 속임수)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작년 2월 말에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인 자매에게 들은 말인데 저에게는 좀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자매가 자기 남편하고 이혼한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자기 남편하고 'emotional connection'(감정 연결)이 안되어 이혼했다고 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든 생각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감정'(emotion)이 이 정도로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emotional connection'(감정 연결)이나 'emotional cheating'(감정 속임수)이란 단어를 둘 다다 각각 다른 자매에게 들었는데 부인 자매들의 입장에서는 '감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형제들에게는 이렇게 '감정'에 관련된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기에).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 장 1 절을 보면 “그 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후”란 다윗 왕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그녀와 더불어 동침한 후(11:2-4) 그녀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5 절) 자신의 간음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에서 죽게하였는데(6-26 절)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27 절; 12:9)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 낳은 아들(11:27)을 치시므로 그 아이가 심히 앓다가(12:15) 죽은 후(18 절)를 말씀합니다. “그 후”(13:1)에 다윗의 아들 암논이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의 아름다운 여동생인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므로 결국 그녀를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특히 암논은 다말이 “정숙한 처녀”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어서 그녀를 몹시 사랑하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바로 그 때 암논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인 암논의 “대단히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었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창세기 3 장에서 “여자”(하와)에게 다가온 “뱀”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은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창 3:1). 제 생각엔 가장 간교한 사탄은 우리가 이성 관계에 있어서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여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 정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쉽게 접근해서 우리에게 “좋은 수”(good trick)가 있다. 내가 너에게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유혹(tempt)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심히 간교한 요나답이 이복 누이동생 다말에 대한 애정 때문에 병이 들고 날마다 수심에 잠겨 있는 암논에게 쉽게 접근하여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다가 너의 부친(아버지 다윗)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네 누이동생 다말을 보내 네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만들게 해 달라고 부탁하고 너를 위해 만든 그 음식을 다말이 직접 손으로 먹여 주면 좀 나을 것 같다고 하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삼하 13:5, 현대인의 성경). 이 심히 간교한 요나답의 꿈수(trick)에는 다말과 암논의 아버지인 다윗을 개입하게 만들어(마치 부부 관계에 양가 부모님이나 자녀들을 개입하게 만들어서 부부 갈등을 일으키듯이) 결국에 가서는 암논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다말로 하여금 암논의 집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는 암논에게 밀가루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자기 이복 오빠 암논이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어 암논이 누워있는 침실까지 들어가서 직접 먹이게까지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말이 음식을 먹이려고 암논에게 가까이 갔을 때 암논은 다말을 붙잡고 그녀에게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고 강요했고 다말은 거절했지만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하고 말았음(5-14 절, 현대인의 성경). 가장 간교한 사탄은 암논이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그녀를 사모하다가 병까지 들고 있었을 때 대단히

간교한 요나답을 통해 암논에게 접근하여 그로 하여금 결국에 가서는 “이 어리석은 일”(12 절)인 “그녀를 덮쳐 강간”하게 만들었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사탄은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에 대한 그의 사랑을 증오로 돌변하게 만들어 다말을 사랑할 때의 그 사랑보다 더한 증오심으로 그녀를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도 어리석은 암논은 몹시 다말을 사랑하여 그녀를 옥보인 것보다 그녀를 증오심으로 미워하여 쫓아 보내는 것이 더 큰 죄인 줄 몰랐습니다(15-16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어리석은 자의 무지함은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냄(전 10:3,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참고: 스바냐 3:5,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가장 간교한 사탄은 이성 관계에서 “간교하게 속임수로”(고후 12:16, 현대인의 성경) 간음의 죄와 강간의 죄 등을 범하게 만들며 사랑을 증오로 돌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그 간교함을 아시고(참고: 눅 20:23, 현대인의 성경) 간교한 사탄 예수님을 시험(유혹)했을 때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마 4:1-11; 약 4:7). 우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엡 6:11).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간교한 사탄이 이성 관계에서 유혹을 하는 것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 사랑해서는 아닐 남자나 여자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다면 그 둘이 한 방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간교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지 않도록 그 두 남녀는 서로에게 건강한 경계선을 긋고 서로에게서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거리보다 마음과 특히 감정의 거리를 분명하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이성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연모하여 병까지 들 정도라면 충분히 어리석은 일을 행할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어리석음은 그가 몹시 사랑하고 대단히 연모하는 다말의 말 대로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드려서 다말이 암논하고 결혼하는 좋은 방법을 걸어차고 그녀보다 힘이 세므로 그녀를 덮쳐 강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암논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삼하 13:1-2, 12-14, 현대인의 성경). 어리석은 자는 눈 앞에 보이는 즐거움밖에 생각하지 못하기에(전 7:4, 현대인의 성경) 그의 마음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서(10:2, 현대인의 성경) 조심없이 함부로 행동합니다(잠 14:16,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받되(14:18, 현대인의 성경)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1:31, 현대인의 성경).

**둘째로, 간교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재혁이란 사람이 “부모의 리더십이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제목 아래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로 사람들로 부터 원하는 결과를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따르는 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인터넷). 과연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남편)들에게 권위(authority)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끌어야(lead)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권위주의적인 아버지(authoritarian father)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인내심이 부족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빠른 결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인 카리스마로는 자녀들에게 원하는 행동이나 결과는 바로 가져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정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을까요?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남용(abuse)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남용할 때 우리는 결코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들을 보면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다 보니 자녀들도 어머니를 본받아 아버지를 무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권위가 남용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들을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한다면 우리 자녀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빠른 결과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자녀들을 신뢰하는데 헌신할 때 점진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3)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들하고 마음 문을 열고 일대일 대화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말이 없는 아버지들에게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이 로라도 자녀들과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화보다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대화가 이뤄질 때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엔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 장 1-3 절 문맥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은 한 나라를 잘 다스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가정을 잘 이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다윗은 아들 암논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몹시 사랑하고 연모하고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다윗은 암논인 ‘침대에 누워 병든 척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면 암논이 자기에게 “동생 다말을 보내 내가 보는 앞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여 주라고 하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 암논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6-7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그것은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주는 것과 같은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다말을 사랑하고 연모하여 사모하여 병까지 든 암논에게 다말로 하여금 그의 집에 가서 그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 주라고 지시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결과로 암논은 다말을 강간했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책임이 아버지 다윗에게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말이 암논의 집에 가는 것은 마치 “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사슴이 올라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생각합니다(잠 7:22, 현대인의 성경). 물론 이 모든 간교한 계획의 실행은 심히 간교한 요나답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지만 저는 암논과 다말의 아버지인 다윗도 전혀 책임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일 후에 이복 오빠인 암논에게 강간을 당한 다말은 자기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습니다. 그 때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그를 미워하여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삼하 13:20, 22, 현대인의 성경). 그로부터 2년 후에 압살롬은 잔치를 베풀어 모든 왕자들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인 다윗 왕도 초청했습니다(23-24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그 잔치에 가지 않고 압살롬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25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그러시다면 내 형 암논이라도 우리와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하자 다윗 왕은 “암논이 너와 함께 가야 할 이유가 무엇이나?”하고 물었습니다(2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간청하므로 다윗왕은 암논이 압살롬과 함께 가야 할 이유를 모르면서도 암논과 다른 모든 왕자들을 압살롬과 함께 보냈습니다(27 절, 현대인의 성경). 자식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기 싫어하는 아버지 다윗은 그 자식이 자기에게 간청하는 영문도 모른 채 그가 계속 간청하므로 결국 압살롬의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 결과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자기의 여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복수의 칼을 갈았을까요? 그 와중에 아버지 다윗은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기만 했습니다(21 절).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어리석은 아들 암논을 사랑으로 징계는커녕 책망을 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내고 있었던 자기의 딸 다말을 찾아가 위로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의 일을 하느라 무지 바빠서 가정 사역을 할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마지막 셋째로, 간교한 사탄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여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루 프리올로(Lou Priolo)는 그의 책 "Resolving Conflict"(갈등 해결)에서 왜 우리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는 왜 우리가 배우자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당신이 그들에게 입은 상처(hurts)와 그 상처들을 준 그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깊은, 큰) 상처를 입혔 때 당신의 마음의 발에는 쓰라림(bitterness)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쓰라림의 씨앗이 좀 싹이 날 때에 그를 용서하므로 뿌리채 뽑지 않고 오히려 그가 당신에게 입힌 상처만 생각하고 또 생각하므로 재배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상처에만 오래 바라보고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에 쓰라림이 생긴 것입니다. 쓰라림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용서란 당신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준 사람과 그 상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사 영광을 들어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좋은 예가 요셉)’(프리올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리를 죽이려고까지 한 자기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살피 주다가 110 세에 죽었습니다(창 50:21, 26).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시 34:8)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형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엡 2:10). 다시 말하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았기에(창 50:20; 참고: 롬 12:2) 그는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여 죽을 때까지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살피 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해하려고 한 악한 사람까지도 마음으로 용서하고 그를 위로하며 보살피 주기까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해하려 한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깨닫게 하실 때에 만이 가능합니다. 이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 장 1-3 절 문맥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일로 암논을 미워하여 아마도 2 년 동안 그와 일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22-2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2 년이 지난 후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으므로 도망하여 그술에서 3 년간 지냈습니다(38 절). 결국 압살롬은

5년 동안이나 아버지 다윗과 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아버지 다윗(39 절, 현대인의 성경)은 도망간 압살롬을 3년 동안이나 찾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의 관계가 건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여자 한 사람을 데려오게 하여(14:2, 현대인의 성경) 그녀에게 할 말을 일러준 후 다윗 왕에게 보냈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지혜로운 여자가 다윗 왕에게 “대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니 죄 있는 사람처럼 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13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다윗 왕은 그 여인의 집안 문제는 자기가 맡아서 아무도 그녀의 남은 한 아들[다른 아들과 서로 싸우다가 쳐죽인 아들(6 절, 현대인의 성경)]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8 절, 현대인의 성경) “내가 살아 계신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11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망명 중에 있는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데려오지 않고 있었기에 그는 그 지혜로운 여자가 보기에 “죄 있는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13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다윗 왕은 “죄 있는 사람처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는 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은 죄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을 죽인 다른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가서 다윗은 압살롬을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했지만(21 절) 그로 하여금 자기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게 하고 자기 앞에 2년 동안이나 나타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압살롬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24, 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은 혹시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동안 미워했듯이(그를 죽이기 전까지) 다윗은 압살롬을 2년 동안 미워했던 것이 아닐까요? 아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아직 한 번도 뵈지 못한 아버지 다윗왕을 뵈려고 요압 장군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해 중재역을 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지만 요압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하는 수없이 압살롬은 자기 하인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해서 결국 요압을 만났습니다(30-31 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압살롬은 요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당신을 왕에게 보내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무엇때문에 나를 그술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기 때문이요. 내가 차라리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해 주시오. 만일 나에게 죄가 있다면 왕이 나를 죽여도 좋소”(32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압살롬의 행동과 말을 생각할 때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그리워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을 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를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놓고서도 2년 동안이나 한 번도 만나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차라리 그술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까지 요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지붕 아래 함께 산다고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그 사람 사이에 거리를 멀리 두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서로에게 거리를

두게 만들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서로의 거리를 좁힙니다. 아무리 그리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에게서 거리를 두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진심으로 아들 압살롬을 용서했다면 그술에 3년 동안이나 있으므로 못 보았던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데려오게 해 놓고서 또 다시 2년 동안이나 자기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용서한 자식을 5년 동안이나 안 보고 지낼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을 용서하지 않은 아버지였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의 책 "다윗: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에서 다윗이 그의 생애 동안 범한 중대한 죄 중에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한 죄가 바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멀리하면 할 수록, 그는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었습니다(피터슨).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만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도 멀어져 있습니다. 즉,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가족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엡 4:32, 현대인의 성경).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This Age)에 속한 사람들은 "죽어도 용서 못해!"라고 말하지만, 다가오는 세상(The Coming Age)에 속한(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용서합니다(눅 23:34; 고전 15:40, 48, 49; 빌 3:20; 요일 5:19).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행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잘못함의 많음과 크기를 보기 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의 많음과 크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을 마음으로 용납하여 전보다 더욱더 사랑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심히 간교한 사탄은 지금도 요나답 같은 심히 간교한 사람을 배후조정을 하여 다윗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공격하여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성 관계나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간교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시지만,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및 이웃 사랑이라는 천국의 계명을 주셨지만, 사탄은 서로 미워하라는 지옥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온 식구가 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자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수 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함. 간교한 사탄이 우리 가정을 공격할 때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 가정 안에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자 아버지의 영적 건강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남편은 아내의 영적 건강을 위해 사랑으로 배려하고 지도하고 노력하고 등등 있겠지만 지혜로운 아내의 입장에서는 내가 좀 희생해서라도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믿음 성장 등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아버지들이 되어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아버지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아버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죄 지은 식구를 마음으로부터 용서를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3년 3월 18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교한 사탄의 가정 공격과 싸워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한국 드라마 "기상청 사람들"(Forecasting Love and Weather)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결혼 전에 읽었던 책인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Making Peace with Your Past"(저자: H. Norman Wright)]라 생각났습니다(저는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H. 노만 라이트가 결혼에 관하여 쓴 책들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음). 아마도 그 이유는 그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 여자가 과거에 10년 동안 연애했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가 파혼한 남자를 잊지 못하고 그와의 과거의 이성 관계에서의 영향이 현재 연애하는 남자 주인공과의 이성 관계에 안 좋은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동시에 그 여자 주인공이 과거에 사귀었던 남자도 과거에 그 여자 주인공과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연관을 갖는 가운데 현재 결혼한 여자와의 관계에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 것 같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좀 더 고민을 하고자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글로나마 적으면서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1.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2. 진리이신 예수님(요한복음 14:6)의 말씀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you forgive your brother from your heart")입니다(마태복음 18:35).
  
3.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과거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입은 상처가 크고 깊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버지/어머니에게 입은 상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입은 상처, 사랑하는 남자 친구/여자 친구에게 입은 상처, 등등).
  
4. 부모님에게 입은 상처, 배우자에게 입은 상처, 자녀에게 입은 상처, 형제, 자매에게 입은 상처, 친척에게 입은 상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헨리 나우웬은 그의 책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한 4 가지로 반응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4 가지를 가리켜 하나님과 춤을 추는 스텝 4 가지라고 말합니다:
  - a. 하나님과 춤을 추는 첫 번째 스텝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울어야 할 때 울어야 합니다. 울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플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웬지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기보다 부인(deny)하려고 하든지 무시(ignore)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억누르려고(suppress)하려고 합니다. 만일 그리한다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확률이 많습니다.
  
  - b. 하나님과 춤을 추기 위한 두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마비시켜 부정과 수치와 죄책이라는 옥에 가둔 은밀한 상실을 똑바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과연 고통과 아픔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가 그 원인을 직시하든지 안 하든지 할 텐데 많은 때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과 슬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못할뿐더러 설상 우리가 그 원인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 원인을 직시하기보다 피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피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어진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 c. 춤의 세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 그것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너무나 막대한 에너지를 부정하는 데 쏟아 부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가운데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의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비록 어둡고 무서울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터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터널에 들어가지 않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 d. 춤의 마지막 네 번째 스텝은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의 터널에 들어가 예수님의 고통과 아픔, 상실과 상처를 느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고통과 상처에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움을 받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5.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보면 저자 데이빗 A. 씨맨즈(David A. Seamands)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은 “상처 입은 감정”이란 “가장 공통된 감정 중의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계속적인 근심을 안고 있고,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하고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은 ‘완전주의자 콤플렉스(perfectionist complex)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찾아다니고 항상 애쓰지만 항상 죄의식을 느끼며 꼭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지나친 ‘예민감(super sensitivity)’이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손상된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은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 버리기에 자신의 가슴 아픈 상처들을 계속 억누르거나 은폐한다. 아니면 자유하지 못한 심령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자신을 확대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삶의 밑바닥에 깔리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신체의 병리적 증세, 우울증, 이상한 행동, 불행한 가정 등을 낳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과거로부터 마음을 옥죄는 상처가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얽매었던 억압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빗 A. 씨맨즈라는 전직 인도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난 감정들) 고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6 가지로 말했습니다: (1) 문제를 똑바로 직시하라, (2) 어떤 문제든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3) 고침을 받기 원하는지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라, (4)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5)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6)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성령님께 구하라'(씨맨즈).

6. 이성관계에서의 상처는 우리에게 참으로 치명적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 포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성관계에서의 상처란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저는 심각하게 말씀에 조명하여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지만 저는 제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적어 내려가고 싶습니다.
  - a. 첫번째로 드는 생각은 물론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물론 이성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을 때에는 예수님의 상처가 전혀 생각이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상처를 생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 상처를 입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해 대신 상처를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상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성관계에서의 상처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관계에서 상대방 "때문에" 상처를 입는 것이지 상대방을 "위하여" 혹은 "대신하여" 상처를 입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이성관계에서 그러한 상처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뭔가 차원 높은 이성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b. 두번째로 드는 생각은 "상처 수용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대신하여 상처를 입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입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또는 성숙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이성관계는 상대방을 위한 또는 대신하여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수용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여 또는 대신하여 상처를 입는다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상처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상처 수용력인지 아니면 우리가 보기에 합당한 상처 수용력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 속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c. 세번째로 드는 생각은 "치유"라는 단어입니다. 입은 상처가 싸매어지고 치유가 되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편 147 편 2 절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서 먼저는 내적으로 부서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런 후 우리의 외적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는 특히 그 내적인 부서진 마음(broken-hearted)을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께서는 이성관계에서의 로맨틱 사랑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치유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이 우리의 이성 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 큰 바닷물이 시냇물을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간의 상처까지도 다 덮일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애하는 과정에서 헤어짐으로 말미암은 깊고 넓은 상처들, 모든 것이 싫어지고 사람도 싫어지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싫어지는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포기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입은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들 딸인 우리를 더욱더 그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고자 찾으시며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내 자신을 마치 요나처럼 던질 때에, 십자가에 벌리신 예수님의 팔에 안길 때에 그의 못자국과 창 자국, 상처들을 믿음으로 만지게 될 때에 우리 상처들은 온데간데없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7. 마지막으로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 '상처 입은 치유자'인 요셉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10명의 형들에게는 사랑을 받기보다 오히려 미움을 받고 죽음까지 당할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셔서 결국 그의 나이 17 살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려 애굽 장군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 감옥까지 갇히게 됩니다. 그런 요셉이 과거에만 머물러있었다면 결코 그의 형들을 용서하지 않고(못하고) 앙심을 품고 그의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었습니다(창세기 50:15, 현대인의 성경).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복수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그가 죽을 때까지(110 세) 보살펴줬습니다(20-22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요셉을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과거로부터 자유를 누리면서(형들을 용서함) 오히려 그의 형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창세기 50 장 19 절에서 찾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현대인의 성경).
8. 저는 요셉이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비결을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요셉에게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셉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 첫 번째 사실보다 두 번째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요셉은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사실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입니다(20 절). 분명히 그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 하였었지만 요셉은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실에 파묻혀서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의 형들이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습니다. 즉, 형들에 행한 일은 그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앞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어 총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의 목적을 알았기에 그는 그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즉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20 절). 이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깨달았기에 그는 진심으로 그를 해하려고 하였던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9. 이것이 바로 용서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행한 악한 일들, 이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그 와중에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상대방에 우리에게 행한 잘못이나 죄악들만을 생각하면 결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악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 가운데서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데서 끝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즉,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다는 헌신된 마음으로 간곡히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는 간 곳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마음으로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수동적으로만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형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는데서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의 용서는 능동적이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입장에서 더욱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형들을 간곡히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형들과 그의 가족 식구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것은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을 다 돌보겠다고 요셉은 약속한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두 번째 사실, 즉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상대방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순간에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시 34:8).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 우리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낙심되고 우울할 때,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허덕일 때에 소망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주님에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제임스 김, "마음이 상한 자").

##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부부 관계에 적용

### [잠언 3 장 27-35 절 말씀 묵상]

저는 인간관계 중에 제일 즐겁고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인간관계 중에 제일 슬프고 괴롭고 불행감을 느끼게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게 제일 위로가 되는 위로자(the best encourager)인 반면에 또한 제일 낙심케 하는 자(the best discourager)도 됩니다. 과연 부부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부부 관계에 적용”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잠언 3 장 27-31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원리를 부부 관계에 적용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부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27-28 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저는 이 교훈을 고용주(employer)와 종업원(employee)의 관계에 이미 적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교훈을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마땅히 사랑(love)을 받을 자인 우리들의 아내에게 사랑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는 제일 가까운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내조차도 사랑을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많은 변명 중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게 우리를 존경해야지 우리가 그녀를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5 장 25 절은 우리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받을 만한 언행을 해서 우리가 우리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우리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마땅히 사랑받을 자로 알고 사랑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존경(respect)해야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을 줘야 합니다. 물론 아내들은 그녀들의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남편이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언행을 일삼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할 수 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5 장 24 절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 또는 경외(respect)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그녀들의 남편을 존경해야 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 **둘째로,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29-30 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이웃이 네 곁에서安然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우리 곁에서 “安然히” 사는, 즉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일 가까운 이웃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남편 또는 우리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사단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기보다 그 신뢰감을 깨고자 의심과 불신을 우리 각자 마음에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아주 조그만 일로도 크게 싸우고 다투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 조그만 일로 서로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오해를 하면서도 그 오해를 풀려고 어떻게 대화할 줄을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해로 인하여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엔 오해가 쌓일 때 그 쌓인 오해가 장성하여 불만과 불평 그리고 불신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로도 분노가 쌓인 것들이 폭발하여 크게 다투고 싸웁니다. 결국 남편과 아내가 부부 관계가 아니라 원수 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들은 우리 남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까닭 없이 서로 비난하며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30 절). 또한 우리는 서로에 까닭 없이

피해를 주면서 모함하고 모해하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뢰감을 주는 제일 가까운 이웃이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부부관계에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그리고 남편은 그의 아내를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 **셋째로,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31 절을 보십시오: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포악한 자나 죄인이나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잠 23:17; 24:1, 19). 그 결과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면서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시 73:1).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포악한 자나 죄인과 악인들은 형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충분히 실족하여 그 악인들의 행위를 좇아 하나님께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3 장 31 절에서 지혜자 솔로몬 왕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잠언 3 장 32-35 절에서 한 4 가지 이유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Walvoord). 이 네 가지 이유를 생각하면서 부부관계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 **(1)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32 절을 보십시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우리가 포악한 자들이나 악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행위를 좇지 말아야 할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분명한 이유에 우리가 뭐 이렇고 저렇고 핑계될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포악한 자들이나 악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행위를 좇아서 아니됩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정직한 자가 되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만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직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제일 가까운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우리 부부관계 안에 정직의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부부들이

패역한 자를 부러워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보다 패역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부들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부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부부관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부부들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주님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는 관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패역을 버리고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은 주님께 정직하듯이 우리들의 아내들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님께 정직하듯 아내들도 그녀들의 남편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2)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저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33 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 잠언을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은 여러 번 반복하여 우리에게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23:17; 24:1, 19).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집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3:33). 비록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파멸이요 전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시 73:18-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복을 내려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잠 3:33).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하기보다 의인의 고통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도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빌 1:29).

우리는 고통을 싫어합니다. 어느 부부가 고통 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천 명의 악인들의 행동을 부러워하여 좇기보다 한 명의 의인의 고통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부가 한 몸이 되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29 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부부들이 한 몸이 되어 의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3) 셋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34 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우리가 이미 잠언 1 장 26 절에서 묵상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24 절) 도리어 하나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할 때(25 절) 우리는 재앙을 만날 것이고(26 절)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사실(26 절)을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듣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그 책망을 멸시할 때 우리는 향하여 비웃으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3장 34절에서도 솔로몬 왕은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거만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거만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부들은 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교만함을 집어넣어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기보다 서로보다 높은 자리에게 사랑 또는 존경을 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우리 부부들은 예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빌 2:5-8). 그러므로 우리 부부들은 서로를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3 절). 그리고 우리는 각각 우리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각각 서로의 배우자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4 절). 그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4 절).

#### (4) 마지막 넷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 장 35 절을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포악한 자들, 악인들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수치심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양심도 마비되었고 얼굴도 철면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죄를 거듭 짓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운 줄 점점 더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어느 한 기독교 인터넷 뉴스 기사를 읽어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함께 큰 기독교 단체에서 동역하다가 그 나이가 더 많으신 교단 선배 목사님의 돈 선거를 폭로하면서 증거로 녹음한 테이프를 제시하는 글과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뭐라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더 할말없게 만든 것은 그 사실을 폭로하는 참모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증거물 녹음기를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수치심을 느끼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하여 우둔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할 뿐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고 나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아니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서도 수치심을 못 느끼는 그러한 미련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 우리는 좀 수치를 느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영광을 기쁨으로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며 서로 존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앞에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양심이 마비되었고 우리의 얼굴이 철면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찌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책망할 때 그 면책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1)~(3)란 제목 아래 잠언 3장 27-25절에서 주시는 세 가지 인간관계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우리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포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또한 그를 저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그 미련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직한 자가 되어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으로 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세가지 원리를 우리 부부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주위에 많은 부부들이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며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비수를 꽂는 말도 분노 가운데 서슴치 않고 하기도 합니다. 부부들이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인들의 행동도 부러워하며 겸손히 서로를 섬기기보다 거만함 가운데 서로를 컨트롤(control)하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부부들이 미련하여 주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사랑의 책망도 듣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우리 부부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존경을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남편은 마땅히 아내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며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마땅히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들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 보다 의인의 고통에 서로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므로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혜로운 부부들이 되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 중심된 부부관계를 세우는데 헌신하여 부부 이혼율이 치솟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부부가 어떻게 다른지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를 들어내는 부부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며 죽기 전 아내에게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1년 3월 30일,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 및 인간관계를 추구하면서)

##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  
(고린도전서 12 장 23 절 상반절)

지난달 9 월에 인도 선교 대회에 참석하고자 떠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한국에 계셨으므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때 설교한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2 장 25 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거울이 되고 있는가?”라는 제목 아래 어떻게 하면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통일성)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는지 한 3 가지로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1)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서로를 귀하에 여겨야 합니다, (3) 우리는 서로에게서 아름다움을 보아야 합니다. 그 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수요 예배를 마친 후 집에 갔었을 때 아내가 그 수요 예배 설교를 듣고 저에게 한 두어 마디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내의 말 대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내가 저에게 몇 번이고 같이 캠핑을 가자고 말했지만 제가 ‘안 가겠다’고 말하다가 나중엔 제가 아내에게 ‘내년 4 월에 텍사스에서 우리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여기 남가주로 오면 그 때 함께 캠핑을 가자. 그런 후 나중에 우리 둘이서만 가자’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면 먼저 아내랑 단 둘이서만 캠핑을 가고 싶어야 했는데 그리 못했다는 것을 그 날 아내의 사랑의 책망(?)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인도 선교 대회에 다녀온 후 단 둘이서만 캠핑을 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아내랑만 단 둘이서 캠핑을 갔다고 화요일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아내는 저희 집 세 자녀들도 함께 가면

어떻게냐고 저에게 물었지만 제가 ‘아니오’(Nay)라고 했습니다. ㅎㅎ 그 이유는 저는 아내랑만 단 둘이서 캠핑을 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혼한지 25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아내랑 단둘이서만 캠핑을 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좋았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월요일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거기에 주물럭 고기를 구어서 상추와 쌈장에 싸서 둘이서 오손도손 실컷 먹으면서 함께 식탁 교제를 한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아내가 그리도 식사를 잘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 장 23 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미 지난 달 수요일 예배 때 이 말씀 중심으로 우리 승리장로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통일성)을 잘 지켜 나가기 위해선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훈을 가정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아내의 남편으로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여 여겨야 합니다’하는 교훈을 다시금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을 삶 속에 아내와의 관계에서 실천하기 위해선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2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첫째로, 남편인 제가 제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들의 생일 날에 이 메일로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습니다. 보낼 때에 제가 자녀들에게 ‘나의 귀중한(precious) 사랑하는 아들 Dillon 에게’ 또는 ‘나의 귀중한 사랑하는 딸 예리에게’(또는 예은이에게)라고 각각 세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자녀들이기에 저 또한 그들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귀중하게 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겸손히 믿음으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귀중하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는데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만큼이나 아끼시길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셨을까(롬 8:32) 생각하고 생각할 때 저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많은지 더욱더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더욱더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서(요 10:18) 왜 저 같이 하나님과 원수 된 죄인(롬 5:8, 10)을 위하여 십자가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요 10:15, 17; 요일 3:16) 저를 사랑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시는 더욱더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길래 어떻게 의로운 죄인이 제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시면서(갈 5:22-23)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성품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지(벧후 1:4)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한 마디로, 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지를 더욱더 깨달아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므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제 이웃을 제 자신 같이 사랑하되(마 22:39) 특히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제일 가까운 제 아내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마지막 둘째로,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은 저 같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소중하게 여기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이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떻게 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 3가지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 저는 남편으로 제 아내를 잘 이해하면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은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 저는 아내랑 25년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가 더 이상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을 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아내는 사랑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였습니다. 하하.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3장 7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남편 된 저는 아내를 ‘잘 이해해야’한다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영적 전쟁은 사탄은 자꾸만 ‘오해’를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님은 저로 하여금 아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사탄은 이해보다 오해를 하게 만들어서 제 기분(감정)을 안 좋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탄이 저로 하여금 아내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속에서 입을 열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만들고 그 결과 부부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내를 더욱더 이해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서는 아내로 하여금 저를 더욱더 이해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서는 저희 부부로 하여금 서로가 이해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오해하기보다 서로의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2)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고 그녀를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 장 7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연약한 그릇”에 대한 흥미로운 해석을 나눕니다: “‘스큐오스’(skeu'o)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릇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모양의 그릇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담는데 사용하는 모든 그릇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명을 가진 자를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인터넷). 저는 이 해석을 받아들일 때에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도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주님께서 제 아내에게 주신 은사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등을 제가 남편으로서 발전하는데 전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즐거하고,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과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엿보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내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주님께서 저와 아내에게 각각 주신 사명 따라 각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기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저는 그 사명 따라 사는 삶에는 부부가 한 몸으로 함께 주님이 주신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겨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싶습니다. 소중이 여기되 특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부로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예수님의 계명대로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길 기원하면 재현신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요일 3:14,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남편으로 세움 받기를 기원하는,

남편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10월 12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귀하에 여기시는 아내를 제가 누구관데 귀하게 여기지 않는 죄를 계속 범할 수 있습니까?)

## 가정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황후 와스디가 자기의 말을 듣고 오기를 거절하므로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측근에 있는 법률 문제 담당 자문관들에게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법에서는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문관들 중 무무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와스디 황후는 황제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황제께서 다스리시는 각도의 모든 귀족들과 백성들에게도 잘못하였습니다. 황후가 행한 일이 제국 안의 모든 부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들이 자기 남편을 무시하며 '크셀크세스 황제(아하수에로 왕)가 와스디 황후에게 오라고 명령해도 황후는 가지 않았어요' 하고 대꾸할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귀부인들이 황후가 행한 일을 들으면 그들의 남편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여 남편을 멸시할 것이며 남편들은 분노를 느낄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 폐하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칙령을 내려 와스디를 다시는 황제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국법으로 정하여 변경할 수 없게 하며 황후의 위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황제의 칙령이 이 광대한 제국 곳곳에 발표되면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부인들이 자기 남편을 존경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모든 자문관들이 이것을 좋게 여기므로 그는 무무간의 조언에 따라 각각 민족의 언어로 모든 도에 칙령을 내려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리라고 하였습니다(에 1:12-21,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정에 관하여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1) 부인들은 자기 남편의 말을 주님 안에서 복종해야 합니다. (2)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3) 오히려 부인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4) 모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 집안을 다스려야 합니다.

## 우리도 욥을 본받아 가정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던 욥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신 후 그 잔치가 끝날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자기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행위는 항상 이러하였습니다(욥 1:1-5).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욥은 아버지로서 먼저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본을 그의 자녀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은 가정 사역을 중요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욥기 1 장 1-5 절을 보면 욥은 누구이고(1 절) 그의 자녀가 몇 명이고(2 절) 그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한 후(3 절) 4-5 절은 욥의 자녀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혹여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을 보면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길 그리도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행동보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욥을 본받아 진실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욥을 본받아 가정사역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행동보다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혹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시로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 가정 세우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길 원하시므로  
우리는 가정 세우기에 헌신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 세우시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특히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아버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  
입술로만 아니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우리 남편/아버지들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편/아버지들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참으로 심각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죄요  
우리들의 죄로 인하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영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사랑의 굶주려 있는 듯하다.

#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 (역대상 17 장 16-27 절):

- (1)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소서!"(16 절),
- (2)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정에 권위가 되게 하소서!"(23 절),
- (3)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희 가정이 되게 하소서!"(25 절).

## 제 가정의 사명선언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므로,

주님 중심된 가정 증인-공동체로 세움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

##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창세기 16 장 2 절)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예수님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 세우기 원리를 찾아 그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물론 성경엔 가정 세우기에 대한 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에베소서 5-6 장과 골로새서 3 장 13-4 장 1 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 장 1-7 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구약 성경 창세기 16 장 2 절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성경적 원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기에 적어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세우기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6 장 2 절 말씀은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던 사래가(11:30) 가정을 세우고자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자기의 여종인 하갈(16:1)과 동침하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래의 의도는 자기 남편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 사래의 말을 듣고 결국 하갈과 동침하여 하갈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4 절). 하갈은 자기가 잉태한 줄 알고 자기의 여주인이 사래를 멸시하였습니다(4 절). 그 때 사래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5 절).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적반하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사래는 자기 남편 아브람을 탓하니 말입니다(분명히 사래는 남편인 아브람을 바가지 굶은 것 같습니다). 그 때 아브람은 아내 사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 (6 절). 결국 하갈은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8 절).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아브람과 사래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 원리를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래는 아내로서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존경)하지 않았고 아브람은 그의 아내인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로, 사래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respect)하라는 성경적 부부 원리(엡 5:33)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사래는 자기의 남편인 아브람을 경외하였더라면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믿고 따랐어야 했습니다. 즉, 그녀는 남편을 진정으로 경외(존경)했었다면 그녀는 아브람의 말에 복종했어야 했습니다(엡 5:22-24). 다시 말하면,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창 12:1-3, 7; 15:4-5)을 남편인 아브람처럼(15:6)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그녀는 불신앙에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이 땅(가나안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12:7),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하늘의 셀 수 없는 별처럼)(5 절)를 믿지 않고 자기의 몸이 아닌 자기의 여종 하갈의 몸을 빌려 남편과 동침케 하여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고 말씀하셨는데 사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이 75 세 때(12:4)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25 년 후인 아브람이 100 세 때 아들 이삭을 주시고자 했던 것인데 사래는 10 년 후(16:3)인 아브람이 85 세 때 결국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가정을 세우고자 여종 하갈을 남편인 아브람과 동침케 하므로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사래는 주님께서 그녀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시는 방법(아브람과 사래와의 동침 속에서 이삭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보다 자기의 방법인 여종 하갈과 아브람과 동침케 하므로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 마디로, 사래는 믿음(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둘째로, 아브람은 자기의 아내인 사래를 사랑하라(love)은 성경적 부부 원리(엡 5:25-28)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만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하였다라면 그는 자신의 아내를 바로 이끌었을 것(lead)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를 사랑했다라면 진리로 그녀를 이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사래가 그녀의 여종이 하갈과 동침하라고 말했을 때 그는 사래의 말을 들었습니다(창 16:2).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반대로 남편인 아브람이 아내인 사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왜 잘 못되었습니까? 분명히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15:4)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었다면 아내인 사래가 자기의 여종이 하갈의 몸을 빌려 자녀를 얻어 가정을 세우고자 했을 때 아브람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16:2)는 사래의 말에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믿음으로 거절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몸을 통하여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왜 믿지 않는 것이요?’라고 오히려 아브람은 아내인 사래를 사랑으로 면책(rebuke)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에 순종하는 아브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고 자기에게 주는 하와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그녀는 사랑으로 면책했어야 하는데 아담도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아담은 아내인 하와를 lead 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지도력(leadership)을 발휘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브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아내인 사래를 지도(lead)해야 할 남편이 지도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아내의 잘못된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창세기 16 장 2 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했었다라면 아브람은 아내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을 듣기보다 거절하고 면책하면서 아내를 진리로 바로 lead 를 했어야 하는데 아브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진리가 없는 아내 사랑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의미(meaning)가 없습니다. 그저 아내의 불신앙 가운데서 나온 말을 듣고 순종하므로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였다면 이러한 생각은 큰 착각입니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으로는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람은 진정한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선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적 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주님께 하듯 남편의 말에 복종합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권위(권위주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주신 신적 권위)에 복종하여 남편의 지도에 따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세워줍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가는 성령충만한 남편은 그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합니다. 사랑하되 그는 진리로 자기의 아내를 lead 합니다. 결코 그는 아내의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의하여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아내를 사랑으로 면책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그는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녀를 진리로 바로 세워줍니다. 이렇게 부부가 하나님의 가정 세우기 원리에 충실하여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세워줄 때에 우리의 가정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 세우기에 헌신한,

제임스 김 나눔

(2010년 1월 5일, 사랑하는 아내를 진리로 lead 하기로 재헌신하면서)

#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전서 13 장 7 절, 현대인의 성경)

어제 금요일 사랑하는 막내 딸 예은이를 대학교 기숙사에서 집으로 데리고 오면서 차 안에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거의 40 분 동안을 예은이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했는데 그 말들 중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대학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저에게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의 핵심은 제가 듣기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 말씀 내용의 배경은 성경책 전체를 읽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고민할 때에 중요한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의 주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추되 그 주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딸에게 그 목사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 아빠 또한 그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안 읽고, 전도를 하고, 안하고 등등,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고민과 고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친밀하면 할수록 또한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3 장 17-18 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폭 잠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도구(통로)로 쓰임 받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간구의 응답을 특히 첫째 아기 주영이의 죽음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주영이의 뱃가루를 물에 뿌리고 돌아올 때 작은 배 앞부분에 앉아 있었던 아내가 뒤에서 배를 조정하고 있는 저를 돌아보면서 “Titanic”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본 후 창공을 바라보면서 “My Savior’s Love”라는 영어 복음 성가를 힘차게 찬양케 되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의 구원자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찬양케 하셨습니다.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지만 그것은 주영이를 빨리 죽게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된 시편 63 편 3 절 말씀을 주님께서 성취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 신혼부부의 큰 위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조금이나마 더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사랑의 뿌리가 저희 부부 마음에 박히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7 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 내용 중 한 구절로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데로 사랑장의 말씀 한 구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사랑에 대하여 4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7 절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하자마자 얼마 안되서 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부모님의 집에 갔었을 때 어머니께서 제 아내에게 딱 한 마디 하신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아라.’ 물론 시어머님으로서 며느리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부부 관계에서 참고 또 참아라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저는 그 때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선배 사모님이신 어머니께서 후배 사모인 제 아내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7 절). 사랑은 참고 또 참습니다. 사랑은 길이 참습니다(약 5:8). 사랑은 오래 참되(고전 13:4)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참으시며 인내를 보이시는 것처럼(딤후 1:16,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에게 철저하게 참으며 인내를 보입니다. 사랑은 박해를 받아도 참습니다(고전 4:12). 사랑은 기다립니다(벧전 3:20). 사랑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립니다(시 37:7). 사랑은 참고 섬깁니다(행 20:19).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습니다(사 48:9).

### **둘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7 절입니다: “사랑은 … 모든 것을 믿으며 ….”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인간관계의 신뢰가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고 아내가 남편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깨지는 모습들을 보고 듣습니다. 이렇게 부부도 서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은 모든 인간관계의 신뢰를 깨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탄의 역사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자 우리의 지식(명철)을 의지케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참고: 잠 3:5).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문을 품게 만들다가 의심케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불신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불평과 원망과 심지어 미움의 관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를 더욱더 건강하고 견고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게 만들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십니다(골 2:7, 공동번역).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고전 13:7). 사랑은 하나님을 믿습니다(행 27:25,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주님을 믿습니다(18:8). 사랑은 주님이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요 11:27,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살전 4:14). 사랑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14 절,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행 15:11,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습니다(24:14). 사랑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27:25,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하나님이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며 또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고후 1:10, 현대인의 성경).

### **셋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7 절입니다: “사랑은 … 모든 것을 바라며 ….” 더 이상 바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 첫째 아기가 중환자실에서 투병 중에 있었을 때 하루는 제가 중환자실에 들어가 손을 씻고 가운을 입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죽게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저는 의사 선생님에게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 전까지 주님께서 아기를 대수술 가운데서도 불러가지 않으시고 살려주시사 삶을 연장시켜주시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의학적으로는 바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역사하시사 주신 소망을 가지고 아기를 천천히 죽게 해주시길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더 이상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을 원치 않게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 찬송가 539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3 절 가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비록 우리의 이성으로는 왜 주님께서 세상에 믿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끊으시는지 또는 한꺼번에 다 끊으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제 생각엔 주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 절망적이면 절망적일 수록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갈망케 하시는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뻐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고전 13:7). 사랑은 인간적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바랍니다. 그 좋은 성경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로마서 4 장 18 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백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중에 있었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또한 믿음에 약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19-21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합니다(18 절). 사랑하는 모든 것을 바랍니다(고전 13:7). 사랑은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시편 42:5, 11; 43:5). 사랑은 주님의 구원을 바랍니다(시 119:166). 사랑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습니다(골 1:23, 새 번역). 사랑은 복된 소망 곧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디도서 2:13, 새 번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고전 13:12, 현대인의 성경).

## 마지막 넷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 장 7 절입니다: “사랑은 ...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우리는 예상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접할 때 “왜”라는 질문을 우리 마음 생각 속에서 던지므로 말미암아 불평과 불만과 피해의식 속에서 우리의 감정은 낙심과 낙망,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므로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말미암아 현실 해결책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는 질문을 수 없이 던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도 해 보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땅과 하늘 차이(사 55:9)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알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은 누구이신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피 눈물 나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입술로 죄를 범치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므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감정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감정 속에서 참된 견고한 평안함을 누리면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니다(고전 13:7). 사랑은 시험을 견딤니다(약 1:12,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하나님의 징계도 견딤니다(히 12:7). 사랑은 고난을 견딤니다(고후 1:6; 딤후 4:5,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도 견딤니다(고후 1:8). 사랑은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착취하거나 이용하거나 우리에게 거만을 떨거나 우리의 뼈를 쳐도 잘 참고 견딤니다(고후 11:20,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여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이나 핍박이 오면 견딤니다(참고: 마 13:21,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참고 견딤니다(골 1:11,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딤니다(딤후 2:10, 현대인의 성경).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딤니다(고전 13:7,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시 136 편, 공동번역).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렘 31:3).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새 찬송가 3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 절과 후렴),

제임스 김 나눔

[2022 년 3 월 5 일, 여러분이 사랑의 뿌리를 박고 기반을 다져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하면서(엡 3:17-18, 현대인의 성경)]

## 강인한 사랑 (Tough Love)

오래 전에 Focus on the Family 라는 Radio program 에서 James Dobson 목사님은 'Tough love'란 말은 한 기억이 오늘 첫 만남인 세 자매들과 대화를 하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가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하는지 우리의 고민과 생각을 나누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매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강인한 사랑(tough love)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한 자매가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듯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생각해 보았지만 강인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처음으로 생각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또한 강인한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로 인도하시사 우리를 겸손케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실 때가 있습니다(신명기 8:2).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때 균형(balance)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균형적인 사랑에는 무조건적인 면도 있겠지만 강인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자녀를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 주님 중심된 부부

어제 주일 아내가 목양실에 들어와서 새로운 전화기(자기 전하기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 조카가 쓰던 옛 전화기를 사용하기 시작함)로 자신의 얼굴을 저의 얼굴의 틀이대고 한 석 장을 찍었습니다 ㅎㅎ 이 사진들을 여기에 올리면서 그저 잠깐 부부에 대한 생각들을 짧게나마 적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1. 부부란 성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평생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속에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부의 위기들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2. 부부란 성자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특히 부부는 예수님의 이중 계명대로 함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나 자신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마 22:37, 39).
3. 그러므로 부부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에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맛보면서 천국 생활을 이 땅의 가정에서도 부분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4. 부부 관계에 있어서 남편의 책임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남편들이 주님께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많음을 깨달아 알아가야 합니다(엡 3:18-19).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5:25).
5. 이렇게 남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는(경험하는)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엡 5:24). 뿐만 아니라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기보다

-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33 절). 남편을 무시하는 말이나 비언어적인 행동을 매우 삼가해야 합니다.
6. 부부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 원리는 남편은 주님을 신뢰하므로 아내에게 신뢰를 믿음으로 줘야 하며, 아내 또한 주님을 신뢰하므로 남편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부의 신뢰 관계는 주님 중심이 되어 합니다. 그 말은 남편이나 아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배우자 신뢰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먼저란 것입니다. 그 말은 남편과 아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성장이 곧 부부의 신뢰의 성장이란 말입니다.
  7.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믿음 성장이 부부 관계의 친밀함과 부부 성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 말은 남편이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므로 말미암아 부부의 관계는 더욱더 주님 안에서 친밀해지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 만일 부부가 주님을 부부 관계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부부 관계에 우선권을 두면서 사랑의 친밀감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 서로에게 불만족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며 그 결과 갈등과 다툼 등이 끝이 없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간략하게 부부가 주님을 제일 첫째(우선)로 두지 않고 부부의 사랑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게 되면 그 결과는 불만족 속에서 갈등과 다툼과 상처 등뿐이라는 말입니다.
  9. 부부 갈등과 다툼 등이 더욱더 악화되다보면 쌓이는 깊은 상처들로 말미암아 이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부 관계가 점진적으로 매우 악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부부 관계의 위기를 통해 주님을 우선으로 두지 않은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회개하므로 말미암아 부부 관계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부부 관계의 기초와 근본을 주님께 두기 시작하므로 말미암아 주님 중심된 부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 저희 부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또한 서로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증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의 모습,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많은 갈등과 다툼 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중심된 부부로 더욱더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 주님이 세우시고 있는 우리 부부 관계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오전.

어제 금요일 오후에 나는 사랑하는 아내랑 저녁 식사하러 운전하고 가면서 대화하는 중에 그녀가 오늘 토요일 사람들하고 좀 멀리 가서 암벽등반(Rock climbing)을 하러 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내에게 '누구랑 가느냐?'고 물으면서 '남자들하고 가느냐?'고 물었습니다[내가 아내에게 그렇게 물은 이유는 지난 번에도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두 형제들(남자들)하고 좀 멀리 가서 장시간동안 하이킹(Hiking)을 갔다 왔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아내의 답변이 좀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가보다 그냥 생각하고 그 주제를 넘어갔다. 그런데 어제 밤 잠들기 전에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남자들하고 가느냐?'라는 질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던지 왜 자기에게 그렇게 질문했냐고 나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에게 두 남자들이 암벽등반하러 가는데 자기도 좀 끼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지난 번 하이킹도 아내가 그 두 남자들에게 자기를 좀 데려가 달라고 해서 아내가 같이 갔던 것임). 나는 아내가 하이킹을 하든 암벽등반을 하든 여자들하고 같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남자들하고 좀 같이 해야 아내의 도전적인 마음과 열정에 좀 적합하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내가 이번에도 두 남자와 함께 암벽등반을 가는 것도 이해를 한다. 그러면서도 나는 어제 아내에게 남자들하고 암벽등반을 가냐고 물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나는 그 상황이 100%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 같다. 나는 남편으로서 좀 신경이 쓰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 생각한다(아내는 내가 한국으로 가서 인터넷 사역을 했었을 때 자매들을 일 대 일로 만난 것을 알고 얼마나 신경이 쓰였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나를 신뢰해줬다). 어제 밤에 그렇게 대화하다가 잠들었다.

오늘 나는 새벽 3 시쯤에 눈이 또 뜨여져서 교회 목양실에 와서 한 5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나는 아내가 새벽 5 시에 일어나 암벽등반을 하러 가는 줄 알고 있었기에)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다: "Good morning Jane. Have a safe and enjoyable trip. I trust our God and I trust you." 그랬더니 나중에 새벽기도회를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와서 문자를 점검해보았더니 아내가 내가 쓴 글에 "Loved"라고 말한 후 "Thank you"하면서 사랑 이모티콘을 나에게 보냈다. ㅎㅎ 그리고 나서 조금 전에 아내의 인스타그램의 스토리(story)를 보니까 밑에 사진의 글을 그녀가 올린 것을 보았다:

**"Balance of freedom & home.**

Find a partner who can give you the space you need to be your own person. It is healthy to have different interests, likes and dislikes. You do not need to become the same person to prove your love to each other. You know you are both supporting each other's happiness when you each feel like you can be your truest self. Remember, trust blossoms in the absence of control and vibrant relationships should feel like a balance of freedom and home. ~ YP"

**[자유의 균형과 집.**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는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서로가 다른 관심사,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건강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느낄 때 서로의 행복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통제(컨트롤)의 부재에서 신뢰가 발전하고 활기찬 관계는 자유의 균형과 집임을 느껴져야 합니다 ~ YP].

나는 아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우리 부부를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좀 엿볼 수 있었다. 즉, 나는 이젠 아내도 나와 같은 생각을 전보다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나는 부부 관계에도 건강한 경계선(healthy boundary)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서로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space)을 서로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금 아내와 나와서 관심사가 서로 같은 점들도 있지만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하여 서로가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부부 관계에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젠 아내가 전보다 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밑에 글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 나는 남편으로 사랑하는 아내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이나 관심사나 열정 등등을 존중함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남편으로서의 즐거운 책임이라 생각한다. 나는 아내가 더욱더 발전하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원하고 있다. 밑에 글처럼 '통제(control)의 부재에서 신뢰가 발전한다'고 나 또한 믿는다. 주님께서 아내나 나나 우리 부부 둘을 control 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아내에게 오늘 새벽에 문자로 말한 것처럼 "I trust our God and I trust you"(my precious and beloved wife Jane)한다.

#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엡 5:24-25,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 남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또한 결혼을 한 후에도 부부관계의 뚜렷한 목적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기에 환경과 감정과 같은 것에 치우쳐 부부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부부관계의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관계를 세워 나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너무나 이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말과 생활이 다르므로 위선의 뒷에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소명의 꿈을 일찍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저희 부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1)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과 (2)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빈약한 부부관계와 왜곡된 부모 자녀 관계”라는 기사를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요’하고 말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갑니다.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한쪽 부모는 배우자와 맺어야 할 연결을 무의식적으로 아이와 맺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을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부부관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정서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 성적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아이와 편 먹고 배우자를 밀어내는 식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글이 많은 빈약한 부부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들에 관하여 정곡을 찌르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부부들이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하고 말하면서 애들이 크면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019년에 제가 읽은 어느 한 기사를 보면 한국의 1년 한해 전체 이혼 사건이 총 10만 8684건이었는데 2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이 33.3%(3만 6327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0-4년 신혼부부(21.4%)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주로 아내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4-25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라는 제목 아래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부 관계 원리 2가지를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우리 각자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로 부부 관계에서 잘 적용하여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들로 잘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 **첫째로,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현대인의 성경)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아내들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주셨습니다(마 22:37, 39).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롬 5:5)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더욱더, 점진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갈 5:22). 그러므로 우리의 책임은 그 계명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 가족이 한 마음 한 뜻으로(빌 1:27; 2:2) 함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서로를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정은 천국화 되어가므로 천국의 기쁨(요 15:11; 요일 1:4)과 사랑(시 33:5)과 평화(롬 15:13)가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계명인 예수님의 이중 계명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으며(엡 2:2; 5:6) 도리어 지옥의 계명인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있음(창 37:5; 신 22:13; 마 24:10; 요일 2:9). 또한 거짓의 영과 더불어 사탄의 미움을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서(신 21:17; 삼하 13:15; 잠 10:12) 어두움의 일을 하게 만들므로(사 29:15; 겔 8:12; 엡 5:11) 가정의 쓴 열매를 맺게 하고 있습니다(롬 7:5).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 같은 집에 가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으며 도리어 집 밖에서 멍들게 만들든지 더 나아가서 집에서 멀리 멀리떠나고 싶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식구들을 보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배우자를 더욱더 미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우자를 향한 커지는 미움 속에서 그 부부 관계의 균열의 틈을 노려(참고: 느 4:3, 히브리어로 "틈"; 6:1) 사탄은 다른 여자/남자를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고, 안목의 정욕과 더불어 육신의 정욕으로(요일 2:16) 그 다른 이성을 탐하게 만들므로 결국에는 외도하게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고 파괴하므로 가정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며 도리어 우리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4절에서 성경은 “...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복종’을 표현하는 헬라어는 아래 계급, 아래 지위를 의미하는 복합 단어입니다(에거리치). 성경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 말씀을 오해하여 자기가 자기 아내보다 계급이 높다는 뜻으로 착각하여 아내를 종 부리듯이 하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에 가장인 남자에게 주신 신적권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은 분명히 권위주의적인 남편일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들에게 신적 권위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시사 신적 권위를 주신 것은 그 만큼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이란 바로 남편이 자기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되(25절)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되 남편은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까지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고 그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33절하) “...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 존경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녀가 헌신적으로 자기와 가족 식구들을 보호하고 공급하는 자기 남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수입이 적다고 비난을 해서도 아니 됩니다. 오히려 그는 남편이 헌신적으로 자기와 가족 식구들을 부양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감사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 남편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가장으로서 남편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적으로 보호하고 공급할 것입니다.

저는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 말로 상처 주는 남편”이란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만 좌절하며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남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며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인터넷). 여러분, 아내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5장 33절로서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부된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둘째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주심 같이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25 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현대인의 성경)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남편도 마음이 많이 괴롭겠지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도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딸들이 그녀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움을 받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면 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저는 2018 년 1 월 11 일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라 제목 아래 창세기 29 장 31 절 말씀 중심으로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 대해서 묵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야곱이 시력이 약한 레아보다 곱고 아리따운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창 29:17, 18). 저는 이 말씀 묵상의 글을 맺으면서 살아생전에 남편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죽어서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남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의 매장지로 삼은 그 곳에 장사되었는데(49:30-31) 남편 야곱도 결국 레아와 야곱은 같은 곳에 장사되었습니다(50:12-13). 살아생전에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가나안으로 여행하는 도중에 여브랏 부근에서 베냐민을 낳고 난산 끝에 죽어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35:16-20).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를 보시고 그녀의 태를 여시사(29:31) 그녀에게 선물로 주신 여섯 아들(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과 딸 디나 중 여섯 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12 지파 중에 6 지파가 나오고 특히 레아의 혈통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다국어 성경). 이 얼마나 놀랍고 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현 시대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딸들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고 그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25 절을 보면 성경은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1) 잠언 18 장 22 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남편들은 우리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성경 잠언 18 장 22 절을 보십시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성경은 아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는 “어진 여인”(an excellent wife)(12:4), “슬기로운 아내”(prudent wife)(19:14) 또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31:10)입니다. 이러한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성경 잠언 18 장 22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를 둔 남편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에게 복덩이(매우 귀중한 사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인이 현숙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12:4). 여러분, 누가 “욕을 끼치는 여인”입니까? 바로 남편과 다투기를 잘 하는 여자를 말합니다(박윤선). 이 다투기를 잘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5:24).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내(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나 나중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한 아내에게 참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저주 덩어리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자기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 (2)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3 장 7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것은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3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번째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나머지 두 가지는 이해받는 것, 존경받는 것임).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계신데 우리 남편들이 누구이길래 주님이 귀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딸을 경히(없신) 여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 장 20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남편들이 주님을 귀하여 여기므로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102 장)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보이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 (3)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5 장 18 절을 보십시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과연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들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잠언 5 장 19 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돼야 한다(*we must be captivated by her love*)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 비유의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샘"(15 절)인 우리의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결코 그녀를 버리고 음녀의 집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아내로 말미암아 성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satisfying refreshment*)을 얻을 때에 우리는 결코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며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을 것입니다(20 절). 성경 잠언 5 장 16-17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량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생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19 절) 오히려 음녀를 연모하며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20 절).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 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7-14 절). 그 징계란 “존영 상실”(9 절), “시간 상실”(9 절), “재물 상실”(10 절), “건강 상실”(11 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므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 (4)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5 장 28 절과 3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하고." 마치 우리 남편들이 우리 몸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되 2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2 가지 목적은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to make her holy)(엡 5:26a)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하여(to present her to the Lord as a radiant wife)입니다(27 절).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에베소서 5 장 26 절 상반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 장 22 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말씀을 순종케 하므로 세상과 분리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 주님의 광채가 들어나는 아내로 양육해야 합니다.

#### (5)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25 절을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우리 남편들은 우리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그 목표는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아내로부터 상을 받을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하고, 쓰레기도 가끔 버리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척하는 등 아주 작은 관심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큰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 (6) 우리 남편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에베소서 6 장 4 절을 보십시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남편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아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우리는 무조건 우리 아내들에게만 다 맡기고 수동적으로 있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부부는 한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5 장 31 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떠나 우리의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우리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부부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제목으로 삼고 오늘까지 왔으며 또한 앞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두 번째 목적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루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 부부가 배워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에 부부 싸움을 한 후 느끼는 것은 저는 제 힘으로 또한 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실지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인간의 부패성과 무능력함을 상처와 아픔, 눈물 속에서 하나님과 아내에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코 아내를 제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잊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령의 열매인 신적 사랑, 인간의 사랑보다 더 고귀하고 능력 있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경 로마서 5 장 5 절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부은바 되었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저의 인간의 사랑을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을 인지하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대치할 주님의 사랑으로 제 마음에 점진적으로 온전히 충만하길 기도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베드로전서 1 장 22 절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제 자신이 먼저 주님의 진리를 순종하므로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제 아내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진리가 제 자신의 인간 사랑의 연약함과 무능력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며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또한 제 아내 앞에서 겸손히 인정케 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을 추구케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내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제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제 아내를 사랑케 하시는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하며 살아갈 때에 저희 부부 관계는 더욱더 주님 사랑 중심이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의 첫 번째 목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의 삶 속에 서로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쩔 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으로 눈물의 기도를 흐르게 합니다. 언젠가 저는 제 아내에게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은 내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닮은 나의 모습이다.' 실제로 제가 아내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줄 것이 있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닮은 저의 모습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물의 매우 귀중함을 아는 아내에게는 그 만큼 귀한 선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부부로 세워주시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5월 22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 부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며 존경하는 아내가 되길 기원하면서)

# 부부 관계 신뢰 쌓기

부부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잠 3:5)  
결국에는 서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발전하면  
결국에는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부는(5 절)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에게 신뢰를 줍니다.

#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Trust not only needs to be build, but it needs to be protected”(신뢰란 두텁게 쌓아야 할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필요가 있습니다). [Paul David Tripp, “What did you Expect?”]**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선불리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아내가 다른 여자/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바람을 피어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깬 배우자를 다시금 신뢰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이여 주신 우리 배우자와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4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을 때에야만이 수평적인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 장 5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를 바로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철(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본능대로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불안정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신뢰의 근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우리는 우리 자신 만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고 믿고는 있지만 그 신뢰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뢰는 언제 어떻게 깨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요 2:24).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5 절).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기 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 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되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되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때에만 신뢰를 주기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랑하는 사랑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장차 그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와의 신뢰를 깨고 우리를 배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만일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뢰를 깨고 우리를 배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충분히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자신의 명철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신뢰하면 우리는 불신 속에서 ‘만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줬다가 배반당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명철을 의지하면 누군가를(심지어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있기에 우리 배우자에게 신뢰를 주기보다 그/녀에게 신뢰받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그/녀에게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심지어 화가 나기까지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된 부부 관계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 중심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주기보다 받기를 기대할 것입니다(이기적일 수 밖에). 그러나 만일 우리 부부 관계가 하나님 중심된 부부 관계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받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 주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이타적일 수 밖에). 이렇게 하나님 중심된 부부 관계를 맺고 있는 부부는 먼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고 또한 먼저 서로에게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줍니다. 그러다가 실상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된 부부는 자기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의 명철로 생각할 때에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서로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서로들 앞에서 진실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빌 1:8)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하되 우리는 ‘나-중심’적인 대화를 하기보다 ‘상대방-중심’적인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위해서 말을 하기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길 원하여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무너트리는 말은 상대방을 조종하여 그/녀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 내고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는 말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자 하나님을 조종하며 속이는 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도 그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기도를 드리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도 솔직하고 분명하며 투명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시 15:2).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됩니다(잠 12:19).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듯이(시 33:4) 우리도 다 진실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약속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는 그/녀하고 한 약속은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요일 3:18). 우리는 진실한 자가 돼서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잠 25:19).

**넷째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충분히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므로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충분히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이 발전이 되어 그들은 서로를 불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서로의 마음에 불만족을 만들어 내며 결국에는 입술로 서로에게 불평하게 되며 또한 서로에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음에 있는 이러한 불만족은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서로에게 핑계를 되면 거짓말을 한 것을 합리화를 시킵니다(선한 거짓말이라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그러나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무익한 것입니다(렘 7:8). 우리는 서로 속이지 말며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레 19:11, 골 3:9).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뱉었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잘못된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다시는 똑 같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그/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잘못된 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그/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기록해 놓으면 아니됩니다(고전 13:5). 하나님께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우리) 죄악을 지워주”신 것처럼(시 51:1) 우리는 그/녀의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재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사랑하는 아내를 신뢰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14년 8월 5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살아가면 갈수록 아내에게 신뢰가 가는)

# 성장하는 부부 관계?

여기 몽골은 금요일 새벽 4시 31분입니다. 잠에서 깨서 아직도 기침이 좀 나서 또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아 좀 무모하게 이번 선교 사역 여행을 좀 뒤돌아보면서 만났던 많은 지체들의 마음의 소리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가정'에 관해서만 정리해서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 (1) 부부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외롭다는 말을 했었는데 이번 선교 사역 여행의 만남을 통해 그 이유가 제가 아내의 입장에 서서 아내가 저랑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심에 찔림과 도전을 받아 아내하고 단둘이서만 캠핑을 가고 또한 실내 암벽등반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아내를 항상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 (2) 부부는 마음의 고통을 서로에게 충분히 나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의 고통을 나눈다 할지라도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듣고 생각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둘째로 부부는 서로의 마음의 고통을 나눠도 서로가 어느 정도 만족할만한 충분한 공감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결과 셋째로 부부는 각자 자신의 마음의 고통을 배우자에게 충분히 나누기를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마음의 고통을 충분히 나눌 수 없게 되면 부부는 외로울 수가 있으며 그 외로움을 참다 못하여 제 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여 그 제 3자에게 마음의 고통을 배우자에게보다 더 충분히 나눌 수도 있습니다.

## (3) 부부 관계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제 3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제 3 자란 물론 전문가 기독교인 상담가를 생각하게 되지만 주로 남편 형제들이 꺼려할 수 있기에 저 같은 목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부부 중 부인 자매나 또는 남편 형제가 목사님에게 다가가(꼭 만나지 않더라도 카카오톡 등 있기에) 자신의 고통을 나누면서 제 3 자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제 3 자는 그/녀의 마음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되 선입관이나 비판적으로 들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할 정도로 들어야 할 텐데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 3 자의 역할로 인해 그/녀는 마음을 쏟아내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통스러운 가족사에 대해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신뢰할만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쏟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쏟아냈던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우자에게 나눠도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통스러운 가족사에 대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지 못하기에 배우자 외에 제 3 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제 3 자가 꼭 목사님이나 전문가 상담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쩔 때는 그들보다 배우자 외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마음 문을 열고 제 3 자에게 나누므로 자신의 마음 치유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치유의 과정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더 이상 부인(deny)하기보다 받아들이는 것(accept)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음 치유의 과정에 첫번째 단계라 생각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가족사를 직시하고 부딪히는 것(confrontation)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가족사를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회피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마음 깊이 숨겨둔 곳에서 끄집어내어 직시하고 부딪혀서 그 가족사로 하여금 더 이상 나 자신의 발목을 못잡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건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치유의 과정이 오래 걸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시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5) 가족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healthy boundary)을 분명히 그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은 만일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경계선을 좀더 분명히 그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 지체들이 부모님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 갈등이 부부를 (매우) 힘들게 할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님과의 갈등이 부부 관계에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부 관계를 1 순위로 두고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부부 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특히 남편은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그어서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에 자신의 어머니의 도움이 되지 않는 영향을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와 함께 양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를 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자신의 아내가 우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가 부모님도 제 3 자입니다. 심지어 자녀도 제 3 자입니다. 그 제 3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부부 생활에 갈등 같은 것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6)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부부 관계에서 제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해서 제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형제와의 진솔한 대화 속에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와 헤어진 후 제 아내에게 연락해서 아내가 저랑하고 싶어하는 캠핑과 실내 암벽등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형제와의 만남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점은 우리 남편들이 우리의 입장에서만 아내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입장이 뚜렷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아내의 입장을 고려할 능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가 아내의 마음의 신음소리에도 민감하지 못하고, 설상 민감하여 들을 수 있다 한들 공감하고 체휼을 어느 정도 아내가 만족할 정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이해를 받지 못한다는 것으로 인해 충분히 실망하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7)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하므로 남편을 세웁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미친 순환(Crazy Cycle)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아내도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하지 않고 남편에게 불순종하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고 아내가 순종하지 않으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부부 관계는 지옥같은 부부 관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같은 부부 관계는 남편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을 존경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부부 관계를 세워나아감에 있어서, 물론 남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지만 아내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내의

중요한 역할이란 남편을 지혜롭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그에게 순종하므로 자녀 앞에서 남편을 세웁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잘 세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혼 부부의 교회 선택?

신혼 부부가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신혼 부부들을 보면 자녀를 위해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보다 부부를 위해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위급한 상황에 산소호흡기를 먼저 나 자신이 쓴 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자녀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줘야 하는 것처럼 부부의 신앙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해야지 자녀를 우선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녀를 위해 어느 교회를 가자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녀의 의견대로 그녀가 원하는 교회를 함께 가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자녀보다 부부를 위해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아내는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위해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고도 생각합니다(물론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교회를 선택하겠지만요). 그 이유는 남편이 가정의 가장으로 믿음에 견고히 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남편은 아내와 자녀를 성경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아내가 자녀를 위해 가자고 하는 교회에 갔는데 아내는 비슷한 또래 자매들(엄마들)이 있어서 공동체가 있어 좋고 자녀도 주일 학교가 이런 저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목사님의 설교도 안 맞고 원치않는 아내 중심으로 다른 남편들을 알아가고 있다면 제 생각엔 장기적으로 그 가정의 영적 균형을 잃어서 전체적인 가정 신앙(영적 생활)에 유익이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지혜로운 아내는 가정의 가장인 남편을 지혜롭게 잘 세워간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기도과 인내와 섬김 등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남편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결혼전부터 아내와 저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제일 중요하고 자녀나 양가 부모님은 제 3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 제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아내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매우 부족하나마 그렇게 지금까지 은혜로 오고 있습니다. 딜런, 예리, 예은에게 교회적으로 좋은(?) 환경은 없었지만 부부의 신앙 생활을 우선시하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3 자녀들도 친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양육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고 민감한(?) 주제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잘 선택하여 우리 남자들(형제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내들(자매들)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결혼하면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나요?" <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1584494644>]

## “거룩한 용기”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행동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고린도전서 16 장 13 절)

저는 이번에 산불로 인해 대피하는 과정에 제 아내가 저랑 함께 차를 타고 식사하려고 집 앞을 나섰는데 길에 전봇대에서 떨어진 전기줄을 보고 그녀는 차에서 내려 센 바람으로 인해 부러진 나무 가지를 들고 그 전기줄을 치우는 모습을 보고 '역시 내 아내는 대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ㅎㅎ 제가 제 아내랑 약 28 년을 함께 살아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되는 점은 '제 아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목사가 되어서 목회도 잘할텐데 ...'입니다. ㅎㅎ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통이 큼니다'(저는 통도 작고 그릇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담하고 모험심도 있어서 혼자서 산에 캠핑을 하고 하이킹도 하고 암벽등반까지 한답니다. ㅎㅎ (저는 소심하고 모험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는데 제가 잔소리가 좀 많습니다. ㅎㅎ 이정도만 나눕니다 ㅎㅎ 그런데 주님은 저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저 같이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모험심도 없고 잔소리나 하는 사람데요. ㅎㅎ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실 텐데 솔직히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토요일 오후에 산불로 인해 대피했다가 저는 제 아내랑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점(생각하게 된 점)은 역시 아내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ㅎㅎ 흠... 이렇게 말하면 좀 제가 위험해 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자매들에게 언어로 공격을 당할 수도? ㅎㅎ). 그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여자"로 어제 좀 생각하게 된 이유는 그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으로서 해결을 제시했는데 결과적으로 제 아내가 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일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 아내를 "여자"라고 말한 궁극적인 이유는 제 아내는 남편인 저의 지도력(leadership)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에는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력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어제 제가 아내를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다가 마음이 몽클해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울더군요.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가서 포옹하면서 아내의 등을 제 오른손으로 대었는데 침대에 앉아 있던 아내가 제 다리를 양팔로 잡으면서 울더군요. 그렇게 우는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제 아내를 섬세히 아내의 입장에서 잘 사랑을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저는 아내 사랑이 서툴고 섬세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배울 필요를 느낍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합니다.

[참고: “거룩한 용기” 기사: <https://www.gospelandcity.org/news/articleView.html?idxno=30468>]

## '징검다리'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주님께서 저에게는 '만일 내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으로서 내 아내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데 징검다리(stopping stone)가 돼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1)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으로 제 (미래의)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그녀도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2) 제 아내로 하여금 (제가 죽기 전에) 제 안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하소서(저 또한 그녀 안에 작은 예수님을 보게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제가 제 아내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보다 장애물(stumbling block)이 되고 있고 그 원인은 제가 영적으로 장애(spiritual disability)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영적 장애인이기에 그리스도와 아내와의 사이에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아내와의 사이(관계)에 징검다리가 되고 싶지만, 제 연약한 육신은 지금 그리스도와 아내와의 사이(관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큰 장애물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선포한 말씀으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https://youtu.be/YjSv3stOJ0c?si=4sMgeQ0G1FyUUrX7>

# 저는 수 없이 아내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저는 약 27년 동안 사랑하는 아내랑 부부생활을 하면서 수 없이 아내 앞에 장애물을 놓았습니다. 결혼 전에 저는 제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주님과 아내의 사이에 제가 징검다리가 되기로 헌신했었지만 실제로는 수 없이 저는 아내 앞에 장애물을 놓아 아내로 하여금 실족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세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 세 자녀들 앞에 수 없이 장애물을 놓아 그들로하여금 낙심케 했습니다. 특히 저는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아내와 다투므로 세 자녀들 앞에 거칠 것을 뒀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하는 자녀가 저를 향하여 쓰라림(bitterness)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 같으면 충분히 자녀가 부모에게 쓰라림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텐데도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 자녀들을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믿는 것은 주님께서 세 자녀들을 저희 부부보다 제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 부부 같은 매우 모자라고 어리석고 죄 많은 부모도 사용하시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딜런, 예리, 예은이를 친히 양육하셔서 주님 안에서 성장케 하고 계십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랑하는 제 아내나 세 자녀들에게 징검다리 역할을 할 자신도 없을뿐만 아니라 분명히 또 다시 그리고 수 없이 그들 앞에 장애물을 놓는 죄를 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주님 중심된 가정으로 계속해서 세워나아가실 것입니다. 진정한 징검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나 제 아내나 세 자녀들로 하여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랑과 겸손과 지혜로 섬기길 기원합니다.

<https://youtu.be/mqfMrz4e8LE?si=YjMuTNgTXr20r6vd>

## 아내와 보조를 맞춰 천천히 ...

오늘 아침에 창세기 33 장 말씀 묵상하다가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형님은 먼저 가십시오. 나는 앞서 가는 짐승들과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 세일에서 형님을 뵙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씁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그들은 천천히 인도해야 합니다(참고: 창세기 33:14,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더 생각난 것은 제가 아내와 함께 마라톤을 했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때 저는 아내보다 더 빨리 될 수 있었지만 아내의 '보조를 맞춰' 천천히 뛰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가끔 함께 뛰었던 추억을 얘기하면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나보다 더 빨리 뛰어서 앞서갈 수 있었는데 나랑 같이 뛰느라고 힘들었겠다'라는 식으로 말하곤 했었습니다. 이 추억이 창세기 33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은 아내와 함께 평생 처음 하프-마라톤(half-marathon)을 뛰었을 때였습니다. 그 때 아내랑 함께 저는 옆에서 약 9 miles(14 km)을 뛰다가 평생 처음으로 양다리에 거의 모든 근육이 쥐가 나므로(제가 미국에 와서 농구를 시작하면서 다리에 쥐가 난 경험은 있었지만) 도저히 아내랑 함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나는 좀 걸을테니 당신 먼저 뛰어가라. 내가 곧 따라가겠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아내는 저의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가 따라올까봐 열심히 (빨리) 뛰었다고 나중에 말하더군요 ㅎㅎㅎ 아내는 제가 양다리에 그 정도로 쥐가 난 줄은 몰랐지요 ㅎㅎ 그래서 저는 나머지 약 3 miles(5 km)을 거북이처럼 걸어서 겨우 골라인 앞까지 왔는데 아내가 골라인에서 저를 기다리다가(아마 약 1 시간 넘에 걸렸을 것임) 막 응원을 하는데(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는 모르고 ㅠ ㅎㅎ) 결국 패러메딕(paramedic) 구급차 두 백인 남자들이 저를 양쪽에서 부축해서 골 라인을 통과한 후 잔디 바닥에 쓰러져 누웠답니다 ㅎㅎ 제가 이 경험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저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ㅎㅎ 창세기 33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추억이 생각나면서 물론 부모가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걸어야 하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뛰었다는 게 그 때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더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달리기 실력(?)은 아내보다 더 빨리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보조에 맞춰서 천천히 뛰어야 하니까 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도록 절제(self-control)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저희 부부 25년 넘게 생활을 보면 달리기뿐만 아니라 제 성격이 급하고 제 아내는 좀 느긋한데 저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

아내의 느긋한 성격 보조에 맞춘다는 것은 웬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열매인 절제가 없이는 오늘의 이정도까지 결코 못 맞췄으리라 확신합니다. 하하. 뭐 성격만 그러겠습니까. 이것저것 아내랑 보조가 안맞는게 얼마나 많았는지... ㅎㅎㅎ 그 정도로 저와 아내는 무척이나 다릅니다(different). 물론 당연히 아내도 저와의 보조를 맞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내가 전등 불을 잘 끄지 않고 방문을 잘 안다는 것이 계속 신경이 쓰여서 약 25 년 동안 얼마나 수 없이 아내에게 말했는지 모르답니다 ㅎㅎ 지금은 아내가 안방을 나가기 전에 문을 닫을 확률이 전에 비하면 매우 나아졌답니다 ㅎㅎ 방문을 나가면서 '문 닫을까?'라고 물어보기까지 한답니다 ㅎㅎㅎ 물론 지금도 까먹고 열려 놓고 나갈 때가 있어서 제가 한 마디 하면 층계에서 내려가다가도 다시 올라와 방문을 닫고 간답니다 ㅎㅎㅎㅎㅎㅎ 이 정도로 훈련(?)이 되어서 방문닫기 보조를 저에게 맞춰주고 있습니다. ㅎㅎ

창세기 33 장 1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가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부부 관계)에서의 보조를 맞추는 것이 생각나서 이렇게 나눴지만 실제로 이 성경적 원리는 부부 관계와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는 목사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고 등등 합니다. 가정의 가장으로서와 교회의 목사로서 어떻게 상대방에게 보조를 맞춰 천천히 인도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 부부 관계의 공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공간'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간이란  
주님께서 각각 남편과 아내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공간이요,  
주님을 신뢰하므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간이요,  
각자 남편, 아내가 변화하는 공간이요,  
또한 각자의 은사나 달란트나 가능성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 공간(space) 필수?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부부는 서로에게 공간(space)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오늘 밤 아내하고 대화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 존경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린양의 보혈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A. W. Tozer).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가고 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화되길 바라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그 "공간" 속에서 주님께서 내 배우자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잠잠히, 인내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하고 대화했을 때 우리는 '당신은 항상(always) 그래' 또는 '당신은 결코(never) 이렇게 안할꺼야' 등등 이런 말을 삼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이나 "결코"라는 단어는 상대방에게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선입관에 그 상대방을 넣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주님 중심된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므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듯이 내 배우자도 변화시켜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

## [잠언 14 장 1-9 절]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각자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한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란 저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우리 가운데서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각 가정들을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 중에 특히 저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길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복습 차원에서 2008 년 5 월 18 일에 전파했던 “주여, 저희 가정을 세우소서!”란 제목 아래 역대상 17 장 16-27 절 말씀을 다시 뒤돌아보면 그 때 우리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었습니다: (1)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16 절), (2) ‘주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정에 권위가 되게 하소서!’(23 절), 그리고 (3) ‘주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내 가정이 되게 하소서!’(25 절). 과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권위인지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정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뒤돌아보십시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9 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심에 있어서 지혜로운 여인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 절을 보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The wise woman builds her house, But the foolish tears it down with her own hands).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란 제목 아래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두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우리의 집과 성기는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자기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But the foolish tears it down with her own hands). 과연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누구입니까?

### **첫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잠언 14 장 2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여인은 “패역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란 바로 자기 좋은대로만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박윤선). 그리고 자기 좋은대로만 행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여깁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과연 어떻게 그녀는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박윤선 박사님은 한 7 가지로 말하셨습니다(박윤선): (1)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것보다 더합니다(딤후 3:4), (2)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부패한 인간성 그대로 행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유 1:10), (3)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속히, 또는 매번 벌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녀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롬 2:4), (4)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잠 13:13), (5)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려고 망동합니다, (6)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마 7:7-11)을 멸시함입니다 그리고 (7)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정성되지 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기에 똑바른 길을 걸지 못하고 비뚤어진 길을 걸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미련한 여인은 표리가 있는(불성실한)(double-dealings) 길을 걸습니다(KJV Bible Commentary). 그녀는 불성실하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할 수도 없고) 오히려 악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헐니다.

### **둘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교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3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여인은 교만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3 절). 그녀는 교만하여

남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다른 이들을 우습게 보고 마음으로 또한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에서 아내가 미련하고 교만하면 남편을 자기보다 못하게 여기므로 우습게 보고 무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입으로 자기의 남편에게 무시하는 말을 하므로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힙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문제는 그녀는 자기가 자기의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하고 미련한 아내와 사는 그 남편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이 제대로 세워지겠습니까 아니면 허물어 지겠습니까? 잠언 11 장 2 절 상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치욕을 당합니까? 잠언 10 장 13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의 입으로 말미암아 치욕을 당하되 채찍 또는 막대기(26:3)로 징계를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여인을 낮아지게 하십니다(29:23). 하나님께서는 결코 교만한 여인으로 하여금 가정을 세우시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미련하고 교만한 여인은 자기 집을 헐니다.

### 셋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거만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6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 미련한 여인은 거만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 듣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듣는 능력을 상실합니다(MacDonald). 여러분, 사람이 듣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듣는 귀가 두개나 있다고 한들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나 면책 등을 듣기를 계속 거부하다보면 그러한 사람은 자기 옳다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뿐만 아니라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주위에 친구들을 다 잃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가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제일 잘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나 거만하게 들릴 때 누가 그 사람 주위에 남아있겠습니까? 만일 집 안에 아내가 미련하여 거만하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말 듣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듣는 능력을 상실하는 가운데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자기의 남편과 특히 자녀에게 미칠 나쁜 영향을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러한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 6 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말 듣기를 거부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한다는 그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지혜를 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거만하여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7; 9:10) (Walvoord).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가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잠언 16 장 18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지혜가 없는 거만한

미련한 여인은 그 남편과 자녀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녀는 자기 남편과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므로 말미암아 결국 자기 가정을 자기 손으로 무너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넷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지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7 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행을 일삼습니다(시 14:1) (박윤선). 그리고 그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을 나게 하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딤후 6:4). 여러분, 집 안에 아내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면 분명히 그 여인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투기와 분쟁과 훼방과 악한 생각이 나서 그러한 가정에는 평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여인이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만하여 어느 누구의 충고와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란 영적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별로 없으면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만하여 가르침을 받는 마음에 자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러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잠 14:7)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도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우리 집을 무너트리는 미련한 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섯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8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여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한여인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시 53:1). 그러므로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기에 그녀는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1 절). 그녀는 선을 행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1,3 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행위가 바른 줄 알고 있습니다(잠 12:15). 야고보서 1 장 22 절을 생각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실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하고 거만한 여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녀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속이는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자기 집(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 여섯째로, 자기 손으로 집을 허는 미련한 여인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9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 없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에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련한 여인은 진리를 모르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기 범한 죄악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할 능력을 그녀는 상실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모르며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미련한 여인은 잠언 10 장 23 절을 보면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 그러기에 미련한 여인은 죄로 마음이 강박하여져서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즉, 미련한 여인은 죄를 심상히 여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데 미련한 여인은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에 무식한 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녀는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녀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에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살 것입니다. 그녀는 죄를 심상히 여기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악된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에 찔림이 없을 정도로 강박한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여인이 집에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1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 과연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누구입니까?

## 첫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2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1:7).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히 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한 5 가지를 말하였습니다(박윤선): (1)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2) 은밀한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며 깨어 기도합니다. (3) 마음 속으로 범죄하지 아니합니다, (4) 평안한 때에 오히려 주님을 떠날까 하여 두려워하며 조심합니다, (5) 난처한 때에 구차스럽게 그것을 면하려 하지 않고 의리를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죄를 결코 심상히(가볍게)여기지 않습니다(9 절). 오히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죄를 심각하게 여깁니다(9 절).

그러므로 그녀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죄에 대한 깨달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자기가 범한 죄를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9 절).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하는 여인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녀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acceptance)는 말입니다(Walvoord).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8:35)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31 장 30 절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정직히 행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십니다.

### **둘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7 절을 보십시오: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겸손하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권면과 훈계를 겸손히 들어 지식 얻기가 쉽습니다(6 절). 그녀는 심지어 의인의 책망도 겸손히 듣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은혜로 여깁니다(시 141:5). 그러므로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환영합니다(welcome). 그 이유는 그녀는 그 지혜로운 자의 책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게 할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자기 자신에게 유익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여인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에 학식(learning)을 더하게 하므로 유익되게 합니다(잠 1:5, 9:9). 잠언 9 장 9 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겸손하여 학식을 더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교만한 여인처럼 입으로 매를 자칭하지 않습니다(14:3). 오히려 그녀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합니다(3 절).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여 남에게 유익하도록 입술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자신도 유익을 얻습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남을 사랑하므로 그를 헐뜯지 않고 도리어 감싸준다(벧전 4:8). 그러니만큼 남들도 말로써 그를 보호한다”(박윤선). 더 나아가서, 그녀는 신실한 증인으로서(잠 14:5) 지식 있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혜롭고 입술에 지식이 있는 여인을 통하여 가정과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십니다.

### **셋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부지런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4 절을 보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당연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가 없으면 논밭을 경작함에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없으면 농업에 있어서 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여인은 소를 사서(money) 시간을 투자하여(time) 소를 먹이고 씻기로 돌보므로 말미암아 함께 부지런히 일하여(work) 풍성한 수확을 얻습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노력해야 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짐승들 중에서도 특히 소를 거론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25 장 4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소’는 충성과 노력의 상징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지혜로운 여인은 충성하며 노력합니다. 노력하되 그녀는 부지런히 노력하여 “산업이 핏절치 아니”합니다(잠 31:11). 잠언 31 장 13 절부터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되(13 절) 그녀는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 집 사람들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15 절)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17 절)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18 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27 절)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자식들은 일어나 사례하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칭찬합니다(28 절). 이러한 지혜롭고 부지런한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 마지막 넷째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길을 압니다.

오늘 본문 잠언 14 장 8 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기에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걷기를 원하는 길을 걷습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어리석음만을 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시 53:1). 그리고 이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사는 삶은 진리를 떠나 거짓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들어내는 미련한 여인은 자기의 가정을 허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집을 세웁니다. 그녀는 먼저 자기의 갈 길을 압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향하신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바로 알고 그 일을 행합니다(고전 7:17) (박윤선). 그 하나님의 뜻 중 하나는 바로 자기의 집을 세우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주님께 충성하며 부지런히 노력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집을 세우십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집을 세운 지혜로운 여인을 생각할 때 성경에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성경 룻기서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 생각납니다. 성경은 그 모압 여인 룻을 “현숙한 여자”(a woman of excellence)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룻 3:11). 어느 면으로 보면 룻의 가정은 시아버지 엘리멜렉도 죽고, 남편 말론도 죽고 시동생인 기론도 죽고, 동서인 오르바도 가정을 떠났고 유일하게 남은 사람은 과부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좇아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해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벧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룻은 보아스와 함께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룻은 현숙한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인이었으며(2:10), 순종하는 여인이었고(3:5-6) 또한 인애를 베푸는 여인이었습니다(3:10).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룻을 통하여 보아스의 가정을 세우시사 그 가정을 통하여 결국에는 메시아 이신 예수님께서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를 세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 합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정직히 행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입술에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길을 알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기가 할 일을 충성되이 행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인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2년 2월 15일,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 현숙한 여인

## [잠언 31 장 10-31 절]

아직도 어렵듯이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남가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 누군가를 만나러 기숙사에 갔다가 거실에 있는 액자에 영어로 “현숙한 여인”(noble woman)에 대한 잠언 31 장 10-31 절을 말씀을 수놓은 성경구절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총각 형제가 성경 잠언 31 장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과 같은 자매와 결혼하고 싶어서 사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 형제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총각 형제들이 아니라면 수많은 형제들이 잠언 31 장 10-31 절에 나와있는 현숙한 여인을 자기의 미래 배우자로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능력의 여인”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도덕과 예의의 실행력 있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박윤선).

저는 개인적으로 “현숙한 여인”이 성경 잠언 31 장에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도엔가 롯기서를 읽다가 롯기 3 장 11 절에서도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이 말은 보아스란 유대인이 롯이란 모압 여인에게 한 말로서 보아스는 성읍 백성들이 롯이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롯이 어떠한 여인이길래 보아스와 그의 성읍 백성이 롯이 현숙한 여자인 줄을 알고 있었을까 한 3 가지로 목상했었습니다:

첫째로, 롯은 은혜를 사모하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은혜를 받은 롯은 자기는 이방 여인이어늘 어찌하여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시며 돌아보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음을 고백했습니다(2:10). 그러한 가운데서 보아스로부터 위로를 받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은 롯은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하고 고백했습니다(2:13). 자기를 가리켜 보아스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13 절).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롯은 겸손히 보아스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자신이 먼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로마서 5 장 20 절입니다: “...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계속해서 들춰지는 저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시 144:3). 또한 저는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달아갈 때에 롯이 “나는 이방 여인이어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롯 2:10)라고 고백한 말씀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고백한 말씀(딤후 1:15)처럼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찌하여 이렇게 저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요?’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 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할 때 저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롯이 보아스에게 “내 주여 ...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옵니다( 롯 2:13)라고 말한 것처럼,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하고 말한 것처럼(눅 15:21), 저 또한 주님께 ‘하나님, 저는 주님의 종의 하나와도 같지 못합니다( 롯 2:13). 저는 죄인 중에 괴수이니 제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여김 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사 43:4)’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롯은 순종하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대로 다 행하는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롯 3:5-6). 롯은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고 또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였기에 겸손함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 자세가 돼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롯은 시어머니의 명에 아무 토를 달지도 않고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순종하되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는 목욕을 한 다음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 입고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 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의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알려줄 것이다”하고 말했을 때도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하고 한 후 실제로 “그 날 밤에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다했습니다(룻 3:3-6,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현숙한 여인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깨달아 알아가는 가운데서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할 때 생각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 장 10 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더욱더 알아가는 자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9 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엡 3:8), “… 죄인 중에 괴수니라”(딤후 1:15)]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받은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행 20:24). 그러므로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는 신앙생활속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길 원합니다(빌 2:8).

**마지막 셋째로, 룻은 인애를 베푸는 여자였습니다. 즉, 현숙한 여자는 인애를 베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에 순종하여 보아스가 누울 때에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던 룻은(룻 3:4,7) 밤중에 놀라 돌이켜 룻을 발견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좇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10 절). 이렇게 룻은 인애를 베풀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더욱더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점진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할 때 생각난 찬송이 바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새 찬송가 314 장)입니다: “…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1 절),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2, 3 절). 제가 이 찬양 가사대로 저의 진정 소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를 보실 때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보다 나중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또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소중합니다(잠 31:10, 현대인의 성경).

여러분, 혹시 ‘진주는 아픔의 보석이다’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한 인터넷 기사를 통해 왜 진주가 아픔의 보석인지에 대해 좀 알게 되었습니다. “조개가 먹이활동, 호흡활동 등 생존을 위한 갖가지 활동을 하는 동안 조개의 체내로 모래 알이나 작은 벌레 등 이물질이 침투하여 살 속을 파고들게 되는데, 이때 조개는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분비물을 계속 분비한다고 합니다. 이물질이 들어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되면서부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도 시작되고, 분비물이 얇게 한 겹 한 겹 싸임으로 ‘아픔의 결정체’는 자라난다고 합니다. 상처를 입을수록 분비물이 분비되어 더욱 크게 자라며 더욱 영롱해지는 보석이기에 진주를 가리켜 ‘아픔의 보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주층, 곧 분비물층이 두꺼울수록 광택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광택과 두께는 진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진주층이 두꺼우며, 흠집이 없는 것이 바로 ‘극상품의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인터넷).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13 장 46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살 정도로 극히 값진 것이 진주인데 성경 잠언 8 장 11 절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값지고 중요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0 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아내)은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지혜로운 어머니입니까?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에게 진주보다 더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현숙한 여인(아내)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르무엘의 어머니야 말로 지혜로운 어머니라 생각합니다. 웬지 저는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 르무엘에게 진주보다 소중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교훈한 이유가 그녀의 아들이 그러한 현숙한 여인을 찾아 아내로 얻길 바래서 그리 교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본 진주보다 더 소중한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한 마디로 어떠한 여인일까요?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9 절을 보십시오: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 하고 칭찬한다”]. 진주보다 더 소중한(10 절) 현숙한 여인의 가치는 그녀의 남편이 보기엔(28 절)“모든 여자보다 뛰어”납니다(29 절). 그래서 그 남편은 자기의 현숙한 아내에게 “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 하고 칭찬”을 한다는 것입니다(29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녀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인 현숙한 여인에게 “일어나 감사”한다[“그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를 고맙게 생각하며”(현대인의 성경)]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8 절). 그러면 이러한 여인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도

오늘 본문 10 절 상반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하고 말한 것을 보면 이러한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누가”(Who?)“어떻게”(How?) 찾을 수 있을까요?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미만을 찾는 자는 이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나기 어렵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찾는 자만이 이런 능력 있는 여자를 만난다. 그런 아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박윤선). 그러면서 그는 두 성경 구절을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18:22),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물려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19:14).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0 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1 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느냐? 그녀는 진주보다 더 소중하다”(현대인의 성경)](10 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0-31 절 말씀 중심으로 “현숙한 여인”이란 제목 아래 한 6 가지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줍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1-12 절을 보십시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참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세상 같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며 상처를 입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은 설불리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지않습니다.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많은 부부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 남편/아내가 다른 여자/남자하고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번 바람을 피어 부부의 신뢰 관계를 깬 배우자를 다시금 신뢰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도 신뢰하지 못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신의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짝이여 주신 우리 배우자와 신뢰를 두텁게 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1)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부는 서로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있을 때에만이 수평적인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신뢰를 두텁게 쌓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할수록 그들은 서로를 더욱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되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신뢰를 주된 그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때에만 신뢰를 주기보다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그러다가 실상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된 부부는 자기 백성에게 배반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배우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우리의 명철로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3)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들은 서로를 속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서로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로 서로들 앞에서 진실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내 증인이십니다'(빌 1:8)라고 서로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합니다.

(4)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신뢰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속이고 그/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우리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우리의 잘못된 죄를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에게 다시는 똑 같은 잘못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헌신을 그/녀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가 잘못된죄를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그/녀를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되 우리는 그/녀가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기록해 놓으면 아니됩니다(고전 13:5). 하나님께서 “주의 많은 공물을 따라 내(우리) 죄악을 지워주”신 것처럼(시 51:1)우리는 그/녀의 잘못된 것을 우리 마음에서 다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헌신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그/녀를 신뢰하기로 재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사랑하는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오히려 주님 안에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1-12 절을 보면 잠언 기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에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10 절)고 말하면서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르무엘 왕에게 진주보다 값진, 즉 천하의 모든 보물보다 귀한(박윤선)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은 그 아내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녀를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는 자기의 현숙한 아내를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가까운 이유가 12 절에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12 절). 즉,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 현숙한 아내는 “살아 있는 동안에”(“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평생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는 “선한 여인”이요 또한 남편에게 선을 행하되 일평생 그리한다는 것은 그녀는 “신실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녀의 남편은 현숙한 자기 아내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까운 12 절에 나와 있는 이유 외에 왜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지 좀더 궁극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 30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녀를 신뢰하는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악을 미워합니다(8:13). 그리고 그러한 여인은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을 사랑합니다(암 5:15).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속한 여인은 악한 것을 본받지 않고 선한 것을 본받아 선을 행합니다(요삼 1:11).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자녀에게 앞으로 결혼할 때 상대방 배우자의 성품(character)이 매우 중요하다고 권면하곤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강조하는 성품은 “진실성”입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사람을 경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제가 제 자녀에게 성품의 진실성을 강조한 이유는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찾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trustworthy)을 만나길 기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께서 신뢰할만한 신부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신랑되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랑되신 예수님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서 신랑되신 예수님에게 교회가 선을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롬 12:2)을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 드림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엡 2:10)로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신랑되신 예수님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합니다.**

여러분, 결혼을 했어도 사랑하는 배우자가 나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노력 중에는 육체적인 매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매력 속에서는 우리가 지난 번 11-12 절 말씀에 근거해서 배운 ‘첫번째로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줍니다’라는 교훈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신뢰를 줄만한 진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부부가 서로 노력해서 가추어야 할 인격적인 매력 중 하나는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성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부지런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목상한 잠언을 뒤돌아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기자는 게으름에 대해서 잠언 6 장 10 절과 24 장 33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이렇게 게으른 자는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고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더 자고 졸고 누워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깨야할 시간에 깨지않고 나중으로 미룹니다. 또한 게으른 자는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나중에 미룹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신의 게으름을 탓하지 않고 다른 것(상황, 사람 등등)을 탓합니다. 즉, 게으른 자는 책임을 질 줄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잠언 6 장 11 절과 잠언 24 장 34 절을 보십시오: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른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가난이 오되 마치 피해자가 강도를 만나 압도당하는 것처럼(24:33) 가난이 온다는 뜻입니다(MacArthur).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잠언 24 장 30 절을 보면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the sluggard)의 발과 “지혜 없는 자”(the man who lacks judgment)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동의어(synonym)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게으른 자는 지혜 없는 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혜 없는 자”란 영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판단력이 부족한 자’란 의미입니다. 과연 게으른 자가 부족한 판단력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른 자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서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33). 그런데 학개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보다 먼저 자기들의 집을 짓는데 바빴습니다(학 1:4,9). 그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황폐하게 되도록 놓아두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데만 바빴습니다. 그들의 우선순위는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학개 1 장 6 절과 9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삯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6 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9 절상).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농작물에 흉년(한재)이 들게 하시사(학 1:11) 그 수확을 빈핍하게 하셨습니다(6, 9 절) (박윤선).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재정에 가뭄을 들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궁핍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게으른 자는 지혜가 없어서 먼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므로 가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6 장 6 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까? 그 말씀 자체가 이미 게으른 자는 개미보다 미련하다는 뜻이 아닙니까? 과연 게으른 자가 개미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무엇입니까? 2 가지입니다(박윤선):

- (1) 개미는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협력하며 일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 장 7 절을 보십시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도되.” 게으른 사람은 감독하는 개미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서로 상부상조의정신으로 협력하면서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에 가서 자세히 보고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 (2) 개미는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6 장 8 절을 보십시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성경은 개미보다 못한사람에게 개미에게 가서 장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 30 장 25 절에서도 성경은 개미를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즉 자기들의 음식을 여름에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다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개미들은 “여름”에 겨울 음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일까요?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여름이 추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때에 개미들은 겨울철 먹을 것을 모아 들인다고 합니다(박윤선). 이렇게 개미들은 추수 때에 자기들이 겨울 철에 먹을 음식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3-19 절을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이 부분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한다면 현숙한 여인은 근면히 사업을 운영하는 “노동의 미”를 소유했다는 것입니다(박윤선). 박윤선 박사님은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근면히 사업을 운영했는지 한 3 가지로 말했습니다:

### (1) 현숙한 여인은 직물(fabric/cloth) 생산에 종사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3, 18, 19 절을 보십시오: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양털과 삼을 구해 부지런히 일하며 …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현숙한 여인은 집 안에서 작은 규모로 손과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3 절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을 합니다. 일하되 그녀는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짠다고 19 절(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으로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밤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8 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가정에서 부인들이 이 현숙한 여인처럼 가내 수공업을 귀히 여겨 생산적인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부인들이 집에서 가내 수공업 외에 컴퓨터 인터넷으로 등 다양한 작은 규모의 생산적인 사업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는 시대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부인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면 가정 살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사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부인들의 달란트대로 집 안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부지런히 사업을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 (2) 현숙한 여인은 가정 생활을 잘 운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4-15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현대인의 성경) “상선처럼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은 등한히 하는 자매님은 균형을 잃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매님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일 경우, 그녀가 자기의 가정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은 성경 베드로전서 3 장 1 절 말씀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현대인의 성경)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많은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회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는 본이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박윤선). 지혜로운 아내는 복음 증거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녀는 불신자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의 불신자 남편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4-15 절 상반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게 대해서 말하면서 그녀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자기 가족을 위하여 멀리서라도 양식을 구입해서 집으로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멀리서 가지고 오는 양식은 그저 보통 음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음식이라는 것입니다(MacArthur).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양식을 먼 곳에서 구입하는 목적은 우량품을 싼 값으로 구입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그(녀)는 가정의 식량 정책을 민첩하게 쓴다.” 이러한 민첩함이 우리 아내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나요? 가정의 식량 정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정 살림을 함에 있어서 현숙한 아내들은 지혜롭게 재정을 잘 운영해서 허비하지 않고 오히려 저렴한 가격은 좋은 물품을 구입하는 등 그래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돈을 팍팍쓰면서 재정을 허비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제로 잠언 기자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7 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자기 집안 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먹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 일을 부지런히 잘 보살피며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먹습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을 위하여 멀리서라도 우량품을 싼 값으로 구입할 뿐만 아니라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5 절상, 현대인의 성경). 아마 신혼 초에는 아내가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혼 부부라고 해서 다 그러리라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혼 부부는 시작부터 각자 아침을 해결하든지 아니면 아침을 거의 건너뛰는 경우가 만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많은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까지 있는 가정의 아내가 남편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5 절에서는 현숙한 여인은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리 말했습니다: “...그(녀)는 친히 가족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 그 가정의 식탁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되며, 거기에 가정의 따뜻함이 있고 기쁨이 있다.” 현숙한 여인은 사랑하는 식구를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침 일찍 미리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녀는 부지런히 가정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 (3) 현숙한 여인은 산업을 발달시킵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5 절 후반절에서 19 절까지 보십시오: “...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솜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현대인의 성경) “... 여종에게 할 일을 일러주고 나가서 밭을 보고 생각해 두었다가 그것을 사며 자기가 번 돈으로 포도원을 만들고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하며 손수 물레질을 하여 실을 뽑고 베를 짜며”].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혼자서 집안 일을 하며 작은 규모의 공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일을 일러주는 여종과 함께 일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여종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알려준 것을 보면 그녀 나름대로 지도력(leadership)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 것(16 절)을 보면 자기가 집에서 작은 규모로 공업을 해서 번 돈을 모아서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박윤선) 포도원 밭을 사서 그 포도원 밭을 일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가정 살림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일도 해서 자기의 산업을 확장시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수입을 늘이기 위해 자기 생산품을 먼 곳까지 수출하기에 노력하며 산업을 발전시킨다(17-19).” 이렇게 현숙한 여자는 경제적 실력이 강한데 그것은 그녀의 근면에 의한 것임(박윤선) [(17 절, 현대인의 성경) “언제나 강인하고 근면하며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 줄 알고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유익한 일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24 절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옷과 허리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넘기기도 한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요즘은 젊은 자매들도 인터넷으로 옷을 팔고 하는 것을 보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집에서 가정 살림을 잘하면서도 부지런히 옷 같은 것을 인터넷으로 파는 사업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유익한지 아니면 무익한지 구별합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무익한 일을 하지 않고 유익한 일을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합니다. 그리고 근면이 있는 현숙한 여인은 경제적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번 돈을 모아서 신중히 사용하고 근면있게 일을 하므로 자기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확장시킵니다. 신랑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알아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언젠가(2018.5. 8.) 미주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에 “기독교인 10명 중 7명 ‘가난한 이웃 도와’”란 제목의 기사가 있어서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여론조사 기관 바나 리서치는 최근 '세계적인 빈곤 문제에 대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3가지 이유'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바나 리서치에 따르면 실천적 기독교인 10명 중 7명(75%)은 "가난한 사람 또는 저소득층 가정에 음식을 제공해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실천적 기독교인”이란 “종교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교리에 대해 실천적으로 살고 있다고 답한 교인”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인들은 '돈을 포함한 옷이나 가구 등을 기부한 적이 있다(72% · 일반 성인 64%)', '특정 시간을 정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한다(62% · 일반 성인 33%)', '지역 사회 저소득층을 위해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다(47% · 일반 성인 29%)', '미국내 자원봉사 기관에서 봉사한 적이 있다(39% · 일반 성인 24%)',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해외로 나간 적이 있다(10% · 일반 성인 6%)' 등 모든 부분에서 일반 성인들 보다 응답률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바나 리서치는 빈곤 문제 해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로 ▶실천적 기독교인은 미국과 전세계에 걸쳐 다양한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빈곤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회적 이슈에도 관심이 많음 ▶빈곤 퇴치에 희망을 갖는 사람들은 해결 방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0 절을 보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그녀의 아들인 르무엘 왕에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현대인의 성경)“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여기서 ‘손을 내밀다’는 단어의 의미는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친절히 구제의 물질을 보냄”을 가리킵니다(Matthew Henry, 박윤선). 이 말은 현숙한 여인은 가까이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친절히 구제를 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까지 친절히 구제의 물질을 보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녀는 가까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친절히 구제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라 생각합니다. 즉, 현숙한 여인은 궁핍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친절히 구제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생각할 때 헨리 나우웬이 말한 “긍휼”에 대한 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는 “긍휼”이란 원어 히브리어로 “라카미(rachamim)인데, 이것은 야웨(하나님)의 자궁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자궁”에 대한 글을 찾다가 자궁의 3 가지 특징을 좀 알게 되었는데 저는 그 3 가지 특징을 하나님의 긍휼과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 (1) 마치 자궁이 “이물질”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신다는 것입니다.

(2) 마치 자궁이 태반 혈관의 침투를 받아들이므로 태반을 자라나게 하도록 영양을 공급하는 것처럼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 침투’까지 용납하시므로, 즉 죄를 대신 걸머지시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젠 더이상 ‘죄 침투’를 막으시사 온 몸과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게 ‘죄의 소통’을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3) 더 나아가서, 마치 자궁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동안 세포의 자연사를 자궁내막이 막아 주고 또한 임신 후기에는 산모의 배 벽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편하게 만들고자 자궁 이 얇고 부드럽게 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동력있고 주님 안에서 마음껏 움직이도록 신앙생활을 하게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자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되 예수님의 마태복음 6 장 2-4 절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흥미로운 점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선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제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 장 2-4 절에서 “구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5 절부터 15 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사도행전 10 장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 장 2 절을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31 절). 즉,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경건은 기도와 구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0 절에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하고(13 절) 근면하며 열심히 일해서(17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산업을 확장시켜(15 하-19 절) 자기 집안에서만 사랑하는 가족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14 절) 이웃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 구제합니다. 저는 이 현숙한 여인을 생각할 때 그녀는 “지혜로운 부자”라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잠 22:4, 31:30) 부지런히 일을 하며 또한 겸손한 자세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고(29:7) 그들을 불쌍히 여겨(시 72:13) 그들을 구제하며(잠 28:27) 도와주기 때문입니다(31:20). 이러한 지혜로운 부자는 마음을 높이지 않고,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않으며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돕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부자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입니다(딤후 6:17-19). 성경 잠언 28장 27 절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 본 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오히려 성경 잠언 11 장 24 절은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구제하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큰 기근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유대 형제들을 돕고자 각각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내어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구제금을 보냈습니다(행 11:29-30). 이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가까운 이웃뿐만 아니라 또한 멀리 선교지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 중심된 꿈을 가진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데 몰심양면으로 돕는다면 이것이 바로 신랑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 **넷째로, 현숙한 여인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염려할 일들이 참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이런 저런 일들로 염려할 일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성경 베드로전서 5 장 7 절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 장 22 절과 29 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25 절). 우리가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아무 도움도 안되고 아무 유익도 안되는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2) 그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26 절). “이처럼 사소한 일도 못하면서 왜 다른 일들까지” 염려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26 절, 현대인의 성경).

(3) 그 세 번째 이유는,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6:32, 현대인의 성경).

(4) 그 네 번째 이유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눅 12:3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염려하고 또 염려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28 절).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기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우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22 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까마귀를 생각해야 합니다(24 절). 우리는 공중의 새를 보아야 합니다(마 6:26).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난 번에 영어사역 연합 수련회를 산으로 가서 아침에 숙소 밖 뒷 베란다에 있는 의자에 앉아 날라 다니다가 나무에 앉았다 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6 장 26 절 말씀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어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잠시나마 그 말씀을 묵상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도 기르고 계시는데 이것들보다 훨씬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있는 나를(사 43:4)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기르시지 않으시겠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기르시사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족히 주셔서 음식이 없어서 굶은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셔서 한 번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음식이나 옷이나 넘치도록 과분하게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저런 일들로 염려를 합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염려합니다(마 10:19). 또한 저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할까” 합니다(고전 7:33). 저는 교회 일로 염려하고 근심합니다(고후 11:28, 참고: 눅 10:41). 교인들 중에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까봐 염려합니다(신 29:18). 특히 저는 제 자신이 사탄의 유혹에 빠질까 염려합니다(딤후 3:7). 이렇게 저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눅 21:34) 또한 이렇게 “세상의 염려”를 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혀 결코 결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막 4:19). 저는 이러면 안 되다는 것을 알면서도(막 4:19) 지금도 여러가지 일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일 때문에도 염려를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내일(미래) 일루도 염려를 합니다. 이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마 6:34).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1-22 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흠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녀는 모든 가족에게 입힐 따뜻한 옷을 마련해 놓았으므로

겨울이 닥쳐도 염려하지 않는다. 그녀는 자기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며 아름답고 고운 모시 옷과 자색 옷을 입는다”].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다 홍색 옷을 입혔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홍색 옷이나 자색 옷은 다 비싼 옷들이었습니다(Bible Knowledge 주석). 그것을 보면 우리는 현숙한 여인은 자기 식구들을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만들고 살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히 일을 해서(13 절) 자기의 산업을 발달시켜서(15 하-19 절) 자기 가족들로 하여금 생활을 걱정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21-22 절). 어느 정도였냐면 그녀의 남편은 신뢰하는 그 현숙한 아내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11 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현숙한 여인이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녀는 자신의 가족들이 생활 걱정하지 않도록 집안 일을 잘 보살피기 때문입니다[“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피며 놀고먹지 않는다”(2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5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녀는 능력과 품위가 있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염려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앞에서 염려를 하면 우리 자녀들은 불안해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우리가 염려를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숨기고 부인하는 등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제가 약 4년 전(2015년)에 경험한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제 믿음의 연약한 저의 염려를 이미 다 아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만큼이나 사랑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 때 저는 순간 순간 믿음으로 살아드려야 하는데 자꾸만 눈으로 보는데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잠잠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기보다 제 명철을 의지하여 조금씩 행동을 옮기면서 결과 등을 예상을 하려고 하면서 염려하는 제 자신을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저는 더 이상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하루 하루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모든 염려를 신랑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맡기길 기원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신랑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여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아내는 어떠한 여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신여대 심리학 교수가 20년간 부부상담을 하면서 정리한 주요 내용중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남편은 “아내가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복돋아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내에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아내가 자신을 다른 집 남편과 비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과 비교하는 단골 메뉴는 월급 봉투, 선물, 휴가, 처가에 잘하는 것, 집안 일 도와주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채교수는 여성들이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자들하고 비교해서 남편의 행동을 수정하려 시도하지 말고, 남편의 현행동에 초점을 두어 잘하는 행동을 지적하고 원하는 행동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5월 22일에 “지혜로운 아내”란 제목 아래 쓴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요 남편을 경외 혹은 존경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복종”이나 “경외”라는 말은 부부관계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하는 시대에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시대의 걸잡을 수 없는 흐름에 많은 크리스천 부부들이나 총각, 처녀들이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나 염려됩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 하듯 남편을 복종하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도리요(골 3:18)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내의 큰 신적 소명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는 것이 남편을 세우는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을 무시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를 존중하므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자들이 되십시오!”

오늘 본문 잠언 31장 23절을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그 남편도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존경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을 보면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임을 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는 자기의 남편을 세우되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는데 중요한 이바지(significant contribution)했다는 것입니다(MacArthur).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성문”이라는 곳은 도시나 기타 지방에서 그곳 주민들의 사건을 처리하는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욥 31:21)(박윤선). 그런데 그 곳에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평민이 아닌 “지도급 인사로 알려져” 있었던 것입니다(잠 31:23,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그녀의 남편이 지도급 인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남편의 성공은 그의 현숙한 아내의 조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23절하). 결혼한 자매님들, 여러분의 남편이 사회에 나가서 나름대로 성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기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를 여기저기 보다가 한 흥미로운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그 유명한 스펀전 목사님의 사모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은 ‘당신이 스펀전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하여 몰랐던 3 가지’ (“3 Things You Didn’t Know About Spurgeon’s Wife”)이었습니다. 그 3 가지란 첫째로, 스펀전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스산나(Susannah) 사모님은 결혼에 대해서 힘든 교훈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큰 책임이 있는 남편과 살면서 아내로서 자기 자신을 남편의 마음에 걸고 첫번째로 둘 수 없다는 것을 힘들게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 남편의 하나님의 나라 사역과 주님의 일을 함께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기로 헌신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스산나 사모님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빚으시자 자기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울증과 병으로 고생하는 남편을 도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극심한 의학전 문제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깨짐을 통해 자신의 인격을 빚으시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셋째로, 스산나 사모님은 전 세계 사역을 설립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The Book Fund”라는 자선단체를 조직해서 3,058 신학책들과 71,000 복사본을 빈곤한 목사님들에게 나눠줬다고 합니다(인터넷).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기에 그녀의 남편인 스펀전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큰 일들을 행하는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3 절로 말한다면, 현숙한 스산나 사모님은 자기 남편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할 뿐만 아니라(엡 6:33) 또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게 합니다(잠 31:23).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자로 세우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대답을 오늘 본문 잠언 31 장 11-12 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만나니 산업이 핏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그런 여자의 남편은 아내를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을 해치지 않는다”]. 현숙한 여인은 평생에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므로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자기를 믿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숙한 아내를 믿는 그녀의 남편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기에(11 절, 현대인의 성경) 그는 그녀의 도움을 받아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존경)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23 절).

저는 “남편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아내, 말로 상처 주는 남편”이란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좌절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세상에 나가 싸워 이길 힘을 얻지 못하고, 그만 좌절하며 모든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남편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있는지 그 사실을 모르며 간과할 때가 많이 있다”(인터넷). 자매님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매님들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에베소서 5 장 33 절로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숙한 아내는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자로 세웁니다. 여러분, 신부된 우리 교회는 신랑되신 예수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존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처럼 말입니다. 그리할 때 신랑되신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으실 것입니다.

### 마지막 여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치 혀를 잘 놀려야 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무슨 뜻입니까? “세치의 혀”란 약 10cm 정도 길이의 혀라는 의미로서 짧은 혀로 하는 말이 목숨이 왔다갔다 할 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만큼 혀는 짧지만(3 치라 표현), 혀로부터 나오는 말의 결과는 엄청나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3 장 5 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혀로부터 나오는 말이 어떤 이들은 엄청난 상처와 좌절과 실망과 저주가 되고, 어떤 이들은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얻기도 하며, 또 어떤 경우에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잠언 18 장 21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잠언 15 장 2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저는 이 말씀 중심으로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어떠한지 4 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 (1) 지혜있는 자의 혀는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합니다.

잠언 15 장 1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 때 함께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혜 있는 자는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을지라도 노하기를 더디합니다(18 절). 그러한 가운데 그는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순한 대답으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말로 그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분노하는 사람을 대합니다(25:15). 대하되 지혜 있는 자는 부드러운 혀로 상대방을 설득시켜 그 분노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의 분을 쉬게 합니다.

### (2) 지혜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습니다.

잠언 15 장 2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 무슨 뜻입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즉, 지혜 있는 자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지식을 전파합니다(spread knowledge)(7 절). 그 이유는 지혜 있는 자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의 귀는 지식을 구하며(잠 18:15)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시 1:2). 즉, 지혜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그 지식을 잘 전한다는 말입니다.

### (3) 지혜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다.

잠언 15 장 4 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도 ….” 여기서 “온량한 혀”란 ‘치유하는 혀’를 가리킵니다. 즉, 미련한 자의 입술은 과격한 말을 하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혀를 가지고 있고 싶지 않으십니까? 과연 어떻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상처를 치료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므로 상처를 치료합니다(2 절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말하되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부드러운 말(유순한 대답)(1 절상)로 잘 말하여 상대방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 치유하는 혀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혀는 진실하고도 화평스럽게 하는 말로서 듣는 자를 위로하며,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리켜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골 4:6)(박윤선). 이렇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듣는 자를 위로하고, 살려주며, 소망을 가지게 하기에 “생명 나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15:4). 다시 말하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므로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는 생명 나무인 것입니다.

### (4) 지혜있는 자의 혀는 때에 맞는 말을 합니다.

잠언 15 장 23 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저는 실제로 종종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적합한 때에 적합한말을 하계 하시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채팅으로 상담을 할 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구절을 나누게 하시므로 상대방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을 엿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 자신도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그 때 그 지체에겐 적합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5 장 11-12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충고의 말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여기서 “경우”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바퀴”란 뜻입니다. 곧, 그 때 형편과 경우에 잘 조절하여 돌아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충고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잘 조절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박윤선): “충고하는 자 자신이 사랑과 화평을 지니고 있을 때에 말해야 됩니다. 능욕하는 태도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의 없이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충고할 때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그 충고하는 자에게 큰 대접(“은쟁반에 금사과”와 “금고리와 정금 장식”의 의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오늘 본문 잠언 31 장 26 절을 보십시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현대인의 성경) “말을 지혜롭고 친절하게 하고”]. 현숙한 여인은 그저 좋은 가정 주부일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일을 해서 자기의 산업도 발달시키지만 또한 자기의 가족을 지혜의 말들로 잘 인도합니다(The Pulpit 주석). 여기서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녀의 입에서는 나오는 지혜의 말들이란 지식이요(15:7), 그 지식이란 바로 진리(truth)라 생각합니다(8:7). 그 이유는 그녀의 마음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18:4, 박윤선).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의 입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전파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 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나와야 하며 지혜의 말들이 흘러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현숙한 여인은 그녀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 31:26). 현대인의 성경은 그녀는 말을 친절하게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마음에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또한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그녀는 자신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되 그녀의 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규제된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합니다(The Pulpit 주석). 저는 그 인애의 법이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의 이중 계명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중 계명이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입니다(마 22:37,39). 이 이중 계명을 현숙한 아내는 가정 안에서 그녀의 남편과 자녀에게 삶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입술을 열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로 예수님의 이중 계명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의 인애의 법을 보여줘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되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입을 열어 참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되신 예수님의 지혜로운 현숙한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제 친할머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 앞에서 하신 말씀 중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잠언 31 장 30 절이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양로원에 찾아보였을 때 무슨 대화를 하다가 할머님께서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외우셨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할머님께서 연로하셔서 얼굴에 주름도 많으셨지만 잠언 31 장 30 절을 제 앞에서 외우셨습니다. 저는 그 때 할머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라는 말씀을 좀 더 피부적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여인의 미모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받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지혜로운 여인이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란 그녀의 남편에게 신뢰를 주며, 부지런히 일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며,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의 남편도 사람들에게 인정(존경)을 받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자기 어머니에게 감사하며(고맙게 생각하며),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세상에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성이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로서 신랑되신 주님께 신뢰를 주는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부지런히 주님의 일을 하며,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혜로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현숙한 여인과 같은 아내, 지혜로운 신부된 교회를 섬기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9년 10월 9일, 오직 하나님의 경외하는 승리공동체를 꿈꾸면서)

# Happy birthday Jane!

여긴 새벽 4시 20분.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입니다. 지금 아내는 자고 있지만 가족 5명 카톡 방에다가도 아내의 생일 축하 메시지와 밑에 사진을 나눴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내가 직장에서 일이 끝나면 생일 축하 저녁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랑 저랑 막둥이 예은이랑 식사를 할 줄 알았는데 딜런과 제시카도 시간이 된다는 메시지를 조금 전에서야 보았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안그래도 딜런이 제시카에게 프로포즈를 했는데 이렇게 엄마 생일에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어 아내가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제가 아내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아내에게 감사하는 제목들을 적고 싶습니다:

1.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 저를 변화시켜주십니다.
3. 저는 아내를 통해 제 자신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4. 저는 아내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5. 아내의 존재 자체가 그저 감사합니다.



#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

오늘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잠언 15 장 말씀을 이리 묵상하며 저희 부부에게 적용 및 반영하고 있습니다:

1.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오히려 분노를 일으킵니다(참고: 잠 15:1, 현대인의 성경).
2.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면서 그의 입술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히 그 지식을 전하지만 미련한 남편은 그럴지 못하고 미련한 것을 즐기며 또한 미련한 것을 씁니다(참고: 2, 7, 14 절, 현대인의 성경).
3. 부부 관계에 있어서 부드러운 말은 생명 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참고: 4 절, 현대인의 성경).
4.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부부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의를 추구하는 부부를 사랑하십니다(참고: 8, 9 절, 현대인의 성경).
5. 지혜로운 부부는 자기의 생각을 서로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참고: 11 절, 현대인의 성경).
6. 거만한 남편은 아내의 책망받기를 싫어하며 지혜로운 아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참고: 12 절, 현대인의 성경).
7. 아내의 마음의 즐거움은 그녀의 얼굴 표정을 밝게 하지만 남편의 마음의 근심은 그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참고: 13 절, 현대인의 성경).
8. 고통 당하는 부부의 삶을 비참하나 마음에 기쁨을 가진 부부는 항상 즐겁기만 합니다(참고: 15 절, 현대인의 성경).

9.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부부가 함께 섬기는 것이 부유하면서도 늘 번민 속에 사는 부부보다 낫습니다(참고: 17 절, 현대인의 성경).
10. 성미가 급한 남편은 다툼을 일으켜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아내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참고: 18 절, 현대인의 성경).
11. 게으른 부부의 길은 가시밭과 같고 정직한 부부의 길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참고: 19 절, 현대인의 성경).
12. 지혜로운 아내는 자기 남편을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업신여깁니다(참고: 20 절, 현대인의 성경).
13. 무지한 부부는 미련한 것을 즐기지만 지혜로운 부부는 바른 길을 함께 걷습니다(참고: 21 절, 현대인의 성경).
14. 지혜롭게 조언을 해주는 남편으로 인해 아내는 계획한 일이 성공합니다(참고: 22 절, 현대인의 성경).
15.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에게 때에 맞는 말과 대답 한 마디를 잘해서 서로에게 기쁨을 줍니다(참고: 23 절, 현대인의 성경).
16. 마음이 순결한 부부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참고: 26 절, 현대인의 성경).
17.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는 지혜롭고 정직한 부부는 부정 이득을 탐하므로 자기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참고: 27 절, 현대인의 성경).
18. 의로운 부부는 서로에게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한 부부는 서로에게 악한 말을 마구 내뱉습니다(참고: 28 절, 현대인의 성경).
19. 지혜로운 부부는 서로의 좋은 책망을 들을 줄 알뿐만 아니라 그 책망을 달게 받으므로 깨달음을 얻습니다(참고: 31, 32 절, 현대인의 성경).
20.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하는 부부는 지혜를 얻으므로 겸손합니다(참고: 33 절, 현대인의 성경).

# 부모의 의무

오늘 토요일(2024년 9월 28일) 새벽기도회 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분쟁은 기회입니다"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여러모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그 부모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글을 적어내려갑니다:

1. 저희 부부가 세 자녀들의 부모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은 저희 부부는 세 자녀들의 부모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귀한 생명들(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2. 하나님께서는 저희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저의 경우 세 자녀들의 아빠로서 그들에게 잘못하고 죄를 범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세 자녀들은 저에게 쓰라림(bitterness)이라 원망(resentment)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받는 아빠입니다.
3.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와 결혼한 후 하나님께 은혜의 선물로 첫째 아기 주영(Charis)이를 선물로 받기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 3자인 우리 자녀로 하여금 우리 부부 관계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경계선[(clear) boundary]을 긋자고 권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주영이가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바람에 저희 부부는 그녀와의 분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이 그녀에게 폭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영이가 제 품 안에서 죽은 후 하나님께서는 딜런(하나님의 회복의 사랑 경험), 예리(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경험), 그리고 예은[Karis(죽은 첫째 아기 주영이의 영어 이름과 같은 의미("은혜")의 이름임)]('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하고 고백케 하셨음)이를 저희 부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부는 세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참 많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저희 부부는 세 자녀들로 하여금 저희 부부 관계에 개입을 하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 부부는 자녀들로 인해 논쟁하고 다투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 부부는 미숙하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분명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긋지 못했었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 세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친히 양육하시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제 아내를 양육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세 자녀들의 부모로서 서로의 양육 방법이 달랐기에(different) 서로가 옳다고 생각하든지 각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관철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서로 논쟁하고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부부 각자의 교만함과 어리석음들이 들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그 과정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의 다른 점들(differences)을 더 뚜렷하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왜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 원인을 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 부부가 각자 자라난 배경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지요. 어느 부부가 자라난 배경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들도 다른데 말입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다른 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부부는 각자 다른 부모님들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각자의 부모님들에게 받은 영향들이 다르기에 저희 세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도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른 점들을 부부 갈등을 통해 주님께서는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하시사 자녀 양육에 다른 점들을 비교(compare)하기보다 서로 보완(complement)하게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세 자녀들의 엄마로서 장점들을 보게 되기 시작하면서 아내의 자녀 양육 방법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저의 양육 방법을 존중하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디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세 자녀들의 아빠와 엄마로서 한 팀(one team)이 되게하시사 점진적으로 팀 가정 사역(team family ministry)을 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자녀 양육 방법의 장점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의 단점들은 서로 보완케 하셔서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다양하게 양육케 하셨습니다.
5.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매우 사랑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므로 저희들의 자녀 양육에 관하여서도 수많은 실수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리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들과 깨달음들 중에서 제 마음에 제일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끼칠 큰 가르침과 깨달음은 어느 누구보다(심지어? 저희 부부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을 제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로서 세 자녀들을 제대로 사랑을 못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맬 때에 성령님께서 그 주님의 귀한 가르침과 깨달음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시므로 오늘날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6.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자녀들인데 저는 아빠로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사랑한답시고 제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들이 어쩔 때는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로서 제 자녀들을 생각할 때 죄책감들로 인해 자책을 수 없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사랑하는 막내 딸 예은이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케 하시는 가운데 '주님, 제 육신의 생명을 거두어가실지라도 사랑하는 예은이를 구원해주세요'하고 간구케 하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성령님께서 제 육신의 생명을 걸고(받쳐서) 사랑하는 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케하시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예은이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하셨을 때 저는 더욱더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서는 저의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나아가심에 있어서 사랑하는 아들 딜런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사 지금 신학교에 다니면서 목사 후보생으로서(전도사로서) 교회에서 대학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졸업한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에게 졸업 후에서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나 전에 약 4-5년간 선교지에서 만나 연애했던 제시카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 예리는 주님께서 부르셔서 일본에 1년 선교를 마치고 이번 수요일에 다시 2년째 선교하고자 일본으로 갔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 역사(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저희 부부로 하여금 참으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고 계십니다.

7. 저는 오늘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중심으로 "분쟁은 기회입니다"라는 설교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먼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제 가정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교만하고 미련하여 수 없이 가정에서 하나님과 식구들에게 죄를 많이 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는 저희 온 가정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가장인 저를 더욱더 부서트리시고 깨뜨려주시사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참고: 빌립보서 2:5-8).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사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으로 저에게 큰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내와 함께 한 사랑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므로 그 모든 자들과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사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로마서 12: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낮고 천한 사람들의 벗이 되십시오. 스스로 잘난 체해서는 안 됩니다"]. <https://youtu.be/0up54u3j3YE?si=eZzT4pB7LFKACIDs>

# 자녀들에 관한 짧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모든 대적에게서 지켜주시사 평화와 안정을 주시므로 그들이 평화의 사람들이 되길 기원합니다(참고: 대상 22:9,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있길 기원합니다(참고: 11 절,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사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드리길 기원합니다(참고: 12 절, 현대인의 성경).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조심스럽게 지키면 모든 일에 성공할 것입니다(참고: 13 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참고: 13 절, 현대인의 성경).

나는 내 자녀들에게 '너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참고: 19 절, 현대인의 성경).

오늘 이 아침에 자녀들에 관한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제 오후에 만났던 어느 부부와의 대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그 대화는 주로 우리 자녀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다시금 어제 대화를 뒤돌아보면서 자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려고 합니다:

1. 나는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삼손의 아버지인 마노아가 하나님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가르쳐 달라는 기도에 많이 공감합니다(삿 13:8, 12, 현대인의 성경).

2. 나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지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야고보서 1 장 5 절 말씀을 붙잡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3. 나는 내 자신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조금씩 그리고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다, 다만 너희가 그 실수나 실패를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It's okay for you to make mistakes or even to fail as long as you learn from it).
4. 나는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으로 세워주세요'(Lord, may You raise beloved Dillon, Yeri and Karis as Christ-centered visionary leaders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5.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딜런) '하나님, 딜런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사 그로하여금 하나님께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리) '하나님, 예리에게 에브라임의 역사를 이루시사 그녀로 하여금 두배로 풍성(twice fruitful)하게 하옵소서', (예은) '하나님, 예은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하시사 그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6.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세 자녀들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느 누구보다 제일 사랑하시기에 친히 그들을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7. 나는 사랑하는 세 자녀들에게 작은 예수님을 생각나게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후에 내 자녀들이 나를 생각(추모)할 때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셨다'하고 말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참고: 히브리서 11:4).

# 예수님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2015년 5월 7일, 목요일.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아,

이 아빠가 약 17년 전에 너희들의 누나이자 언니였던 주영이가 너무나 많이 아파서 L.A. Children Hospital(엘에이 어린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을 때 라디오 한국 방송에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쓴 편지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영이에게”란 제목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다. 그때 이 아빠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울음 소리도 낼 수 없었던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아기 주영이를 생각하면서 이 아빠의 마음을 글로나마 써서 편지를 썼다. 그저 이 아빠의 마음은 주영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다. 그게 벌써 이렇게 17년이 지났구나.

이 아빠가 잊그저께 운전하다가 우연히 한국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자녀에게 쓴 편지’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아빠는 고민하다가 오늘 이 아침 새벽기도회 때 우리 딜런, 예리, 예은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후 용기가 생겨서 약 17년 전에 주영이에게 사랑하는 이 아빠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도 이 아빠의 사랑을 글로나마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에게” 편지를 써 내려간다.

사랑하는 아들 딜런아,

너는 이 아빠에게 귀중한 아들이란다. 너의 누나 주영이가 이 아빠의 품에서 잠든 후 엄마와 이 아빠는 큰 슬픔에 잠겼었다. 주영이의 뺨가루를 뿌리고 온 후 이 아빠는 엄마에게 집안에 있는 주영이의 사진을 다 치워달라고 말할 정도로 큰 괴로움과 슬픔에 있었다. 그리고 이 아빠와 엄마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지만 아기가 들어서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었어.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일 좋고 적합한 때에 너를 잉태케하셨단다. 그 때 그 순간, 엄마가 너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때 이 아빠는 너무나 감사 감사했었던단다. 주영이가 죽은 후 이 아빠는 수개월간 괴로움 속에 있었는데 너의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아빠는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God's restoring love)을 경험하게 되었단다. 너의 누나인 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God's holy love)을 경험했었는데 ... 하나님께서 이 아빠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크나큰 귀한 생명인 너를 이 아빠와 엄마에게 선물로 주셨단다. 이 아빠가 너의 이름을 "딜런"(Dillon)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이름의 뜻이 이 아빠의 마음에 다가왔기 때문이야. 너의 이름 뜻은 '신실하고 진실하다'(faithful and truthful)는 사실을 우리 딜런이 잊지 말길바래. 이 아빠의 매일매일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딜런,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이야. 먼저 이 아빠가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며 힘쓸께.

### 사랑하는 딸 예리,

이 아빠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God's abundant love)을 경험하였단다. 하나님께서 너의 오빠 딜런을 선물로 주신 것도 감사 감사하는데 이렇게 너까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요, 회복의 사랑일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사랑임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단다. 이 아빠가 너를 선물로 받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란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단다. 그 이름의 뜻은 '두배로 풍성하다'(twice fruitful)라는 뜻이란다. 그래서 이 아빠는 그 뜻을 생각하고 너의 한국어 이름을 "예리"라고 지었는데 그 때 이 아빠의 기억으로는 교회 어느 할아버지가 한문으로 "예리"라는 이름에도 '풍성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너의 이름을 "예리"라고 지었는데 확인을 할 수 없어 미안하다 ㅎㅎ 그러나 우리 예리, 이 아빠의 마음 알지? 이 아빠는 예리가 두 배로 풍성한 삶을 살면서 두 배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단다. 이 아빠가 먼저 본을 보이면서 살도록 기도하며 힘쓸께.

### 사랑하는 우리 막둥이 예은이,

이 아빠는 우리 예은이 때문에 많이 웃는단다. 이 아빠를 많이 웃게 만드는 예은이에게 "Thank you!" 이 아빠는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God is love)라는 고백을 했단다. 너의 큰 언니인 주영이를 통해서 '거룩한 사랑'을, 딜런 오빠를 통해서 '회복의 사랑'을, 예리 언니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은이를 엄마와 이 아빠에게 선물로 주셨을 때 이 아빠는 "God is love"(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단다. 우리 예은이, 이 아빠가 여러 번 말한 것 기억하지? 이 아빠가 너의 영어 이름을 "Karis"(헬라어로 "은혜"란 뜻)라고 지어준 이유는 너의 큰 언니인 주영이의 영어 이름 "Charis"(똑같은 헬라어임, spelling 만 다름)을 너에게 지어준 것을 잊지 말길바래. 이

아빠가 언젠가 너를 데리고 주영이 언니가 입원해있었던 L.A. Children Hospital(엘에이 어린이 병원)에 데리고 가서 병원 건물을 보여주면서 너의 큰 언니인 주영이에 대해서 말해 준 것, 우리 예은이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아빠가 예은(뜻: “예수님의 은혜”)이의 영어 이름을 “Karis”라고 지어준 이유는 이 아빠가 너의 큰 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였기 때문이야. 이 아빠는 주영이의 짧은 삶과 죽음을 통해서 큰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굉장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 그래서 이 아빠는 너에게도 같은 이름을 쳐주고 싶었단다. 우리 예은이가 이 아빠가 가르쳐 준 것이 있어. 그것은 “Sharing is caring”(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이다)이야. 그래서 예은이가 가르쳐 준 대로 지금 이 아빠는 네이버 블로그를 “Sharing is Caring”이는 타이틀(title)을 적어서 성경 말씀 묵상 등을 많은 사람들하고 글들을 나누고 있어. 이 아빠는 우리 예은이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 우리 예은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많이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가길 이 아빠는 매일 기도하고 있단다. 이 아빠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더욱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힘쓸께.

### **예수님을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아.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린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귀한 선물로 4 자녀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4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녀들을 주님께 받칩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 부부에게 맡겨진 귀한 이 자녀들,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맡겨진 양육 책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부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들을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사 주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자녀들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나의 사랑하는 딸 예은(Karis)이의 “헨리 나우웬의 ‘Beloved’(사랑의 존재)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며”라는 글을 읽은 후

저는 지난 주 토요일 새벽 3시 20분 즈음에 예은이가 쓴 “헨리 나우웬의 ‘Beloved’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며”라는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놀랄 정도여서 마음의 뭉클했고 눈물까지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정도로 저의 부족한 기도도 응답해주시사 예은이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역사(일)하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예은이가 헨리 나우웬의 “Beloved” 책을 읽고 그 정도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며(성찰하며) 투명하게 글을 쓰되 자신의 취약점까지도 나눈 것이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 20여년전인 2001-2003년도에 탈진하여 한국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었을 때 헨리 나우웬의 책들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제 영혼을 어루만져주시사 도전해 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이렇게 세 자녀들 중에 예은이로 하여금 저처럼 헨리 나우웬의 책을 읽기 시작케 하시고 또한 이렇게 반영의 글(reflection writing)까지 쓰게하시사 그녀의 마음과 삶 속에 귀한 영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금년 초에 사랑하는 아내가 성경공부를 한 후 집에 와서 자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beloved) 딸이라는 사실에 은혜를 받은 것을 저에게 나누면서 울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은이로 하여금 나우웬의 “Beloved”이란 책을 읽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 12시가 좀 넘어서 잠에서 깨어 예은이의 글을 천천히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이 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씩 하나씩 적어내려가 보았습니다. 저는 3가지로 예은이의 글을 나눠서 목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저는 예은이가 읽은 책 제목인 “Beloved”(사랑의 존재)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인터넷 성경으로 “beloved”이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지 다 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 “beloved”란 단어가 여기 저기 나오는데 그 중에 성경 구절 5개를 골라보았습니다: (1) (마 3:17)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2)

(마 12:18)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3) (벧후 1: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4) (아 7:10)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5) (롬 9:25, 현대인의 성경)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예언서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내가 사랑하지 않은 자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저는 이 말씀들 중에 로마서 9장 2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니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크지 더욱더 깨달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과 마태복음 12장 18절과 베드로후서 1장 17절을 함께 묵상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므로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성경을 보니까 “beloved”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그 여러 개 말씀들 중에 저는 아가 7장 10절을 선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하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독생자 예수님을 사모하신다는 묵상과 더불어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속하였고 예수님을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 저는 향하신 주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많음과 높음을 깨달길 기원했습니다.

**둘째로, 저는 예은이가 읽은 “Beloved”(사랑의 존재)란 책에서 그녀가 첫번째로 배웠다는 “고독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고독(solitude)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헨리 나우웬이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 마디를 약 20여년 전에 나우웬의 책을 통해서 접한 후 아직까지 이 말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저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지금도 끼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할 때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드신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공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때 “한적한 곳”(a solitary place)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막 1:35; 눅 5:16). 비록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인 두 번 밖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이 그분의 습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40절).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41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42 절). 바로 이것이 외로운 광야를 고독의 동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일을 할 때 군중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그 외로움은 예은이가 그녀의 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은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것(“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진실을 발견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기 위해선 예은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공허함을 더 많은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은이는 자신의 공허함으로 인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있어서 더 좋고 좋은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분주함을 내려놓고 공허함을 느낄 때에 만이 우리의 마음을 제일 좋은 것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겿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 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는 예은이가 “Beloved”이란 책을 읽고 반영하면서 자신이 깨달게 된 4 가지 중에 마지막 네번째인 “나는 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분(하나님)을 위해 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예은이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더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말한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 생각엔 우리가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든지 의지하든지 자랑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에게 공로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길 수 없습니다. 공로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주는 기쁨은 총만이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은 맛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로의식을 매우 경계하는 가운데서 은혜의식으로 총만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은이는 자신의 글에서 언급한 헨리 나우웬이 말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 이야기입니다(눅 10:38-42): “요컨대 그(헨리 나우웬)는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는 이유는 그녀가 그분을 섬기느라 너무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불안정한 행동이 그녀의 바쁨을 부채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활동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다면 왕국에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증명하고 싶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믿음 없는 행동이 됩니다”(예은). 저는 이 글을 다시 읽을 때 마르다의 불안정한 행동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불안감에서 나오는 행동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만일 마르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God’s beloved daughter)이라는 확신(conviction)이 있었다면 그녀는 결코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40 절). 그녀는 예수님께 “주님, 내 동생이 모든 일을 나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40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도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만일 마르다가 자신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확신이 분명했다면 그녀는 “많은 일로 영려하고 근심”하지 않고(41 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했을 것입니다(42 절). 그녀도 자신의 동생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인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39 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예은이가 읽은 헨리 나우웬의 책 제목인 “Beloved”(사랑의 존재)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존재(아들/딸)이야!’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랑의 존재라는 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행동(성김)은 결코 불안정하지 않고(영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 앞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예은이는 “헨리 나우웬의 ‘Beloved’(사랑의 존재)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며”라는 글을 쓰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책은 하나님이 내 일상생활을 통해 그분이 일하고 움직이시는 방식을 더 의도적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이 성찰이 나와 내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재하시고(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기를 바랍니다. 그 분은 그러한 축복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나를 놀라게 합니다. 은혜로, Karis.” 예은이가 말한대로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예은이에게 이렇게 헨리 나우웬의 “Beloved”(사랑의 존재)라는 책을 통해 축복해 주시니 그저 감사 감사드릴 뿐입니다. 제가 세 자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각각 그들의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Karis”란 영어 이름은 헬라어로 “은혜”라는 의미입니다(제 품 안에서 죽은 첫째 아기 “Charis”란 동일한 이름을 제가 지어 줬음). 그리고 그녀의 한국어 이름은 “예은”으로서 그 의미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예은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사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의 부족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계심을 예은이의 삶 속에서 엿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은이가 말한대로 예은이의 “헨리 나우웬의 ‘Beloved’(사랑의 존재)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 보며”라는 성찰의 글과 제가 그녀의 글을 읽고 이렇게 쓴 글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정말 실재하시고(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

예은이의 아빠 제임스 김 나눔

(2023년 5월 3일,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 다섯 식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세기 13 장 9 절)

지금 제가 알고 지내는 부부들 중에 몇 부부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고부 갈등)이 있습니다. 며느리 자매들 입장에서 많이들 힘들어 합니다. 여러모로 힘들 텐데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제가 보기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남편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인 자매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남편이 진짜 소위 말하는 ‘남의 편’이 되어서 자기보다 시어머니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볼 때에 당연히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남편이 소위 말하는 ‘마마보이’라고 생각될 때에는 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내인 자기보다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에게 강한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어서 아내하고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또 다시 시어머니하고 밀착되어서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을 보면 부인 자매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아마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시어머니의 사이가 너무나 지나치게 애착과 집착과 밀착이 되어 있어서요. 그 결과로 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고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고부 갈등 외에도 시부모님과 며느리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장인 장모님과 사위와의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외에도 가족 안에서는 부부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과 자녀들 사이에서의 갈등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원리를 오늘 본문 창세기 13 장 9 절에서 작은 아버지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말한 한 마디 곧, “떠나가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란 바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 장 9 절을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작은 아버지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한 말로서 아브람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브람은 롯에게 그리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서로 다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창세기 13 장 8 절을 보십시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현대인의 성경) “그때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한 친척이다. 나와 너, 그리고 내 목자와 네 목자끼리 서로 다투지 말자']]. 아브람과 롯은 한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브람과 롯이 직접 다투었다기보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브람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었기에 그들로하여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롯에게 말한 것입니다. 왜 그 목자들은 서로 다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3 장 6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 땅의 목초지가 부족하였다”].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는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았기에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그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땅의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대 말로 간단하게 말한다면, 재산(“소유”)이 많아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많은 가족의 갈등이 재산 때문이 아닌가요? 왜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니까? 부모님의 재산 때문이 아닌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아브람과 롯이 “소유”(재산)가(6 절) 많아졌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약속대로(12:1-3) 아브람을 축복하시되(12:1-3) 심지어 아브람이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심한 흉년이 들게 하시므로 아브람으로 하여금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시사(10 절, 현대인의 성경) 그곳에서 아름다운 아브람의 아내 사래 덕분에 이집트 왕 바로로 하여금 아브람을 후하게 대접하고 그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남녀종들과 낙타를 주게 하셨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아브람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습니다(13:2,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아브람의 조카 롯은 어떻게 가축이 많아졌을까요? 물론 창세기 13 장 5 절에서 성경은 “롯에게도 소와 양과 종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6 절에 와서는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6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롯은 그리 가축이 너무 많았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제 생각엔 롯은 이미 죽은 아버지 하란의 유산을 받았기에 가축이 많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이 더욱더 많아진 작은 아버지 아브람에게서도 가축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참고: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아브람과 롯에게 가축이 너무 많아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데 그 이유는 아브람과 롯이 함께 살기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의 목초지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란 아브람은 자기 아내와 조카 롯과 함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남쪽 네겝 지방으로 올라”(1 절, 현대인의 성경) “거기서 그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 벳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그가 천막을 치고 단을 쌓은 곳”입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여기서 “전에”란 창세기 12 장 5-8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모든 재산과 종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5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서(6 절) 아브람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7 절) “그 곳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벳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쳤는데

벵엘은 서쪽에 위치해 있었고 아이는 동쪽에 위치해 있었다. 거기서도 그는 단을 싣고 여호와께 경배”했던 곳입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소유”(13:6)때문에서 한 친척인 작은 아버지 아브람과 조카 롯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이 다툼, 이 갈등을 아브람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창세기 13 장 9 절을 다시 보십시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은 조카 롯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면 그는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로 말했습니다(현대인의 성경은 “서로 갈라서자”라고 번역을 했음). 과연 아브람에게 있어서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창세기 12 장 4-5 절을 보면 아브람은 언약의 하나님께서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1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함에 “롯과 함께” 자기 고향과 친척과 집인 하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람은 그의 “친척”(1 절)인 조카 롯도 함께 고향인 하란을 떠난 것을 보면 그는 롯을 매우 사랑하는 작은 아버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브람은 자기 형제인 하란(롯의 아버지)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아직 살아 있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11:28, 현대인의 성경) 또한 사래와 결혼했지만 사래가 아이를 낳지 못해 자식이 없었기에(30 절, 현대인의 성경)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사랑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람은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네가 원하는 땅을 택하라.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13:9). 여기서 동쪽이란 “아이”(3 절) 쪽을 말하고, 서쪽이란 “벵엘”(3 절) 쪽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동쪽 아이 쪽은 소알 및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아브람과 롯은 “벵엘과 아이 사이”에 천막을 치고 거주하면서(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의 많은 가축을 목양하고 있었기에 아브람은 서로 목자들끼리 더 이상 다투게 하지 않고자(8 절)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면서 롯이 동쪽으로 가면 자기는 서쪽으로 가고, 롯이 서쪽으로 가면 자기는 동쪽으로 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9 절, 현대인의 성경). 과연 이렇게 조카 롯에게 말한 것이 아브람에게는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나를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2-30 년 함께 살다가 갈등을 해소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화목을 위하여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녀의 독립심을 기르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동반 의존적이라면[여기서 “동반의존”(Co-dependency, Co-addiction)이란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중독 혹은 탐닉(addiction), 정신 건강 약화, 미성숙, 무책임, 성취 저하(under-achievement) 등을 조장(enabling)하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동조건(behavioral condition)을 말한다. 인정을 받거나 정체성(sense of identity)을 찾기 위하여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공의존의 가장 큰 특성이다. 공의존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증상이 잠재되어 있거나 상황에 따라 다르거나 단편적으로 발생하는 행동 조건으로서, 의존성 성격장애(dependent personality disorder)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된다”(인터넷)]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를 두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노력을 해서 시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물리적 거리상 떠나보냈어도 정신적 거리(emotional distance)나 감정적 거리(emotional distance)상으로는 떠나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자식을 떠나보낸 게 아닙니다. 어쩌면 물리적 거리를 두므로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더 자식에게 밀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자식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매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종종 어머니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등등 말하는 장면을 보는데 그것은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식을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고 그리 말하겠지만 그것은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어머니의 최선의 사랑이 그 자식에게는 최악의 고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식이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최선의 사랑을 하고 있다면 그 자식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겪고 있는 고통은 최악일 것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아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부부 관계가 원만할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을 둔 아내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안 그래도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안 좋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위로한답시고 다가와서 자기의 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을 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겠습니까? 자기 아내를 자기 어머니로부터도 보호하지 못하는 남편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어머니는 자식만 망치는 게 아니라 자식의 부부 관계도 망칠 확률이 많습니다.

아브람이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서쪽)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동쪽)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을 때(9 절)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기에(10 절)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그리 선택한 이유는 그가 보기에 동쪽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었습니다(10 절). 아무래도 그에게는 가축이 많았기에 물리 넉넉한 곳이 그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엔 올바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롯이 보기엔 그 동쪽이 “여호와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그 땅이 마치 에덴동산 같고 이집트의 비옥한 땅과 같았다”(현대인의 성경)“(10 절). 롯은 실용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의 기준은 그가 보기엔 자신의 풍부한 소유(재산)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려하지 못한 것은 그가 선택한 동쪽은 “소돔 사람들은 대단히 악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고 있었다는 것(13 절, 현대인의 성경과 “아직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10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가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싯딤 골짜기에서 싸웠을 때 패하므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의 대적인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갈 때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가고 그의 재산까지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창 14:8-12,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였습니다(벧후 2:7). 즉, 그는 악한 자들의 악한 짓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바로 롯이 동쪽을 선택한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실용적인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재산)를 지키려고 동쪽을 선택한 결과 육신적으로도 전쟁 포로가 되고 재산도 다 약탈당했으며 그의 의로운 심령도 상했습니다(8 절).

이 모든 사실을 과연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나를 떠나가라”(창 13:9)고 말했을 때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그는 몰랐을 것입니다. 만일 아브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조카 롯으로 하여금 동쪽을 선택하도록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람은 조카 롯으로 하여금 그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줬다는 것입니다(9 절). 그리고 그는 롯의 선택을 존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롯이 동쪽을 선택했었을 때 아브람은 롯에게 ‘왜 너는 동쪽을 선택했느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서 선택한 것은 이해하지만 너의 가족을 위해서만 동쪽을 선택해서야 되겠느냐?’, ‘너는 너의 재산을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기도한 후 결정해라’, 등등 이러한 말 없이 조카 롯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제가 제 세 자녀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선택하여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는 것은 괜찮다. 다만 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울 수만 있다면. 그러나 너희는 너희가 선택한 결과에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제 자녀들에 종종 말했던 이유는 저는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저처럼 원치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아래 실수와 실패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 쓴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세 자녀들도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므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 인생의 쓴 맛을 볼 때에 회피하지 않고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작은 아버지 아브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롯이 동쪽을 선택했으므로 그 결과인 롯이 전쟁 포로가 되고 재산을 다 약탈당하는 결과도 보게 되었고(창 14 장) 또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롯이 거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18:23-24)라고 말한 뒤 그 숫자가 45 명, 40 명, 30 명, 20 명, 심지어 10 명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하고까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25-32 절).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32 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의인 10 명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이 그 재앙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19:29, 현대인의 성경). 그 과정에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전날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바라보니 그 땅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 오르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27-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므로(13:9) 그 선택의 쓴 결과를 조카 롯이 겪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롯이 동쪽을 선택하므로 이러한 인생의 쓴 맛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자기가 동쪽을 선택하고 롯으로 하여금 서쪽을 선택하게 했었을까요? 아마 이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내 자식이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기보다 내가 그 고통을 겪는데 낫다.’ 그러나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시는 사랑일까요? 비록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조카 롯의 선택의 결과를 미리 알지 못하고 있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오늘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혼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에 제 자신과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떠나보내게 해주시길 구했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는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함께 살 것이지만 아내가 좋아하는 산에 가서 뛰고, 하이킹하고 심지어 암벽 등반까지 할 때에 믿음으로 아내를 보내게 해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전에 몇 번이고 말했지만 히브리서 11 장 6 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니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믿음이 없이는 제 아내를 지지(support)하지 못합니다’입니다. 하하. 아니, 산에 가서 뛰다가 퓨마(mountain lion)도 보고 곰(bear)도 보았다고 집에 와서 말하는 아내의 얘기를 들을 때 남편인 제 입장에서 어떠했겠습니까? ㅎㅎ 여기저기 인터넷 뉴스에 여자 혼자서 하이킹하다가 죽었다는 소식이나 암벽 등반하다가 여러 명이 죽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떨겠습니까? ㅎㅎ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랑하는 아내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면서 아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딜런은 지금 주님께서 사역의 마음을 주셔서 대학교 때 섬겼던 기독교 동아리에서 풀타임 임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말이면 1년 사역의 섬김이 끝나는데 1년을 더 연장해서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 가운데서 딜런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매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영어사역은 자매들이 없기에 자기 여자 친구를 고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는 주일이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저와 제 아내와 영어 사역 담당 전도사님에게 오는 주일이 마지막 주일임을 말해줬습니다. 이미 저의 두 딸은 다른 교회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이젠 아들 딜런도 저희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사랑하는 아들의 결정을 존중하여 그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는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물론 제 어머니는 반대?하셨지만요. 지금도 아마 동의는 안하실 겁니다. ㅎㅎ). 사랑하는 딸 예리는 요즘 무척 바쁩니다. ㅎㅎ 남자 친구가 타주에서 여기 남가주로 내려와서 한 2 주인가 자기 친척 집에 머물고 있는데 예리가 매일까지 아침에 가서 둘이 하루 종일 연애하다가 아마 새벽에서야 집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저희 부부는 이미 잠을 자고 있기에 ㅎㅎ). 참고로 그 형제는 외동아들이랍니다. ㅎㅎ 저희 부부가 볼 때에는 부모님에게 독립을 하지 못한 형제입니다. 아주

착한 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부부를 만나는 것도 자신의 부모님에게 여쭙본 것 같더군요. 그런 사실을 제 아내가 알았을 때 충분히 아내는 염려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도 고부갈등을 겪고 있는 외동아들 형제들의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리도 하나님께 의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예리를 제일 사랑하시기에 저는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다시금 마음을 먹고 그녀를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지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들의 연애 관계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 부부가 염려하고 있는 데로 실제로 현실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예리에게 신뢰를 주고 예리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오늘 아침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막둥이 예은이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제 육신의 생명을 주님께 불러 가셔도 예은를 구원해 주시길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는데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언니 예리랑 다니는 교회의 기독교 동아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격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저에게까지 차 안에서 간증을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예은이도 주님의 뜻이라면 남자 친구도 새겨서 앞으로 결혼을 할 텐데 이 중대한 일도 그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미 제 마음에서는 이 세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고 지금도 이런 저런 일들로 인해 제 자신과의 싸움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제 자녀들을 신뢰를 주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결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자 기도하면서 좀 애쓰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여기서 맺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주 토요일 새벽기도회 후 창세기 13 장 8 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1)라는 제목 아래 말씀 묵상의 글을 적어서 여기 저기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기도회 후에 그 제목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을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2)라고 정하지 않고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하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리 제목을 정한 이유는 제 마음에 자식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한 부모님들로 인해(특히 어머니들?) 그들의 결혼한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엿보았고 지금도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얼마나 아팠으면 제 앞에서까지 눈물을 흘렸던(심지어 남편 형제까지도 처음 보는 제 앞에서 눈물을... ㅠㅠ) 자매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또 다른 부부는 제가 보기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 오랜 세월동안 지속돼 오면서 부부 관계에 지대한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부도 보면 과부가 되신 시어머니가 외동아들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지 못해서 그녀의 아드님의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부부는 부인 자매가 자기의 시어머니와 남편의 관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저에게 말한 내용이 생각납니다. 남편과의 큰 다툼으로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와서 지금도 겪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그 큰 위가 과정에 그 남편 형제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살을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제 주위에 세 부부를 두리뭉실하게 나눈 이유는 제가 볼 때 부모님(어머니)이 자식(외동아들)을

믿음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말씀 묵상 제목을 “자식을 떠나보내야 합니다!”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 묵상이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한 이유는 제 자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가 사랑하는 조카 롯을 믿음으로 떠나보냈던 것처럼 제 자신도 제 세 자녀들을 떠나보냈고 지금도 떠나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떠나보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제가 그들을 떠나겠지만 말입니다. 하하. 그 전까지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 주님이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아내와 세 자녀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을 떠나보내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돼 그가 선택한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멸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들만 살고 있는 이 세상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비록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도 사람들이 악하며 큰 죄인인줄 모르고 그 동쪽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최악이 가득한 세상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서도(창 6:5) 이 최악된 악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요일 3:16,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크게 소리 지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소리를 외면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면하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를 떠나보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있는,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7월 30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세 자녀 딜런, 예리, 예은이를 믿음으로 떠나보내기로 다시금 헌신하면서)

# ‘보내는 부모가 되세요’ (“Become a Sending Parents”)

여기 선교지는 토요일 새벽 3 시 10 분입니다. 어제 새벽 2 시 30 분에 썼는데 오늘도 새벽 1 시 30 분 즈음에 깨서 아내랑 화상 채팅을 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짧은 말씀 묵상 글들을 여기저기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좋은 Christian article(기사)가 있는가 해서 기독교 인터넷 웹사이트를 search 했는데 바로 “Become a Sending Parent”(‘보내는 부모가 되세요’)란 기사(article)를 찾게 되어 여기에 좀 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https://www.thegospelcoalition.org/article/become-sending-parent/>):

1. 저는 이 기사의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부모는 자녀를 보내는 부모(sending parents)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지금 저희 부부에게 적용한다면 저희 부부는 6 월 말에 사랑하는 딸 예리를 멀리 일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리를 부르셔서(God called her) 일본으로 선교를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3.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 예리를 보내시기에 저와 제 아내도 예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4. 보내되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딸 예리를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만일 저희 부부가 그녀의 부모로서 멀리 일본으로 1 년 동안 보내면서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녀를 보내면 안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로서 그녀를 하나님께 맡기고(entrust her to God) 믿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5. 그러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예리뿐만 아니라 딜런과 예은이도 주님 안에서 결혼을 하므로 그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6.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 딜런이 아마 내년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부부는 그를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내년에 그가 그의 여자 친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리상으로도 떠나보내야 하지만(이미 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집에서 떠나 자기 집에서 살고 있음)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 부부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딜런에게 믿음으로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7. 막둥이 예은이도 그녀의 오빠 딜런과 언니 예리처럼 대학교를 가면서 육체적으로 저희 부부와 떨어져 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면서 저희 부부는 그들의 부모로서 믿음으로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은이도 오는 7 월에 1 주일 선교를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아내는 예은이도 믿음으로 선교를 보내고자 합니다.
8.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부가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를 제일 먼저 떠나보낸 것은 그들이 사춘기 때(teenagers)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장통(growing pain)을 겪으면서 저희 부부에게서부터 떠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에도 저와 제 아내가 그들의 부모로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떠나보내지 않고 아직도 그들이 아기처럼 보이고 초등학생처럼 대하였다면(treated them as our babies or little elementary children) 저희 부부는 그들을 자꾸만 우리 품에 두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parenting 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9. 이 기사를 쓴 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셨기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보내는 부모가 되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10. 이제 9 월이면 아마 사랑하는 아들 딜런은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저와 제 아내는 그를 믿음으로 신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6 월 말이면 저희 부부는 사랑하는 딸 예리를 멀리 일본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제 7 월이면 저희 부부는 막둥이 예은이를 믿음으로 1 주일 선교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도 하나님의 때에 그 세 자녀들이 각자 결혼을 하게 되면 저와 제 아내는 그들을 믿음으로 떠나보낼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세 자녀들이 저와 제 아내를(부모를) 믿음으로 천국으로 보낼 것입니다! 하하.

#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성 관계 및 결혼에 관하여 ...

어제 주일 새벽에 일본에 있는 사랑하는 딸 예리하고 카톡으로 좀 대화를 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주제는 이성관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일 오전에 사랑하는 친구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교회 목양실에서 나눈 대화 내용 중에 자녀들의 결혼에 대해서도 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때 저는 주님께서 새벽에 예리하고 이성관계에 대하여 나눈 대화 내용이 우연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사랑하는 아들 딜런과 제시카의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게 된 점들을 오늘 월요일 아침 사랑하는 아내하고 진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모든 대화들의 내용의 핵심 주제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성 관계 및 결혼에 관하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대화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나마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1. 하나님의 일하심이 흥미롭습니다. 예리하고 나눈 대화에 이서 친구 목사하고 나눈 대화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눈 대화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들을 아내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동의하고 공감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2. 저는 그 대화 내용들을 통해 생각하게 된 점들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3. 먼저 제가 생각하게 된 점들 중 하나는 저나 제 아내는 세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녀들의 이성관계나 결혼에 관하여 염려하고 걱정할 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염려스럽고 걱정되는 점들이 실제로 앞으로 더욱더 현실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또 다른 생각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연애하는 사람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흥미로운 것은, 자녀가 연애하는 사람이 우리 부모는 마음에 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부모나 상황 또는 환경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친구 목사가 한 말 중에 내 아들의 미래 배우자가 자기 아버지와 관계가 어떠한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임.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딸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임. 만일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가 그녀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아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크고 깊다면 그녀가 앞으로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되면 내 아들의 부부 관계는 충분히 힘들 수 있다는 것임. 그래서 저는 친구 목사의 말을 듣고 저와 제 딸들인 예리와 예은이와의 관계를 뒤돌아 보게되었습니다. 이것을 만일 제 딸들에게 적용한다면 그녀들이 연애할 남자가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만일 그가 자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병들어 있다면, 그래서 그가 마마보이라면 그가 내 딸하고 앞으로 결혼하게 되면 내 딸은 그와의 관계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의 어머니와의 시어머니-며느리 관계도 매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사랑하는 딸이 앞으로 연애하는 남자하고 결혼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자녀는 어느 정도 어른이 되어서 이성 관계와 앞으로 결혼도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자녀는 아직 좀 미성숙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좀 염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6. 만일 우리 부모가 보기에 우리 자녀가 미성숙해서 이성관계에 있어서 상대방 이성에게 폭 빠져 이성을 잃고 무분별하게 행동을 옮기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를 지혜롭게 충고하고 권면하여 그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그 막음이란 예를 들어 우리 자녀가 연애하는 사람과 좀 떨어져 있는 것도 될 수 있을 것임.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충고나 권면을 듣고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을 것임). 결코 쉽지 않은 교훈이라 생각합니다. 그 교훈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예를 들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연애하는 사람과 거리상으로라도 좀 떨어져있게 일해주셔야 그리 될 수 있는 것임). 그만큼 우리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7. 결국 저는 사랑하는 딸과의 대화와 친구 목사와의 대화 및 제 아내하고 대화를 나눈 내용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때 제 나름대로 내리게 되는 결론은 저는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고 제일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이성관계 및 미래의 결혼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물론 제 아내도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지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저와 제 아내가 더욱더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각 자녀들의 이성관계 및 결혼에 필요한 것들을

그 때 그 때 겸손히 섬김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저나 제 아내의 마음에 모든 염려, 근심, 걱정들을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다 맡겨야 하는 게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딜런과 제시카의 결혼, 예리와 크리스와의 이성관계(그리고 앞으로 예은이도 남자 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그녀의 이성 관계)에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의 부모로서 우리의 막중한 책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 자녀의 결혼에 대한 나의 관점

이젠 저희 부부 나이는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주위에 있는 저희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부부들은 이미 첫째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자녀 부부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만아들 딜런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의 결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자녀를 두고 있는 저희 부부 또래의 부모님들의 고민 등을 제 관점에서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자녀들의 미래 결혼에 조금이나마 유익되길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1. 저는 아빠로서 딜런과 예리와 예은이에게 미래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면서 찾을 때에 선택의 기준을 상대방의 "character"(성품/인격)에 두기를 원한다고 그들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 character 중에 특히 "truthfulness"(진실함)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혹여나 너희가 연애할 때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거듭) 알게 된다면 그 연애를 계속 지속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제가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계기는 만일 우리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 혹여나 잘못 선택한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된다면 그 선택의 결과(consequence)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부부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부 관계의 문제로 인해 양가 부모님의 마음도 많이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의 형제, 자매들도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미래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하시는 미래 배우자를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하고 올바른 기준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렇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녀를 열심히 양육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가 자신의 미래 배우자를 잘 선택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만일 우리 자녀가 우리 믿음의 부모가 볼 때에 자신의 배우자를 올바르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 자녀만 결혼 생활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도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의 지속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겪는 고통은 견디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큰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여러모로 단련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4. 오늘 저는 딜런하고 대화하면서 그에게 죄인인 신랑과 죄인인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두 죄인들이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두 사람의 죄를 들춰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부부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롬 5:20). 그리고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결혼식을 마친 후부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저는 딜런에게 '여기 저기 결혼한 사람들의 충고도 귀하지만 이 아빠의 경우는 결혼에 관한 책들이 나와 내 아내와의 부부 관계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지금도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딜런에게 작년에 딜런 생일에 저녁 식사했을 때 딜런이 결혼할 제시카에게 제가 준 책 'Love & Respect'(사랑 & 존중)에 대해서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5. 아마 딜런과 제시카는 이미 결혼할 장소와 날짜를 정했으나 본데 초청해야 할 숫자가 제한돼 있는 것 같아(그 장소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기에) 저는 딜런에게 '아빠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너와 제시카가 알아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작년 12월 아내의 생일에 딜런과 제시카를 만나 아내랑 예은이랑 식사하면서 될 수 있는대로 장소를 넓은 곳을 구해서 많은 이들을 초청하면 좋겠다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요 딜런과 제시카의 생각이 중요하기에 제가 오늘 딜런에게 '너와 제시카가 알아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까지 나누는 이유는 저희 부부는 딜런의 부모로서 건강한 경계선을 제가 아빠로서 먼저 지혜롭게 잘 그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는 그리 못했는데 오늘에서야 딜런에게 그 경계선을 근 것입니다. 딜런이 제시카랑 알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딜런을 더욱더 신뢰하고 싶습니다.

#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현대인의 성경) “집은 지혜를 기초로 지어지고 총명으로 견고하게 되며 그 방들은 지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진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이 채워진다”]. (잠언 24 장 3-4 절)

새해 2024년 1월 1일, 저는 잠언 24 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잠언 24 장 3-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새해 2024년을 맞이하여 저는 주님이 나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내 식구를 섬김으로 우리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3가지로 나눠서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잊지않고 기억하면서 가정 사역을 감당하기로 현신합니다.

저는 제 아내의 남편 될 자격이 없고, 제 세 자녀들의 아버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에게 은혜의 선물로 아내와 자녀들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금년 한 해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가정 사역을 감당하길 기원합니다. 특히 저는 고린도후서 3 장 5 절 새 번역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둘째로, 저는 사랑하는 식구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섬기길 기원합니다.**

새해 2024 년 승리장로교회 표어는 “주님, 섬김의 지경을 넓혀주소서”입니다. 표어 구절은 요한복음 13 장 15 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이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14 절). 이렇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14 절). 저는 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먼저 제 아내를 섬기길 기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이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선 저에게 참으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또한 예수님의 겸손함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설교 시간 때 배운 말씀은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5 가지 목록(골 3:12) 중 세번째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나 자신을 마지막에 두고 또한 최소한으로 여기는 것입니다(KJV 주석). 저는 사도 바울처럼 ‘나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임을 더욱더 분명하고 절실하게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만이 제가 예수님을 본받아 제 식구들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 외에도 제가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여 1 월 1 일 하루만 뒤돌아보아도 제가 얼마나 미련하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저는 제 입술이 미련한 자의 입술임을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런 후 저는 오늘 1 월 2 일 잠언 25 장을 묵상하다가 1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썼습니다: “나에게는 뼈도 꺾을 수 있는 부드러운 혀와 상대방의 완강한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는 인내력 있는 설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 묵상을 제 자신에게 비취볼 때 저의 입술은 부드럽지 못할 때가 많았고 또한 부족한 인내력 속에서 제 말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제 묵상한 잠언 24 장 2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제 자신에게 비취볼 때 저는 새해 2024 년도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과감하게 책망을 받고 싶다고 말하고도 저의 미련함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방망이와 같은 말씀으로 제 강박한 마음이 과감하게 책망을 받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으로 제가 먼저 무너져야 할 점들이 무너지길 기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야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더욱더 견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저는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사 우리 집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길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한 잠언 25 장 4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보면 저는 주님께서 저의 삶에 “큰 지진”과 같은 인생의 위기와 고통을 통해서라도 제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계속해서 제거해 주시길 기원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 집에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집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모든 식구가 하늘에 보화를 많이 쌓아놓는 지혜로운 가정 사역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https://youtu.be/drR14Ln4M1E?si=GyZQk2tqyg5nDtt>

# 나의 믿음의 어머니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아침.

어제 월요일 오전에 사랑하는 여동생으로부터 어머니의 건강이 안 좋아서 911을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앰بول런스 차를 불렀던 것 같아 나는 부랴부랴 준비해서 형과 형수님과 아내에게 그 소식을 알린 후 운전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버님도 카카오톡으로 앰بول런스 차가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간 것과 여동생 은미가 함께 갔다는 소식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병원에 도착하여 여동생이 밖으로 나오고 내가 대신 어머니가 누워계신 응급실에 들어갔다(응급실에는 방문객 1명 밖에 못 들어가기에). 들어가 어머니의 얼굴을 보니 많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다(그 얼굴 모습을 보니 내 형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음 ≡).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신 기도 내용을 나누셨다. 그 기도 내용은 그만큼 내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실려고 매우 노력하셨음을 알게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만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불러가신다면(천국으로) 고통 없이 평안히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구절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언급했다("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했다. 어머니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아멘!" "아멘!"하고 말씀하셨다. 어머니께서는 나에게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데서"(Fo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을 제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그 찬송가 4절 가사를 나 또한 매우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다: "이 땅 위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후렴은 이렇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내 어머니의 마음을 주장할 줄 믿는다.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의 대대 후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길 위해선 ...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가정의 대대 후손들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길 위해선 우리들과 우리 자녀 및 후손들이 모든 일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진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참고: 열왕기상 2:4, 현대인의 성경).

**제 5 부:**  
**부흥(Revival)**

## 진정한 부흥을 위하여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현대인의 성경)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사도행전 2 장 37 절)

지난 주 화요일 우리 교회 부흥집회로 오실 김경원 목사님의 한국 복음방송 라디오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담당자가 김목사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흥집회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김 목사님의 대답은 ‘회개의 마음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을 들었을 때 저는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흥집회를 앞두고 제 마음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기도회 때 다가오는 부흥집회를 더욱더 준비하길 원합니다. 회개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께 함께 간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간구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2 장 37 절에서 근거해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찢림이 있길 우리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마음이 강박해지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려는 노력조차 기피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 장 7 절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케 말라 ...”. 우리는 다윗의 모범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사무엘하 24 장 10 절을 보면 하나님 보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들의 숫자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심에 찔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후 그는 이렇게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 니라”.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26 장 20 절과 마태복음 3 장 8 절을 보십시오: “...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행 26:20),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마 3:8).

진정한 회개(Repentance)가 우리 가운데 있을 화목(Reconciliation)과 회복(Restoration)과 개혁(Reformation)과 부흥(Revival)이 있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축복이 우리 승리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말씀의 부흥 (Revival of the Word)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 8장 6-9 절)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세상입니다. 요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원래 이 말은 보험에 들면 사람이 조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보험에 들면 교통사고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 보험에 들면 건강에 크게 유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리모콘에 센스기능이 다한 것처럼 양심에 감각이 둔해짐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함을 말합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뭔가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인터넷).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캐논(cannon)이라고 합니다. 그 원뜻은 자(尺)입니다. 아모스 7:7-8 절에 나오는

말씀을 빌려 표현하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란 건축현장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실에 추를 매달아 수직을 바로잡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요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제 멋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인터넷). 그래서 사사기 21 장 25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본문 중심으로 “말씀의 부흥”이란 제목을 걸고 말씀의 부흥에 대한 사인(signs)을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 첫째는, 찬양과 경배(Praise and Worship)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 장 6 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홍성건 목사님의 책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단계인 “찬양”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 그의 행하신 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 출발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찬양합니다.” 예배의 두 번째 단계인 “경배”에 대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보다는 하나님 자신, 즉 하나님 그분을 높이게 됩니다. 그의 은혜, 사랑, 거룩, 자비하시며 선하신 위엄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 절을 보면 찬양하는 에스라와 경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 에스라는 “광대하신 하나님”(the great God), 즉 크신 하나님[1:5(the great and awesome God); 4:14(the Lord who is great)]께서 그의 크신 능력[1:10(great power)]으로 이 큰 역사[6:3(a great work); 4:19]인 예루살렘 성 재건을 이루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6:16) “…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그래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듣고자 수문광장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라 3 장 11 절을 보십시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전 지대가 놀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여호와께 경배”하였습니다. 느헤미야 8 장 6 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이것은 놀라운 참된 말씀의 부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문광장에 모여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광대하신 하나님”의 찬양(“송축”)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큰

역사, 즉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셨음을 인정하였기에 “아멘 아멘”한 것입니다. 그런 후,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로 말미암아 에스라의 찬양에 동참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되심, 즉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겸손과 경외심 가운데 경배하였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주님이 우리 승리장로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을 성취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보므로 그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 선하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겸손히 인정하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 **둘째로, 깨달음(Understanding)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 장 7-8 절을 보십시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송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 7 절에 와서 레위 사람들이 수문 광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법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 (1)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 (2)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하며 해석을 해줘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하여” 주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모세 율법을 해석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모세 오경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썼을 당시의 히브리어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에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주었습니다. J. I. Packer 은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삶 속에 율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책의 뜻을 해석하여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 (3) 성경 공부의 목적은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했습니다.

John Milton Gregory의 “The 7 Laws of Teaching” 중 첫번째 Law인 “The Law of Teaching”을 보면 그는 “가르침”(Teaching)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Teaching, in its simplest sense, is the communication of experience. ... It is painting in the mind of another the picture in one’s own – the shaping of the thought and understanding to the comprehension of some truth which the teacher knows and wishes to communicate”(가르침이란 제일 간단하게 말한다면, 경험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내 자신의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즉, 가르치는 자가 알고 있고 또한 그것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해하여 얻은 진리를 배우는 자의 생각과 이해력에 형상을 그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communication”은 뭔가 지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로 하여금 가르치는 자의 경험을 생산하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Gregory는 교사(teacher)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충분한 마음과 분명한 이해력 가운데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하고 선명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셋째로, 눈물(Weeping)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 모세의 율법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J. I. Packer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충격을 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는 것은 감정에 압도당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말미암은 눈물은 어느 특별한 현실의 분명한 자각으로 인한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영적 부흥의 뿌리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 선하심, 자비와 그가 우리의 개인적인 죄들인 사악, 부끄러움, 무례함, 자살적인 어리석음의 분명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언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 죄를 들춰내므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았습니까? 왜 우리는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호와와 말씀 듣지 못한 기갈”(a famine for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의 “회개”입니다: “회개는 위선자들에게 필요하다. 위선은 성결을 위장하는 것이며, 위선자 또는 무대 연기자는 도덕가보다 한 술 더 떠 종교의 의상으로 몸치장을 하고 있다. 그는 경건의 형식은 자처하지만 능력은 부인한다(딤후 3:5). 위선자는 아름다운 외관을 가진 집 같지만 모든 방안은 어둡다. 그는 아름답게 금박을 입힌 썩은 기둥이며, 그는 신앙고백의 가면 밑에 자기의 전염병의 상처를 감춘다. 위선자는 얼굴을 화장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거룩을 꾸미는 화장을 한다. 그는 겉으로 선하기 때문에 정말로 악할 수 있다. 위선자는 그의 눈을 하늘나라에 못박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그의 마음은 불순한 욕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의 양심에 역행하여 비밀한 죄 가운데 살아간다. 그는 말씀을 듣지만 오로지 귀뿐이다. 그는 교회 헌신에 열심이며 그 점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그를 칭찬하지만 그러나 그는 가정과 골방 기도를 등한시한다. 위선자는 겸손을 가장하지만 이것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하여서다. 믿음을 자처하지만 그는 믿음을 방패로 삼기보다 오히려 가면으로 삼아 이용한다. 그는 거드랑이에 성경책을 끼고 다니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말씀의 촛대를 가지고 당신의 마음속을 조사해서 혹시 거기서 아무 회개거리도 찾아낼 수 없을지 살펴보라”(인터넷).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암 8:11).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1 장 4 절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한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3:2). 여기서 쓰여진 히브리어 부흥은, “하야”인데,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관점에서의 부흥 항상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추구하던 것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연약해진 심령에 불을 붙여, '다시 뜨겁게 되는 것'이 부흥이다.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 장 2 절)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저희 교회가 7 월 1 일이면 교회 설립 32 주년을 맞이하여 6 월 29 일(금)과 30 일(토)일 송상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말씀 집회를 갖습니다. 주로 많은 교회에서 “부흥회” 또는 “부흥 집회”라고 부르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말씀 집회”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교회가 원하고 또한 교회에서 말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부흥”이 잘못된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잘못된 의미란 바로 “부흥”하면 우리는 교회가 크게 성장하여 교회당도 크게 짓고, 성도 수가 늘어나고 헌금이 많이 걷히는 교회를 부흥된 교회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웬지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흥에 대한 인식은 “성장 제일주의”, “성과주의”, “경제 제일주의”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논리에 현혹되어 세속화된 교회의 모습입니다(인터넷).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집회를 “부흥회” 또는 “부흥 집회”라 부르지 않고 “말씀 집회”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부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원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회개(repentance)가 없는 부흥(revival)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 장 2 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 장 1 절에서는 “시기오녓에 맞춘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절인 19 절 후반절에 가서는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1 절에서는 “기도”라고 그러고 19 절에서는 “노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노래입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1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기오녓”이란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번 밖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3 장 1 절과 시편 7 편 7 절의 머릿말에 나와있습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지 않지만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여기서는 단순히 곡조의 이름으로서 영광적인 성격을 띤 종류인 듯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John Mac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이 단어는 음악-예배식에 의미가 있으며 하박국 3 장은 노래로 불려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it has a musical-liturgical significance, and that this chapter was sung)(MacArthur).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란 그의 열정적인 노래로 표현된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노래” 가사 내용 중 2 절 말씀 중심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아 우리 또한 “부흥”이란 노래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 장 2 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주님께 대한 소문은 무엇입니까? 그 소문이 무엇이엇길래 하박국 선지자는 듣고 놀랐습니까? 그 소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1:5-11)와 바벨론(2:2-20)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간악”하고 “패역”하며 “컵탈과 강포”를 행하고 있었고 유다 가운데 “변론과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1:3).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이 행악과 불의를 행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있었는가 하면 하박국 1 장 4 절 후반절을 보면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급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다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4 절 상반절).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모든 악행과 불의를 행하되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박국 시대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율법(계명)을 지키려는 열심히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행하므로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박국 시대 때 악인들이 의인들을 에워쌌듯이 지금 이 시대 이 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 장

5 절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 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은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한 일, 유다 백성들이 놀라고 또 놀랄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6 절) 또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6 절)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경계(12 절)하는 차원에서의 징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어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자들인 바벨론 사람들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하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12 절). 오히려 그는 만세 전부터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까지 돌아보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박윤선). 그러므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통하여 징벌하실 것이기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험하는 경외감, 또는 하나님과 그분이 신비로운 방식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표현”한 것입니다(로이드 존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식은 하박국 2 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징벌하신 후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하며(2:3, 4) 자기 영혼에게 죄를 범하되(10 절) 술 취한 것 같(5, 15 절) 행동을 제재할 줄 모르고 영토 확장에 대한 야심으로 침략주의에 광분하여(박윤선)(5 절) 여러 나라들을 노략하며 사람들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한(8 절)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외심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한 것입니다(3:2). 여기서 “주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주님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3:2).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행하신 그 분이 신비로운 방식 때문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저주의 나무인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시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함부로 나아와 교만한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간구하되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3:2)라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구원과 안락함을 구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으며, 갈대아 사람들과 전쟁하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시다. 또한 고난받지 않게 해 달라고 예루살렘이 약탈당하지 않게 해 달라고, 또는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시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며 당해도 마땅한 일들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시기를 기도하지 않았습시다. 선지자의 단 한 가지 관심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온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었습시다. 그는 모든 일이 바르게 행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시다. 실제로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렀습시다: ‘나와 나의 민족이 어떤 고난을 받든지 주님의 일이 부흥되고 순결하게 행해진다면, 나는 그 고난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시다.’ 그의 단 한 가지 청원은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시는 것이었습시다”(로이드 존스).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도 원했던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인 바벨론의 침략으로 오는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히브리어로 “부흥”은 “보전하다” 또는 “살아 있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러한 의미 외에도 “깨끗하게 하다, 교정하다, 모든 악을 제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시다(로이드 존스).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징벌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모든 악을 제거하며, 그들을 깨끗케 하시사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움(경외심) 속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하박국 3 장 2 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노래로 간구하였습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시다. 다시 말하면, 그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진노를 다 쏟아 부으시면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하여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습시다. 그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기를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한 것입니다(3:2). 이 간구의 뜻은 “죄대로 갚으면 유대 민족이 멸망받고 남을 것이 없을 것이나, 그 민족을 징벌하는 중에라도 불쌍히 여겨 다시 구원하여 달라는 것이다”(박윤선). 이 기도는 시편 85 편 2 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어 주시길 간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시편 85 편 3 절 말씀처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켜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진노를 긍휼로 누그러뜨리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본성에 따라 행하고, 진노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만을 구할 수밖에 없습시다”(로이드 존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흥”이란 복음성가를 부를 때에 그 찬양 가사가 마음에 다가올 때가 종종 있습시다. 특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라고 노래를 부를 때 저는 교회의 황무함을 보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교회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는데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교회에 흐를 것이며 성령님의 바람이 이제 불어올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한 새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길 기원하면서,

제임스 김 나눔

(2012년 6월 24일, 미주 한인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한 후)

##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 ...

1.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2.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철저히 부서트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들쳐 내시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깊고 넓게 많이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 우리 가정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0.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사 온 가정 식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 참된 부흥?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일으키려고 하는 '부흥'은 '회복'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회개 (Repentance)

화목 (Reconciliation)

회복 (Restoration)

개혁 (Reformation)

부흥 (Revival)

##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마음

하나님의 부흥(revival)을 경험하는 마음에는 찬양(praise)과 평안(peace)이 있습니다(사 57:19). 그러나 찬양과 평안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요 죄를 범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 편 8 절 상반절)

지난 주일(8/18) 승리장로교회 예배 때 저는 승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좋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가사 중에 좋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암 좋은 하나님이십니다!”하고 말(선포)했습니다.

저는 오늘(2024년 8월 20일) 오전에 화요 가정 예배 설교를 준비했을 때 오늘 본문인 시편 34 편 8 절 상반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 이 말씀은 약 28년 전에 저와 제 아내가 하나님께 결혼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때 저는 약 6개월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6개월이 지나서 결혼하게 되었는지 마치 비디오처럼 제 머리에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때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사랑하는 아들 딜런(Dillon)의 결혼식 피로연 때에 식사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몽글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 아침에 저는 교회 목양실에서 제가 흘렸던 그 눈물은 무엇이었는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란 제목 아래 10개의 짧은 글을 써서 여기 저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 10개의 글 중에 두 번째 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저는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하. 어쩌면 제가 딜런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된 이유는 첫째 아기 주영(Charis)가 제 품에서 잠든 후(죽은 후) 저와 사랑하는 아내는 그리도 아기를 갖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임신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부부는 딜런이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

때 저희 부부는 딜런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기가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을 하니까 마음 속에서 복받치는 감사가 충만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추억을 되새기면서 지난 주 토요일부터 어제 월요일까지 한 3 일동안 성령님께서 저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특별히 3 가지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난 주 토요일(8/17)에 사랑하는 딸아들 딜런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맛을 보았습니다.**

특히 저는 딜런이 문자 메시지로 저에게 ‘아빠가 예전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아빠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좋은 일과 신실한 일을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란 문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이 문구 중에 특히 저는 딜런이 저에게 “아빠가 예전에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눈에는 …”이라고 말해준 것을 통해 아들의 “은혜스러운 사랑”(Dillon’s gracious love)을 느꼈습니다. 왜 저는 그것이 아들의 은혜스러운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었냐면 딜런은 저를 이미 용서(forgive)했을 뿐만 아니라 제 잘못을 기억도 안하고 있었다(forget)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고 또한 제가 그에게 잘못된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지난 주일(8/18) 사랑하는 조카 Sophie(주님 안에서 잠든 사촌 여동생인 수정이의 다섯 딸들 중에 막내 딸)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제가 그 날 오후에 수정이의 다섯 딸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딜런과 제시카의 결혼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정이의 셋째 딸 Kate 가 “Aw looks wonderful”(아, 정말 멋지네요)라고 답변을 했고, 막내 딸 Sophie 는 “Loved an image”(이미지를 사랑했습니다)한 다음에 “so pretty”(너무 예뻐요)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Ella 와 Kara 도 “Loved an image”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섯 조카들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Thanks girls. Yesterday a lady saw my wife and said to her that Dillon looks so like his mom. I was right beside my wife. Haha”(고맙다, 소녀들. 어제 어떤 여성이 내 아내를 보고 딜런이 엄마랑 너무 닮았다고 말했다. 그 때 나는 내 아내 바로 옆에 있었다. 하하). 수정이의 맏딸인 Kara 가 제 글에 “웃었습니다”(Laughed)라고 답변을 한 후 “Sorry uncle James, I have to agree with the lady too”(죄송합니다 제임스 삼촌, 저도 그 여인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을 두개나 보냈습니다. ㅎㅎ 그래서 제가 다섯 조카들에게 “How are you all?”(다들 어떻게 지내니?)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Sophie 가 “We are doing good!(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Sophie 에게 “Thanks Sophie! Good”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Kara 도 답변을 했는데 “We are doing good. Elise is getting over a sinus infection and the girls start school tomorrow”(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엘리스는 부비동염을 극복하고 있고, 아이들은 내일 학교에 들어가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Kara 에게 “Oh no. I hope and pray that Ellise gets well soon. If school starts tomorrow, (then) I can’t buy you lunch and dessert. It’s okay. Next time before our Lord comes!”(오, 안돼. 엘리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기도해. 내일 학교가 시작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점심과 디저트를 사줄 수 없게 되었구나. 괜찮아.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 그랬더니 Kara 가 제 글에 “Loved”(사랑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조카들과의 대화를 다시금 생각해보았을 때 물론 Kara 도 “We are doing good”(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라고 답변을 했지만 왠지 11 살 난 Sophie 가 “We are doing good!(우리는 잘 지내고 있어요!)이라고 말한 것에 마음과 생각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두 자매가 똑 같은 답변을 한 것 같지만 딱 하나 차이(difference)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란 바로 Sophie 는 느낌표(“!”)를 달았습니다. 그 느낌표(exclamation mark)는 “강조를 나타내고자”한 것입니다. 저는 그 느낌표를 보면서 진정 Sophie 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삼촌인 저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Sophie 가 지금 자기 엄마는 천국에서 “wonderful time”(좋은/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Sophie 의 믿음은 섞이지 않은 순전한 믿음이란 생각이 들었고 또한 히브리서 11 장 6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지막 셋째로, 제가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제 월요일 사랑하는 아내와의 진솔한 대화와 기도를 통해서 맛보았습니다.**

어제 아내가 저에게 다가와줘서 솔직하게 자기의 마음과 심정을 나눠줘서 저는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부족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체휼하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제 아내의 마음에 역사(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주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한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희 부부는 서로 껍 끼어 앉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서로 영영 울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제 마음 속 깊은 곳에 항상 아내를 향하여 크게 잘못된 죄로 인해 죄책감 속에서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아내에게 용서(forgiveness)를 구하게 하였고 동일한 성령님께서는 제 아내의 마음 속에 역사(일)하시사 아내가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드디어 저는 10 여년 만에 죄책감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맛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진심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https://youtu.be/03NR9\\_zYf\\_E?si=1SsTK2DcAI8kvKCq](https://youtu.be/03NR9_zYf_E?si=1SsTK2DcAI8kvKCq)

##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든 식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주님 중심된 가정의 모든 식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천국의 계명인 "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주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는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참고: 신 4:5-6; 마 22:37, 39, 현대인의 성경)

#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2023년 3월 6일, 월요일 오후.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아내와의 대화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진솔한 얘기를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God's beloved child)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해서 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감사 또 감사드리는데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어제 저녁과 오늘 아침에 아내와 나눴던 대화 내용을 다시금 뒤돌아보며 생각해 볼 때 진정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다. 나는 약 26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만나 결혼한 후부터 내 마음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 어제 밤과 오늘 아침에 아내랑 대화하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내 아내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사 그 진리로 아내를 자유롭게 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특히 어제와 오늘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믿음으로 고백한 핵심 내용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beloved 자녀이기 때문입니다'였다. 이 고백 내용은 진정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 아내를 자유롭게 하고 계시다는 확신한 증거이다. 내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전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넓게, 더 크게 알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감사의 눈물을 어제 저녁에도 내 앞에서 흘렸는데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또 흘렸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아내에게 두 팔을 활짝 펴서 내 품에 그녀를 안았다. 그리고 나는 아내에게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또 한가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아침에 아내가 내 옆에서 앉아서 직장에 가기 전에 온라인으로 일을 하다가 이 기사(<https://www.getinflow.io/post/overwhelm-shutdown-adhd>)를 읽은 후 너무나 자기에겐 적합한 기사라고 말해서 한 참 대화를 나눴다. 이 기사 내용은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 관한 것인데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아내랑 대화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이라 할까 아니면 교훈이라 함께 서로 나눴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각자 다 독특하게 만드셨기에 누가 이런 저런 장애가 있다고 하여 그것이 잘못되었다(wrong)라고 말하기 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듯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2. 하나님을 알아가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다.
3. 우리가 우리 각자 자신을 알아갈 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사를 읽으면서도 인식(aware)하는 것과 인정(acknowledge)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4.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자기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5. 그래야 우리가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의 그 모습 그래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

## [역대하 20 장 15-22 절]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사랑하는 대학교 후배 형제하고 일 대 일로 기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때 그 형제가 저에게 나눈 마음의 대화 내용 중 하나는 지난 주일 어머니 날(Mother's Day)에 그 형제가 사랑하는 어머님을 양로원에 가서 찾아 보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 형제의 말로는 비록 자신의 어머님이 치매로 인해 자기와 자기의 식구를 알아보시지 못하더라고 웃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형제에게 그나마 어머님이 웃으셨으니 감사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리 말한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교회 권사님들 중 치매로 인해 양로원에 계시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신 권사님 한 분은 나중에 가서는 웃지도 못하셨기 때문입니다(무표정). 이러한 대화를 하면서 그 형제와 저와 동의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감사하기로 결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0 장 15-22 절 말씀의 문맥을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이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침략한 상황이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4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첫번째로 얻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단 10:12, 현대인의 성경)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대하 20: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가 권면하여 가정의 엄청난 어려움을 접했을 때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새 뜰 앞에 모였을 때 여호사밧 왕은 군중 가운데 서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 장 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에게는 힘과 능력이 있으므로 아무도 주를 당해 낼 자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두번째로 얻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 교훈이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저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이 엄청난 대군을 막아낼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무능력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주님만 바라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엄청난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무능력함을 깨닫고 인정하는 가운데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얻는 교훈(세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여호사밧 왕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내용 중 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시고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과거 여호수아 시대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시고 “주(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7 절, 현대인의 성경). 흥미로운 점은 여호사밧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했다는 것임(7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15 장 13 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을 때 나 같은 죄인도 친구로 여겨주시사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할 때 저는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엄청난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와주시사 건져주신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엄청난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와주시사 충분히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히브리서 13 장 8 절 말씀처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공동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시 121:1-2, 현대인의 성경).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7-12 절) 하나님의 성령이 군중 가운데 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사(14 절, 현대인의 성경)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게 하셨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여, 그리고 여호사밧왕이시여,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이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 맞은편으로 내려가거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는 여루엘 광야로 트인 계곡 어귀에서 그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싸울 필요가 없다 각자 자기 위치를 정하고 서서 나 여호와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는지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일 저들을 향해 나아가거라. 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15-17 절, 현대인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침략한 엄청난 대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2 가지입니다: (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나 여호와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17 절, 현대인의 성경)과 (2) 그 엄청난 대군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나 여호와의 전쟁이다”)입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하시엘을 통해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1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고핫 자손과 고라 자손의 레위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19 절, 현대인의 성경). “다음 날 아침 일찍 유다군이 드고아 광야를 향해 출발하려고 할 때 여호사밧왕이 서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 그의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승리할 것입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여호사밧 왕은 두 번이나 ‘신뢰하십시오’하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예언자들(선지자들)을 신뢰하라고 외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15, 17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사밧 왕은 두 번이나 ‘신뢰하십시오’하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네번째로 얻는 교훈은 아무리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사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탄과 그의 세력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므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의논한 후에 찬양대를 조직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들을 진군하는 부대 선두에 세워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였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21 절, 현대인의 성경).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골 골짜기”(괴로움의 골짜기)(수 7:24-26)를 “찬송의 골짜기”(축복의 골짜기)(대하 20:26, 현대인의 성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역대하 20 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년 신년 예배 때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라!”란 제목 아래 묵상한 사도행전 16 장 25 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주님께서 행하신 3 가지 기적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오늘 이렇게 역대하 20 장 말씀 중심으로 여호사밧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한 기적을 묵상하면서 4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 (1) 첫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단 10:12, 현대인의 성경)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대하 20: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의 엄청난 어려움을 접했을 때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2) 두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3) 세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네번째로 얻는 교훈은 아무리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므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아골)의 골짜기’를 ‘축복(찬송)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 되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3년 5월 20일,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와 각 가정을 생각하면서)

## 편애하는 부모도 사용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아이들이 자라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어 들을 좋아하였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창세기 25 장 27-28 절, 현대인의 성경)

왜 자식을 편애하는 것일까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캠퍼스(UCD) 연구진은 768 명(384 쌍)의 형제자매와 그들의 부모를 면접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70%, 어머니의 65%가 자녀 중 한 명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그 대부분이 맏이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넷). 그리고 부모의 편애로 심각한 정서적 손상을 입은 자녀는 자기 자신을 독립적인 한 인격으로 인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 및 결혼생활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높다고 합니다. 이성을 통해 부족했던 부모의 사랑을 대신 채우려고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수 있고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편애로 상처받은 자녀들은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큰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창세기 25 장 28 절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자식을 편애한 것일까요? 아버지 이삭은 능숙한 사냥꾼인(28 절, 현대인의 성경) 맏아들 에서를 사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28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어머니 리브가는 왜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한 것일까요? 제 생각엔 그 이유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 절 현대인의 성경에 “하루는 야곱이 죽을 썬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집에서 조용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집에서 살림을 하시는 어머니 리브가와 시간을 많이 보냈을 것이고 또한

어머님에게 음식을 만드는 법도 배워서 죽을 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9 절 후반절부터 보면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 이라서(30, 32 절, 현대인의 성경) 죽을 쑤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좀 다오”라고 말했습니다(30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야곱은 “먼저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파시오”하자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하고 대답했습니다(31-3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야곱은 “장자권을 다시 주장하지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십시오”하고 말했고 에서는 야곱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그에게 팔았습니다(33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에서는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34 절). 이렇게 자신의 장자권을 가볍게 여겨 동생 야곱에게 팔죽 한그릇에 판 형 에서는 창세기 27 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도 야곱에게 빼앗깁니다: “...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내 복을 빼앗아 갔습니다. ...”(27:36, 현대인의 성경). 저는 오늘 창세기 27 장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작은 아들 야곱이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아야 할 축복을 빼앗아 갔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저는 말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을 먼저 오늘 생각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아들 에서를 편애했던 아버지 이삭을 생각할 때 저는 이삭이 분별하지 못하고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7 장 23 절을 보십시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버지 이삭은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즉, 그는 자기를 속이는 작은 아들 야곱을 자기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 인줄 알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와 그의 동생 야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1 절, 현대인의 성경). 뿐만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기 때문에(25:24) 더 분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 생각에 이삭이 편애하는 에서를 야곱과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정도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전적 도움을 받아 이삭을 잘 속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를 자기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27:2,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에서가 마지막으로 준비하여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에서를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고 싶었는데(2-3 절, 현대인의 성경) 결과적으로는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12 절, 현대인의 성경)인 야곱을 축복해주고 말았습니다(23 절). 그래도 이삭은 야곱이 자기를 속일 때 제가 볼 땐 적어도 7 번이나 야곱이 진정 자기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인지 확인을 시도했습니다:

(1)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18 절)

이삭은 야곱이 별미와 빵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하고 물었습니다(18 절). 이삭은 야곱이 누구인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가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가지고 자기에게 올 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아버지”하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었다면 이삭은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하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2)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20 절)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이 네가 누구냐?” (18 절)고 물었을 때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19 절). 그러자 이삭은 그의 아들에게 “내 아들이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하고 물었습니다(20 절). 그 이유는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는데(3-4 절, 현대인의 성경)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에(5 절, 현대인의 성경)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5 절, 현대인의 성경) 그녀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로하여금 에서 대신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하고자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줘서(9 절, 현대인의 성경) 빵과 함께 야곱의 손에 들려 주어서(17 절, 현대인의 성경) 야곱이 이삭에게 왔기에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에서가 사냥감을 빨리 잡아서 별미를 만들어 자기에게 가지고 올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을 받은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까지 말하면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3) "내 아들이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21 절).

이삭은 “나는 아버지의 말아들 에서로소이다”(19 절)라고 말한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21 절)고 한 이유는 야곱이 과연 자기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그를 만져 보기 위해서였습니다(21 절). 그만큼 이삭은 야곱이 에서라고 못 믿었기에 확인하려고 그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이 에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자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그의 손을 만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털이 없이 매끈했기 때문입니다(11 절, 현대인의 성경).

(4)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22 절).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말 대로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 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22 절)고 말했습니다. 즉, 이삭은 야곱의 음성이 에서의 음성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가 없었기에(1 절, 현대인의 성경) 그가 야곱인지를 알아볼 수가 없었기에 그의 손을 만져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서의 손은 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11 절). 그런데 그가 야곱의 손을 만진 결과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22 절)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야곱의 손은 털이 없어 매끈했는데(11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이삭은 그의 손을 만져보고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가 집 안에 보관해 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기 때문입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5)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24 절).

“내 아들이 너 누구냐?” (18 절)고 에서 인척 한 야곱에게 질문한 이삭은 야곱을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습니다(23 절). 그 이 전에 이삭은 야곱에게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하고 물었습니다(24 절). 그만큼 이삭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때 야곱은 “예, 그렇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6)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26 절).

이삭은 야곱에게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고 말했고 야곱은 이삭에게로 음식을 가져가매(25 절) 이삭이 먹고 포도주를 마신 후 “내 아들이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고 말했습니다(26 절). 그 이유는 야곱이 이삭을 입맞출 때 이삭은 야곱이 진짜 에서인지 아닌지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 꺼라 생각하고 그리했던 것 같습니다.

(7)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아 보고 ..."(27 절, 현대인의 성경).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말 대로 가까이 가서 입을 맞췄는데 이삭은 그 때 야곱이 입은 옷의 냄새를 맡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야곱이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집 안에 보관해 둔 예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에게 입혔기에 이삭은 예서의 옷의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이 예서인 줄 알고 그를 축복했습니다(23, 28-29 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무리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도 웬만한 성숙한 영적 분별력이 없이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미성숙하면 우리는 영안이 어둡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간교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참고: 엡 4:14, 현대인의 성경). 누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입니까? 바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살후 2:10,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고후 11:14)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 것(15 절, 현대인의 성경)도 알아보지 못하여 사탄과 그의 종들의 간교한 거짓됨과 속임수에 넘어갈 위험이 참 많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창세가 3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다가와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창 3:1-5) 그의 간교한 거짓됨과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2:17)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그것을 먹었습니다(3:6). 이 때 남편인 아담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면 자기 아내가 따먹고 준 선악과를 자기도 먹진 않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일 그가 영적으로 성숙하여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라면 자기 아내가 간교한 뱀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따 먹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함께 있었던 아담(6 절)은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그녀가 선악과를 자기에게 줬을 때 자기도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아담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므로 영적 분별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참고: 살전 5:21-22).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인드를 날카롭게 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의 전략을 파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사탄과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이번주 월요일에 대학교 후배들과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을 때(특히 작년 12월에 심장 마비로 죽을 뻔했던 후배의 간증을 듣고 있었을 때) 다른 대학 후배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그 후배의 어머님께서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팔에 평화롭게 안기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 한 부분만 나눕니다: ‘어머님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랬던 것처럼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님을 공경하도록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그녀는 일상 생활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authentic love)과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내면서 자신도 어머니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으로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니를 공경하기를 기원하는 어머니를 향한 자녀의 귀한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새 찬송가 579 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 생각납니다: (1 절)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2 절) 아침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3 절)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해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도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4 절)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게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시내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마지막으로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할 때 저는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일에 배후 조정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5 장 28 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을까요? 제 생각엔 그 이유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집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27 절, 현대인의 성경). 형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기에 들을 좋아하여 집 밖에 나가는 것을 좋아했겠지만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 이라서 집에 있기를 좋아하였기에 아무래도 어머니 리브가랑 시간을 더 많이 보냈을 것이요 또한 죽을 쓰고 한 것을 보면(29 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서 음식 하는 것도 배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헷 족속의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두 며느리로 인해 마음에 근심이 되었고(26:35, 현대인의 성경) 또한 그 두 며느리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이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27:46, 현대인의 성경). 오죽했으면 리브가는 자기 남편 이삭에게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의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라고까지 말했겠습니까(46 절, 현대인의 성경). 제 생각엔 고부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 리브가와 헷 족속 두 며느리와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기에 리브가가 “내가 이 헷 여자들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이라고 남편 이삭에게 말했을 것입니다(4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 말고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며느리와 갈등이 있는 시어머니들은 리브가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맏며느리하고 갈등이 있다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할 확률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맏며느리하고 갈등으로 인해 리브가처럼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이면 그 시어머니는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46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 아무래도 맏아들보다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특히 그 둘째 아들이 야곱처럼 조용한 성격에 집에 있기를 좋아한다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집 밖으로 돌아다니는 맏아들보다 애호하지 않을까요? 특히 나랑 별로 관계가 썩 좋지 않는 남편이 맏아들을 노골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본다면 어머니의 입장에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므로 그로 하여금 남편 이삭이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려는 것(27:4, 현대인의 성경)을 가로채서[빼앗아서(36 절)]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에 배후 조종자가 어머니 리브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야곱은 자기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했고 속이다가 걸리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13 절, 현대인의 성경)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8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시니까 그저 어머니를 믿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행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야곱은 마마보이였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의존하는 작은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 입장에서 사랑받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에서 대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조종하기가 쉬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야곱을 조정하기에 앞서 리브가가 제일 먼저 행했던 것은 남편 이삭이 그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것입니다. 창세기 27 장 5-6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네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이때”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었을 때 자기가 늙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에(1, 2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를 불러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3-4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을 했었을 때입니다. 바로 “이 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은 것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저에게 ‘당신이 목양실에서 장로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바로 옆방에서 다 들리니까 소리를 좀 작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때 제 아내가 목양실 옆방에서 복사기도 있고 하니까 무슨 일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 때 제 아내가 교제실에서 다른 성도님들처럼 주일 예배 후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면 저와 장로님과의 대화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와 장로님과의 대화를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목양실 옆방에 있었기에 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다는 것은 그녀가 그들이 있었던 곳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엿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드는 의문은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고 있었을 때 우연히 그 장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말하는 내용을 들었을까 아니면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들이 있는

장소에 접근해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까 라는 것입니다. “엇듣고”(5 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단어가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듯이 리브가는 의도적으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자 그들이 있는 장소에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야 가까이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 아내가 제가 목양실에서 장로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엿듣고 싶어서 교제실에서 있다가 목양실 옆방으로 의도적으로 왔다면 당회(목사와 장로)가 대화하는 내용을 엿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리브가는 의도적으로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자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다 듣고 야곱을 불러 그에게 “네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네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하고 말해주었습니다(6-7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남편이 맏아들에게 한 말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는(30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 동생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자기가 받을 복을 빼앗아 간 사실을 알고 나서(35-36 절, 현대인의 성경) 야곱을 미워하고(41 절) 분노하여(44 절)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41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혼자 중얼거린 말을 리브가에게 “들리매”(현대인의 성경에는 “전해 듣고”라고 번역을 했음)(42 절) 그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분풀이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 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서 네가 한 일을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 하겠느냐?”(42-45 절, 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에서가 혼자 중얼거린 말을 리브가의 귀에 들렸을까요? 처음에 저는 리브가가 에서와 가까이 있었기에 그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었는데 아마도 그녀는 다른 사람(예를 들어, 리브가를 따르는 종?)을 통해 전해 듣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의 귀는 이삭과 에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남편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한 말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에서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도 전해 들은 것을 보면 그녀의 관심은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위하여서는 남편이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나 심지어 에서가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 야곱을 편애했던 어머니 리브가를 생각할 때 저는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모든 일에 배후 조종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첫번째는 리브가가 듣고 또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남편 이삭이 그가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들었고 또한 에서가 혼자 중얼거리는 말까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의 귀는 남편 이삭과 맏아들 에서의 말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귀 기울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에서보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이삭이 에서를 불러 다가 말하는 내용을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 야곱의 아버지가 야곱의 형 에서에게 한 말을 다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대신 받도록 야곱을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을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의 축복을 뺏도록 허락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었기에 리브가로 하여금 야곱의 뒤에서 배후 조종하여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창세기 25 장 23 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국민이 네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현대인의 성경). 언약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리브가가 편애하는 야곱으로 하여금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빼앗는 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내버려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두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 27:46)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다 들으시고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주 화요일에 대학교 후배 자매의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아생전에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사랑(authentic love)을 받은 그 자매는 비록 어머니는 잠드셨지만 어머니가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자기도 이웃을 사랑하므로 어머니를 공경하고 싶다는 기도 부탁을 생각할 때 참 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 생각합니다[그 날 오후부터 시작해서 어제 금요일까지 입관 예배 때 집례하신 목사님이 설교하신 본문을 좀 제가 수정해서 고린도후서 4 장 18 절에서 5 장 2 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몸을 입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하는 제목 아래 긴 말씀 묵상의 글을 적었습니다(<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2852521394>)].

오늘 본문 창세기 25 장 27-28 절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 이삭은 말아들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 그를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40 세에 헛 족속의 두 여자와 결혼하므로(제 생각엔 에서가 부모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듯) 그 며느리들이 자기의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26:35)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을 때 죽기 전에 에서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길 원했습니다(27:1-4, 현대인의 성경). 그렇지만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이 그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엇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고 나간 사이에(5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25:28,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였습니다.

(1) 그 과정에 첫번째는 리브가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삭이 그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하는 말만 엿들은 것이 아니라(27:5, 현대인의 성경)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여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 버리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린 말까지 전해 들었습니다(41-42 절,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리브가의 귀는 남편 이삭과 맏아들 에서의 말에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귀 기울임은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에서보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2)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두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7 장 8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애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가 사이에 야곱을 불러 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네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5-7 절,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 그녀는 야곱에게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8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자녀가 모든 일에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는 마치 리브가가 야곱으로 하여금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게 하려고 시키는 대로 다 행하라고 했듯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엢 6:1)고 말씀했지 주님 밖에서 남을 속이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우리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보다 잠깐 있다가 보이지 않는(고후 4:18)(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속여서 얻는 재물을 주목하고 계시면서(잠 21:6, 현대인의 성경) 우리에게도 보이는 재물을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를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부모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분명히 두 주신을 섬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되면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가 아니면 한편에게는 충성을 다하고 다른 편은 무시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 6:24, 현대인의 성경). 사사기 17 장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소견대로 아들 미가가 자기의 은 1,100 을 도둑질했다가 어머니에게 저주를 받을까봐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는 미가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17:2). 아니, 어떻게 도둑질한 아들을 면책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빌어줍니까? 이해가 안 되는 어머니입니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 돌려받은 은 1,100 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고 하면서 아들을 위하여(3 절) 은 200 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만들게 하여(4 절) 아들에게 줍니다(3-4 절). 참 어이가 없는 어미의 행동입니다. 그 결과 아들 미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신상을 자기의 집에 두었습니다(4 절). 놀라운 것은 어머니로부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는 축복을 받은 미가에게는 신당(a shrine or house of gods)까지 있었습니다(5 절). 세상적인 어머니의 세상적인 어미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어머니의 말씀대로 살았던 아들 미가라 생각합니다.

(3)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세번째로 리브가는 야곱으로 이삭을 “속이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창세기 27 장 1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야곱은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가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진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8-10 절, 현대인의 성경)라는 말을 듣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털이 없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했습니다(11-12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야곱의 말을 보면 만일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는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목상할 때 진정으로 “속이는 자”는 사탄이라 생각합니다. 사탄은 전 세계를 속이는 자요 참조자입니다(계 12:9-10). 요한복음 8 장 44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탄은 자신의 속성에 따라 거짓을 말합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인터넷). 그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고후 11:14) 그의 종들은 마치 양의 털을 쓴 늑대(마 7:15)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요 사탄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온갖 거짓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보이며 멸망할 사람들에게 갖은 속임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살후 2:9-10,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이 사탄과 사탄의 종들의 간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고후 11:3, 현대인의 성경). 그들의 입은 뻘뻘어져서(perverted) 진리를 뻘뻘게(왜곡)하여 거짓과 속임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뺏겨서 하여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만듭니다. 그들의 무서운 역사 중 하나는 바로 우리에게 ‘섞인 진리’를 믿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과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거짓을 더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섞인 진리를 믿게 만들려고 부지런히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이요 속이는 말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잠 6:12, Walvoord).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뺏겨져(perverted)있기 때문입니다. 뺏겨진 마음에서 뺏겨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져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과 순결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과 그의 종들의 간사한 거짓말과 속임수를 분별하여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4)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네번째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 대신 저주까지 받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27 장 12-13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얘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안고 오너라.’”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다가 걸릴 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하고 말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얘야, 저는 내가 받을 테니 …”하고 말했습니다(13 절, 현대인의 성경).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만 받을 수 있다면 자기가 야곱 대신 저주를 받을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정도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머니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까요? 저는 병든 어머니의 사랑이요 자녀를 병들게 만드는 사랑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병든 자식 사랑은 마치 리브가가 야곱에게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8 절, 현대인의 성경), “이제 저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43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한 것처럼 자녀를 사랑한답시고 그 자녀를 조종(manipulation)합니다. 조종을 당하는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여러모로(특히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떠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 등이 병들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 자녀가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 자녀의 부부 관계에도 병적 영향을 끼치므로 말미암아 그 부부 관계도 병들게 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병든 자식 사랑은 파장이 큼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 대신 저주까지 받겠다는 어머니는 자신의 병든 자식 사랑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어머니는 저주의 나무(신 21:23; 갈 3:13)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엡 1:7; 골 1:14; 요일 1:9). 그리고 그녀는 자식을 하나님의 진짜 사랑으로 사랑하여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녀는 자녀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선(healthy boundary)을 분명하게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자녀를 진실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면서 진리를 행해야 합니다. 그녀는 거짓과 속임수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큰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시 119:56, 현대인의 성경). 그러면서 그녀는 그녀의 자녀를 축복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지키시기 원하노라”(민 6:24, 현대인의 성경).

(5)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다섯번 째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에게 말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창세기 27 장 15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서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해 둔 말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은 자기 형 에서가 털이 많은데 자기는 털이 없이 매끈하기에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만져 보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했습니다(11-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집 안에 보관해 둔 말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15 절, 현대인의 성경). 왜 리브가는 말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집 안에 보관해 둔 것일까요? 제일 좋은 옷이라면 에서가 아끼고 즐겨 입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분명히 그 옷은 리브가가 집 안에 보관해 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잘 보관해 뒀어야 하지 않나요? 혹시 리브가가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자기가 집 안에 보관해 둔 이유가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해서 그리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옷을 야곱을 위해 사용할 때가 와서 그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힌 것이 아닐까요? 결국 리브가는 야곱이 가지고 온 염소 새끼 가죽으로 야곱의 손과 목의 매끈한 곳을 감 싹습니다(16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나중에 야곱이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 이삭이 “얘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고 해서 가까이 가서 입을 맞췄을 때 “이삭이 그 옷의 냄새를 맡아 보고”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26-27 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된 이삭(1 절, 현대인의 성경)은 일부러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26 절, 현대인의 성경). 그 이유는 과연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말아들 에서인지를 그의 옷의 냄새를 맡아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리브가는 예상하고 작은 아들 야곱에게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 다가 입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철저하게 말아들 에서로 위장 시켜서 결국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여 무조건 ‘제일 좋은 것’(참고: 15 절, 현대인의 성경)으로만 주려고 하는 게 진정 그 자식에게 제일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식이 잘 되라고 제일 좋은 것을 주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그녀의 기대대로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전혀 기대의 반대로 자녀에게 주는 제일 좋은 것이 그 자녀에게는 제일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는 제일 사랑하시고(요 3:16; 롬 8:32) 제일 잘 아시기에(시 139:1-4)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히 4:16)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십니다. 로마서 8 장 3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6)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배후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여섯 번 짜로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작은 아들 야곱을 위하여 자기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창세기 27 장 14 절과 17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에게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 만들어 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를 좋아하였으므로(25:27,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27:3-4, 현대인의 성경). 그 말을 엿들은 리브가는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에(5 절, 현대인의 성경) 야곱을 조종하여 자기가 시키는 대로 행하게 하되(8 절, 현대인의 성경) 자기가 직접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의 손에 들려줘 그것을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10, 17 절,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맏아들 에서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더 잘 만들었을까 아니면 아내인 리브가가 별미를 더 잘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아무래도 에서보다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더 잘 만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 생각하는 이유는 에서보다 리브가가 이삭의 입맛을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에서보다 리브가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서 대접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을 때 이삭은 “네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왜 이삭은 그리 물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20 절 상반절에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애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이 질문을 보면 이삭의 입장에서는 맏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5 절, 현대인의 성경)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에서 인척 가장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잡은 짐승으로 별미를 만들어줘서 여러 번 그 별미를 먹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를 대충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빨리 야곱이 별미를 가지고 자기에게 왔으니 “애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왔느냐?”(20 절, 현대인의 성경)라고 물은 것이 아닐까요? 그 때 야곱의 답변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20 절,  
 현대인의 성경). 아니 어떻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까지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준 것이지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곱은 그렇게까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아버지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를 축복했습니다(27-30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리브가는 자기가 편애하는 작은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남편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하기까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삭을 속였고 또한 야곱을 속이는 자로  
 만들어서 결국에 가서 그녀가 원하는 대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브가의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25:23, 현대인의 성경)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셨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거짓된  
 속이는 방법까지도 사용하시사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믿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 장 13 절입니다: “우리는 진실하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니  
 약속을 어길 줄 모르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입니다”(공동번역)[(현대인의 성경)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어기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아들  
 에서를 사랑하는 분별없는 아버지 이삭과 작은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진실하지 못한 어머니 리브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하시고자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애하는 부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뤄 나가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새 찬송가 393 장 “오 신실하신 주” 1 절 가사가 생각납니다: “오 신실 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갈네.”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히 10:23 상, 현대인의 성경).

“Like the sun that rises everyday O You are so faithful, dear Lord You are so faithful

매일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Like the rain that You bring and every breath that I breathe

당신이 가져다주시는 비와 같이 그리고 매일 쉬는 그 숨과 같이

You are so faithful Lord. Like a rose that comes alive every spring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매년 봄마다 풍성히 피어나는 장미와 같이

O You are so faithful, dear Lord You are so faithful

오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Like the life that You give to every beat of, my heart

내 심장이 뛰게 하기 위해 당신이 주신 삶과 같이

You are so faithful, Lord. I see a cross and the price You had to pay

당신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죄값을 지불하신 그 십자가를 압니다.

I see the brood that washed my sins away

나는 내 죄를 씻으신 그 피를 압니다.

In the midst of the storm through the wind and the waves

비바람과 거센 파도를 지나 폭풍우의 중간에 있을 때에도

You'll still be faithful O You'll still be faithful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오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When the stars refuse to shine and time is no more

별이 그 빛을 잃고 시간이 더 이상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You'll still be faithful O You'll still be faithful. O Lord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오 당신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입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오, 신실하신 주님. 주님 내 안에~~”

[복음 성가, “You are so faithful”]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2 년 8 월 20 일, 비록 나는 매우 불성실하지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요 6:1-15)과 “...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 1:18)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고 계심을 믿으면서]

## 자녀들이 점점 번영하기 위해선 ...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요한복음 3:30, 현대인의 성경)

요즘 성령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귀한 교훈은 '자녀들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부모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훈을 저와 제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근거는 바로 요한복음 3 장 30 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자기 자신은 점점 쇠퇴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성령님께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는 가운데 제 아내와 대화를 하게하셨습니다. 그 대화 내용의 핵심은 저와 제 아내가 사랑하는 딜런, 예리, 예은이의 부모로서 그들을 양육(nurture)할 때에 우리의 역할이 그들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줄어들어야 한다(decrease)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들(less) 개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딜런, 예리, 예은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어야(leave them alone)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든지 도움을 청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그들에게 연락을 해서 그들의 삶을 이래라저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자녀들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 믿음 가운데 자꾸만 자녀들을 생각할 때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면 우리는 자꾸만 장성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개입하고 싶은 충동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잔소리하므로 우리 마음의 걱정, 염려, 불안함을 그들에게 전달하므로 그들 또한 우리 부모를 신경쓰게 되고 염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모-자녀 관계는 오히려 자녀를 해롭게 할 뿐입니다. 자녀의 성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아내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요한복음 3 장 30 절 말씀을 자녀 양육에 적용하여 우리는 점점 쇠퇴(decrease or less)하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줄 믿기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점점 번영(increase or greater)케 하실 줄 믿습니다.

[밑에 사진은 어제 토요일 제가 사랑하는 딸 예리의 아파트에 가서 이삿짐을 나르는 사진입니다. 예리는 자기 방과 부엌 등에서 자신의 짐을 싸면 예리의 남자 친구 Chris가 예리를 도와 짐을 싣 후 아파트 문 앞까지 그 이삿짐을 나르면 저는 그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Chris에게 이삿짐을 받아서 아파트 앞에 세워둔 자동차까지 짐을 옮겨서 차 안에 실었습니다. 저는 아파트 방에서 자동차까지 짐을 나르는 것이 제 역할이었습니다. 하하. 딱 거기까지입니다! ㅎㅎ 그런데 제가 이삿짐을 나르는 사진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더니 그녀는 그녀가 좋아하는 산(mountain)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달리기(running)인지 하이킹(hiking)하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냈답니다 ㅎㅎㅎㅎ 저는 Mr. Mom 이고 제 아내는 사랑하는 딸도 초월해서 이젠 제가 하든 식으로 자녀를 방관하는 엄마(neglecting mom)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ㅎㅎㅎㅎㅎㅎ]



#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소서.’

## [룻기 1 장 1-22 절]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가정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배우자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날마다, 순간 순간마다 생각할 때에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들 중에 저는 오늘 룻기 1 장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룻기 1 장 1-22 절을 목요일 아침에 묵상한 후 짧은 말씀 묵상 글을 써서 여기저기 나누는 후 금요일 오후에 다시금 묵상하면서 1 장 1 절에 “흉년”이란 단어와 6 절 현대인의 성경에 “풍년”이란 단어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룻기 1 장 전체를 다시금 묵상할 때에 비록 룻기 1 장에서는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다가(1 절) 10 년쯤이 지난 후에야(4 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6 절, 현대인의 성경)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적용하되 저는 우리 각 가정에도 흉년과 풍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흉년”이란 단어의 의미가 “농작물이 예년에 비하여 잘되지 아니하여 굶주리게 된 해”라고 네이버 사전이 정의를 내렸는데 실제로 우리 가정을 뒤돌아보면 가정의 흉년이란 자녀 농사가 자녀가 어릴 때 비하여 잘되지 아니할 때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정의 흉년이란 비록 음식은 풍부할지라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랑의 굶주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애정 결핍”이라고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의미는 “어릴 때에 부모에게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여 불안정한 정서를 가지게 되는

일”입니다(네이버 사전). 그렇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풍년’입니다. 예를 들어, “풍년”이란 “곡식이 잘 자라고 잘 여물어 평년보다 수확이 많은 해”라고 네이버 사전이 정의를 내렸는데 우리가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의 풍년이란 자녀 농사가 잘 되어서 우리 자녀가 주님 안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여러모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풍년이란 매년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더욱 풍성이 맺는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풍년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 롯기 1 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에 흉년과 풍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의 흉년을 가정의 풍년으로 역전시키셨는지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은혜와 교훈 가운데 우리 가정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인의 가정의 흉년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롯기 1 장 1 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현대인의 성경)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 그들은 모두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 에브랏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1 절, 현대인의 성경)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땅”이란 7 절에 보면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흉년이 든 시기는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1 절). 참고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1 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현대인의 성경)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의 옳은 대로 하였다”](삿 17:6; 21:25). “그 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 롯 1:1)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았다”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1 절)(개역개정은 2 절에 말씀하고 있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에 “흉년”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이주하게 만든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창 41:56-57; 43:1) 결국에 가서는 애굽으로 이주한 이야기입니다(46 장). 오늘 본문 롯기 1 장도 보면 유다 땅에 임한 흉년으로 인해 엘리멜렉은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아마도 그 가정이 고향인 유다 땅을 떠나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주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기의 풍족한 재산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좀 알 수 있냐면 룻기 1 장 21 절을 보면 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 “내가 이 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다 땅에 흉년으로 인해 고향 유다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1 장 3-5 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십 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현대인의 성경) “그들이 그 곳이 사는 동안 엘리멜렉은 죽고 그의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되었다. 그 두 아들은 모두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 중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룻이었다. 그들이 그 땅에 산 지 10 년쯤 되었을 때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나오미는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다”]. 결국 모압 땅에서 한 10 년쯤 살면서 엘리멜렉만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도 죽고 나오미란 여인은 남편과 자식 둘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가정의 흉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그녀의 가정의 흉년이란 돈(재산)만 잃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식구 3 명이나 잃은 것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도 이러한 가정의 흉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가정의 흉년을 한 단어로 ‘잃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룻기 1 장 나오는 나오미의 경우에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또한 재산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성경 욥기서에 나오는 욥이란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소유물만 잃은 것(욥 1:12-17)이 아니라 10 명의 자녀들도 다 잃었습니다(18 절). 그리고 욥은 자신의 건강까지 잃어서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욥 2:7, 현대인의 성경) 그는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습니다(8 절). 지금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나오미나 욥처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흉년을 돌이켜 우리 가정에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가정의 풍년”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룻기 1 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흉년이 든 나오미의 가정을 어떻게 가정의 풍년으로 돌이키셨는지를 3 가지로 묵상하면서 우리 각 가정에 적용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풍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 장 6 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여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 이 말씀을 보면

“그로부터 얼마 후”란 5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오미의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마저 죽고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잃은 채 홀로 남게 된 그때로부터 얼마 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 거주한 지 10 년쯤(4 절) 지나서 “얼마 후”를 말씀합니다. 그 “얼마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다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6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소식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인 유다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에 와서 산지 10 년이 되어서야 자신의 고향인 유다 땅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고 하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의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길 기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여서 여러가지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최고의 기쁜 소식은 우리 모든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둘째로, 가정의 풍년이란 이 최악 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룻기 1 장 6 절 하반절부터 7 절까지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였다. 그들이 그 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모압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여 그 유다 땅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과 함께 모압 땅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이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풍년”이란 고향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 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사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사 결국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인 2 세들과 갈렙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5 장 13-21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일이 있다. 네 후손들이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 년 동안 종살이하며 학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벌할 것이니 그 후에 네 후손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어 묻힐 것이며 네 후손들은 4 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이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가정의 풍년을 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마치 누가복음 15 장에 나오는 탕자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가정의 방황하는 배우자나 자녀나 후손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영적 흉년’을 맞이하여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 있고 굶주려 있다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께 돌아오길 기원합니다. 이사야 55 장 1-3 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 새 찬송가 526 장 “목마른 자들아” 가사입니다: (1 절)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2 절) 이 샘에 솟는 물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3 절) 생명수 샘물을 마신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4 절)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마지막 셋째로, 가정의 풍년이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 “노년에 봉양자” 한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룻기 4 장 13-15 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룯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므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룯과 결혼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룯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룯이 아들을 낳자 성 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에게 유산을 이어받을 손자를 주셨으니 이 아이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며느리는 당신을 사랑하여 일곱 아들보다 더 많은 정성을 당신에게 쏟았습니다. 이제 이런 며느리가 당신에게 손자를 낳아 주었으므로 이 아이는 당신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다 줄 것이며 나이 많은 당신을 잘 보살펴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 장 7 절부터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오르바와 룯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두 며느리가 자신들의 남편과 자기를 정성껏 섬겼기에 이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기 때문입니다(7-9, 현대인의 성경). 너무 늙어 재혼할 수도 없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비록 자기 자신은

남편 없이 살 수 있어도 자기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은 재혼하여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습니다(9, 12 절, 현대인의 성경).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룯에게 상처를 주어 자기를 벌하셔서 자기 마음이 더욱 아프다고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한 것(13 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의 상처로 인해 마음이 더욱 아파하는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국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친정과 자기 백성(모압)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룯은 계속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살길 원했습니다. 룯은 시어머니의 백성이 자기기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룯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에 만일 제가 어머니 곁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저에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나오미는 룯이 자기와 함께 가겠다고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14-18 절, 현대인의 성경).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룯이란 며느리의 시어머니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아가 8:6, 현대인의 성경). 한 마디로, 룯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는 못 말리는 며느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시어머니라 생각합니다. "나오미"(뜻: "나의 즐거움")는 며느리 룯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1:19) 그 곳 여자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뜻: "쓰다")라고 불러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20 절). 그 이유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괴로운 시련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곳을 떠날 때는 가진 것이 많았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셨으니 어떻게 당신들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였습니다(19-21 절, 현대인의 성경). 유다 땅에 "흉년"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 모압 땅에 가서 살기로 한 결정(1-2 절)의 결과가 결국 떠날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심지어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도) 이방 여인 룯이라는 며느리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 룯이 결국에 가서는 보아스와 결혼(재혼)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룯을 축복하셔서 마침내 룯이 아들(4:13, 현대인의 성경)인 "오벳"을 낳았는데(17 절) 이 오벳은 후에 다윗왕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입니다(17 절). 그 때 성 안 여자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며느리(룯)은 당신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당신의 노년의 봉양자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입니다'(15 절). 계산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는 얻은 사람(며느리 룯)보다 잃은 사람들(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더 많고 더 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룯이란 한 여인이 보아스와 재혼해서 다윗왕을 낳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을 낳습니다(4:17,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다윗왕을 통해 메시아 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마 1:1-16, 특히 5-6 절). 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엄청난고 놀라운 가정의 풍년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라”(쓴맛)를 “나오미”(나의 즐거움)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쓴맛(마라)을 본 나오미를 그녀의 이름 뜻대로 그녀에게 즐거움(나오미)을 주셨습니다. 이젠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가정의 흉년이 아니라 가정의 풍년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정의 흉년을 돌이켜 가정의 풍년을 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정의 식구들로 하여금 이 최악 된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되 우리의 “생명의 회복자”이며 우리 “노년에 봉향자” 한 사람을 얻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가정의 흉년인 마라의 쓴 맛을 보고 있는 가정을 역전시키시사 가정의 풍년을 들게 하시사 가정의 즐거움을 맛보게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3년 1월 14일, 사랑하는 아내와 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한 후)

##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자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에베소서 5 장 31-33 절, 현대인의 성경)

지난 주일 제가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는 승리장로교회 설립 4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인 마태복음 16 장 18 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란 제목 아래 5 가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5 가지 기도 제목을 저의 온 가정 친척 식구에게 적용하여 어제 화요일 온라인 가족 기도 모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1) 감사하는 가정, (2) 견고한 가정, (3) 승리하는 가정, (4) 일꾼을 세우는 가정, (5)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가정의 죄가 더한 곳에 더욱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족한 은혜(고후 12:9)가 더욱 넘치는 것(롬 5:20)을 참으로 깨달아감으로(골 1:6)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주소(마 16:18; 고전 10:4),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박고 그분을 기초로 우리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골 2:7)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순종)함으로(마 7:24-25) 어떠한 유혹과 미혹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고전 15:58)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에 근거한(롬 8:35-39) 승리의 확신(37 절)을 가지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

구절인 고린도전서 13 장 10 절 말씀을 믿음으로 전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추수할 것은 많은데(“추수”) 영혼 구원에 힘을 쓰는 복음 전파자들(“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이 때에 주님께서 저의 온 가정 친척 식구 가운데서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마 9:37-38).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일꾼을 여기저기에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 5 가지 기도 제목에 하나 더 추가해서 저의 온 가정 친척 식구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

저는 오늘 이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인 ‘주님,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소서’에 대해 주일 오후와 월요일 오전에 가정에 대해 쓴 2 개의 글과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31-33 절 말씀 중심으로 한 7 가지로 요약해보았습니다:

### **첫째로,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의 각 가정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 각 가정을 사랑하시고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중요하게 여기시되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은 우리 각 가정의 영적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요삼 1:2, 현대인의 성경). 그러므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도 주님이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각 가정을 매우 중요시 여겨야 하며 또한 우리 각 가정의 영적 건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 **둘째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의 각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의 영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엡 5:29) 지혜롭고 성숙한 아내는 남편의 영적 건강을 위해 기도하며 희생적으로 돕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이 영적으로 건강하여 사랑하는 아내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도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6:4). 그리할 때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셋째로, 가정의 가장인 남편의 영적 성숙과 지도력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양육을 합니다. 그 과정에 그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가정 밖에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므로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그리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실한 말씀 순종의 삶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의 본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보이므로 그들을 양육합니다. 이러한 남편의 성숙한 순종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넷째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아내를 우선으로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성경 말씀대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사랑합니다(5:23). 그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므로(28, 33 절) 자기를 사랑합니다(28 절). 이렇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함에 있어서 제 3 자가 침투하여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여기서 제 3 자란 자녀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심지어 친구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고 미성숙한 남편은 부부 관계에 우선권을 두지 않고 또한 제 3 자로 하여금 부부 관계에 침투하여 방해하도록 허락합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갈등과 다툼과 싸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관계나 부부 사랑이 아닙니다.

### **다섯째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건강한 경계선은 분명하게 급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31 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부모님을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었기에 자신의 자녀이든, 양가 부모님이든, 자신의 형제이든, 친구이든 등등 그들로하여금 자신의 부부 관계에 침투하여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막습니다. 즉, 그는 부부 관계에 우선권을 두고 있기에 어느 누구 하여금 자신의 부부 관계에 침투하여 부부 갈등을 일으키는 일을 막기 위하여 그들과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급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남편은 그들과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부부 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특히 자신의 부모님, 특히 어머님에게 지나친 영향을 받는 남편은 자신의 어머님과 자신의 아내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시어머님과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할 남편이 오히려 그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원인은 그가 자신의 어머님을 지나치게 의지하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님과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굿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아내를 우선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와 어머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멜 때가 많습니다. 그 때 그 남편의 아내는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고 시어머니 편을 드는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남편을 신뢰하며 의지할 수가 없고 또한 남편에게 원하고 필요한 사랑을 충족히 받지 못하기에(엡 5:25-28, 33) 자신의 자녀에게 지나친 사랑을 쏟아 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아내는 그녀의 자녀와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하므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그 부부는 자신들의 부부 관계가 우선이 되지 못하고 건강한 경계선을 분명히 긋지 못하는 남편은 우왕좌왕하면서 우유부단한 사이에 아내는 자녀와의 관계가 우선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자녀가 결혼한 자녀라면 지나치게 사랑하는 어머니로 인하여 그 자녀의 부부 관계도 갈등을 유발하므로 그 부부 관계도 병들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장인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남편은 건강한 경계선은 분명하게 그므로 말미암아 양가 부모님이든 자녀이든 어느 누구도 자신의 우선적인 부부 관계를 병들지 않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부부로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되 자기 몸과 같이,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므로(엡 5:25, 28, 33, 현대인의 성경) 그 사랑을 받는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존경하고(33 절)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합니다(24 절, 현대인의 성경). 그 결과 그 부부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부부로 계속해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 여섯째로,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가 올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부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부부에게도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부부에게는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두 종류의 부부 관계에 올 수 있는 위기나 고비는 같을 수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부부라 하여 자신에게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미성숙한 부부라 하여 항상 위기나 고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한다면, 중요한 것은 어느 부부에게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뜻밖에 위기나 고비를 겪을 수 있기에 만일 그러한 부부 관계의 위기나 고비가 온다면 과연 부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을 제 개인적으로 한 3 가지만 제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부부 관계의 위기는 부부 관계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부부에게 주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의 위기는 주님이 주시는 부부 관계의 성장과 성숙을 도모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그 귀한 기회란 부부가 함께 주님을 갈급하게 찾는 기회입니다. 부부 관계가 병들어 있어서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충분히 우리 부부는 낙심할 뿐만 아니라 낙망과 절망까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의 절망감을 느낄 때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주님을 갈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망케 하시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주님을 나와 우리 부부의 소망으로 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부부 관계의 위기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의 기회입니다. (3) 또

하나의 귀한 기회란 주님께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부의 마음 발을 기경하시사 부드럽게 하시어 그 좋은 마음 발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부 관계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 발에 심기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부부 관계가 위기나 고비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확신 성경 말씀인 고린도전서 10 장 13 절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 발에 심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한 부부 관계의 시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시험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진리를 믿고 또한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부부 관계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꺼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우리 부부 속에 역사하시되(살전 2:13)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부부가 되길 기원합니다(요일 2:14, 현대인의 성경).

### **마지막 일곱째로,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 장 32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 편지로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에 대한 말을 하면서 결론 부분에 가서 창세기 2 장 24 절 말씀을 인용하여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엡 5:31, 현대인의 성경)라고 말씀을 한 후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하고 말씀했습니다(3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뤄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25, 28, 33 절, 현대인의 성경),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며(24 절, 현대인의 성경)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33 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24, 25 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중심된 부부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추구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리스도 중심된 부부 관계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일치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의 온 가정 친척 식구를 감사하는 가정과 견고한 가정과 승리하는 가정과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을 세우는 가정과 그 일꾼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주님 중심된 가정 친척 식구가 되길 기원합니다. 특히 저는 주님께서 저의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사랑의 가정으로 세워주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가정 친척 식구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원하는,

제임스 김 나눔

(2022년 7월 14일, 지난 화요일 오후 온라인 가족 기도 모임 때 에베소서 5장 31-3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한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선포한 후)

#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

## [골로새서 3 장 18-21 절]

“우리 가정들을 생각할 때”란 제목아래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1)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사모합니다. (2)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라도 우리 모든 식구들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케 하옵소서. (4)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철저히 부서트려 주시고 깨뜨려 주시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5)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들쳐 내시사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아 인정하며 고백하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을 받았다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7)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 하나님께서 가정의 위기를 돌이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사랑을 깊고 넓게 많이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9) 우리 가정에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세력과 사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10)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열매를 더욱더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사 온 가정 식구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2023년 5월에 “기도와 찬양의 기적을 경험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역대하 20 장 말씀을 이미 묵상했었습니다. 역대하 20 장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어려운 위기 상황이란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이 일부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침략한 상황이었습니다(1-2 절, 현대인의 성경). 그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습니다(3 절,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고” 전국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들었습니다(4 절, 현대인의 성경). 결국 여호사밧 왕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로 하여금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함. 저는 이 승리의 기적을 묵상하면서 4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 (1) 첫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될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결심하고(단 10:12, 현대인의 성경)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대하 20:3,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가정의 엄청난 어려움을 접했을 때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2) 두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접했을 때 먼저 우리 자신에게는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 엄청난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 (3) 세번째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회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4) 네번째로 얻는 교훈은 아무리 사탄과 그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신뢰하므로 구원의 확신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아골)의 골짜기’를 ‘축복(찬송)의 골짜기’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8-21 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은 어떠한 가정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할 때 제 눈에 들어오고 관심을 갖게 된 말씀은 이미 우리가 묵상한 바로 골로새서 3 장 16 절 하반절과 17 절 하반절 말씀이었습니다: “...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16 절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고 저는 이 두 말씀을 골로새서 3 장 18-21 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8-21 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4 가지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1)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 (2)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3)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 (4)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정 문제와 위기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1) 가정 문제는 매우 개인적이기에(personal) 깊은 상처와 극심한 스트레스를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가정 문제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3) 가정 문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충분히 절망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그 기회란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위기로 부부를 변화시키시고, 부모님을 변화시키시고, 자녀를 변화시키신다고 생각합니다. (6) 그 변화의 핵심 중 하나는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드시사 결국에 가서는 이 모든 문제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롬 8:28)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시 34:8). (7)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므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됴을" 아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습니다(시 46:10).

### 첫째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8 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에베소서 5 장 22 절을 보면 성경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번역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 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주께 하듯 하라는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주께 대한 너희 의무의 일부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께 대한 너희 복종의 표현이기 때문이다'는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들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께 복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보기에 여자 성도님들이 믿음이 크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큰 여자는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는 여자는 보이지 않는 주님께 복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느 여자 성도님들은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주님께 하듯 그에게도 복종을 해야 합니까?’하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 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입니다. 옛날 하나님에게 희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몄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짧은 말씀 묵상의 글을 적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한 일인 겉모양만 화려하게 꾸미지 말고 순하고 정숙한 마음 가짐으로 속 사람을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된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꾸며야 합니다. 아내된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끗한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믿음이 큰 여자 성도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큰 여자 성도님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여자 성도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같은 여자 성도님을 믿음이 큰 여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여자 성도님들은 한나처럼 자녀가 없어서 자식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자녀를 주시면 그 자녀를 평생토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하고 서약 기도를 드리는 여자 성도님들도 있을 것입니다(참고: 삼상 1:11, 현대인의 성경).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간절히 헌신적으로 찾는 기도하는 여자 성도님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러한 여인들은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믿음이 큰 자”(a woman with great faith)이라고 말씀하신 여인이 나옵니다(28절).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5-26절을 보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헬라인”이란 말은 그녀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자로서 “수로보니게 족속”, 즉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 사람으로서 이 민족은 일찍이 유대인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북향하고 쫓겨 갔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마태는 그 여인을 한 마디로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마 15:22).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에게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22 절). 그러면 저의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28 절)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입니다. 적어도 2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믿음이 큰 여자는 예수님이 주님과 그리스도되심을 믿는 자입니다.

주후 1 세기에 살았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과 그 가나안 여인이 만났던 두로 지방은 수로보니게 땅으로 갈릴리 북편에 붙은 지역으로서 거기에는 이방인들이 거주하였는데 유대인을 원수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예수님께 와서 그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저 한 유대인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마 15:22). 그녀는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2) 믿음이 큰 여자는 간절히 주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22 절).

그녀는 흉악하게 귀신들려 고통을 당하는 자신의 딸을 위하여 주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23 절). 특히 그녀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절히 부르짖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는데도(23 절) 불구하고 예수님을 뒤따라 가면서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녀가 그리도 간절히 계속해서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예수님께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막 7:26). 결국 예수님께서 믿음이 큰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그녀에게도 천국의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이 치유를 받아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큰 여자 성도님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저의 질문은 ‘그녀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마음에 모시고 살고 있는가?’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믿음이 큰 여자 성도님들 중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고 헌신적으로 무척이나 애쓰곤 있지만 가정 안에서는 그렇게 살고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 큰 여자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려고 헌신적으로 무척이나 애쓰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는 말은 그녀들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8 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딤후 2:5, 현대인의 성경). 분명히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18 절, 현대인의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믿음이 큰 여자들이

가정 안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고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과연 믿음  
큰 여자는 가정 안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께만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을까?’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대로 남편에게는 복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께만 복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까?

믿음의 여인들인 여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남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골 3:18; 엡 5:22; 뵤전 3:1, 5).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성경은 3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 (1)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 장 23 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 혹은 지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위치 혹은 지위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남편의 위치(지위)를 명백하게 하므로 가정에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위치 혹은 지위를 알고 “나의 머리”됨을 인정하므로  
남편이 가정의 지도자란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에 이것이야말로 아내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아내의 중요한 책임 중 하나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책 “새 가정 행진”을 보면  
한 설문조사가 나옵니다.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자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필요로 하는 것 다섯  
가지 중 그 첫번째가 자아 존중감입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의 위치인 가정의 가장이요  
지도자임을 인정하므로 그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필요인 자아 존중감을  
세워줍니다.

### (2)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이 주님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 장 18 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현대인의 성경)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고전  
14:33). 그러므로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무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있습니다. 즉,  
화평이 있는 가정에는 질서가 있음.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정에서 각자가 자기의 성경적인  
책임을 신실하고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가정에서 아내의 책임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의무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제도에 아내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적합하고(it is fitting) 마땅한(당연한) 것입니다.

### (3)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 장 1 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현대인의 성경) “아내된 여러분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없이 실천하는 여러분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많은 믿는 아내들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 가정 생활은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은 교회 안에서는 본이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정 안에서는 본이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잃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혜로운 아내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특히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불신자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가정 안에서도 본이 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불신 남편이 그 아내의 신덕을 보고서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게 되어 회심할 수 있다. 그것은 실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이다. 우리의 복음 증거가 우리의 선한 생활과 병행하지 않으면 무력하다”(박윤선). 지혜로운 아내는 복음 증거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녀는 불신자 남편에게 ‘교회 나가자’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므로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용하여 그녀의 불신자 남편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성경은 2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 (1)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합니다.

에베소서 5 장 22 절 하반절과 24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께 하듯하라”(22 절하),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24 절상).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까? 그 이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입니다(23 절). 우리가 “남편”이란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는 “바알” 또는 “주인”이란 뜻이요 헬라어로는 “주”(lord) 또는 “위에 남자”(man above)란 뜻입니다. 즉, 남편은 가정에서 잘 돌보며 또한 부드러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벧전 3:1)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와 같이”란 말은 베드로전서 2 장 18 절에 나와있는 “종이 상전에게

순종함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라도 그녀의 남편인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입니다(벧전 3:6, 창 18:12).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을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녀는 그의 말을 청취하고 잘 들어줍니다. 본래 “복종”(submission)이란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결합입니다. “~아래서”(under) 라는 뜻의 전치사와 “잘 듣는다”(to listen to well)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엇보다 남편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의미요, 남편에 대해 그 권위를 인정한다는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동원).

(2) 지혜로운 아내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 장 21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 즉, 그리스도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빌 2:3) “자기를 비”우시고(빌 2:7) 또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빌 2:8)처럼 지혜로운 아내는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을 경외하므로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모든 일에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 장 24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좋은 아내와 나쁜 아내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좋은 아내는 좋은 남편을 만족시키고 나쁜 아내는 남편을 침묵시킵니다. 결코 완전한 아내는 완전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현명한 아내는 순종함으로 남편을 지배합니다(인터넷). 남편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하듯 복종하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길 기원합니다.

세기의 부흥사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겐 기도로 훌륭하게 내조한 아내 루스 그레함이 있었습니다. 전에 기독교 기자로부터 받은 질문입니다: "루스 사모님! 당신은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부흥사로 여기는 목사님의 아내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 오랜 세월 살아오시면서 혹시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아니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일 생각해 본 것은 있었지요!" 호기심에 가득한 기자는, "그게 뭔가요?" 루스 그레함 사모님은 웃으면서, "Murder...살인요!" 여러분 아내들도 혹시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때가 있지 않았었나요? 요한일서 3 장 15 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

**둘째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9 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가정에 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 만큼 우리 남편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막중한 우리 남편들의 책임입니까? 그 책임이란 바로 남편이 자기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되(엡 5:25) 그들을 보호하고 공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되 남편은 아내와 가족 식구들을 위하여 희생을 하면서까지 보호하고 공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9 절을 보면 성경은 남편들에게 2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 장 25 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현대인의 성경)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한 5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잠언 18 장 22 절 말씀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서 성경은 아무 아내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는 “어진 여인”(an excellent wife)(12:4), “슬기로운 아내”(prudent wife)(19:14) 또는 “현숙한 여인”(a wife of noble character)(31:10)입니다. 이러한 여인은 유능한(10 절, 새 번역) 여인으로서 강직하고 덕이 있습니다. 그러한 여인은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어서 남편을 잘 도와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어질고 슬기로우며 현숙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를 둔 남편은 복받은 자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아내는 그에게 복덩이(매우 귀중한 사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그 여인이 현숙하고 슬기롭고 어진 여인이 아니라 “욕을 끼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12:4). 여기서 “욕을 끼치는 여인”이란 바로 남편과 다투기를 잘 하는 여자를 말합니다(박윤선). 또한 자기의 부끄러운 말이나 행위를 통해 남편을 부끄럽게 하는 여인을 말합니다(인터넷). 다투기를 잘 하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25:24). 아마 우리 남자들 중 이렇게 변명하고 싶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현숙한 여인을 주시지 않으시고 다투며 성내(성깔 있)는 여인을 주셨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아내를 복덩이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럴싸한 변명 같지 않습니까? 만일 그러한 말을 제가 듣는다면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투며 성내는 여인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런 여인을 선택했으니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여인을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십시오.’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 남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질고 슬기롭고 현숙한 여인을 거부하고 우리가 보기에 예쁘고 매력을 느끼는 그러나 나중에는 다투며 성내는 여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양육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우리 남자들이 자기가 선택하여 결혼한 아내에게 참 무책임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아내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한 행동으로도 아내로 하여금 자기가 저주 덩어리라고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지금 많은 아내들이 자기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여인의 인생입니까?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덩이로 여겨야 합니다.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내를 즐거워하며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b)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 장 7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 현대 사회과학의 연구가 밝혀낸 것은 결혼에서 아내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 3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첫번째가 귀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나머지 두 가지는 이해받는 것, 존경받는 것임).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아내를 귀히 여기고 계신데 우리 남편들이 누구이길래 주님이 귀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의 딸을 경히(없신) 여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 장 20 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남편들이 주님을 귀하여 여기므로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송가 102 장)을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보이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위선입니다.

오늘 6월 16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미국에선 “Father’s Day”(아버지의 날)로 지킵니다. “Happy Father’s Day” 사진을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에게 받았는데 “F.A.T.H.E.R.S.”이란 단어를 잘 적용했다고 생각합니다:

- F: Faithful (아버지는 신실하십니다).
- A: Always there (아버지는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 T: Trustworthy (아버지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 H: Honoring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 E: Ever-loving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 R: Righteous (아버지는 의로우십니다).
- S: Supportive (아버지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한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과 하나님의 사람인 그녀의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제 자신에게도 반영 및 적용을 하면서 써보았습니다:

-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신 우리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인 우리에게 지대한 선한 영향을 끼치셨고 지금도 끼치고 계시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끼치실 것입니다.
- 이러한 사랑의 아버지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헤어지지만 다가오는 저 세상에서 다시 만날 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은 말로 표현이 안될 것 같습니다.
-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를 본받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 마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선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c)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잠언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과연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아내들을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5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돼야 한다(*we must be captivated by her love*)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다’는 말씀 비유의 의미입니다(박윤선).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우물”과 우리의 “샘”(15 절)인 우리의 아내의 사랑만을 즐기며 결코 그녀를 버리고 음녀의 집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내로 말미암아 성적으로나 애정적으로나 만족할 만한 원기 회복(*satisfying refreshment*)을 얻을 때에 우리는 결코 음녀의 품을 그리워하며 음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을 것입니다(20 절). 잠언 5 장 16-17 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많은 남편들이 자기들의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지 못하며 아내를 즐거워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그녀의 사랑을 연모하지 않고(19 절) 오히려 음녀를 연모하며 다른 여인의 가슴을 안고 있습니다(20 절). 이렇게 우리 남자들이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바람을 피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최악 된 선택의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7-14 절). 그 징계란 “존영 상실”(9 절), “시간 상실”(9 절), “재물 상실”(10 절), “건강 상실”(11 절), “양심상 고통을 당함”(12-14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간음의 결과를 알고 음녀를 연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므로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9 절을 보면 성경은 남편들에게 2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5 가지 성경적인 교훈(원리) 중에 이미 3 가지를 묵상했습니다: (1) 남편은 아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잠 18:22). (2)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벧전 3:7). (3) 남편은 아내를 즐거워해야 합니다(잠 5:18).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즐거워해야 합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품을 항상 그리고 충분히 족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 5 장 19 절 말씀입니다: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는 말은 남편은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힌바 돼야 한다(*we must be captivated by her love*)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이 세 번째 성경적인 교훈(원리)을 배웠는데 저는 지난 주 금요일에 “서로를 위한 기도후원 (카카오톡) 방”에 제가 인터넷 사역으로 알게 된 영상 형제가 올린 아가 4 장 9 절 중심으로 짤막한 말씀 묵상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가 4 장 9 절 말씀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현대인의 성경)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소이다. 그대가 한 번의 눈짓과 목걸이의 보석 하나로 내 마음을 훔쳐 가고 말았소”]. 여기서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라는 말씀은 영상 형제의 말로는 “내 마음의 주도권을 잃고 사로잡힌 바 되어 언제 어디서나 그 마음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모든 시간이 상대방을 향해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신랑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교회인 우리의 작은 눈길 하나에도, 우리 목의 작은 장식 하나에도 그 마음을 빼앗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다시금 생각할 때 3 성경 구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1) (이사야 43 장 4 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현대인의 성경) “내가 너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겨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네 생명을 구하겠다”]. (2) (스바냐 3 장 17 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는 전능한 구원자이시다. 그가 너를 아주 기쁘게 여기시며 너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너 때문에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하실 것이다”]. (3) (시편 139 편 17-18 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그 수를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신랑되신 주님이 신부된 교회인 우리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묵상하게 되었을 때 저는 ‘나는 내 아내를 이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5 장 19 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나는 내 아내의 품을 항상 그리고 충분히 족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아내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되어 있는가?’ 박윤선 박사님에 의하면 남편들은 아내의 미모보다 그녀의 미덕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토요일, ‘내 마음이 사로잡힌 바 된 내 아내의 미덕은 무엇인가?’하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덕”이란 단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도덕적으로 바르고 아름다운 일. 또는 그러한

행위”라고 합니다(인터넷). 저는 이 의미보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참된 미덕의 본질”이란 책에서 말한 의미가 더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에 의하면 참된 미덕이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이며, 성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말한다. 그런데 참된 미덕의 참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참된 미덕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날 때 이 참된 미덕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조건으로 사랑한다. 또한 성령을 받은 성도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직접적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다”(인터넷). 저는 제 아내의 미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자 제가 이미 묵상한 잠언 31 장 10-31 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에 대한 6 가지 목록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제 아내가 현숙한 여인을 닮은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여섯 가지 중에 저는 제 아내를 생각할 때 3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신뢰를 줍니다”(11-12 절)란 말씀 묵상대로 제 아내는 저에게 신뢰를 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2)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합니다”(23 절)라는 말씀 묵상대로 제 아내는 저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줍니다. (3) “현숙한 여인은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26 절)란 말씀 묵상대로 제 아내는 제가 보기에 지혜로운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입이란 제가 볼 때 제 아내는 “때에 맞는 말”(15:23)을 잘합니다. 즉, 제 아내는 상대방에게 말할 때에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잘 조절해서 말을 합니다(박윤선).

**(d)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우리 몸같이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 장 28 절과 33 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하고.” 마치 우리 남편들이 우리 몸의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내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므로 그녀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사랑하되 2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 2 가지 목적은 우리 아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to make her holy)(엡 5:26a)와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로 세우기 위하여(to present her to the Lord as a radiant wife)입니다(27 절).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은 에베소서 5 장 26 절 상반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고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 장 22 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그 말씀을 순종케 하므로 세상과 분리된 삶, 즉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아내”, 주님의 광채가 들어나는 아내로 양육해야 합니다.

(e) **우리 남편들은 우리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되 그 목표는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아내로부터 상을 받을 기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돌보고자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남편들은 작은 일에서부터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시간을 함께 하고, 쓰레기도 가끔 버리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척하는 등 아주 작은 관심을 아내에게 보여주면 그것이 큰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f) **우리 남편들은 자녀양육에 대해 적극적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남편들은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내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우리는 무조건 우리 아내들에게만 다 맡기고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녀 양육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책 “영적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으로, 자신의 일부로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아주 완벽한 무엇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녀의 약한 특징들에서 보호합니다. 그는 그녀를 견고케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데 헌신하는 우리 남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회 후 “슬픔은 기회입니다. (1)”라는 설교 동영상을 여기 저기 나눈 후 오늘 주일 준비를 하다가 “GRACE TO KOREA”라는 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올려져 있는 기사들의 제목을 훑어보다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 10. 부부의 갈등 해결 (1)”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고 관심이 생겨서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 중에 “배우자는 사랑의 대상이지만, 갈등 속에서는 싸움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갈등”이란 단어의 표준국어대사전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그래서 부부 사이도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서로 적대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 2 가지 이유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 “차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하고 배우자를 향해 말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갈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의 다름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결혼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름’은 하나 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이해하고 용납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 “죄”

“부부의 다름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니지만, 남편과 아내 모두 가지고 있는 교만과 육신의 소욕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원인으로 죄에 그 뿌리를 둡니다(갈 5:19-21; 약 4:1-3). 죄는 아주 사소한 바람으로 시작하지만 매우 강력한 요구로 끝이 납니다. 필요(need)가 원함(want)이 되고, 원함은 곧 요구(demand)가 됩니다.”

제가 그 기사 내용 중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된 내용은 “갈등을 잘못 피하거나 잘못 해결하는 부부의 특징”입니다.

- “조용히 침묵하는 것”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넘어가기만을 바랍니다. 하지만, 실상 이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만드는 일입니다(골 3:19).

- “서로 격리되는 것”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적당한 평안을 알아서 각자 누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일과는 거리가 멉니다(벧전 4:8). 부부의 친밀함을 포기하고 큰 갈등을 피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입니다.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주제를 문제가 생길까 봐 일부러 피하는 경우도 있고, 일어난 사실을 감추거나 마음속 깊이 뿌리내린 상처를 숨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냥 덮어둔 것일 뿐, 제때 다루지 않아 곪아 터진 문제로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둘째로,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 장 19 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언제 우리 남편들이 우리 아내들을 괴롭게 합니까? 아니, 언제 우리가 우리 아내들을 괴롭게 하는지도 모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괴롭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언제 또한 무엇때문에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알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은 우리 남편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미련한 가장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 아내를 괴롭게(harsh) 합니다(골 3:19). 그는 그의 아내의 말에 부드럽게 대답하기보다 과격한 말(a harsh word)로 그녀로 하여금 분노케 합니다(잠 15:1, 현대인의 성경). 또한 미련한 남편은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므로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잔소리 중에서도 특히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루종일 집에 있으면서 도대체 하는 게 뭐야? 이거 하나도 제대로 못해?’처럼 무조건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잔소리하는 남편 특히 집안의 경제권을 지니고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를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매일 잔소리를 반복하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잔소리를 하는 남편 대부분이 아내와 대화를 하기보다는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아내와의 소통을 거절을 하는 남편은 심리적인 문제로 제대로 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9 절을 보면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할 때 ‘아내를 제일 괴롭게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018 년 1 월 11 일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란 제목 아래 창세기 29 장 31 절 말씀 중심으로 남편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에 대해서 묵상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은 심히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존귀하고 보배로운 딸들이 그녀들의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미움을 받고 상처와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보낸다면 이 얼마나 괴롭고 괴로운 인생입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이유는 야곱이 시력이 약한 자기보다 곱고 아리따운 자기의 여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7, 18 절). 이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쏟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자녀는 어머니의 과잉 사랑과 과잉 보호를 받으므로 마마 보이거나 마마 걸이 될 위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빈약한 부부관계는 왜곡된 부모 자녀 관계를 생산합니다. “이때 부모는 부부관계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정서적 욕구나 사회적 욕구, 성적 욕구를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통해 충족시키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아이와 편 먹고 배우자를 밀어내는 식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인터넷). 아마 많은 부부들이 ‘애들 때문에 참고 산다’고 말하면서 애들이 크면 이혼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19 년에 제가 읽은 어느 한 기사를 보면 한국의 1 년 한해 전체 이혼 사건이 총

10 만 8684 건이었는데 20 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이 33.3%(3 만 6327 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0-4 년 신혼부부(21.4%)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친밀하지 못하면 주로 아내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사랑을 무의식적으로 자녀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쏟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가 무의식적으로는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은 자신만을 바라보며 사는 엄마, 아빠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19 절 말씀대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야 말로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즉,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엡 5:25)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에베소서 5 장 28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셋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 장 20 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제가 2021 년 5 월 11 일에 “'부모님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노소영의 후회”란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서 관심을 갖고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 이러한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 노 관장은 지인들에게 어머니 김 여사가 ‘네 뜻을 펼치지 못하게 하고 집안에만 가둬 둔 것, 오지 않는 남편을 계속 기다리라 한 것, 여자의 행복은 가정이 우선이라고 우긴 것에 대해 미안하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사람인데 내 욕심에 (그런 거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소개했다. 노 관장은 이어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 모든 젊은이에게 알려주고 싶다’”(인터넷).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되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글을 썼었습니다[“노소영 얼굴 무너지며, 울상... 인내심으로 버틴 아버지”란 기사를 읽고 나서”(https://blog.naver.com/kdicaprio74/222549549958)].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고만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든 문구는 바로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고민해야 할 점이나면 성경은 분명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엡 6:1)고 말씀하고 있는데 노관장이란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르면 나처럼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하고 질문하면 우리는 대부분 당연히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말씀도 따름에 있어서 노관장이란 사람이 한 말도 잘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엡 6:1)과 노관장이란 사람이 한 말을 겸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과연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과 순종하지 말아 할 것을 분별하고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자녀들은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안 된다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사랑하는 딸, 예리, 예은이가 아빠인 저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자녀가 되길 결코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들에게 말할 때 제 말일 충분히 틀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만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전 그럴 수 없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세 자녀의 각자의 삶 속에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제가 모르고 무지한 가운데 아이들에게 이래라저래라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마음과 인도하심이 각자 있을 텐데 제가 아빠로서 그들에게 다르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렇게 좀 흥분(?)해서 글을 적어 내려간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보다 우리 부모님의 욕심이나 온전하지 못한 믿음과 신앙관 등등으로 양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를 사랑한답시고(그것도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 과잉개입 등등) 자녀에게 이래라저래라 말하면서 자녀의 선택권까지도 뺏어 가고 등등하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휴 ...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20 절을 보면 성경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서 6 장 1 절 말씀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주 안에서”(엡 6:1)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1 절, 현대인의 성경). 이 에베소서 6 장 1 절 말씀을 반대로 묵상한다면, 자녀들이 주님 밖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고 틀린 (잘못된)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20 절에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고 말씀하고 있지만 에베소서 6 장 1 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 해 둘 때 종합적으로 성경에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교훈)은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이 성경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모든 일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주님 밖에서 하시는 말씀들조차도 다 순종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 속에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이것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불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무턱대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20 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약 34 년전에,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후배 한 명이 성적이 좋지 않아 고민하는 것 같길래 그녀에게 그저 최선을 다하고 점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고 권면했었습니다. 그 때 그 후배가 저에게 한 말의 내용은 부모님이 안 좋아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 후배는 학교 점수가 안 좋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도 많은 자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부모님을 사랑하기에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충돌(conflict)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충돌이 마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마 26:39, 현대인의 성경)라고 간구하신 것처럼 ‘내 부모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하고 간구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은 귀하지만 그 순종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과 충돌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주님께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은 부모님을 순종함에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 장 1 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자녀들은 만일 부모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과 불일치한다면 그것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 장 19 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현대인의 성경)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인지 자녀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당연히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골 3:20, 현대인의 성경).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은 일입니다”(엡 6:1, 현대인의 성경).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골 3:20)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잠언 23 장 15-16 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이,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현대인의 성경) “내 아들이, 네가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기쁠 것이며 네가 옳은 말을 하면 내가 정말 즐거워할 것이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자녀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녀요 입술이 정직을 말(옳은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19, 22 절). 그 부모님의 말씀이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는 겸손히 듣습니다(25:12). 그리고 그는 더욱더 지혜를 얻어 자기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23:19). 결국 그는 자기 자신을 방탕의 길로 향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20 절).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자기 부모님이 늙었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22 절). 그러나 부모님이 늙었다고 업신여기는 자녀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11:12). 즉,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녀가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3:13).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에베소서 6 장 1 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녀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기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지혜 없는 미련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만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도 업신여겨서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23:9).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14:21).

###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 장 21 절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가 이렇게 하면 자녀들은 교회 떠납니다”라는 기사를 보면 “예배에 참석하는 신도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앙과 멀어져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을 붙잡아야 하는 게 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 가속화되는 교회의 고령화 현상을 중단하고,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갈 미래 세대를 교회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 점에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교회에서 떠나지 않도록 신앙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자세가 요구된다. 반대로, 부모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신앙적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6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 가끔씩 교회 나가기, (2) 교회에 관해 불평하기, (3) 자녀들을 청소년 문화에 한정시키기, (4) 중요한 질문들 무시하기, (5) 교회 자주 바꾸기, (6) 복음을 하찮게 취급하기.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다. 그런데 부모가 복음을 하찮게 여기거나 이를 삶의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로 밀어낼 때,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로부터 단절된다. 교회가 삶에서 복음 중심적인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출석해야 하는 곳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 또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자신들 인생의 가장자리로 밀어내게 될 것이다”(인터넷).

오늘 본문 골로새서 3 장 21 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한다면,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과연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함께 느끼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든 이유는 아무래도 제 자신도 제 자녀들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함께 느끼고 있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덜런, 예리, 예은이의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는 것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아는 것은 저희 집 아이들은 제가 제 아내와 관계에서 저희 부부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제 자녀들의 감정을 슬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그들에게 언행 일치의 삶을 살지 않고 또한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그들의 감정을 화가 나게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제가 저희 집 세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한 일들이 얼마나 수없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들의 감정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 장 4 절 상반절에서도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현대인의 성경)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말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부모들은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극하지 말라, 격분시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1) 욕박지르므로, 화를 내므로, (2) 자극적인 말을 하므로, (3) 잘못된 징계, (4) 부모가 인격적으로 형편없이 살면서 자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5)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여 무조건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강압적으로 다루거나 자녀를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피종진). The Bible Exposition 주석을 보면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언제 화나게 하며 낙심시키는지 6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 말을 한 다음에 행동은 달리 하는 것, (2) 항상 자녀들을 원망하면서 절대로 칭찬을 안 하는 것, (3) 일관성이 없고 징계에 있어서 불공평 하는 것, (4) 집 안에서 편애를 하는 것, (5) 약속을 한 후 지키지 않는 것, (6) 자녀들에게 있어선 아주 중요한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 제 생각에는 이것들 외에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그들은 노여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자신들의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으므로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다가 병들던지 하면 충분히 자녀들은 아버지를 향하여 분하게 여길 수(resentment)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충분히 낙심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구요?”라는 제목 아래 기사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그 기사의 권면은 “부모는 자녀가 낙심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언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것인가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사를 쓴 저자의 말로는 그가 많은 사람들의 대답을 들었는데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형제 자매와 비교할 때, 딸이라는 이유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당했을 때,

부모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학업에 지나친 압박을 가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나 가고 싶은 길을 못 가고 부모의 요구를 억지로 따라야만 했을 때, 장남이나 장녀라는 이유로 큰 부담을 안겨줄 때 화가 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부모가 싸울 때’였다고 합니다. “자녀가 가장 크게 상처받고 화가 나고 낙심되는 이유는 바로 부부싸움이었다. 자녀는 부모가 싸울 때 상처받는다”(인터넷).

에베소서 6 장 4 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강건하게 하며 그들이 성숙할 때까지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하라’는 단어는 에베소서 5 장 29 절에 나와있는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버지는 가정에 영적 지도자로서 아내를 양육 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1)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양”으로(in the training of the Lord) 양육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주님께 징계를 받아 고치심을 받은 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2 장 6 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지혜로운 길 또는 경건한 삶의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저는 특히 제 자녀들과 교회 자녀들에게 3 가지를 가르치려고 부족하나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 바른 가치관(Right Value), (2) 뚜렷한 목적관(Clear Purpose) 그리고 (3) 영원한 인생관(Eternal View of Life)입니다.

(2)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로(in the instruction of the Lord)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충고하며 경고하며 또한 권고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훈계”해야 합니까? Tedd Tripp 은 그의 책 “Shepherding a Child’s Heart”에서 2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Rich, full communication(대화를 충분히 하는 것)과 The rod(회초리). 주님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말은 회초리보다 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우리가 자녀들과 할 것입니까? 3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자녀들과 얘기해야 합니다(Don’t talk to your children; rather, talk with them). (2)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만을 표현하지 말고(잠 18:13) 자녀로 하여금 그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허락해야 합니다(Don't just express your thoughts only; rather, learn how to draw out their thoughts). (3)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Focus on understanding your children). 자녀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그들의 감정들을 터뜨리는지 이해하는데 힘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세워주시되(참고: 마 16:18) 우리 모든 가정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8-21 절 말씀 중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는 가정”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4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현대인의 성경)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골 3:18). (2)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현대인의 성경)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마십시오”](19 절). (3)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현대인의 성경)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20 절). (4)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현대인의 성경) “부모들은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려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21 절).

## 2023 년 나의 가정을 뒤돌아볼 때 ...

1.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와 제 아내와 세 자녀들이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2. 비록 저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 아내와 세 자녀들을 제대로(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주셨습니다.
3. 저는 제 아내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세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한 해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저에게 함께하셔서 오늘까지 부족하나마 가정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4. 비록 저는 제 아내의 남편될 자격도 없고, 제 세 자녀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도 없지만 저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난줄 믿습니다(고후 3:5, 새 번역).
5.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딜런을 부르시사 주님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기름부어 세우시고자 신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딜런으로 하여금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대학부를 섬기는 전도사로 세워주셨습니다.
6. 또한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딜런에게 제시카를 배필로 짝지어주셔서 금년 2 월에 상견례(저희 부부가 제시카의 어머니를 만남)를 했고 또한 12 월에는 딜런이 제시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 때 결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7.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예리를 멀리 일본으로 1 년 선교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인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엿보게 하시니 참 감사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10 월에 일본까지 가서 예리랑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딸 예리와 저희 부부가 귀한 추억을 만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8. 참으로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 예은이에게 선교(mission)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일에 사랑하는 아내와 예은이와 함께 멀리 살고 계시는 장모님과 처남을 만나서 자동차로 운전하고 갈 때에 차 안에서 예은이가 저에게 자기는 결혼보다 선교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예은이에게 선교에 대한 확신(conviction)을 주셨습니다. 참 감사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예은이의 삶 속에 금년 한해 놀랍게 역사하시사 그녀의 영성과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엿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 현재 대학교 기독교 동아리에서 회장으로 섬기는 예은이를 생각할 때 앞으로 주님께서 그녀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9. 참으로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제 아내가 금년 한 해도 아무 사고 없이 주님 안에서 마음껏 달리기(마라톤)를 하고 하이킹(hiking)도 하고 캠핑(camping)도 하고 심지어 암벽등반(rock climbing)까지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몸이 아파 직장도 못 나가고 오늘 교회도 못 오고 내일 2024년 전 가족 신년 모임에도 참석을 못하지만 그것도 감사한 것은 이렇게 아내가 꼭 설 수 있어서입니다. 풀 타임으로 직장생활을 하라 가정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라 또한 그 모든 activities를 하라 쉽지 않았을텐데 주님께서 아내에게 건강을 주시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욱더 건강케 하시니 그저 저는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 감사드립니다.
10. 금년 한 해도 주님께서 저에게 큰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개인적인 말씀 묵상 나눔과 인터넷 사역뿐만 아니라[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요 6:1-15)을 성취해 나아가셨음],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바(마 16:18) 저로 하여금 승리장로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과 저로 하여금 가정 사역을 감당케 하시사 오늘까지 오게하신 것이 참 감사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사역을 금년 한해도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결론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각 가정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방망이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식구들의 완강한 마음을 부서트려 주시고, 불과 같은 그 말씀으로 냉랭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며,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양심을 계속해서 찢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인식하며 인정하며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가정의 가장인 남편 및 아버지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께 가정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부부 갈등에서 범한 우리 남편들의 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범한 우리 아버지들의 죄들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남편들에게 주님 안에서 복종하지 않는 아내들의 죄들과 자녀를 하나님의 사랑하기를 거부하기 인간적인 사랑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사랑하는 어머니들의 죄들을 회개케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주님 안에서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의 죄들과 형제, 자매들과 관계에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지 않는 모든 죄를 성령님께서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복하고 회개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식구끼리 서로 용서할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더 이상 마음 속에 상처와 아픔과 쓰라림 등으로 서로를 미워하지 말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합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와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띠로 묶어서 가족의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더 이상 화평을 깨는 자들이 되기를 거부케 하시고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요 가정의 화평을 지키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실뿐만 아니라 서로와 화목케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케하는 직책을 묵묵히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심지어 성령님께서서는 부부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라도 우리 부부들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서로를 좀 더 알게 하여주시사 서로의 다른 점들을 인정하고 극복하되 오히려 그 다른 점들로 하여금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케 하시사 부부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사랑으로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갈 수 있길 기원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큰 폭풍이 휘몰아쳐서 가정이란 배가 침몰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큰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입니다”하고 고백한 요나 선지자처럼 우리도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와 우리 가정을 원상태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우리 스스로는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사 심지어 가정의 위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부부 관계의 위기이든 자녀의 위기이든 간에 주님께서 한결 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회복의 사랑을 깊고 크게 경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스러운 감정들과 상처들과 아픔들 등을 회복시켜 주시되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모든 안 좋은 영향이나 상처와 아픔 등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사 참된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게 주신 회복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시사 비록 지금 우리 가정들이 잠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가정을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가정에 불어와 우리 모든 식구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가정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 가정을 수 없이 공격해 오고 있는 간교한 사탄과 싸워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비록 사탄은 우리 가정을 무너트리려고 무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사 더욱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위에 우리 가정을 견고히 세워주시사 어떠한 유혹의 바람 속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견고하고 튼튼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각 가정을 주님 중심된 변화받는 경건한 가정을 세워주시사 증인 공동체로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들어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정의 가장인 우리 남편이요 아버지부터 가정 사역에 헌신케 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양육케 하여 주시되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주님 중심된 부부로 더욱더 세움을 받는 성장하는 부부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를 신뢰케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부부가 자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부부가 부모로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자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따라 자녀를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떠나보냄을 받는 그 자녀는 믿음으로 부모님을 떠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으로 세움받아 쓰임 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가정의 불어와 부흥의 불길이 훤히 타오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하고 부르짖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주님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강력한 성령님의 바람을 불게하시사 부흥케 하옵소서’하고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황무함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고쳐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 가정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님의 강력한 불이 임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각 가정에 넘치도록 흐르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이제 불어와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날을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바람이 우리 각 가정에 불어와 진정한 말씀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복종하는 모든 식구가 되어 우리 모두다 함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케 하여 주시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천국 이중 계명을 순종하는 우리 가정으로 세워주시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